제주 성읍민속마을 관아 2차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旌義縣 官衙址

2011

재단법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목 차

contents

Ⅰ. 머리말 11

Ⅱ. 遺蹟의 位置와 環境 17

1. 地理的 位置와 環境 19
2. 考古學的 背景 21
3. 歷史的 背景 27

Ⅲ. 調査方法 및 層位 39

1. 調査方法 41
2. 層位 42

Ⅳ. 調査內容 45

1. 朝鮮時代 建物址 47
2. 敷石施設 68
3. 積石施設 69
4. 瓦積施設 71
5. 近代 建物址 84
6. 地表收拾 89

Ⅴ. 考察 125

Ⅵ. 맺음말 155

附錄 159
圖版 171
報告書 抄錄 236

contents

도면목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도 _ 20
도면 2. 조사대상지 주변 토양도 _ 23
도면 3. 조사대상지 일대 토양 토성도 _ 23
도면 4.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 _ 24
도면 5. 조사대상지 유구배치도 _ 48
도면 6. 1호 건물지 평단면도 _ 49
도면 7. 1호 건물지 출토유물(1) _ 50
도면 8. 1호 건물지 출토유물(2) _ 51
도면 9. 2호 건물지 평단면도 _ 53
도면 10. 2호 건물지 출토유물(1) _ 56
도면 11. 2호 건물지 출토유물(2) _ 57
도면 12. 2호 건물지 출토유물(3) _ 59
도면 13. 2호 건물지 출토유물(4) _ 60
도면 14. 3호 건물지 평단면도 _ 61
도면 15. 3호 건물지 출토유물 _ 65
도면 16. 4호 건물지 평단면도 _ 67
도면 17. 5호 건물지 평단면도 _ 68
도면 18. 부석시설 평단면도 _ 69
도면 19. 적석시설 평단면도 _ 70
도면 20. 1호 와적시설 평단면도 _ 71
도면 21. 1호 와적시설 출토유물(1) _ 72
도면 22. 1호 와적시설 출토유물(2) _ 73
도면 23. 1호 와적시설 출토유물(3) _ 75
도면 24. 1호 와적시설 출토유물(4) _ 76
도면 25. 1호 와적시설 출토유물(5) _ 77
도면 26. 1호 와적시설 출토유물(6) _ 78
도면 27. 2호 와적시설 평단면도 _ 79
도면 28. 2호 와적시설 출토유물(1) _ 80
도면 29. 2호 와적시설 출토유물(2) _ 81
도면 30. 2호 와적시설 출토유물(3) _ 82
도면 31. 2호 와적시설 출토유물(4) _ 83
도면 32. 1호 건물지 평단면도 _ 85
도면 33. 1호 건물지 출토유물 _ 86
도면 34. 2호 건물지 평단면도 _ 87
도면 35. 2호 건물지 출토유물 _ 87
도면 36. 3호 건물지 평단면도 _ 88
도면 37. 지표 수습유물(1) _ 92
도면 38. 지표 수습유물(2) _ 96
도면 39. 지표 수습유물(3) _ 100
도면 40. 지표 수습유물(4) _ 102
도면 41. 지표 수습유물(5) _ 104
도면 42. 지표 수습유물(6) _ 106
도면 43. 지표 수습유물(7) _ 108
도면 44. 지표 수습유물(8) _ 110
도면 45. 지표 수습유물(9) _ 112
도면 46. 지표 수습유물(10) _ 113
도면 47. 지표 수습유물(11) _ 115
도면 48. 지표 수습유물(12) _ 116
도면 49. 지표 수습유물(13) _ 118
도면 50. 지표 수습유물(14) _ 120
도면 51. 지표 수습유물(15) _ 122
도면 52. 지표 수습유물(16) _ 123
도면 53. 旌義縣 官衙址 配置圖(추정 모식도) _ 129
도면 54. 旌義縣 官衙址 配置圖 _ 131

삽도목차

삽도 1. 위성사진 _ 22
삽도 2. 위성지형도 _ 22
삽도 3.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난 정의현 5면(旌義縣五面), 영주산(瀛洲山), 읍외촌(邑外村), 남산망(南山望) _ 27
삽도 4. 「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에 나타난 정의읍성(旌義邑城) 안에 문묘(文廟), 아사(衙舍), 객사(客舍), 창(倉)과 영주산(瀛洲山), 성읍리(城邑里), 여단(厲壇) 및 사직단(社稷壇) _ 28

삽도 5. 1919년에 제작한 「제주지도」에 나타난 정의(旌義), 성읍ᄆᆞ을[城邑里], 성밧골[城外洞] _ 29
삽도 6. 1974~1975년 복원 전에 성읍리 일관헌과 팽나무 _ 31
삽도 7. 『耽羅巡歷圖』「旌義講射」에 나타난 정의현의 관아 건물 _ 33
삽도 8. 『增補耽羅誌』「旌義縣-舘宇」에 나타난 정의현의 관청 이름과 위치 _ 34
삽도 9. 정의현 관아배치도 _ 36
삽도 10. 일관헌 후면 토층단면도 _ 42
삽도 11. 일관헌 정면 토층단면도 _ 43
삽도 12. 陶磁器의 器種別 分類 _ 139
삽도 13. 紋樣瓦의 分類 _ 149
삽도 14. 정의읍성 주변의 산세도 _ 163
삽도 15. 『耽羅巡歷圖』「旌義講射」에 나타난 旌義縣 東軒[衙]의 坐向 _ 166
삽도 16. 정의읍성 용맥의 흐름 _ 168
삽도 17. 정의현 객사와 동헌 배치도 _ 169

표목차

表1) 新石器時代 周邊遺蹟 現況 _ 21
表2) 靑銅器時代 周邊遺蹟 現況 _ 25
表3) 耽羅成立期의 周邊遺蹟 現況 _ 25
表4) 耽羅時代의 周邊遺蹟 現況 _ 26
表5) 朝鮮時代의 周邊遺蹟 現況 _ 26
표6) 『增補耽羅誌』「旌義縣 - 樓亭」에 나타난 정의현의 누정 이름과 위치 _ 34
표7) 『旌義縣誌』「旌義縣 - 公廨」에 나타난 공해 이름과 위치 _ 35
표8) 『耽羅誌草本』「旌義縣 - 公廨」에 나타난 공해 이름과 위치 _ 35
표9) 『耽羅誌』「旌義縣-公廨」에 공해 이름과 위치 _ 37
表10) 朝鮮時代 建物址 現況 _ 127
表11) 地方 縣官衙의 規模 _ 132
表12) 文獻資料로 살펴 본 旌義邑城內 東軒 名稱의 變遷 _ 134
表13) 文獻資料로 살펴 본 東軒 지붕형태의 變遷 _ 134
表14) 種類別 出土樣相 _ 138
表15) 陶磁器의 器種別 出土樣相 _ 139
表16) 粉靑沙器의 文樣 分類 _ 140
表17) 白磁의 文樣 分類 _ 140
表18) 陶磁器의 製作과 特徵 _ 141
表19) 銘文瓦의 分類 _ 144
表20) 銘文瓦의 種類別 特徵 _ 145
表21) 旌義縣 客舍 및 內衙址 出土 銘文瓦 _ 148
表22) 紋樣結合 銘文瓦 _ 149

contents

表23) 紋樣瓦의 分類 _ 150
表24) 紋樣瓦의 分布圖 _ 151
표25)『탐라지』「정의현-궁실」조에 나타난 궁실 이름과 위치 _ 166
표26)『증보탐라지』「정의현 - 관우」조에 나타난 정의현의 관청 이름과 위치 _ 167

도판목차

도판 1. ①~② 조사대상지 원경(공중촬영) _ 173
도판 2. ①~② 조사대상지 전경(공중촬영) _ 174
도판 3. ①~② 조사대상지 근경(공중촬영) _ 175
도판 4. ①~② 조사대상지 근경(공중촬영) _ 176
도판 5. ① 조선시대 1호 건물지 전경(동에서) ② 전경(남에서) _ 177
도판 6. ① 조선시대 1호 건물지 내부 적석상태(북에서) ②~③ 적석상태 세부 ④~⑤ 적심석 노출상태 _ 178
도판 7. ①~③ 적심석 노출상태 ④~⑥ 적심석 세부 ⑦~⑧ 1호 · 2호 건물지 중복상태 _ 179
도판 8. 조선시대 1호 건물지 출토유물 _ 180
도판 9. ① 조선시대 2호 건물지 전경(서에서) ② 전경(남에서) _ 181
도판 10. ① 조선시대 2호 건물지 동쪽 기단 노출상태(남에서) ② (북에서) ③ 서쪽기단 노출상태(북에서) ④ (남에서) _ 182
도판 11. ① 조선시대 2호 건물지 남서쪽 기단 축조상태(동에서) ② 남서쪽 기단 세부 ③ 동쪽 기단 세부 ④ 남쪽 기단 세부 ⑤ 서쪽 기단 노출상태 ⑥~⑧ 서쪽 기단 세부 _ 183
도판 12. ①~② 조선시대 2호 건물지 서쪽 기단 축조상태 ③ 교란부 유물 출토상태 ④~⑧ 유물 출토상태 _ 184
도판 13. ① 조선시대 2호 건물지 조사완료 후 전경(동에서) ② 전경(남에서) _ 185
도판 14. 조선시대 2호 건물지 출토유물(1) _ 186
도판 15. 조선시대 2호 건물지 출토유물(2) _ 187
도판 16. 조선시대 2호 건물지 출토유물(3) _ 188
도판 17. ① 조선시대 3호 건물지 전경(북에서) ② 전경(서에서) _ 189
도판 18. ①~④ 조선시대 3호 건물지 북쪽 기단 노출상태 ⑤~⑥ 적심석 노출상태 ⑦~⑧ 적심석 세부 _ 190
도판 19. 조선시대 3호 건물지 출토유물(1) _ 191
도판 20. 조선시대 3호 건물지 출토유물(2) _ 192
도판 21. 조선시대 3호 건물지 출토유물(3) _ 193
도판 22. ① 조선시대 4호 건물지 전경(남에서) ②~④ 기단 노출상태 ⑤ 4호 · 5호 건물지 중복상태 _ 194
도판 23. ① 조선시대 5호 건물지 전경(동에서) ②~⑤ 기단 노출상태 _ 195
도판 24. ①~④ 조선시대 5호 건물지 기단 노출상태 ⑤ 4호 · 5호 조사완료 후 전경(남에서) _ 196
도판 25. ① 부석시설 전경(북에서) ②~③ 노출상태 ④~⑤ 부석시설 세부 _ 197
도판 26. ① 적석시설 전경(남에서) ②전경(서에서) _ 198
도판 27. ① 적석시설 노출상태 ②~⑤ 적석시설 세부 _ 199
도판 28. ① 1호 · 2호 와적시설 전경 ② 1호 와적시설 전경(북에서) ③~⑤ 세부 모습 _ 200

contents

도판 29. ①~⑧ 1호 와적시설 유물 출토모습 _ 201
도판 30. 1호 와적시설 출토유물(1) _ 202
도판 31. 1호 와적시설 출토유물(2) _ 203
도판 32. 1호 와적시설 출토유물(3) _ 204
도판 33. ① 2호 와적시설 전경(북에서) ②~⑥ 세부모습 ⑦~⑧ 유물 출토모습 _ 205
도판 34. 2호 와적시설 출토유물(1) _ 206
도판 35. 2호 와적시설 출토유물(2) _ 207
도판 36. ① 1호 · 2호 근대 건물지 전경(북에서) ② 1호 근대 건물지 전경(서에서) _ 208
도판 37. ①~③ 1호 근대 건물지 기단 축조상태 ④~⑥ 기단석렬 세부 ⑦ 초석 세부 _ 209
도판 38. 1호 근대 건물지 출토유물 _ 210
도판 39. ① 2호 근대 건물지 전경(남에서) ② 전경(서에서) ③~④ 기단석렬 축조상태 ⑤ 유물 출토 상태 _ 211
도판 40. ①~④ 2호 근대 건물지 기단석렬 세부 ⑤ 출토유물 _ 212
도판 41. ① 3호 근대 건물지 전경(서에서) ② 전경(남에서) ③~④ 기단석렬 노출상태 _ 213
도판 42. ①~④ 3호 근대 건물지 기단석렬 노출상태 ⑤~⑧ 적심석 노출상태 _ 214
도판 43. 지표 수습유물(1) _ 215
도판 44. 지표 수습유물(2) _ 216
도판 45. 지표 수습유물(3) _ 217
도판 46. 지표 수습유물(4) _ 218
도판 47. 지표 수습유물(5) _ 219
도판 48. 지표 수습유물(6) _ 220
도판 49. 지표 수습유물(7) _ 221
도판 50. 지표 수습유물(8) _ 222
도판 51. 지표 수습유물(9) _ 223
도판 52. 지표 수습유물(10) _ 224
도판 53. 지표 수습유물(11) _ 225
도판 54. 지표 수습유물(12) _ 226
도판 55. 지표 수습유물(13) _ 227
도판 56. 지표 수습유물(14) _ 228
도판 57. 지표 수습유물(15) _ 229
도판 58. 지표 수습유물(16) _ 230
도판 59. 지표 수습유물(17) _ 231
도판 60. 지표 수습유물(18) _ 232
도판 61. 지표 수습유물(19) _ 233
도판 62. 지표 수습유물(20) _ 234
도판 63. 지표 수습유물(21) _ 235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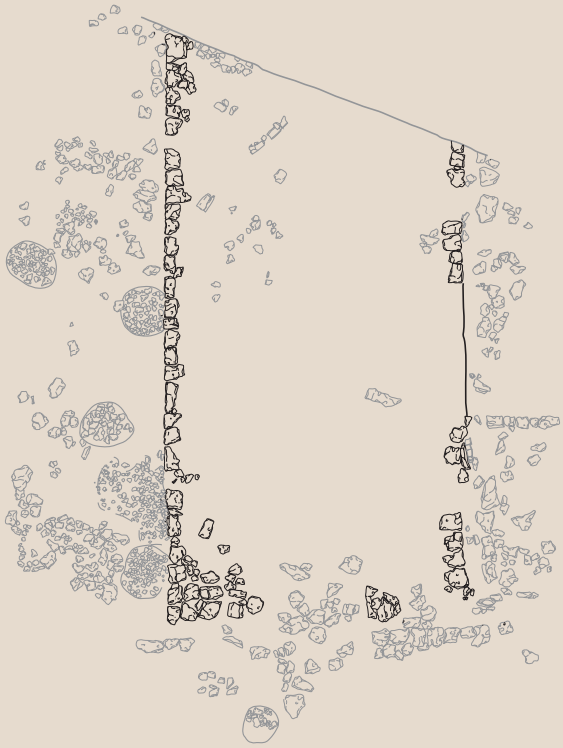
1. 본 보고서 도면의 방향표시는 자북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유구의 토층도 및 단면도에 표시된 수치는 해발고도를 나타낸 것이다.
3. 도면의 축소비는 유구는 1/60, 유물은 도자기류 1/3, 기와류 1/4, 기타유물 1/2을 원칙으로 하였다.



Ⅰ. 머리말







Ⅰ. 머리말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旌義縣 官衙址는 濟州特別自治道 西歸浦市 表善面 城邑1里 809-3번지에 위치한다. 성읍리는 川尾川[1]을 중심으로 新石器時代 遺物散布址가 폭넓게 分布하고 있는 지역으로 同時期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2].

旌義縣 官衙址가 위치한 성읍민속마을은 國家指定 重要民俗資料 第188號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성읍민속마을내 정의현 관아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당대 官衙建物의 規模와 性格을 파악하고 차후 복원 및 정비사업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원에 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2001년 南濟州郡(당시 행정구역명, 현재는 濟州特別自治道 西歸浦市로 統合됨)에서는 城邑里 旌義縣 內衙址에 대한 발굴조사를 連次的으로 실시하여 向後 復原事業과 관련된 자료로 삼고자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1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3]. 1차 조사결과 기존의 조사구역과 함께 日觀軒 및 주변에 대한 조사지역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도위원회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후 행정구역이 통합 改編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自治道에서는 상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부지의 매입과 현대건물의 철거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병행하여 旌義縣 官衙址에 대한 2차 발굴조사를 본 연구원에 의뢰함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허가 제 2008-594호)를 득한 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발굴조사 대상지는 1423년 旌義邑城의 移轉築城과 함께 읍성내 官衙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읍성내의 中心 官廳인 東軒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당시 관아배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발굴조사 대상면적은 성읍1리 809-3번지를 포함한 3필지인 3,333㎡(약 1010坪)에 해당한다. 정의현 관아지 일대는 내아지에 대한 1차 조사후 현 일관헌 주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금번 발굴조사를 통해 동시기 정의현 관아의 규모와 위치 및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의현 관아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朝鮮時代 建物址 5棟, 敷石施設 1基, 積石施設 1基, 瓦積施設 2基와 함께 近代建物址 3棟이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건물지는 同伴出土된 遺物을 살펴보면 대체로 15~17세기대 건물지로 추정된다.

한편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陶磁器類와 瓦類로 크게 구분된다. 먼저 도자기류는 15~16세기경의 粉靑沙器, 朝鮮靑磁와 함께 16~17세기대에 해당하는 白磁類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기와류는 주로 魚骨紋系가 施文된 평기와의 점유율이 높고 滄海波紋係 기와가 확인된다. 또한 線紋과 圓紋이 複合的으로 시문된 경우도 있지만 無紋樣이 다수를 차지한다. 출토된 기와중에는 銘文瓦가 일부 확인되는데 '癸丑開局' 銘과 '於道山造' 銘이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靑銅製 蓋, 土球, '平五二〇(平二)' 銘 銅錢 등이 수습되

1) 川尾川은 조천읍 橋來里와 구좌읍 大川洞을 지나 표선면 城邑1·2리를 거쳐 성산읍 新豊里와 표선면 下川里, 성산읍 新川里를 따라 흘러 바다로 연결된다. 또한 천미천은 본래 介路川(盖老川)이라 했는데 평소에는 乾川이지만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거나 湧泉水가 위치하고 있어 遺蹟形成의 유리한 條件을 갖추고 있다(강만생, 2000,「천미천의 역사」,『제주생명의 원류/하천과 계곡-천미천』, 한라일보사).

2)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a,『제주 성읍리 유적』.

3)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b,『성읍민속마을 정의현 내아지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었다.

정의현 관아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2008년 12월 17일~2009년 2월 18일(실조사일수 3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당시의 조사단구성은 다음과 같다.

○ 조 사 단 장 : 高才元(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실장)
○ 지 도 위 원 : 羅善華(문화재청 문화재위원)
高昌錫(前 제주대학교 박물관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孫明助(국립제주박물관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 책임조사원 : 高才元(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실장)
○ 조 사 원 : 金慶柱(제주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부장)
○ 조사보조원 : 玄承龍(제주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부 팀장)
○ 보 조 원 : 林孟柱(제주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부 연구원)

旌義縣 官衙址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는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연구원을 중심으로 분담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遺構原稿는 당시 현장 참여 연구원들이 基礎資料를 작성하고 이를 김경주가 전체적으로 체제를 통일하여 最終原稿를 작성하였다. 遺物記述은 담당자를 중심으로 각각 분담하여 작성하였고 銘文瓦의 銘文判讀은 강창룡에 의해 이루어졌다. 1차 완성된 원고는 김경주가 最終的으로 修正補完하였다. 금번 발굴조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각각의 분담업무 참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체 편집기획 및 총괄 : 김경주
○ 유물 정리・복원 및 실측 : 현승룡, 임맹주
○ 유구 및 유물 일러스트 : 이정하(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유물사진 촬영 : 김동한(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도면작성 : 박재현(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김동한
○ 원고작성
Ⅰ. 머리말 : 김경주
Ⅱ. 遺蹟의 位置와 環境 : 김경주, 강창룡(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Ⅲ. 調査方法과 層位 : 김경주
Ⅳ. 調査內容
遺構 : 김경주
遺物 : 陶磁器(현승룡), 瓦(김경주・김동한), 其他(김경주)
Ⅴ. 考察 : 김경주, 현승룡, 김동한
Ⅵ. 맺음말 : 김경주
부 록 : 강창룡
○ 편집 : 김경주
○ 전산편집 : 고은경(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교정 : 김경주, 강창룡
○ 감수 : 고재원

발굴조사 결과 15~17세기에 해당하는 旌義縣 官衙의 規模와 性格을 일부 확인하는 契機가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복원된 日觀軒의 하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의현 관아의 東軒(近民軒)으로 추정되는 建物址의 全體的인 規模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차후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同時期 官衙配置와 建物址의 構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도위원으로 참석해서 많은 조언을 주신 고창석 위원님, 나선화 위원님과 손명조 관장님께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도자기에 대한 검토와 분류에 많은 도움을 주신 현문필선생님(제주문화예술재단)께도 감사드린다. 이외에도 발굴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김태곤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표시한다. 폭설이 내렸던 한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발굴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에 최선을 다해준 조사단원과 보고서작성에 참여했던 모든 선생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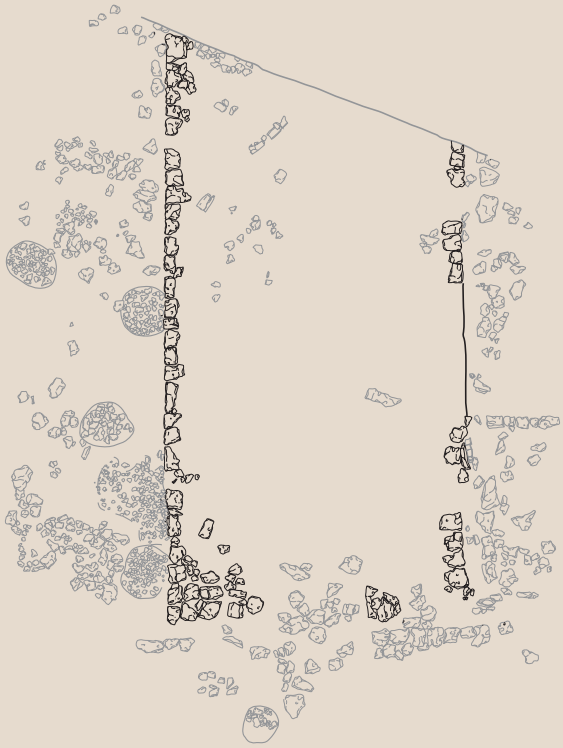
(김경주)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II. 遺蹟의 位置와 環境

1. 地理的 位置와 環境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 809-3번지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동경 126° 48′00″, 북위 33° 23′00″에 해당하며 해안에서는 직선거리로 대략 7㎞ 가량 떨어져 있다. 본 조사대상지는 旌義邑城의 북문에서 서쪽으로 약 30m 정도 간격을 두고 위치하고 있다.

성읍리 일대는 해발 135m 내외의 중산간지역에 해당하며 북쪽으로는 영주산(瀛洲山, 해발 326m)이 자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읍마을의 서편으로는 모지오름(해발 305m)과 장자오름(해발 216m)이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동편으로는 남산봉(南山峰, 해발 173m)과 본지오름(해발 147m)이 마을을 감싸안듯이 환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성읍리 마을은 주변의 오름으로 둘러싸인 분지상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범위는 대략 3~4㎞ 정도의 범위에 해당한다. 반면에 영주산의 북서쪽으로는 건천인 川尾川이 남동쪽으로 곡류하다 마을 동편의 유로를 따라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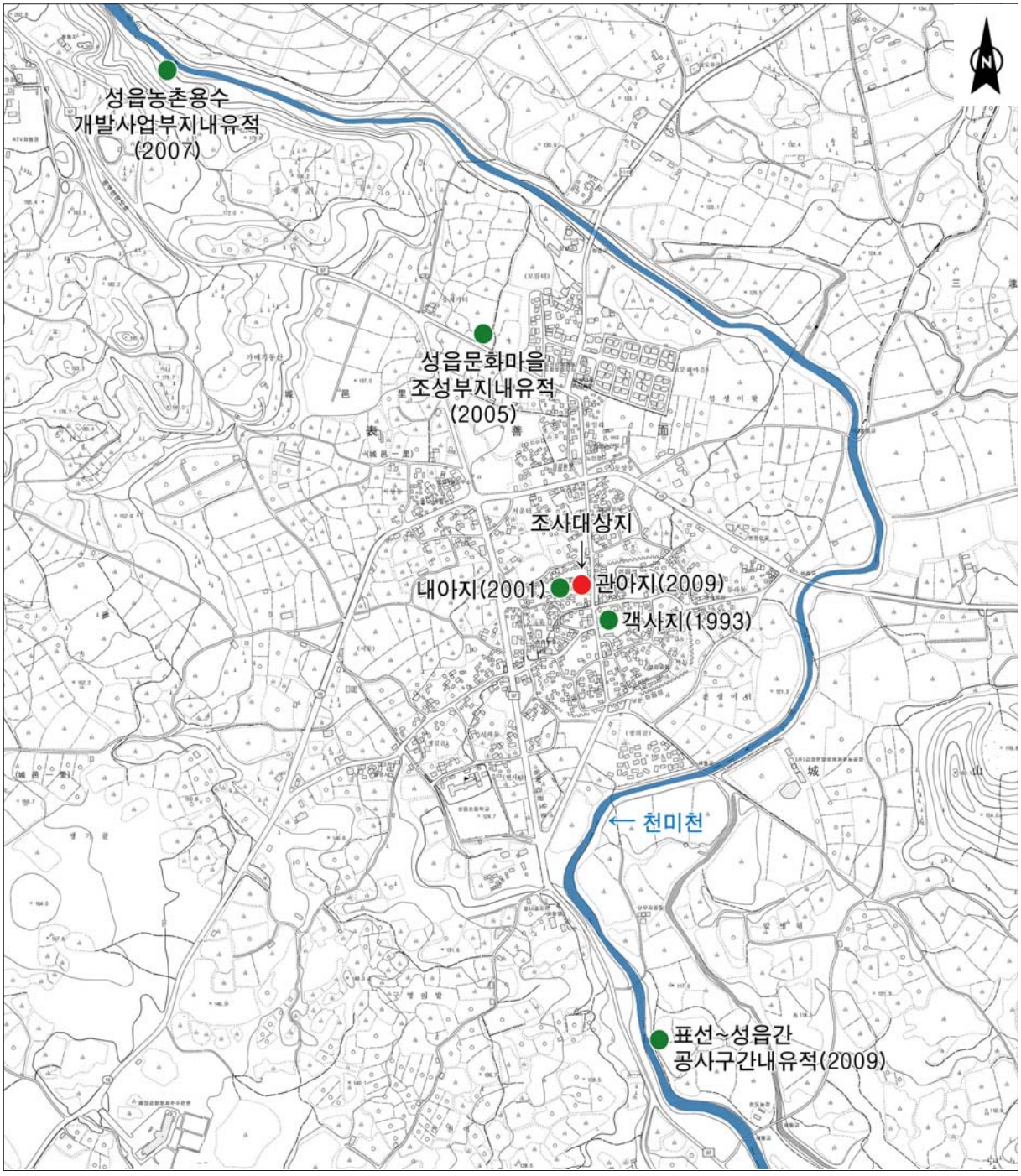
성읍마을은 하천 범람원 퇴적층의 위치와 하천의 형태 등을 통해 마을의 형성을 살펴볼 수가 있다. 즉 남산봉에 의해 가로막혀 휘돌아 가면서 성읍리 하류의 두 갈래 하천 형태를 보면 천미천의 유로는 현재와는 달리 과거에는 보다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모지오름의 용암암설류에 의해 황통지 상류 하천이 변경되면서 범람원에 해당하는 성읍마을은 자연히 고립된 평탄면으로 남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하천유로의 변경과 범람원으로 인해 분리된 지역에 자연히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황통지 목을 넘은 천미천은 성읍마을을 휘돌아 해안까지 거의 직선상으로 흘러간다[4]. 성읍마을에서부터 하천하류인 표선면 하천리까지는 상습적인 하천범람에 의한 피해를 반영하듯 최근까지 대대적인 하상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지 일대의 토양상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평대-행원-민악토양군에 해당한다. 이 토양군은 용암류대지, 배수 양호하며 흑색인 미사식양질토로 자갈 혹은 둥근 바위가 있는 토양이며 주로 제주도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토양군은 제주도 전체면적인 181,997ha 중에서 21.63%인 39,361ha에 해당한다. 토양군별 분포상태를 보면 평대통[5]은 9,474ha(24.06%)이고 행원통[6]은 4,585ha(11.64%), 민악통[7]은 4,353ha(11.06%)이다. 특히 조사대상지의 구체적인 토양상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제주 미사질양토(2~7% 경사)와 중엄 미사질양토(7~15% 경사)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 미사질양토는 3,554ha(1.95%)이고 중엄 미사질양토는 3,514ha(1.93%)에 해당한다[8].

조사대상지 주변으로는 특별한 용천수가 확인되지 않지만 정의읍성의 남문 쪽으로 담수인 관가물(원님

4) 강순석, 2000, 「천미천의 지형 지질」, 『제주생명의 원류/하천과 계곡-천미천』, 108쪽, 한라일보사.
5) 평대통은 배수가 양호하고 표토로부터 흑색층의 두께는 20~30㎝ 범위이다.
6) 행원통은 전층을 통하여 50% 이상의 분석이 있는 양질계 토양으로 배수가 양호하며 초지로서 토지이용적성 등급은 4분석이다.
7) 민악통은 토층내에 돌 혹은 둥근 바위가 산재되어 있으며 배수 양호한 미사식양질토이고 초지의 토지이용적성 등급은 4석력이다.
8)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1976, 『정밀토양도-제주도』.

물)이 위치하고 있다[9]. 또한 성읍리와 다소 떨어진 영주산 근처에는 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정소암(鼎沼岩)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천미천이 주변으로 휘감아 곡류하고 있지만 건천으로 상시적인 음용수를 획득하기에는 불리하다. 하지만 성읍리 주변으로는 천미천을 따라 속칭 '옆구릿도' · '녹남도' · '산냇도' · '가죽물도' · '앞냇도' · '남은 샛냇물' · '올리니못' · '시거니못' 등 담수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10] 奉天水 '황통지'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 읍성안의 음용수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11].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도(국토지리정보원 1/5,000 참조)

9)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 1999, 『제주의 물, 용천수』, 99쪽, 제주도.

현재 조사대상지는 현성내의 객사 북서쪽에 해당하며 대체로 해발 125m내외의 저구릉 최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현성 내부에서 보면 가장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반대인 남문터(120m) 주변과는 대략 5m 가량 고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경주)

2. 考古學的 環境

조사대상지인 성읍리 일대는 1993년도와 2001년도에 정의읍성과 관련하여 각각 旌義縣 客舍址와 內衙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조사결과 정의읍성내 건물배치 현황이 개략적이나마 파악되었다.

최근에는 성읍리 일대에 대한 각종 개발공사가 진행되면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다수 확인되어 이 일대에 동시기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유적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정케 하고 있다. 또한 성읍리 마을의 북동쪽의 수산리와 연결되는 벌라리왓 일대에서는 탐라시대 생활유적이 확인되어 신석기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생활했던 곳임을 알 수가 있다.

1) 新石器時代[12)]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성읍리의 천미천 일대를 비롯하여 동쪽으로 수산리, 신천리, 온평리 유적 등이 위치하고 있다. 성읍리 일대는 천미천을 따라 유물산포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 이 일대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다수 조사되면서 제주지역에서 가장 넓은 유물산포 범위를 보이고 있다. 성읍리 일대에서 확인되는 토기편을 살펴보면 주로 점렬문계, 조우문계, '之' 자문, 격자문, 집선문계토기 등이 출토된다. 이 중에서 조우문계 토기가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산리 벌라리왓유적은 신석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삼각점렬문토기와 조흔문토기가 확인되었다.

한편 온평리유적은 압인 · 압날문토기가 중심이 되는 유적이다. 특히 여기서 출토된 횡주어골문은 온평리유적의 편년을 전기까지 올려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퇴화침선문 단계에 속하는 구연부 공백 압날문, 조우문, 뇌문, 방점문 등은 신석기시대 후기의 토기양상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신천리 한못궤굴에서는 패총이 확인되었는데 청동기시대 하층에서 신석기시대 후 · 만기에 해당하는 점렬문계와 조흔문토기가 출토되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지 주변으로는 온평리유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석기시대 후반기에 형성된 유적이 대다수임을 알 수가 있다. 자세한 유적현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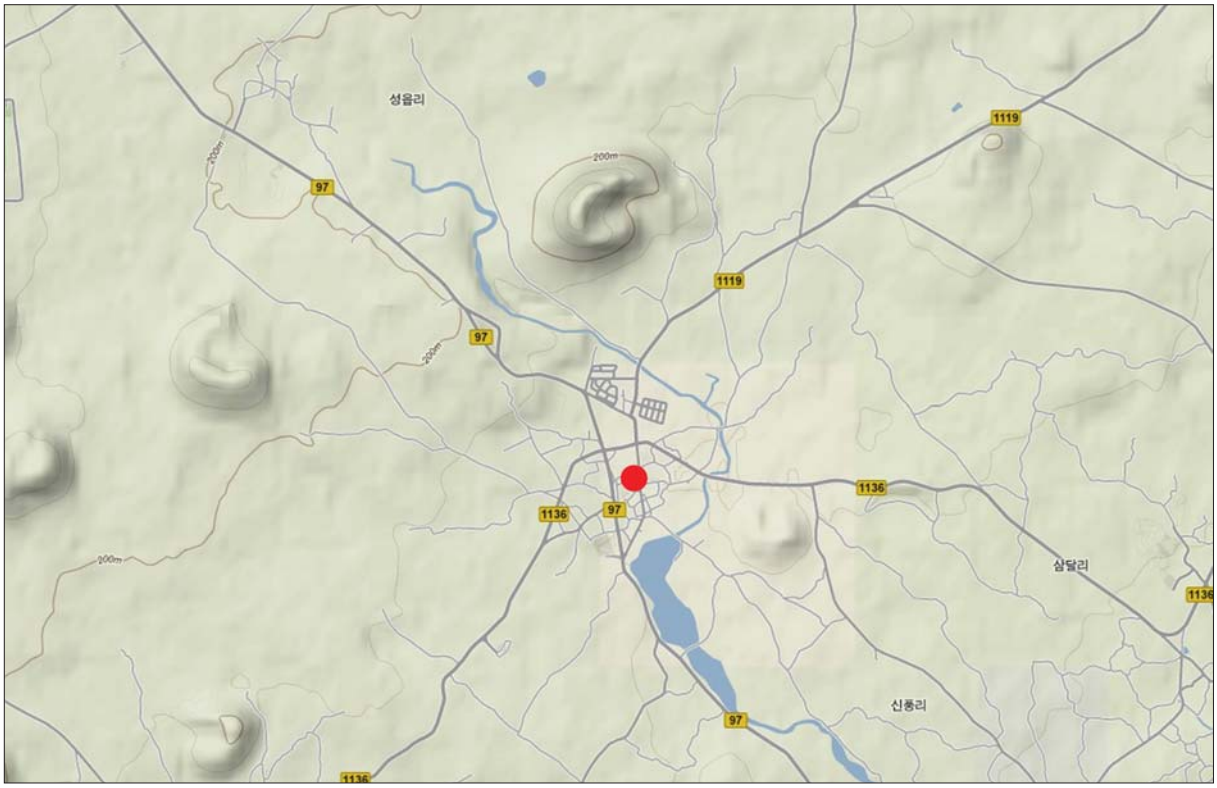
表1) 新石器時代 周邊遺蹟 現況

順番	遺蹟名	類型	直線距離(㎞)	遺構現況	出土遺物	備考
1	城邑里遺蹟	生活遺蹟	1.3	竪穴遺構	점렬문, 조우문, 격자문, 집선문	
2	水山里遺蹟	〃	8.4	〃	점렬문, 조흔문	
3	溫坪里遺蹟	〃	9.0	〃	횡주어골문, 점렬문, 격자문, 사선문, 능격문, 조우문	
4	新川里遺蹟	〃	5.2	貝塚	점렬문, 조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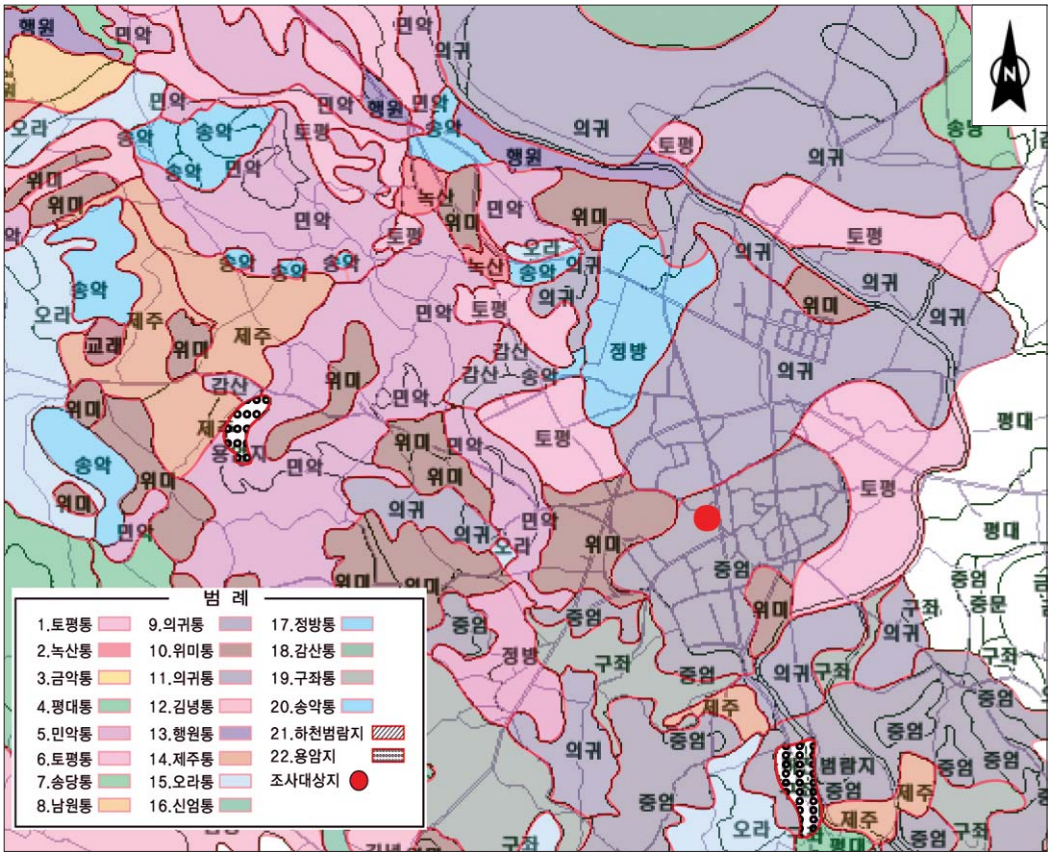
10) 한라일보사, 2000, 『제주생명의 원류/하천과 계곡-천미천』, 26~28쪽.
11)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b, 前揭書, 9쪽.
12)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c, 『성산~표선간 국도12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오연숙, 2002, 「제주온평리유적발굴조사 개보」, 『한국신석기연구』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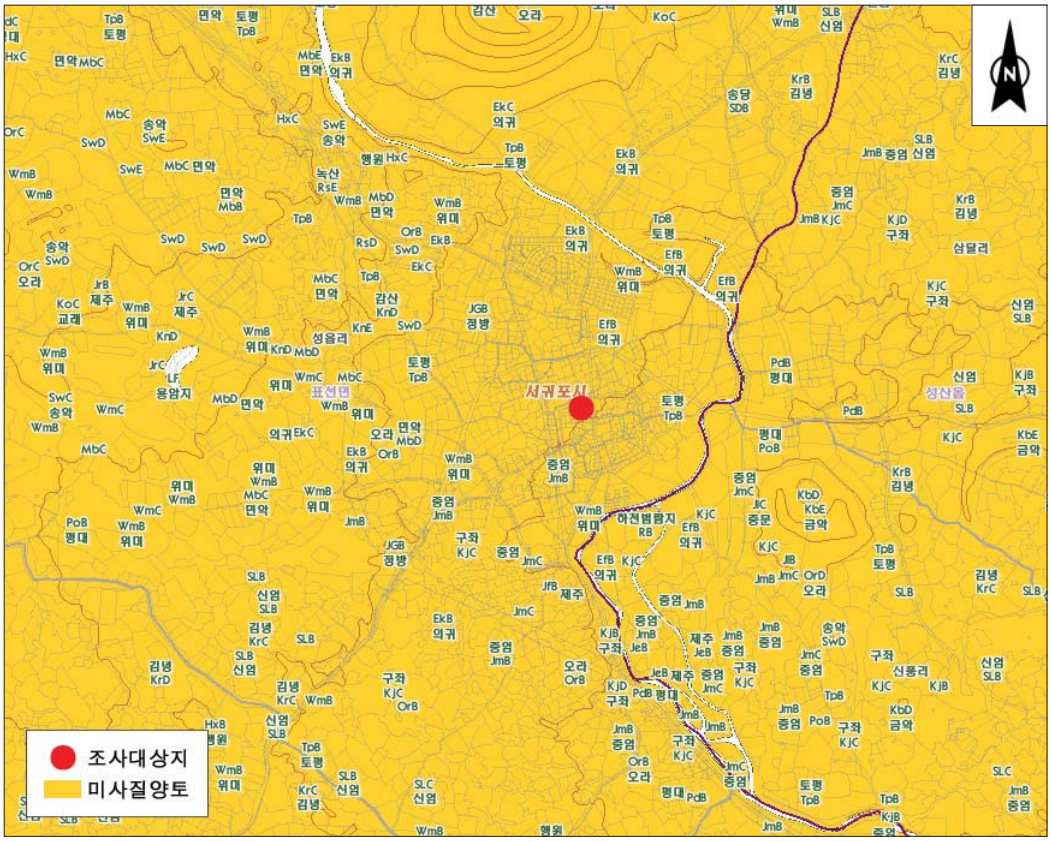
삽도 1. 위성사진(출처 : 네이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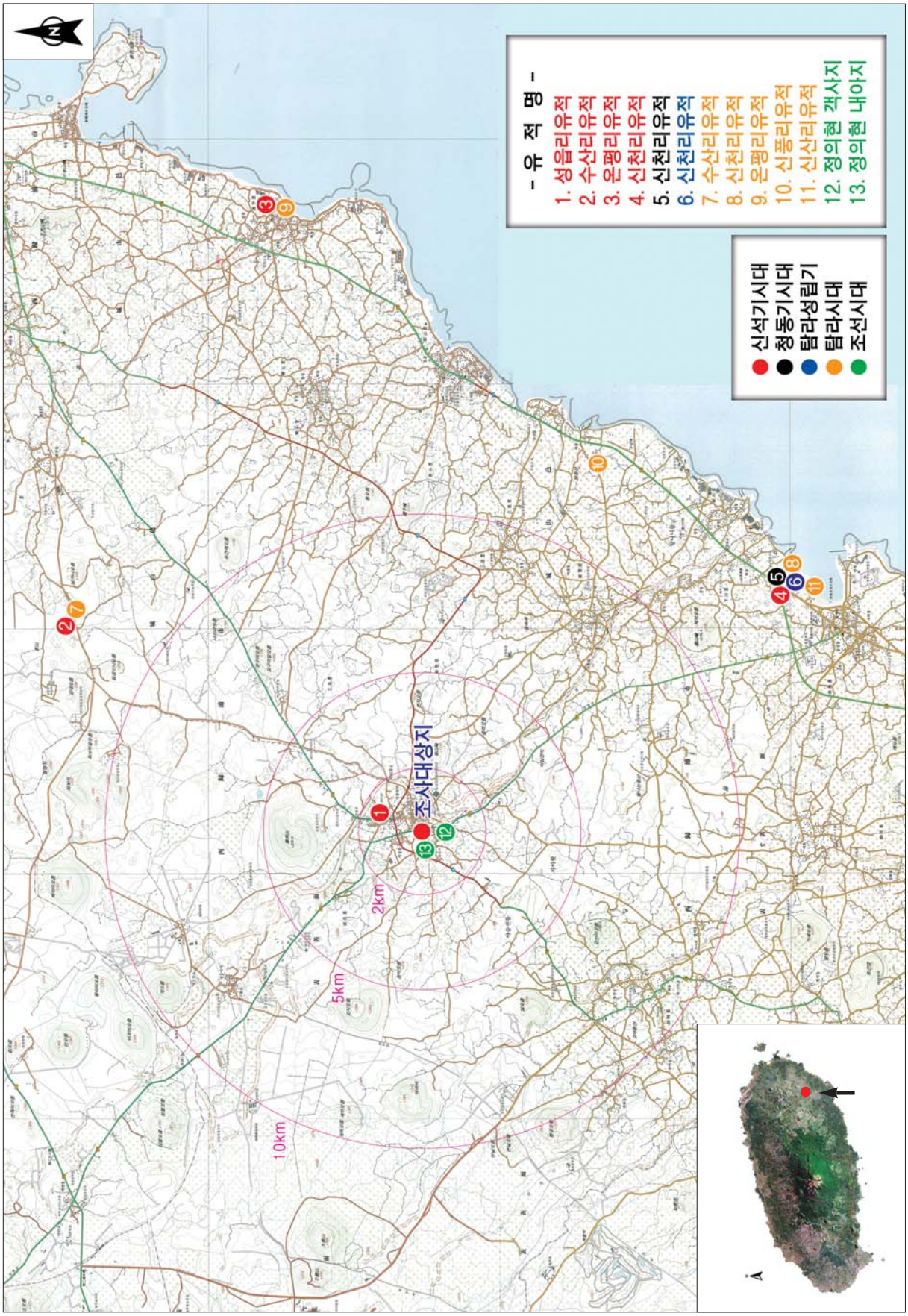
삽도 2. 위성지형도(출처 : 구글맵스)



도면 2. 조사대상지 주변 토양도(국토지리정보원 1/50,000 참조)



도면 3. 조사대상지 일대 토양 토성도(출처 : 한국토양정보시스템)



도면 4.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1/25,000 참조)

2) 靑銅器時代[13)]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동쪽으로 신천리 한못궤굴유적이 해당된다. 한못궤굴유적은 동굴 입구에 신석기시대~탐라시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형성된 패총이 자리하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경우 동굴 입구의 야외 초입부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반면에 청동기시대는 동굴 내부의 입구부분을 활용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청동기시대 의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취락과 관련된 유적은 아마도 주변 야외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문화층은 신석기시대 퇴적층 상부에 형성되어 있는데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주로 구순각목문토기, 직립구연토기, 마연토기 등이 확인되고 있다. 자세한 유적현황을 보면 표2)와 같다.

表2) 靑銅器時代 周邊遺蹟 現況

順番	遺 蹟 名	類 型	直線距離(㎞)	遺構現況	出 土 遺 物	備 考
5	新川里遺蹟	生活遺蹟	5.2	貝塚	구순각목토기, 마연토기, 직립구연토기	

3) 耽羅成立期[14)]

제주도 서북부지역의 경우 탐라성립기에 접어들면 이전 단계에 비해 대규모 취락유적이 집중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동남부지역으로는 아직까지 이 단계의 대규모취락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사가 미진하여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차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여겨진다. 탐라성립기 단계의 유적은 신천리 한못궤굴의 패총 퇴적층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다. 곧 청동기시대층 상부에 형성된 퇴적층에서 탐라성립기에 해당하는 삼양동식토기가 직립구연토기와 함께 일부 출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야외취락과 관련된 유적은 아마도 주변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한 유적현황을 살펴보면 표3)과 같다.

表3) 耽羅成立期의 周邊遺蹟 現況

順番	遺 蹟 名	類 型	直線距離(㎞)	遺構現況	出 土 遺 物	備 考
6	新川里遺蹟	生活遺蹟	5.2	貝塚	직립구연토기, 삼양동식토기	

4) 耽羅時代[15)]

탐라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은 전단계에 비해 다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야외 생활유적은 물론이고 고인돌 등 묘제가 일부 분포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규모 야외취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단계에는 먼저 야외 생활유적인 수산 좌보미 벌라리왓과 온평리유적이 있고 신천리와 신풍리에는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반면 신천리 한못궤굴 내부에는 패총이 형성되어 있는데 탐라성립기층 상부에 탐라시대 문화층이 퇴적되어 있다. 주로 출토되는 유물을 살펴보면 구연부가 강하게 외반하는 곽지리식토기가 대다수이다. 즉 수산 좌보미 벌라리왓, 신천 한못궤굴, 온평리 유물산포지, 온평리

13)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c, 前揭書.
14)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c, 前揭書.
15) 李淸圭, 1986,『濟州島遺蹟』, 濟州大學校博物館.
제주문화예술재단, 2003,『남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c, 前揭書.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d,『수산 좌보미 벌라리왓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동굴유적 등에서는 곽지리식토기가 출토되었다. 반면 신천 한못궤굴에서는 곽지리식토기 보다 후행하는 탐라후기의 고내리식토기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자세한 유적현황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表4) 耽羅時代의 周邊遺蹟 現況

順番	遺 蹟 名	類 型	直線距離(㎞)	遺構現況	出 土 遺 物	備 考
7	水山里遺蹟	生活遺蹟	8.4	竪穴遺構	곽지리식토기	
8	新川里遺蹟	生活 및 墳墓遺蹟	7.1	貝塚 支石墓	곽지리식토기, 고내리식토기	
9	溫坪里遺蹟	生活 및 穴居遺蹟	9.0	遺物散布址 岩陰	곽지리식토기	
10	新風里遺蹟	墳墓遺蹟	3.4	支石墓		
11	新山里遺蹟	〃	6.8	〃		

5) 朝鮮時代[16)]

성읍리 일대는 조선시대 정의현의 읍치가 위치한 곳이다. 정의현과 관련된 부속건물에 대한 발굴조사는 1993년(客舍址)과 2001년(內衙址)에 이루어졌다.

객사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6동과 함께 부석시설, 담장지, 기와 매립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각각의 건물지는 16세기 이전과 이후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객사지는 1호 건물지가 해당하는데 정면 4~5칸, 측면 3칸의 건물로 추정하였다.

반면 내아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5동과 수혈유구 3기 등이 확인되었다. 건물지 내부의 주초간(심초석) 간격이 너무 좁고 여러 차례 중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대략 15~16세기경에 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자세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표5)와 같다.

(김경주)

表5) 朝鮮時代의 周邊遺蹟 現況

順番	遺 蹟 名	類 型	直線距離(㎞)	遺構現況	出 土 遺 物	備 考
12	客舍址	官衙遺蹟	0.1	建物址	평기와, 분청사기, 백자	
13	內衙址	〃	0.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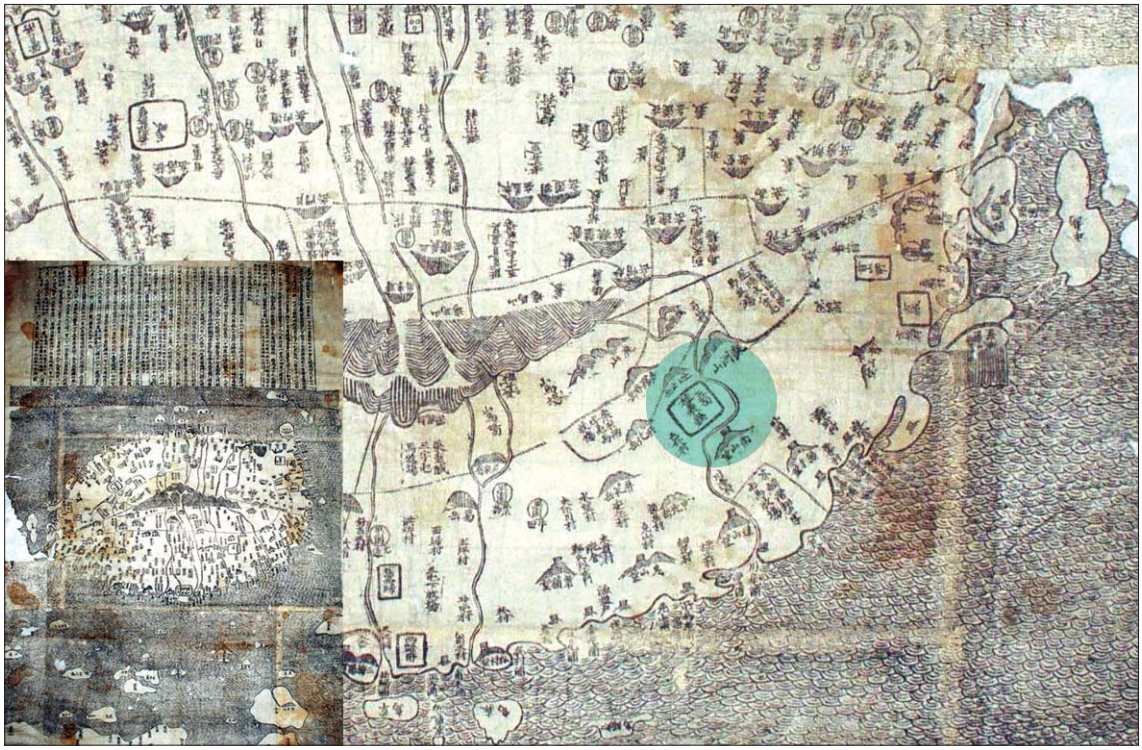
16) 濟州大學校博物館, 1995, 『旌義縣 客舍址』.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b, 前揭書.

3. 歷史的 背景

1) 성읍1리의 마을 설촌과 그 연혁

성읍1리는 과거에 정의현청이 있었던 중심마을이다. 성읍1리는 영주산 남쪽, 남산봉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 마을 성읍1리의 마을 중심지는 성읍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성읍1리의 식수(食水)로는 봉천수(奉天水)인 남문통(南門桶)이 있었다. 하지만 '남문통은 가뭄을 만나면 마르기 때문에 성안사람들은 모두 개로천(介老川, 현재 천미천) 및 성불세미(成佛泉)에서 물을 길러 왔다[17]' 고 한다.

성읍1리는 정의현의 관아지[治所]로 정의읍성이 이설하기 전에는 '진사ᄆᆞ을(眞舍里・晉舍里)[18]' 이라 하였다. 현재 성산읍 고성리에 있던 옛 정의읍성이 옮겨오기 전 이름이다. 태종(太宗) 17년(1417) 5월 19일(甲辰)에 '정의현 읍성을 다시 배치하면서 서촌(西村) 진사(眞舍)와 토산(兎山) 땅 중에서 지리(地理)가 마땅한 곳에다 읍성(邑城)을 배치하게 하니, 그대로 따랐다[19]' 라 하였다. 그리하여 세종 4년(1422)에 정의읍성(旌義邑城)을 진사리(晉舍里)에 옮겨 쌓았다[20]. 그러다가 1년 후 세종(世宗) 5년(1423)에 안무사 정간(鄭幹)이 건의하여 정의현성을 진사리(晉舍里)에 있는 읍성(邑城)으로 옮겼니 곧 지금의 읍내이다. 이를테면 정의읍성의 성가퀴[弓家]를 높이고 세 문(三門)을 세우니 성터는 2천 5백 20자이고 높이가 13자이다. 세종 5년(1423) 정월 9일에 정의읍성의 축성을 시작하여 13일에 끝났으니 공정이 매우 신속하였다[21]. 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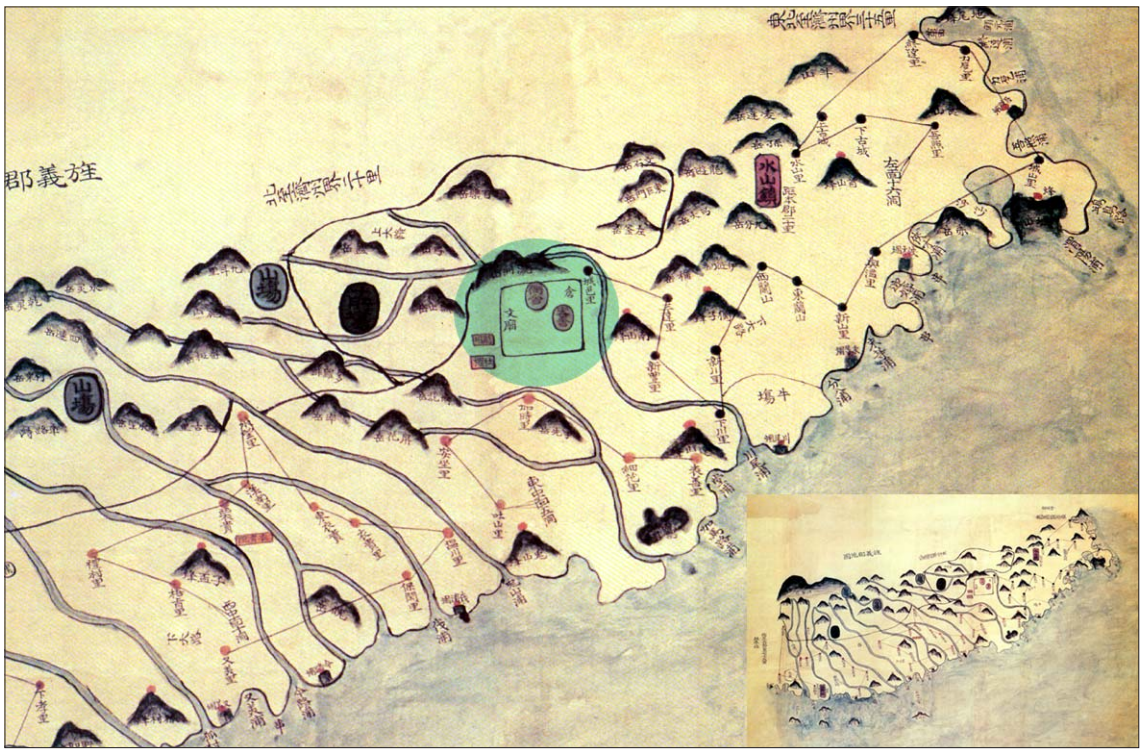
삽도 3.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난 정의현 5면(旌義縣五面), 영주산(瀛洲山), 읍외촌(邑外村), 남산망(南山望)

17) 尹著東, 『增補耽羅誌』「旌義縣 - 城郭」條.
18) 오창명, 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520쪽.
오창명, 2004,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389~390쪽.
오창명, 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 , 행정명사・제주시편』, 제주대학교 출판부, 749~751쪽.
19) 『太宗實錄』 太宗 33卷, 17年 5月 甲辰條.
20) 『世宗實錄』, 世宗 4年 12月 乙巳條.
21)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8권 「全羅道, 旌義縣 - 城郭」.

부터 정의읍성 안은 정의현 치소(治所)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55년 후인 1678년 이후부터 1700년 사이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는 정의읍성 안에는 '정의현 5면(旌義縣五面)' 으로 표시되고 북쪽에는 영주산(瀛洲山)이 나타나며 남쪽에는 읍외촌(邑外村)과 남산망(南山望)이 드러나고 있다. 곧 1678년 이후부터 1700년 사이에 정의현에는 5면(面)이 있었음을 밝혀 주고 있다.

더구나 1678년 이후부터 1700년 사이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는 읍외촌(邑外村)이 나타나고 있다. 읍외촌은 정의읍성 밖에 형성된 촌락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숙종 20년(1694) 9월 11일에 정의읍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은 100호(戶) 미만이었다[22]. 17세기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제주속오군적부(濟州束伍軍籍簿)』에는 거주지가 읍내(邑內)[23]로 나오고 있다. 이 당시까지는 정의읍성 안에 사는 사람의 거주지를 '읍내(邑內)' 라고 표시했음을 알 수가 있다. 또 65년 후인 영조 41년(1765)부터 영조 42년(1766) 사이에 편찬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권5 「정의현(旌義縣) - 면촌(面村) 증(增)」에는 며료면(亦了面) · 읍내면(邑內面) · 토산면(兎山面) · 호촌면(狐村面) · 홍로면(洪爐面) 등 5면(面)[24]이 있었다. 그 가운데에 읍내면(邑內面)에는 궁산(弓山) · 성읍(城邑) · 난산(難山) · 여온(輿溫) · 신산(新山) · 삼달(三達) · 신풍(新風) · 하미천(下尾川) 등 8개의 ᄆᆞ을이 있다[25]. 이를테면 17세기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삽도 4. 「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에 나타난 정의읍성(旌義邑城) 안에 문묘(文廟), 아사(衙舍), 객사(客舍), 창(倉)과 영주산(瀛洲山), 성읍리(城邑里), 여단(厲壇) 및 사직단(社稷壇)

22) 李益泰, 『知瀛錄』, 1694년(숙종 20) 9월 11일 조.

23) 著者未詳, 『濟州束伍軍籍簿』,
甲冑負持寺奴仲立 年三十三 父仲卜 係旌義 住邑內 長四尺二寸 面鐵 鬚始生 疤左臂 □□,
一旗總寺奴太允 年四十六 父玄一 係旌義 住邑內 長四尺二寸 面鐵 鬚小 疤左手 藝鎗.

24) 『增補耽羅誌』 卷四 「旌義縣 - 面村(增)」,
亦了面 · 邑內面 · 兎山面 · 狐村面 · 洪爐面.

25) 『增補耽羅誌』 「旌義縣 - 面村 增」,
邑內面 弓山 城邑 難山 輿溫 新山 三達 新風 下尾川 合八里.

보이는『제주속오군적부(濟州束伍軍籍簿)』에는 거주지가 읍내(邑內)는 성읍(城邑)으로 ᄆᆞ을 이름의 변경되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 더구나 이 당시의 성읍 ᄆᆞ을은 읍내촌(邑內村)과 읍외촌(邑外村)을 합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 당시의 정의현에 면(面)은 5개이며 각면(各面)에는 풍헌(風憲) 1인과 약정(約正) 1인이 있었다. 읍내(邑內)와 홍로(洪爐)에는 약정 2인이 있었다. 마을[里] 36곳에는 존위(尊位)·동장(洞長)·경민장(警民長)·기찰관(機察官)·포도장(捕盜將)·좌주(座主)·유사(有司)·좌상(座上) 각 1인이 있었다[26]. 다시 19년 후 정조(正祖) 9년(1785) 2월 이후에 편찬한『정의현지(旌義縣誌)』「방리(坊里) - 좌면(左面)」에 성읍리(성읍리)는 정의읍성(城)의 밑[城底]에 있으며 백성의 집[民戶]은 165호이며 남자가 401명이고 여자는 471명이다[27]이라 하였다.

이로부터 87년 후인 고종(高宗) 9년(1872)에 제작한「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와「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에는 정의읍성(旌義邑城)안에 문묘(文廟), 아사(衙舍 ; 東軒), 객사(客舍), 창(倉)이 표시되고 북쪽에는 영주산(瀛洲山)과 동북쪽에는 성읍리(城邑里)가 나타나고 있으며 서쪽에는 여단(厲壇) 및 사직단(社稷壇)이 표기되어 있다.

그러다가 18년 후인 고종(高宗) 27년(1890)에 성읍리 인구는 931명[28]이었다. 또 14년 후인 광무(光武) 8년(1904년)에『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정의군(旌義郡) - 좌면(左面) 15리(十五里)」에는 "성읍의 연기가 나는 집[煙家]는 211호이다. 남자 482명과 여자 468명을 합하여 950명이고 초가집은 555



삽도 5. 1919년에 제작한「제주지도」에 나타난 정의(旌義), 성읍ᄆᆞ을[城邑里], 성밧골[城外洞]

26)『增補耽羅誌』卷四「旌義縣 - 面村(增)」,
○ 面五各風憲一人 約正一人 而邑內洪爐則約正二人 里三十六 每里尊位洞長警民長機察官捕盜將座主有司座上各一人.
邑內面 弓山 城邑 難山 與溫 新山 三達 新風 下尾川 合八里.

27)『旌義縣誌』「坊里 - 左面」,
城邑里 在城底 民戶一百六十五 男四百一 女四百七十一.

28)『石城趙等 庚寅十二月 日 三邑還弊及庶瘼革祛節目』,
旌義右面 城邑人口 九百三十一 分米一百一石十一斗八升四合.

칸이다[29]"라고 하였다. 15년 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1919년에 제작한 50,000분의 1인 「제주지도(濟州地圖)」에는 '정의(旌義), 성읍ᄆᆞ을[城邑里], 성밧골[城外洞]' 등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다가 10년 후 1929년에 당시 동중면(東中面) 가운데에 성읍리의 집의 수효[戶數]는 376호이며 남자가 816명이고 여자는 858명으로 남녀합계가 1,674명이었다[30]. 1년 후 1930년에는 동중면(東中面) 성읍리의 호수(戶數)는 361호이며 인구는 1,657명이었다[31].

2009년 2월 현재 성읍리는 오늘날은 서상동(西上洞), 서하동(西下洞), 동상동(東上洞), 동하동(東下洞)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마을을 크게 동 · 서로 나누고, 다시 위와 아래로 나눈 것이다.

2) 일제강점기 일관헌의 파괴와 1974 · 1975년에 복원

관아(官衙)는 관청(官廳) · 관서(官署)라고도 불린다. 크게 중앙관아와 지방관아로 구분되는데, 지방관아에는 다시 관찰사가 도(道)의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감영(監營)과 군현(郡縣)의 수령(守令)이 해당 고을[邑]을 다스리기 위한 관아로 나누어진다. 특히 군현의 경우는 수령의 관아인 동헌(東軒)을 중심으로 많은 관아시설이 설치되었다. 이를테면 관사(官舍)는 현감(縣監)의 집무(執務), 생활공간을 일컫는 곳으로 그 중심의 되는 건물이 동헌이다. 그 외에 관사에 속한 건물로는 객사(客舍)가 있다. 객사는 왕의 전패(殿牌) 또는 궐패(闕牌)를 모시고 있는 곳이다. 곧 사또는 이곳에서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절을 한다는 뜻의 '망궐향배(望闕向拜)' 라는 의식을 행하던 건물이다. '망궐향배' 는 지방관인 사또가 임금에게 충성을 서약함과 동시에 임금에게 고을의 통치를 위임 받았음을 고을에 선포하는 의식이다. 동시에 객사는 공무여행자들이 머무는 숙박처이자 거리를 잴 때 기준점(基準點)이 되는 곳이었다. 따라서 객사는 읍의 중심, 읍치의 맨 중심이며 전패를 모신 관계로 수령의 집무청인 동헌보다 격이 높은 건물이다. 접대(接待)와 연향(宴享)을 위한 각종의 누정(樓亭)들도 관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 관사는 지방관의 직할 영역일 뿐만 아니라 지방 관아를 대표하는 모든 행정적(行政的) · 의식적(儀式的)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편, 지방 관아의 소재지를 읍치(邑治)라 한다. 읍치의 주위는 대개 성곽(城郭)으로 둘러져 있고 그 안에 거의 모든 관아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행정적인 목적으로 축성되어진 성곽을 보편적으로 읍성(邑城)이라 한다. 수령이 파견되는 지역에는 읍성이 축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읍성은 주로 행정적인 목적을 위한 성이었기에 읍치의 중심에 설치되었다. 정의읍성은 표선면 성읍리 일대에 위치하며 규모가 2,986자에 해당한다. 게다가 정의읍성은 1914년 일제의 읍성철폐령에 의하여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50년대 중반경에 촬영되어 『道승격 50주년 기념사진집, 제주100년』에 실린 〈삽도6〉를 보면 1974년부터 1975년까지 복원 전에 일관헌 안에는 전체가 담장으로 구획되고 그 내부에 남향한 일관헌과 사이에 협문을 세워 통할 수 있게 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일관헌의 지붕은 골함석 지붕을 개조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일관헌의 주변에 팽나무 등 고목(古木)들이 들어차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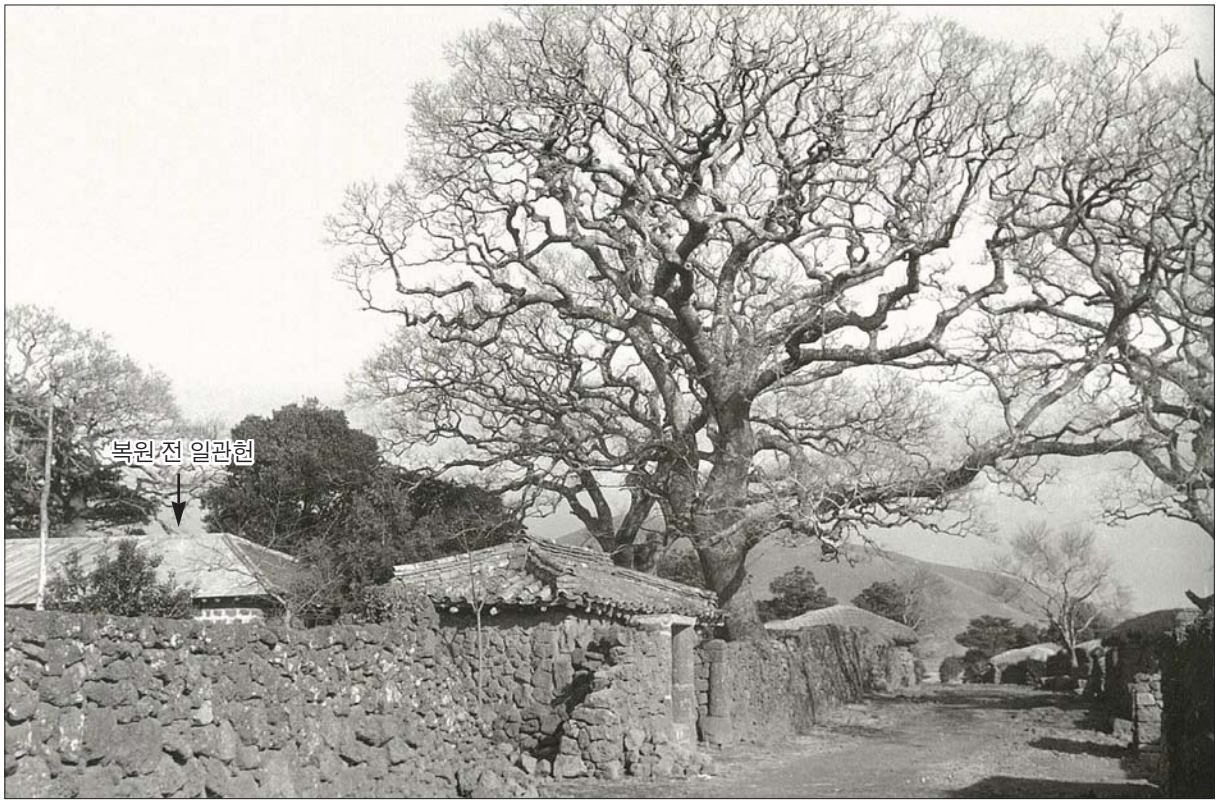
더욱이 1973년 당시에 일관헌(日觀軒)은 정의읍성 북성 안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성읍리의 중심지 도로변에 있다. 이 일관헌은 옛날 현감의 정당(政堂)으로 동헌(東軒)이라 하는 것인데 옛날과 다르게 몹시 개조된 집이다. 이 집은 정의현(旌義縣)이 설치되던 세종 5년(1423)에 창건(?)되었고 광무(光武) 2년(1898)에 정의군수(旌義郡守) 강인호(康仁鎬)가 중수하였다. 그 뒤 일관헌은 일제강점기 면사무소로 사용

---

29) 『光武八年一月日三郡戶口家間總册』「旌義郡 - 左面十五里」,
城邑煙家 二百十一護 男三百八十二口 女四百六十八口 合九百五十口 草家 五百五十五間.

30) 善生永助, 『濟州島生活狀態調査』「II. 部落 - 東中面」.

31) 高禎鐘, 『濟州島便覽』,
東中面 城邑里戶數 361戶, 人口 1,657人.



삽도 6. 1974~1975년 복원 전에 성읍리 일관헌과 팽나무(濟州道, 1996. 08, 『道 승격 50주년 기념사진집, 제주 100년』, 150쪽 인용)

되던 때에 높은 기둥을 잘라내고 높은 기단을 낮췄다하며 해방 후에는 현재와 같은 골함석 지붕으로 개조되었다. 배치는 일관헌이 남면(南面)하여 세워졌다[32]. 특히 일관헌의 평면은 정면 3칸과 측면 2칸이며 전후좌우에 퇴(退)가 있다. 정면의 총 길이는 50자 3치이고 측면의 총 길이가 22자이다. 면적은 30.9평(坪)이다. 이 건물은 민가의 구조와 흡사하게 개조되고 말았으며 전면에는 3단의 잇돌이 놓여 내부로 출입하게 되어 있고 그 외 3면은 암회색 다공질 현무암으로 석축되어 있다. 퇴(退)의 바닥은 흙바닥[土床]이고 내부 바닥이 마루인데 옛날에는 모두 우물마루였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기초(基礎)는 주춧돌을 사용했으며 기둥이 민흘림으로 기울기가 1/200이다. 기둥머리는 주두(柱頭)없이 사괘 맞춤하여 결구(結構)하였다. 모든 도리 밑에는 장설(長舌)을 놓고 7량(梁) 집으로 결축(構築)하였다[33]. 그러다가 1년 후 1974년부터 1975년까지 2년여에 걸쳐 일관헌은 복원하였으나 원형이 크게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정의현의 관아 건물과 위치

본래 태종 16년(1416) 5월 6일(정유)에 제주 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 오식(吳湜)과 전 판관(前判官) 장합(張合) 등이 제주를 삼읍으로 나눌 것을 계청(啓請)할 때에 정의현을 두었다[34]. 정의현청[현재 고성리 옛 정의현성-필자주]은 땅이 우도(牛島)에 가까워서 새벽과 밤에 고각(鼓角) 소리가 들리고 큰 바람이 여러 번 불어서 곡식은 흉년들었을 뿐만 아니라 왜적이 번갈아 침범[侵擄]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 4년(1422)에 정의읍성(旌義邑城)을 진사리(晉舍里)에 옮겨 쌓았으니 곧 지금의 읍내이다[35]. 이를테면 정의읍성의

32) 濟州道, 1973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査報告書』「建築篇 IV-月觀軒」, 311~312쪽.
33) 濟州道, 1973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査報告書』「建築篇 IV-月觀軒」, 312쪽.
34) 『太宗實錄』, 太宗 16年 5月 丁酉條.
35) 『世宗實錄』, 世宗 4年 11月 壬戌條・12月 乙巳條.

성가퀴[弓家]를 높이고 세 문(三門)을 세우니 성터는 2천 5백 20자이고 높이가 13자이다. 1년 후 세종 5년(1423) 정월 9일에 정의읍성의 축성을 시작하여 13일에 끝났으니 공정이 매우 신속하였다[36]. 그러나 이에 관련되어 이 당시의 정의읍성 안에 있는 관아시설에 관한 내용을 전해주는 문헌이 없다. 곧 세종 14년(1432)에 완성한『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志)」와 중종 26년(1531)에 편찬한『신증동국여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및 선조 34년(1601)에 간행한『남사록(南槎錄)』에는 정의현 관아시설에 관한 내용이 전하지 않고 있다. 이로부터 76년 후 연산군 4년(1498)~중종 즉위년(1506)까지 제주도 유배(流配) 시절에 홍유손(洪裕孫)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는「문(文) - 정의관사중신기(旌義官舍重新記)」에는 정의현 관사의 중건 필요성과 관사의 위치 등을 중심으로 정의현 관사를 새로 고친 기록이 기술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정의현의 관청 건물[廨宇]은 처음으로 세운 지[세종 5년(1423)-필자주]가 오래되었다. 거센 회오리바람[飇風]과 줄기찬 비로 마룻대와 들보[棟樑], 서까래와 기둥[椽柱]의 나무는 썩어 부러졌다. 지금 현감[名宰] 김종준(金侯從俊)은 정의현에 부임하여 임기가 다할 즈음에 매양 관우(館宇)를 바라보았다. 그 무너진 것을 수선하고 그 오래된 것을 새로 지으려 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소연을 하니 즉시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 그 밭가는 소[耕牛]를 몰고 산에 들어가 나무를 베어 아래로 끌어당기는데 며칠이 아니 되어서 집을 짓는 좋은 재목이 이미 관청 뜰[公庭] 밖에 마치 언덕처럼 쌓여졌다. 그 근무[立番]하는 군사와 관청에 적을 둔 장인[官籍之工], 도깨질하는 이 · 톱질하는 이[斧者鋸者], 대패질하는 이 · 돌을 쪼는 이[刀者鑿者], 자로 재는 이[執規執矩] · 먹줄을 놓는 이[執準執繩]가 완만하게 둘러서서 모두 힘을 다하여 일하니 한 달을 넘기지 않았다. 관(官)의 동서 객사(東西客舍)와 중대청(中大廳) 및 좌우의 부속집(左右附舍), 중대문 · 외대문(中外大門)과 남장랑(南長廊), 아(衙)의 침실(寢室) · 부속건물(附舍)과 동 · 서 양헌(兩軒)의 대청(大廳)과 좌우 협실(左右俠室)과 남행랑(南行廊)은 모두 약간의 사이를 두니 건축물은 장대하고 아름다웠다[輪奐][37]"라 하였다. 이 당시 김종준(金從俊) 정의현감(旌義縣監)은 관우(館宇)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하소연하니 한 달을 넘기지 않아 관아의 건물이 완성되었다. 곧 관(官)의 동서 객사(東西客舍)와 중대청(中大廳) 및 좌우의 부속집(左右附舍), 중대문 · 외대문(中外大門)과 남장랑(南長廊), 아(衙)의 침실(寢室) · 부속건물(附舍)과 동헌(東軒) · 서헌(西軒)의 대청(大廳)과 좌우 협실(左右俠室)과 남행랑(南行廊) 등이 관아 건물이다.

이로부터 146년 후 효종 4년(1653) 이전 시기부터 객관 동헌(客舘東軒)과 아(衙; 東軒)로 곧, 객사와 동헌의 건물이 분리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아(衙)의 남쪽에는 관청(官廳)이 있다. 이 관청은 주방(廚房)으로 보이는데 수령과 그 가족들의 식생활 및 공사 빈객의 접대와 각종 잔치에 필요한 물품의 조달을 하였다. 그리고 객관의 서쪽에는 향소청(鄕所廳)이 있었다. 이 향소청 안에는 출신청(出身廳)과 무학청(武學廳)이 있었다. 또 아(衙)의 동쪽에는 질청[作廳]이 있었으며 이곳에는 기관(記官) · 서원(書員) · 지인(持印)이 같이 근무하였다. 더욱이 동헌 뒤에는 산정(山亭)이 있었는데 활터[射場]가 있었다[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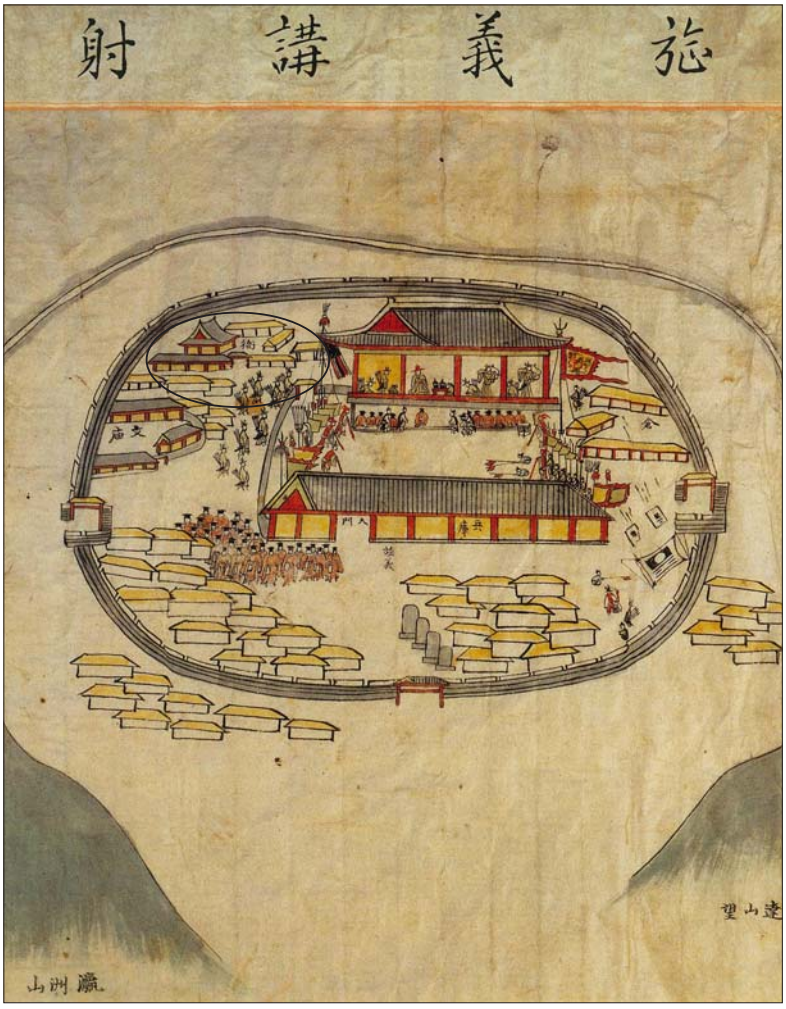
---

36)『新增東國輿地勝覽』제38권「全羅道, 旌義縣 - 城郭」條.

37) 洪裕孫,『篠叢遺稿』上「文- 旌義官舍重新記」,
夫屋宇之能以蔽風庇雨者 蓋由於久而新之 弊而葺之也 不新之 不葺之 而至於悠久不毁者 鮮矣 縣之廨宇 創立年久 加以飇風之起 顚雨之發 豈無其時 則棟樑也椽柱也 其有不爲腐折者耶 頹而至於圮者 無足怪焉 今明宰金侯從俊 來莅于縣 臨其官滿 顧瞻公宇 常咨嗟 意若有不平焉 鄕中良家巨族之仕於衙會者 一日齊伏 奉問厥由 侯曰 余備官爾邑 每見館宇 欲理其毁而新其舊者 久矣 因循於今日 而貽繕於後日 其可乎 吾所憂者是已 咸曰 某等敢不承明府之意耶 寧盡改而新之 豈止修之補之而已哉 仍建白自結構不難之狀 卽爭先出其耕牛 入山伐木曳下 不數日而作舍良材 已積于公庭之外 如丘陵焉 侯乃出庫藏贏餘財穀 缺 其立番之卒 官籍之工 斧者鋸者 刀者鑿者 執規執矩 執準執繩 縵然環立而共勸竭力 又不閱月 而官之東西客舍 中大廳 左右附舍 中外大門 南長廊 衙之寢室附舍 東西兩軒大廳 左右俠室 南行廊總若干間 奐輪而成 高低闊狹而無不中度 敞如也翬如也 視之舊宇 其豐勢宏壯 而亦不侈於衆觀覿也 其官舍公衙 皆補之板甓 不以爲砌 繚以爲垣 備乎制也 … 下 略 ….

38) 李元鎭,『耽羅志』「旌義縣 - 宮室」條.

곧 관아(官衙)는 동서(東西)의 객사(客舍), 중대청(中大廳) 및 좌우의 부속건물(左右附舍), 중대문·외대문(中外大門)과 남장랑(南長廊), 아(衙)의 침실(寢室)과 부속건물(附舍), 동헌(東軒)·서헌(西軒)의 대청(大廳)과 좌우의 협실(左右俠室) 및 남행랑(南行廊)인데 모두 약간의 건물들이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으로 지어졌다.



삽도 7. 『耽羅巡歷圖』「旌義講射」에 나타난 정의현의 관아 건물(濟州市·濟州大學校博物館, 1994. 09, 『耽羅巡歷圖』, 51쪽 인용)

또 〈삽도7〉에 따르면 49년 후 숙종 28년(1702)에 이르러 정의현의 아(衙)는 객관(客館) 북쪽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문묘(文廟)가 서남쪽에 나타나고 있다. 아는 동헌을 나타내는 것이며 문묘가 향교(鄕校)[39]임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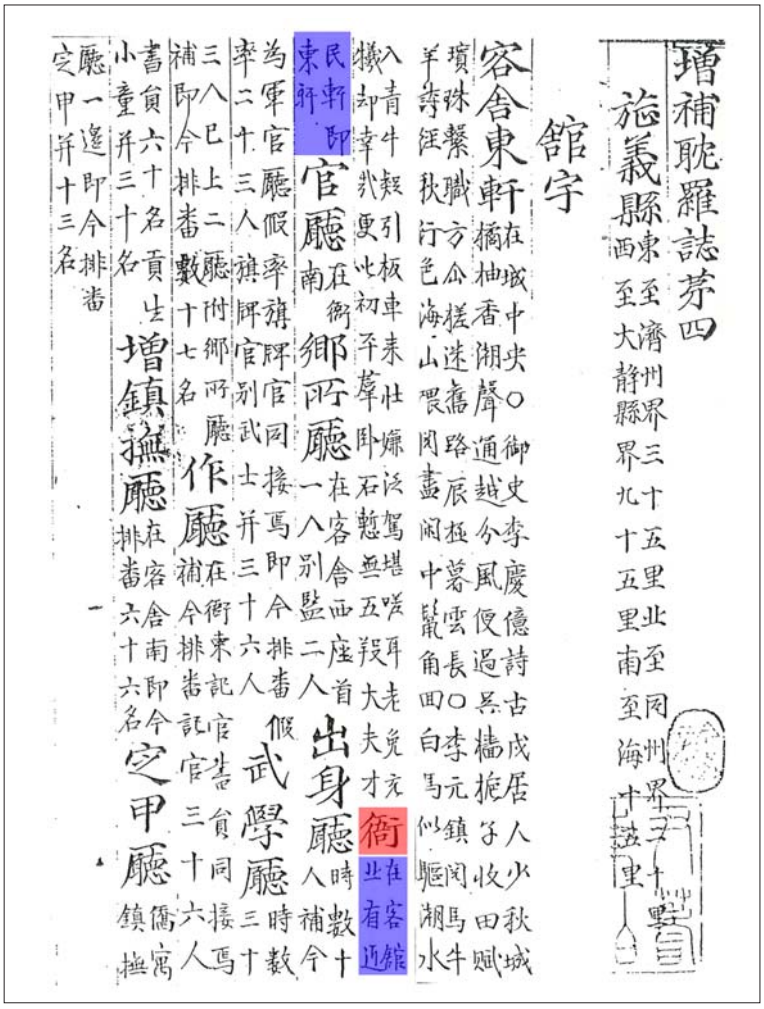
더구나 『耽羅巡歷圖』「旌義操點」·「旌義養老」·「旌義講射」에 나타난 위치도 『耽羅志』「旌義縣 - 宮室」조에 나타난 관청 이름과 위치가 같았음을 파악 할 수 있다. 더구나 「旌義養老」·「旌義講射」에 의하면, 숙종 28년(1702) 당시에 아(衙) 곧, 정의현의 동헌은 동향(東向)하여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동쪽 및 남쪽과 북쪽에 부속건물을 소개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게다가 정의현의 동헌은 정면이 몇 칸인지 모르지만 측면 2칸이며 팔작지붕(합각지붕)에 민흘림 기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63년 후 18세기 중·후반경 영조 41년(1765)부터 영조 42년(1766) 이전에 편찬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제4(第四) 「정의현(旌義縣) - 관우(舘宇)」조에는 객사동헌(客舍東軒)·아(衙)·관청(官廳)·향소청(鄕所廳)·출신청(出身廳)·무학청(武學廳)·질청[作廳]·진무청(鎭撫廳)·정갑청(定甲廳)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삽도8〉과 같다.

〈삽도8〉에 의하면, 객사동헌(客舍東軒)은 정의 읍성의 중앙에 있다. 또 아(衙)는 객관(客館)의 북쪽에 있으며 근민헌(近民軒)이라 하는데 곧 동헌(東軒)이다. 이를테면 근민헌은 백성을 사랑하여 가까이 대한다는 뜻으로 붙인 것이다. 앞서 살핀 바 있는 숙종 28년(1702) 「旌義養老」·「旌義講射」에 나타난 衙[東軒]는 근민헌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영조 41년(1765)부터 영조 42년(1766)이전에 편찬한 『증보탐라지』에

39) 李衡祥, 1702, 『耽羅巡歷圖』「旌義操點」·「旌義養老」·「旌義講射」.



삽도 8.『增補耽羅誌』「旌義縣-舘宇」에 나타난 정의현의 관청 이름과 위치(日本 天理大 所藏,『增補耽羅誌』「旌義縣-舘宇」, 188~189쪽 인용)

는 숙종 28년(1702)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청(官廳)은 동헌(東軒)의 남쪽에 있는데 주방(廚房)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소청(鄕所廳)은 객사(客舍)의 서쪽에 있으며 좌수(座首) 1인과 별감(別監) 2인이 있었다. 향청(鄕廳)은 조선시대 지방의 수령을 자문하고 보좌하던 자치기구이다. 조선후기 향청은 수령을 보좌해 행정 실무의 일부를 집행하는 기구가 되었다. 이때부터 명칭도 향청 또는 이아(貳衙)라 하였으며 좌수는 수령의 수석보좌관이 된 셈이었다. 게다가 출신청(出身廳)이 지금은 군관청(軍官廳)으로 바뀌었다. 군관청(軍官廳)은 군사 관계를 다루던 군관들의 집무소였다.

한편, 질청[作廳]은 이서(吏胥)들의 집무처이며 공식적으로는 인리청(人吏廳) 또는 이청(吏廳)이라 하였다. 조선후기에 오면 질청은 이서(吏胥) 집단의 중심기구로 자리 잡게 된다. 정의현의 행정실무는 중앙정부의 육조(六曹) 체제를 모방한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육방(六房)으로 나누어 집행되었다. 또 추가[增] 진무청(鎭武廳)은 진무(鎭撫)가 있던 곳이다. 또 정갑청(定甲廳)은 정로위(定虜衛)와 갑사(甲士) 13명이 함께 차례로 번(番)을 서고 있다. 특히 정로위는 궁궐을 지키는 군대[禁軍]의 예비병(豫備兵)으로 국경수비를 주 임무로 하는 군대였다. 또 갑사(甲士)는 원신역자로 입직(入直)하여 번(番)을 드는 마병(馬兵)이었다.

뿐만 아니라『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정의현(旌義縣) - 누정(樓亭)」조에 의하면 산정(山亭)·세병정(洗兵亭)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6)과 같다.

표6)『增補耽羅誌』「旌義縣 - 樓亭」에 나타난 정의현의 누정 이름과 위치

	누정이름	위치
누정(樓亭)	산정(山亭)	동헌(東軒) 뒤 활터에 있다[在東軒後 有射場]
	세병정(洗兵亭)	남문 밖에 있다. 현감 나억령(縣監羅億齡)이 만들어 활터[射場]를 두었다 [在南門外 縣監羅億齡建設 置射場]

표6) 정의현(旌義縣)의 누정 이름과 위치에 의하면, 산정(山亭)은 동헌(東軒) 뒤 활터에 있었다. 또 세병

정(洗兵亭)은 남문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현감 나억령(縣監羅億齡)이 만들어 활터[射場]를 두었다. 이를 테면 18세기 중・후반경에 편찬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권5 「정의현(旌義縣)」에는 관우(舘宇)・누정(樓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는 『탐라지(耽羅志)』(李元鎭)의 내용에 '추가(增)'와 '보충(補)' 한 것이다. 곧 『탐라지(耽羅志)』(李元鎭)의 내용에 '추가' 한 것을 본문 속에 있는 항목과 내용 중에 '증(增)'으로 표시하였고 『탐라지(耽羅志)』(李元鎭)에서 설명을 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한 곳에는 '보(補)'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18세기 중・후반경에 진무청(鎭撫廳), 정갑청(定甲廳)과 세병정(洗兵亭)이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하여 「정의현(旌義縣) - 관우(舘宇)」로는 객사동헌(客舍東軒), 아(衙), 관청(官廳), 향소청(鄕所廳), 출신청(出身廳), 무학청(武學廳), 질청[作廳], 진무청(鎭撫廳), 정갑청(定甲廳)과 「정의현(旌義縣) - 누정(樓亭)」으로는 산정(山亭), 세병정(洗兵亭) 등이 있었다. 영조 41년(1765)부터 영조 42년(1766) 이전에는 정의현의 관아 건물이 정착되는 시기로 보인다. 또 14년 후 1780년(정조 4)~1789년(정조 13) 이전에 작성된 『정의현지(旌義縣誌)』 「정의현(旌義縣) - 공해(公廨)」조에 공해 이름과 위치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7)과 같다.

표7) 『旌義縣誌』 「旌義縣 - 公廨」에 나타난 공해 이름과 위치

	공 해 이 름	위 치
공해(公廨)	객관(客館)	성 가운데에 있다[在城中]
	현아(縣衙)	객사 북쪽에 있다[在客舍北]
	향청(鄕廳)	객사 남쪽에 있다[在客舍南]
	무학청(武學廳)	같이 아[衙] 남쪽에 있다[並在衙南]
	진무청(鎭撫廳)	같이 아[衙] 남쪽에 있다[並在衙南]
	가솔청(假率廳)	같이 아[衙] 남쪽에 있다[並在衙南]
	질청[作廳]	아[衙] 동쪽에 있다[在衙東]
	현사(縣舍)	향청 남쪽에 있다[在鄕廳南]

표7) 『정의현지(旌義縣誌)』 「정의현(旌義縣) - 공해(公廨)」조에 나타난 공해 이름과 위치에 의하면, 객관(客館), 현아(縣衙), 향청(鄕廳), 무학청(武學廳), 진무청(鎭撫廳), 가솔청(假率廳), 질청[作廳], 현사(縣舍)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조 41년(1765)부터 영조 42년(1766) 이전에 「정의현(旌義縣) - 관우(舘宇)」조와 다른 점은 관청(官廳), 출신청(出身廳), 정갑청(定甲廳)이 나타나지 않는 대신에 가솔청(假率廳), 현사(縣舍)가 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로부터 53년 후 헌종 8년(1842)에 편찬한 이원조(李源祚),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정의현(旌義縣) - 공해(公廨)」조에 공해 이름과 위치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8)과 같다.

표8) 『耽羅誌草本』 「旌義縣 - 公廨」에 나타난 공해 이름과 위치

	공 해 이 름	위 치
공해(公廨)	객사(客舍)	남성 안에 있다[在南城內]
	일관헌(日觀軒)	현감 정당(縣監政堂)이다
	향사당(鄕社堂)	일관헌 남쪽에 있다. 좌수 1인, 별감 2인이 있다 [在日觀軒南 座首一人 別監二人]
	군관청(軍官廳)	일관헌 동쪽에 있다[在日觀軒東]
	인리청(人吏廳)	일관헌 남쪽에 있다[在日觀軒南]



삽도 9. 정의현 관아배치도(濟州道 · (株)金星綜合設計公社, 1978,『民俗村指定保存對象地域調査報告書-濟州道南濟州郡表善面城邑1里』,「과거복원도」, 18쪽 인용, 濟州道, 1980,『城邑民俗마을保存및 育成基本計劃』,「權威建築物 및 道路復元圖」, 53쪽 인용.)

표8)『耽羅誌草本』「旌義縣 - 公廨」에 나타난 공해 이름과 위치에 의하면, 객사(客舍), 일관헌(日觀軒), 향사당(鄕社堂), 군관청(軍官廳), 인리청(人吏廳)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780년(정조 4)~1789년(정조 13) 이전에 작성된『旌義縣誌』「旌義縣 - 公廨」와 차이점은 관아이름인 현아(縣衙)가 일관헌(日觀軒)으로 바뀌고 있다. 더욱이 무학청(武學廳), 진무청(鎭撫廳), 가솔청(假率廳), 현사(縣舍)에 관한 내용은 빠지고 있다. 특히 일관헌은 현감의 정당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순조 10년(1810) 겨울에 객사(客舍)에 불이 나 객사가 전소(全燒)되었다[40].

그러나 1780년(정조 4)~1789년(정조 13) 사이에 현아(縣衙)라고 불리던 동헌은 헌종 8년(1842)에 이르러 일관헌으로 바꾸었음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광무 2년(1898)에 정의군수(旌義郡守) 강인호(康仁鎬)에 의하여 현감 정당인 일관헌을 중수(重修)[41]하였다고 했으므로 그 이전에 일관헌의 창건에 관한 기록이 없어서 구체적인 사실은 밝힐 수가 없다.

또 60년 후 光武 6년(1902) 9월 이후 편찬한 남만리(南萬里),『탐라지(耽羅誌)』「정의현(旌義縣) - 공해(公廨)」조에 공해 이름과 위치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9)와 같다.

표9)『耽羅誌』「旌義縣-公廨」에 공해 이름과 위치

	공 해 이 름	위 치
공해(公廨)	객사동헌(客舍東軒)	
	일관헌(日觀軒)	현감 정당(縣監政堂)이다.
	관청(官廳)	아[衙] 남쪽에 있다[在衙南]
	향소청(鄕所廳)	지금의 향사당이다. 옛날에는 객관 서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일관한 남쪽에 있다 좌수 1인, 별감 2인이다 [今鄕射堂 舊在客館西 今在日觀軒南 座首一人 別監二人]
	출신청(出身廳)	옛날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하였다[古有今廢]
	무학청(武學廳)	아[衙] 서쪽에 있다. 차례로 번을 서고 면제받은 현재 숫자는 99구이다 [在衙西 排除番時數九十九]
	질청[作廳]	지금의 이인청이다. 옛날에는 현아 동쪽에 있었으나 지금은 일관헌 남쪽에 있다 향 · 가리의 현재 숫자는 713구이다 [今吏人廳 舊在衙東 今在日觀軒南 鄕假吏 時數七百十三]
	대변청(待變廳)	아[衙] 서쪽에 있다. 차례로 번을 서고 면제받은 현재 숫자는 504구이다 [在衙西 排除番 時數五百四]
	진무청(鎭撫廳)	아[衙] 남쪽에 있다. 차례로 번을 서고 면제받은 현재 숫자는 190구이다 [在衙南 排除番 時數一百九十口]

표9)『耽羅誌』「旌義縣 - 公廨」에 공해 이름과 위치에 의하면, 객사동헌(客舍東軒), 일관헌(日觀軒), 관청(官廳), 향소청(鄕所廳), 출신청(出身廳), 무학청(武學廳), 질청[作廳], 대변청(待變廳), 진무청(鎭撫廳)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헌종 8년(1842)에 편찬한 이원조(李源祚)의『耽羅誌草本』「旌義縣 - 公廨」와 차이점은 대변청(待變廳)이 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강창룡)

40) 李源祚,『耽羅誌草本』卷之四「旌義-學校, ○高鳴鶴記」,
… 上略 … 邑侯呂公喆永 以當宁九年戊辰九月 佩鈐于玆 祗謁 聖廟 慨然有意於移建 官意先定 詢謀僉同 乃與使相李公顯宅 面商 啓請蒙允 而爰卜吉址於化源洞淨閬之地 以己巳十月二十四日始役 使民以時 募工以恩 材瓦以男丁運輸 粮鐵自大同拮据 官民同力工役方張 而不幸客舍火變 公遽然遞皈 未克終事 …下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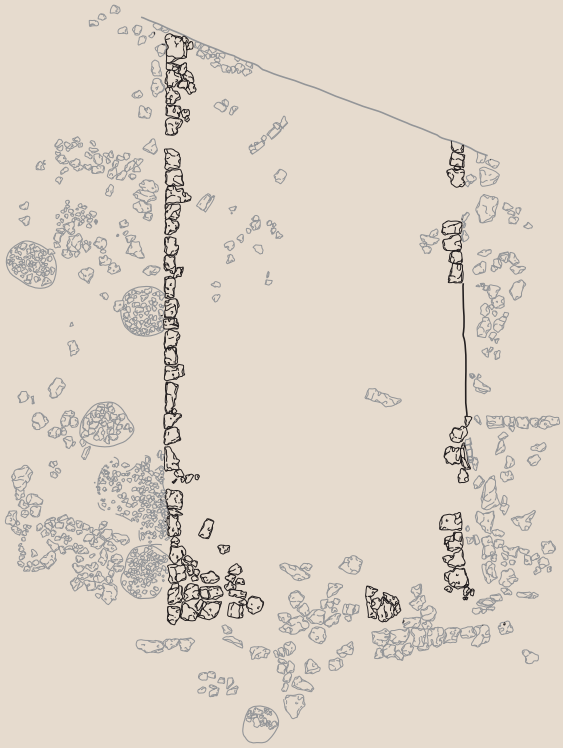
41) 金錫翼,『耽羅紀年』卷四, 戊戌二年清光緒二十四年 ○旌義郡守康仁鎬 重修政堂日觀軒.



Ⅲ. 조사방법 및 층위







Ⅲ. 調査方法 및 層位

1. 調査方法

금번 조사는 성읍민속마을 旌義縣 官衙址에 대한 발굴조사로 총 사업면적 3,333㎡(1,010坪)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면적 중에는 현재 日觀軒이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으로는 다수의 보호수가 자리하고 있어 발굴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호수와 일관헌의 위치한 곳을 제외하고 발굴조사에 착수하였다.

발굴조사에 앞서 조사단은 효과적인 調査方法에 대해 論議한 결과 중심둑을 설치하고 그리드 조사방법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먼저 발굴조사 대상지의 중앙부에 남북과 동서 방향으로 각각 50㎝ 폭의 Baulk를 구획하고 建物址와 관련된 盛土層 및 토층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Trench내 조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Trench 조사과정에서 건물지 상부에 後代 埋沒層이 상당히 두텁게 퇴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활한 발굴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단 중앙부 Baulk를 제외하고는 全面的인 제토 후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면제토 과정에서 노출되는 석재는 교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노출시킨 후 주변 토층 및 건물지와의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전면 제토 후 노출된 각종 석재와 단면 토층과의 상관성을 검토한 결과 지표하 대략 50㎝ 내외까지 최근에 교란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부에 매몰된 다량의 석재와 폐자재, 콘크리트 폐기물 등에 대해 제거한 후 다시 하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지표하 약 70㎝ 정도를 제토한 결과 단면상에서 건물지와 관련된 성토층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레벨상의 건물지 관련 유구를 노출시켜 나갔다. 조사과정에서 현 日觀軒 후면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란된 상태여서 퇴적층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성토층이 확인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취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지의 남쪽으로는 상당부분 중복된 유구가 확인되고 있으나 주변 민가구역으로 연결되고 있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또한 2001년 조사가 이루어지 內衙址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북서쪽으로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보호수가 밀집되어 있어 역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외에도 기존 도로부분에 대한 조사 역시 주변에 위치한 다수의 보호수 때문에 이를 피해 부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한편 旌義邑城의 북벽에 남아있는 城壁에 대한 단면조사를 진행하여 築造方法 및 樣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조사결과 후대 복원과정에서 基底部까지 상당수분 훼손된 상태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정의읍성내 정의현 관아지 발굴조사는 현 일관헌이 위치한 정면부를 먼저 조사하고 다시 그 주변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과정에서 현대 건물지를 제외한 일제강점기 혹은 근대 건물지의 경우 모두 노출시켜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금번 발굴조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점은 旌義縣 衙[東軒]의 위치와 配置狀態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전술하였다시피 금번 조사대상지는 매우 교란된 상태이며 특히 18세기대 이후의 건물인 경우 이미 대부분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파악할 수가 없다. 반면 그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건물지가 노출되었는데 1702년 제작된 『耽羅巡歷圖』를 참고로 하여 관아 建物配置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외에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각종 자료와 지적도를 참고하여 성벽의 형태와 관아건물의 배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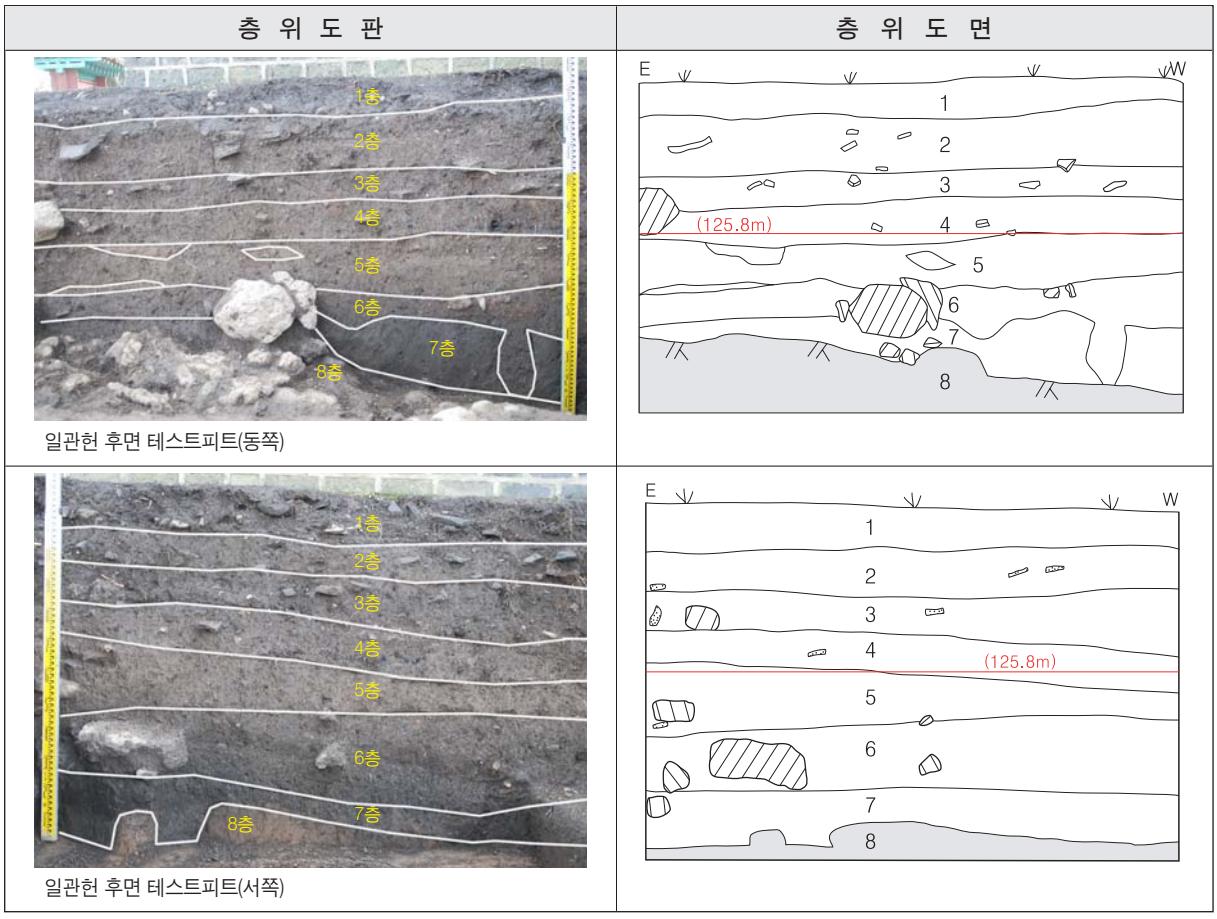
(김경주)

2. 層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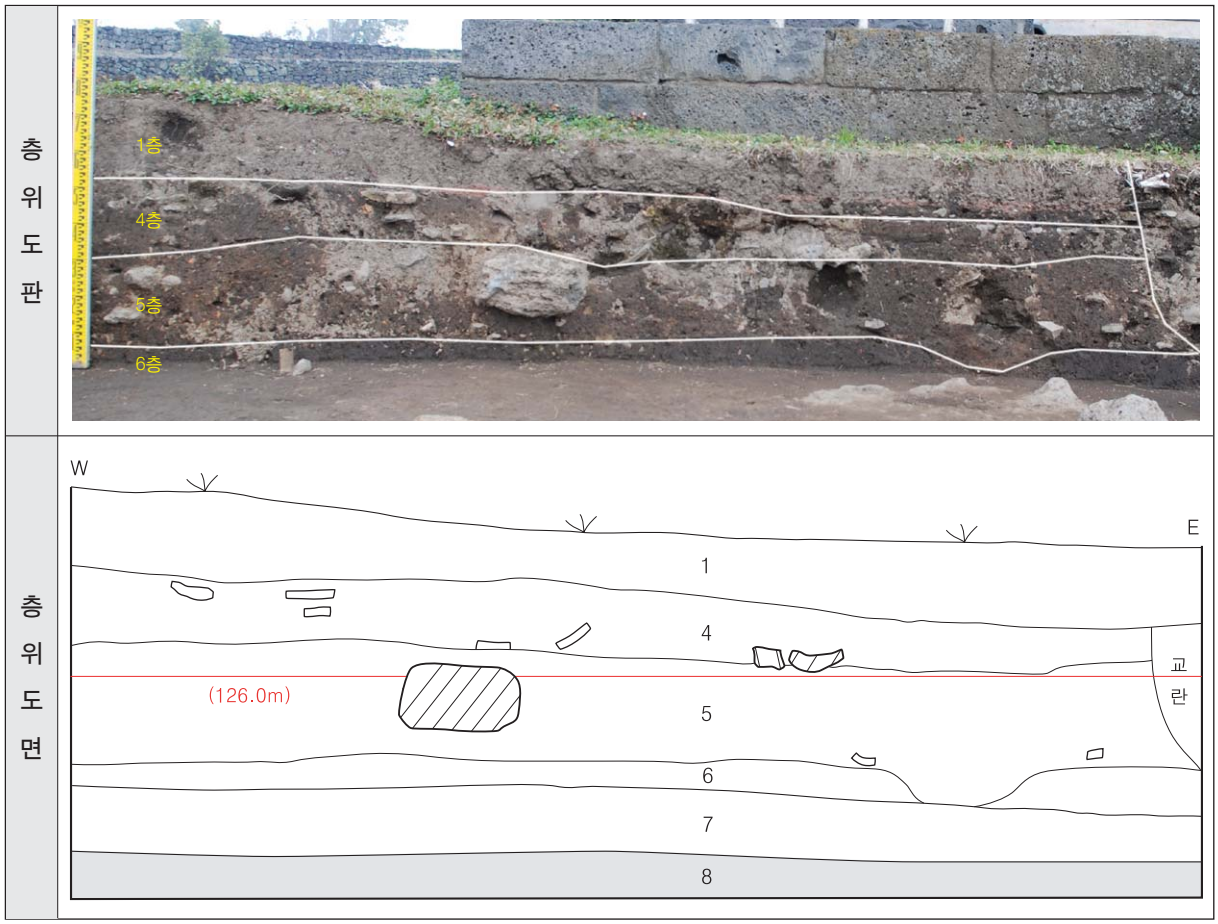
금번 조사대상지는 조선시대 건물지 상부층이 후대의 심한 교란으로 인해 대부분 결실된 상태이다. 따라서 단면의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16~17세기대 이후의 토층은 후대 매립층으로 퇴적된 상태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 日觀軒을 중심으로 각종 시설물이 조성되면서 상당부분 朝鮮時代 後期層을 파괴한 상태이다. 또한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도로개설 과정에서 현 일관헌과 함께 동측 도로변에 대략 크고 작은 자연석과 함께 각종 폐기물을 매립한 상태가 단면상에서 확인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발굴조사 대상지 중 특히 조선시대 건물지가 주로 확인되는 현 일관헌 마당 앞에서는 자연적인 퇴적층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 일관헌 뒤쪽의 단면 상태를 통해 그나마 조사대상지 주변지역에 대한 건물지 조성과정에서 이루어진 盛土層과 함께 堆積層에 대한 검토를 할 수가 있다.

일단 단면토층에 대한 검토는 일관헌 뒤편의 단면상에서 동쪽과 서쪽에 각각 Test-Pit를 설정하고 최하단의 생토층(암반)에서 상부층에 이르는 퇴적양상을 살펴보았다. 자세한 토층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삽도 10. 일관헌 후면 토층단면도



삽도 11. 일관헌 정면 토층단면도

1층 : 흑갈색부식토층. 경작부식토층으로 표토층에 해당한다.

2층 : 흑갈색점토층.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다량 함유된 층으로 상층에 비해 다소 어두운 편이며 일부 기와편이 포함되어 있다.

3층 : 암갈색점토층. 소토와 목탄이 2층에 비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기와편과 자기편 역시 상층에 비해 다량 포함된 층이다.

4층 : 흑갈색점토층. 3층에 비해 다소 밝은 색조를 띠고 있으며 목탄 함유량이 상층 보다 매우 많은 편이다. 일부 목탄이 띠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기와 기와편은 소량 포함되어 있다(18세기 이후).

5층 : 명갈색점토층. 이 층은 전반적으로 매우 밝은 색조의 토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색점토와 흑갈색점토층이 혼재되어 성토가 이루어진 층이다. 특히 소토가 다량 혼입되어 있고 목탄이 일부 함유되어 있다. 유물은 기와편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15~17세기).

6층 : 암갈색점토층. 소토와 목탄이 다량 혼입되어 있으며 기와편이 일부 확인된다. 이 층은 정의현 관아지가 최초에 축조될 당시 성토된 층으로 판단된다. 특히 2호건물지의 내부 퇴적토가 이 층에 해당한다(15~17세기).

7층 : 흑갈색점토층. 니질성점토층으로 소토와 목탄 등 유기물이 전혀 혼입되지 않았으며 유물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층은 성읍리 일대에 퇴적된 화산퇴적층으로 판단된다.

8층 : 황색점토층. 생토층으로 기반암층이다.

상술한 퇴적양상은 정의현 관아지 일대의 기본적인 퇴적층으로 추정된다. 반면 현 일관헌 정면 마당 부분의 경우 후대 교란으로 인해 퇴적층이 대부분 결실된 상태이다. 즉 상부층에서 3층까지 대부분 결실되어 있으며 4층 하부로만 성토층과 퇴적층이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굴조사 대상지의 전체적인 층위는 일관헌 뒤편의 Test-Pit에 대한 퇴적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밖에 없다.

금번 조사대상지의 퇴적층에 대한 조사결과 모두 8개의 층위가 확인된다. 이 중에서 특히 2~6층은 관아지 건물지 축조와 관련된 성토층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퇴적상태로 볼 때 정의현 관아지 일대는 성토층의 퇴적양상이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이루어졌는데 크게 2개의 期層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Ⅰ期層(6~5층 : 15~17세기), Ⅱ期層(4~2층 : 18세기 이후)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아마도 정의현 동헌터 일대의 건물지 축조시기와 맞물릴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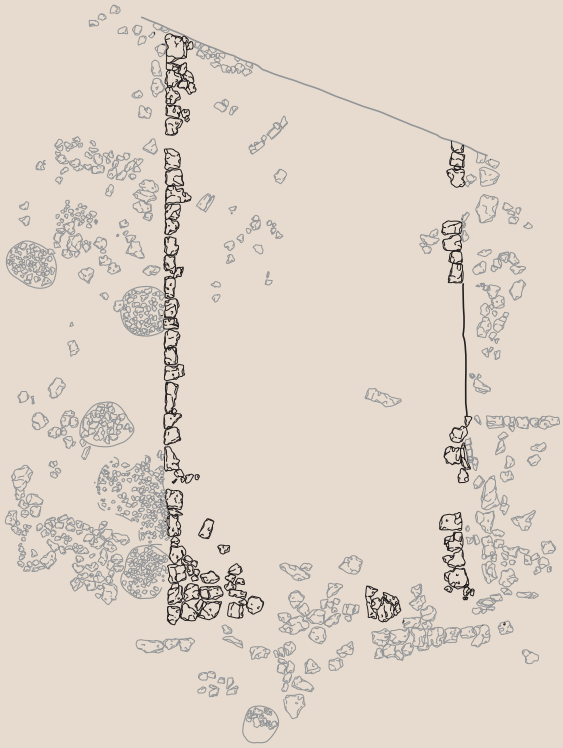
(김경주)



IV. 조사내용







IV. 調査內容

1. 朝鮮時代 建物址

1) 1號 建物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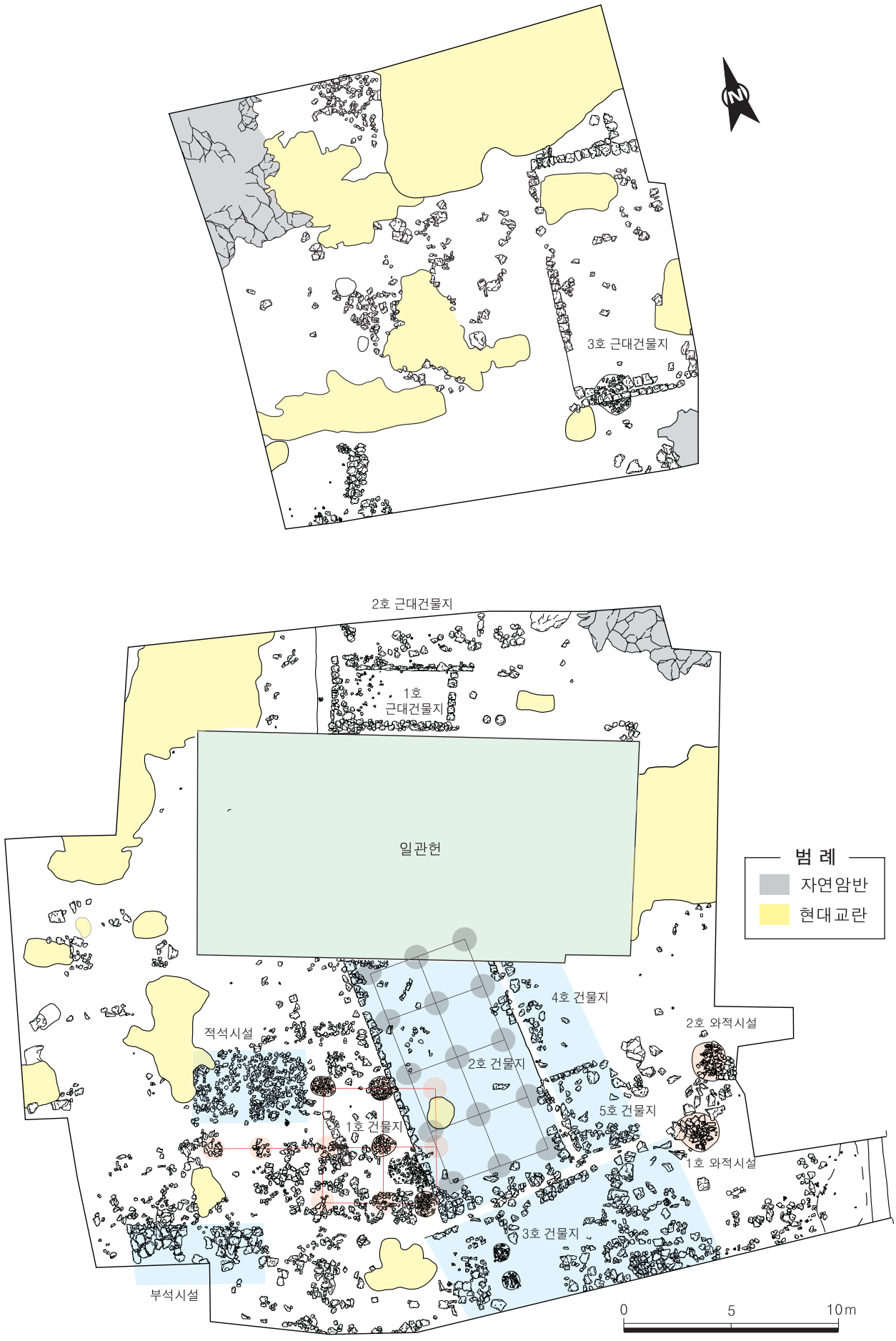
가) 遺構(도면: 6, 도판: 5~7)

1호 건물지는 후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2호 건물지의 북서쪽에 잇대어 위치하고 있다. 현재 잔존상태로 볼 때 2호 건물지가 동북쪽 모서리 부분을 파괴하고 후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반면에 서쪽에 연접하여 축조된 적석시설 역시 건물지의 일부를 파괴하고 축조되어 있다. 따라서 본 건물지의 동쪽과 서쪽부분이 각각 후축된 건물로 인해 파괴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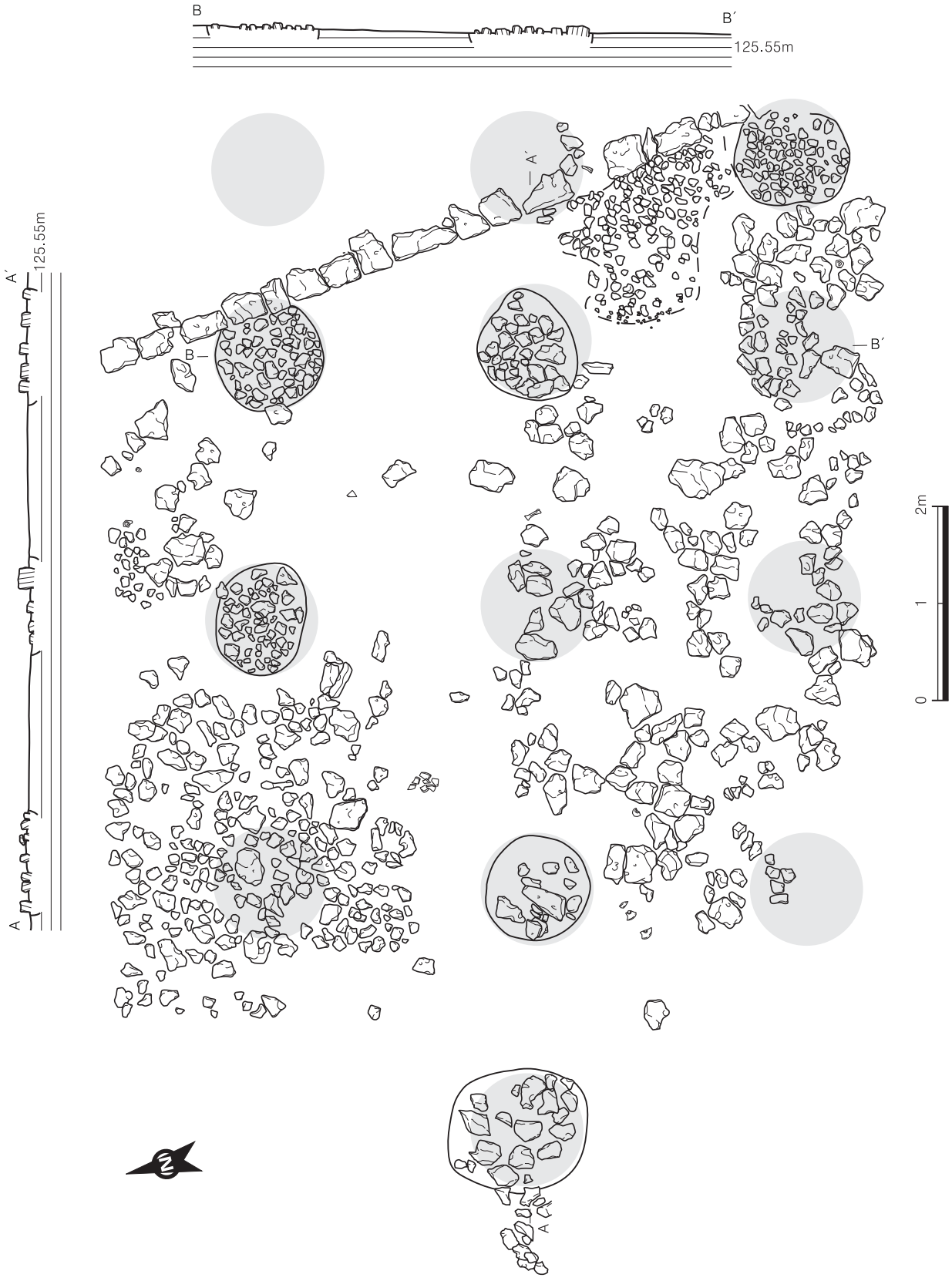
반면에 1702년 제작된 『耽羅巡歷圖』의 「旌義講射」와 「旌義養老」를 참고하면 동헌의 북서쪽으로는 건물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점으로 보면 그 이전 단계의 건물지임을 시사해 준다고 할 것이다. 또한 2호 건물지의 기단부 장축방향과도 각도를 달리하는 점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건물지의 기단은 모두 결실된 상태여서 정확한 기단의 형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현재 잔존하는 적심시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건물지의 장축방향은 N20°E인 남향 건물로 축조되어 있다. 적심은 6기 정도가 자잘한 자갈돌 혹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직경 1.2m 내외의 원형상으로 축조하였다. 하지만 다른 적심시설은 이와 달리 축조되어 있어 정확한 건물의 축조형태를 알 수가 없다. 현재 적심시설의 잔존상태로 볼 때 건물지의 규모는 대략 정면 4칸, 측면 2칸인 건물지로 판단된다. 하지만 북쪽과 서쪽부분의 적심시설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적심석 축조방법이 상이한 점으로 미루어 시기를 달리하는 건물지가 중복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건물지에서 확인되는 각각의 적심간 간격은 대체로 260~270㎝에 해당한다.

건물지 내부는 성토층이 퇴적되어 있는데 대략 2~3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판축된 상태이다. 먼저 기반층인 황색점토층(생토층) 상부에 흑색점토층(니질성 화산층)이 퇴적되었으며 그 위에 소토와 목탄이 일부 혼입된 흑색점토층이 형성되어 있다. 그 상부에는 30㎝ 내외의 크고 작은 자연석을 일정한 레벨을 유지하여 적석하였다. 또한 동일 레벨의 적석 상부에는 소토와 목탄이 혼입된 황색점토층(10㎝ 내외)→자갈이 다량 혼입된 흑색부식토층(8㎝ 내외)→소토와 목탄이 혼입된 황색점토층(5㎝ 내외)의 순으로 판축된 성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1호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주변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살펴보면 대체로 15~17세기대에 해당하는 도자기편이 대부분이다. 이 건물지는 중복상태를 볼 때 2호 건물지에 선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분청사기와 관련된 건물지로 추정된다. 따라서 건물지의 축조시기는 대략 15~16세기대로 여겨진다.



도면 5. 조사대상지 유구배치도



도면 6. 1호 건물지 평단면도

나) 出土遺物

1. 白磁 底部(도면: 7-1, 도판: 8-1)

백자 저부편으로 깨진면이 곱게 마연되었다. 유약은 광택이 없는 백자유를 사용하였으며 굽과 동체 하단부는 소성상태가 좋지 못하다. 굽은 낮은 오목굽의 형태로 접지면의 폭이 일정하지 않다. 그릇 안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1.9㎝, 底徑 5.2㎝, 厚 0.9㎝

2. 수키와(도면: 7-2, 도판: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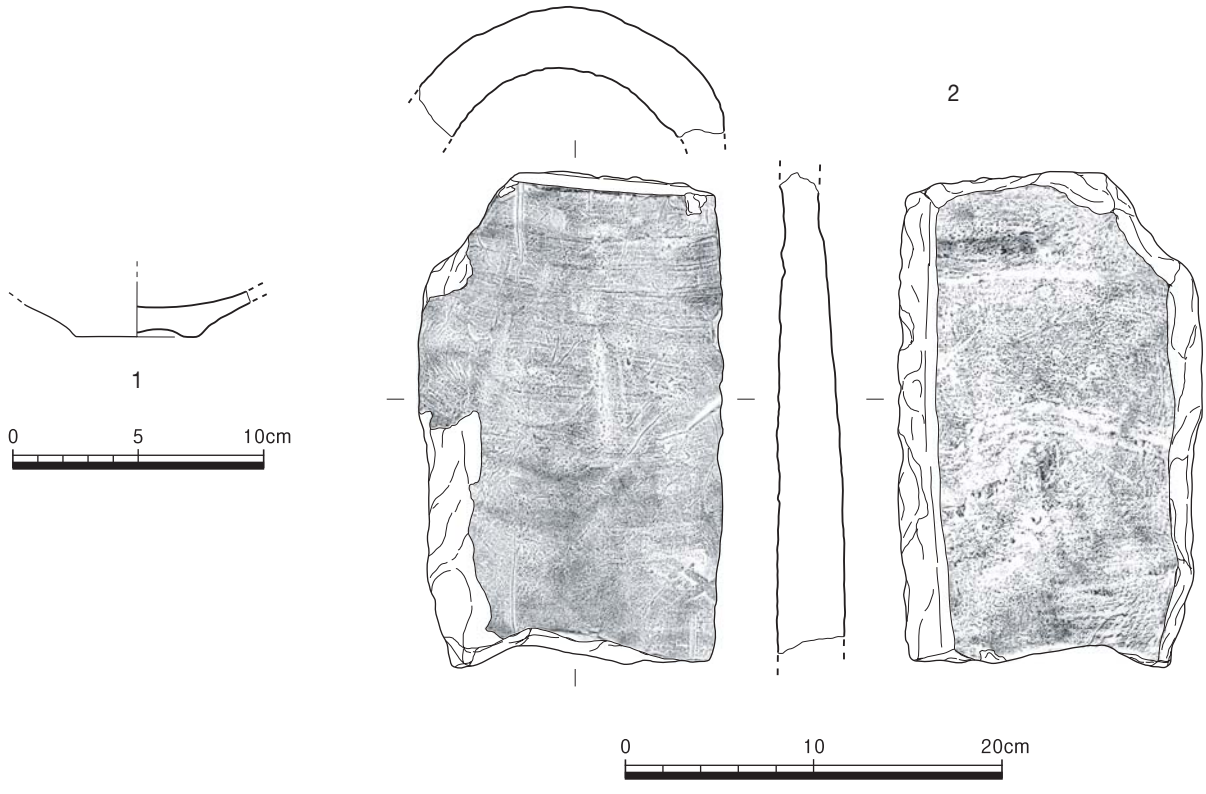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현무암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배면에 문양은 없으며 물손질흔과 빗질흔만 남아 있다. 측면의 절단면은 1/5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윤철흔,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빗질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現長 35.2㎝, 幅 16.3㎝, 厚 2.1~4.0㎝

3. 암키와(도면: 8-3, 도판: 8-3)

갈색 연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배면에는 의도적인 타날과 물손질에 의해 문양이 모두 지워진 상태이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 연철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물손질흔과 타날흔이 확인된다. 단부 내부조정은 깎은후 손누름 한 것으로 보인다.

現長 28.9㎝, 幅 27.6㎝, 厚 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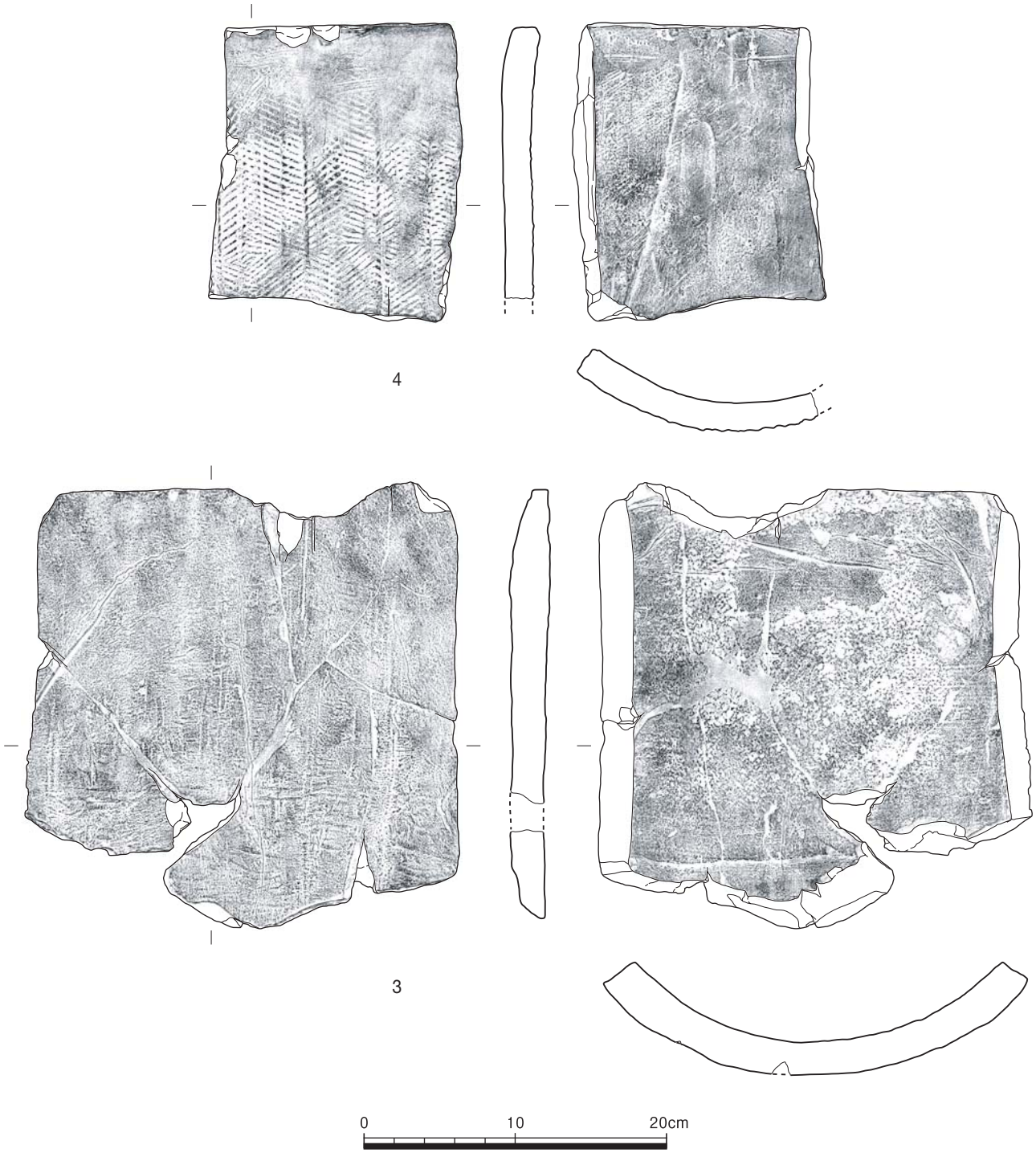


도면 7. 1호 건물지 출토유물(1)

4. **암키와**(도면: 8-4, 도판: 8-4)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전체 문양대는 어골문으로 한 개의 중심 줄기를 갖고 있으며 중심 지점에서 양가지의 방향이 서로 대칭한다. 측면의 절단면은 1/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빗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現長 19.4㎝, 幅 16.1㎝, 厚 1.7~2.0㎝



도면 8. 1호 건물지 출토유물(2)

2) 2號 建物址

가) 遺構(도면: 9, 도판: 9~13)

2호 건물지의 입지는 읍성내의 가장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125m 내외의 비교적 평탄한 지형에 위치한다. 건물지의 상부로는 대략 표토하 70㎝까지 근대 교란된 적석 및 폐콘크리트 매립층과 함께 폐와무지가 퇴적되어 있다. 따라서 2호 건물지의 상부로는 대부분 파괴되어 결실된 상태이며 이후의 건물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다. 다만 현재 노출된 2호 건물지의 상부에 일부 성토층이 퇴적된 점으로 미루어 이 보다 후행하는 건물지가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존하는 일관헌의 경우 일제강점기때 멸실된 이후 1974~1975년간 2년여에 걸쳐 복원되었는데 건물지(일관헌) 기단석 하부의 토층양상을 살펴보면 폐콘크리트를 다져 기초한 후 축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층위상으로 확인된 2호 건물지는 북쪽으로 경사져 올라가는 구릉상에 축조되어 있다. 즉 읍성의 북벽과 잇대어 자연암반층이 노출되어 있으며 남쪽의 그 하단부에 암반층을 피해 축조되어 있다. 또한 건물지 내부에 대한 탐색 Trench 조사결과 대략 30㎝ 하부에서 흑색 화산회토층과 함께 막바로 암반층이 노출되는 점을 보면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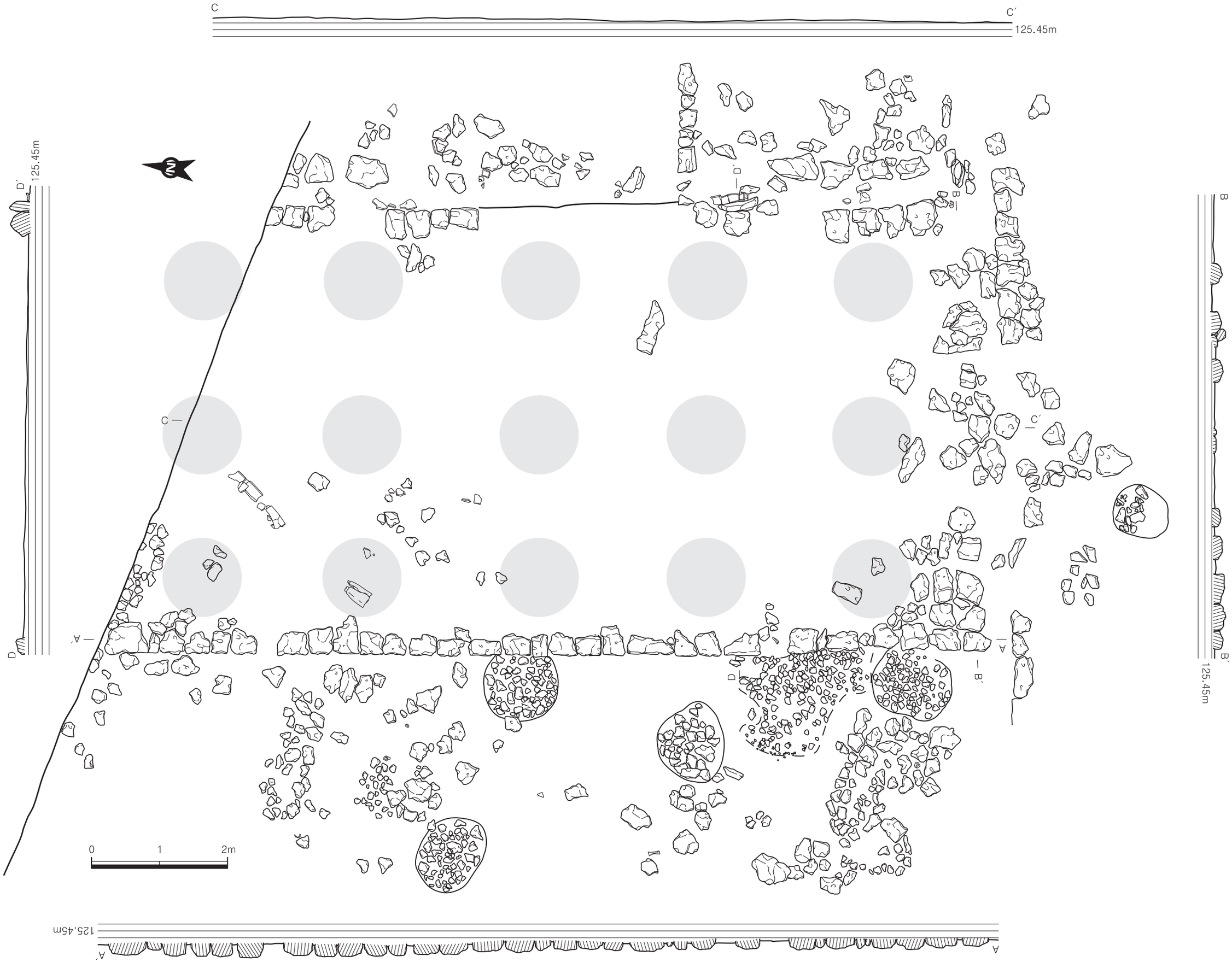
2호 건물지는 금번 발굴조사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건물지에 해당하는데 『耽羅巡歷圖』의 「旌義講射」와 「旌義養老」를 참고하면 동헌터로 추정된다. 또한 1765년부터 1766년 사이에 편찬된 『增補耽羅志』(日本 天理大 所藏)의 문헌기록을 참고할 때 본 건물은 정의읍성의 객사 북쪽에 위치하는 동헌터에 해당하며 건물의 명칭은 아(衙 : 近民軒)로 기록되어 있다.

건물지의 장축방향은 대략 N3°W이며 대체로 남북장축인 동향 건물이다. 현재 건물지의 북쪽 부분이 현존하는 「일관헌」건물로 인해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정확한 건물지의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내부 적심시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 2호 건물지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다. 잔존하는 기단석을 참고하여 건물지의 규모를 파악하면 대략 정면 4~5칸, 측면 2칸 정도로 이해된다. 탐라순력도에서 확인되는 「衙」의 측면 역시 2칸인 점을 보면 당시 동헌건물과 일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단부의 잔존규모를 보면 동-서 5.28m, 남-북 10.40m로 장방형에 가깝게 축조되어 있다. 기단은 현무암제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으며 남서쪽 모서리 기단부에는 자연석을 이용하여 뒷채움하였다.

2호 건물지의 내부토층 양상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토와 목탄이 혼입된 암갈색점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즉 일관헌 뒤편의 Test-Pit에서 확인된 6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물지의 내부는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서쪽 기단부의 동편에서 1940년대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맥주병(DAI NIPPON BREWERY)이 다수 출토되는 점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한편 2호 건물지의 내부에서는 특별한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건물지 내부에 적심과 초석이 모두 결실된 상태이고 군데군데 후대 교란으로 인해 파괴된 상태이다. 이외에 건물지 북서편에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수키와를 이용한 와적 시설이 확인되는데 내부 배수와 관련된 시설로 판단되나 확실치 않다.

2호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교란이 심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나 대체로 기와류, 자기류, 기타유물 등이 확인된다. 기와는 평기와가 대부분이고 자기류는 대체로 16~17세기에 해당하는 백자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건물지 동쪽 기단의 북쪽부분에 잇대어 靑銅製 蓋가 1점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서쪽 기단부의 와적 배수로 근처에서 土球가 1점 확인되었다.



도면 9. 2호 건물지 평단면도

나) 出土遺物

5. **粉青沙器 底部**(도면: 10-5, 도판: 14-5)

발로 추정되는 분청사기 저부이다. 장식은 내면과 외면 동체부까지 백토를 귀얄로 칠하였고 내외면에 원문을 둘렀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분청유를 사용하여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으며 외면에 용융상태가 좋지 못한 편이다. 굽은 깎음새가 비교적 거친 편이며 안바닥이 얕고 편평하게 깎였다. 그릇 안바닥 5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6㎝, 底徑 6.2㎝, 厚 1.6㎝

6. **수키와**(도면: 10-6, 도판: 14-6)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전체 문양은 단곡선을 연속 배치시킨 창해파문과 유사한 형태이다. 측면의 절단면은 1/5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現長 17.9㎝, 幅 12.6㎝, 厚 2.6~2.9㎝

7. **수키와**(도면: 10-7, 도판: 14-7)

회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전체 문양은 창해파문이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외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내면에는 포흔, 포밀림흔이 확인된다.

現長 19.1㎝, 幅 10.4㎝, 厚 1.7~2.2㎝

8. **수키와**(도면: 10-8, 도판: 14-8)

회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은 어골문의 형태이나 직선이 아닌 곡선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의도적인 타날과 물손질에 의하여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측면의 절단면은 좌측이 1/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으며 우측은 1/5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미구 부분에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포흔, 연철흔이 남아 있고 외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現長 35.0㎝, 幅 17.5㎝, 厚 2.1~2.9㎝

9. **암키와**(도면: 11-9, 도판: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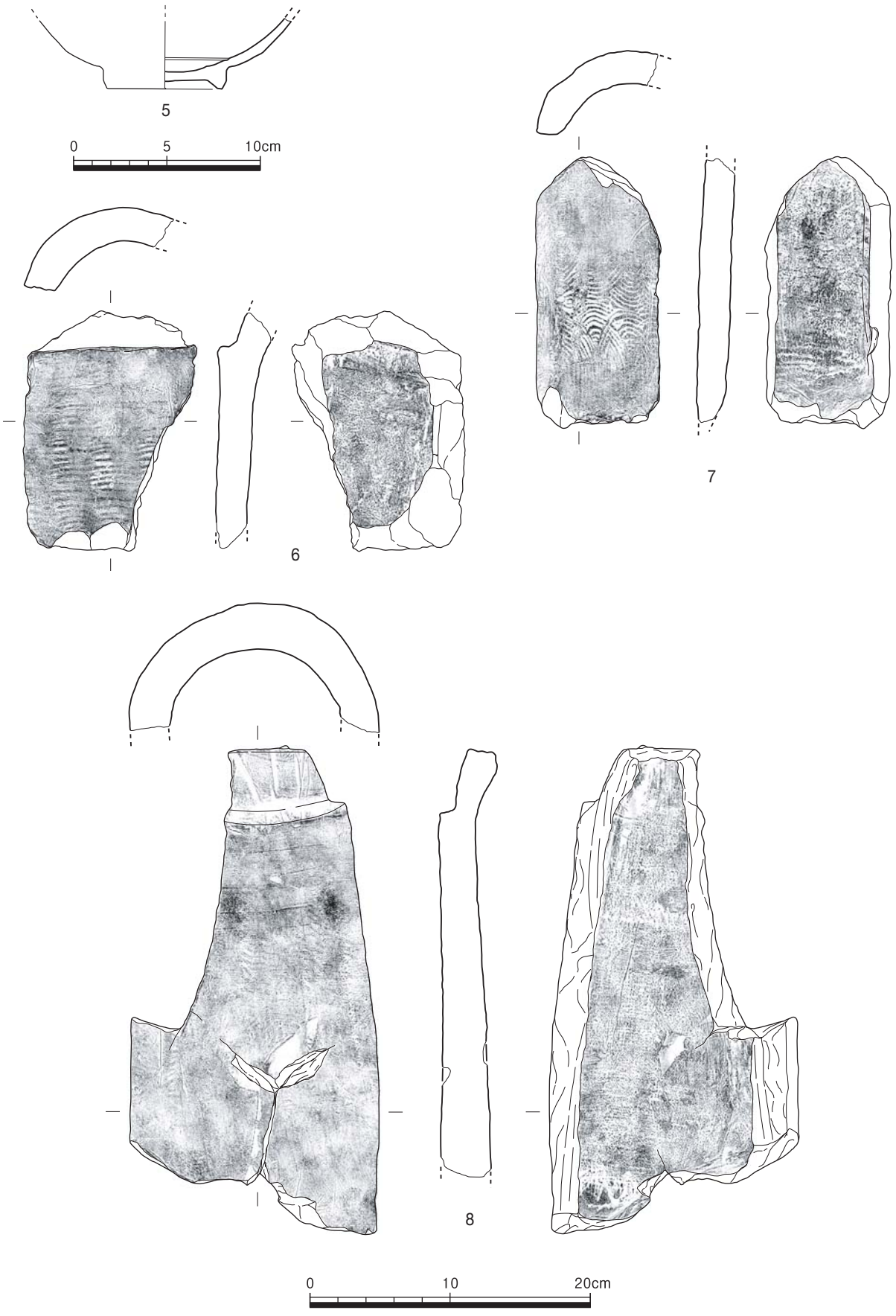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복합문으로 횡집선을 횡대로 구분하여 원문안에 '×'字 형태의 선을 구획한 후 'ノ' 삐침이 상・하・좌・우로 구획되었다. 그 위로 동심원문 형태의 문양과 초화문 형태의 문양이 타날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을 보면 좌측은 1/3가량 안쪽으로 잔존하고 있으며 우측은 3/4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 윤철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물손질흔과 타날흔이 확인된다. 단부 내부조정은 깎은후 손누름 한 것으로 보인다.

現長 25.8㎝, 幅 29.6㎝, 厚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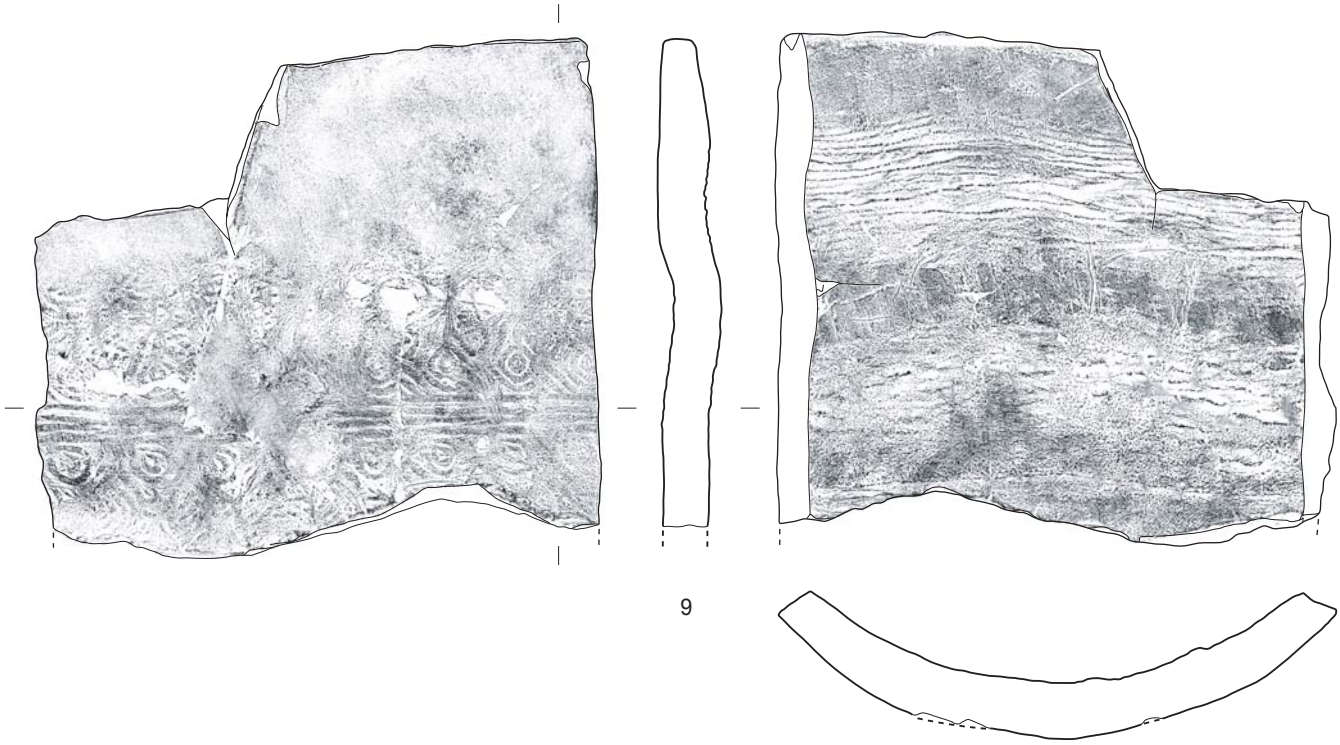
10. **암키와**(도면: 11-10, 도판: 1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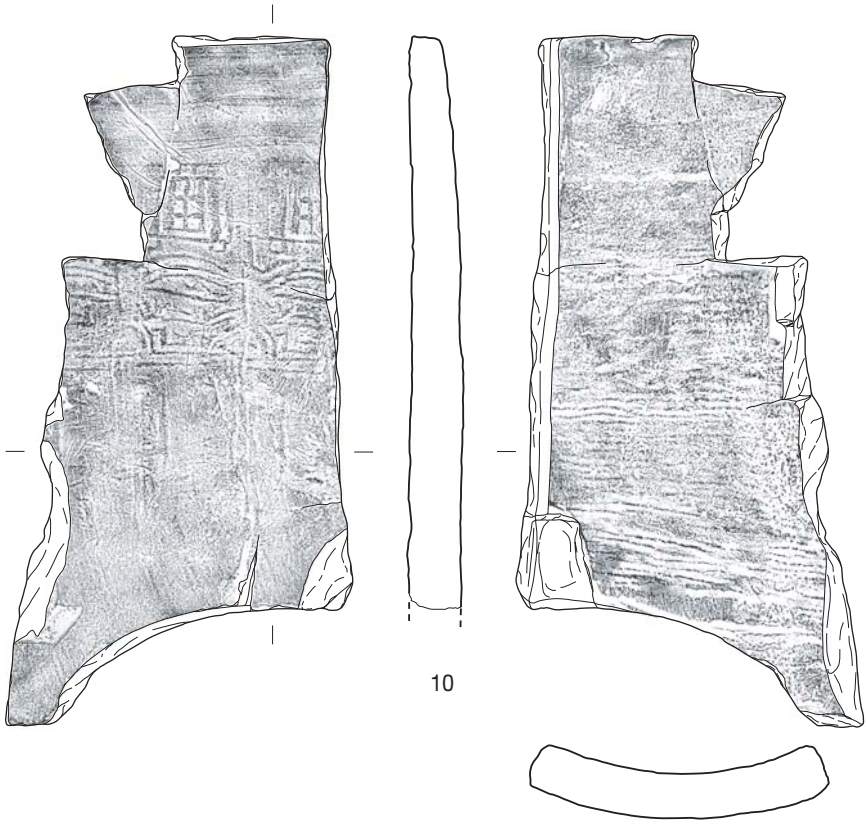
갈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은 이중 방곽안에 세로 1줄 가로 2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나 희미하게 남아 있어 전체 형태를 알기 어렵다. 측면의 절단면은 1/5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 윤철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물손질흔과 타날흔이 확인된다. 단부 내부조정은 깎은후 손누름 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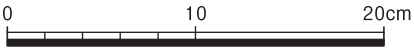
現長 31.2㎝, 幅 15.9㎝, 厚 1.9~2.9㎝



도면 10. 2호 건물지 출토유물(1)







도면 11. 2호 건물지 출토유물(2)

11. **암키와**(도면: 12-11, 도판: 15-11)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복합문으로 횡집선을 횡대로 구분하여 원문안에 '×'字 형태의 선을 구획한 후 'ノ' 삐침이 상 · 하 · 좌 · 우로 구획되었다. 그 위로 동심원문 형태의 문양과 초화문 형태의 문양이 타날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내면에는 윤철흔,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現長 19.3㎝, 幅 15.6㎝, 厚 2.1~2.5㎝

12. **암키와**(도면: 12-12, 도판: 15-12)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전체 문양대는 어골문으로 한 개의 중심 줄기를 갖고 있는데 중앙부에서 양가지의 방향이 대칭하고 서로 겹쳐지게 타날 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 물손질흔, 예새흔이 남아 있고 외면에는 뚜렷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現長 27.3㎝, 幅 25.6㎝, 厚 1.4~1.8㎝

13. **암키와**(도면: 12-13, 도판: 16-13)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전체 문양대는 어골문으로 한 개의 중심 줄기를 갖고 있다. 측면의 절단면은 2/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 빗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물손질흔, 타날흔이 확인된다. 단부 내부조정은 깎은후 손누름 한 것으로 보인다.

現長 19.8㎝, 幅 17.3㎝, 厚 1.2~2.0㎝

14. **암키와**(도면: 13-14, 도판: 16-14)(

회색 연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은 창해파문으로 추정되나 과도한 물손질 및 타날에 의하여 정확한 형태를 파악할 수 없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現長 16.3㎝, 幅 18.9㎝, 厚 1.8~2.4㎝

15. **土球**(도면: 13-15, 도판: 1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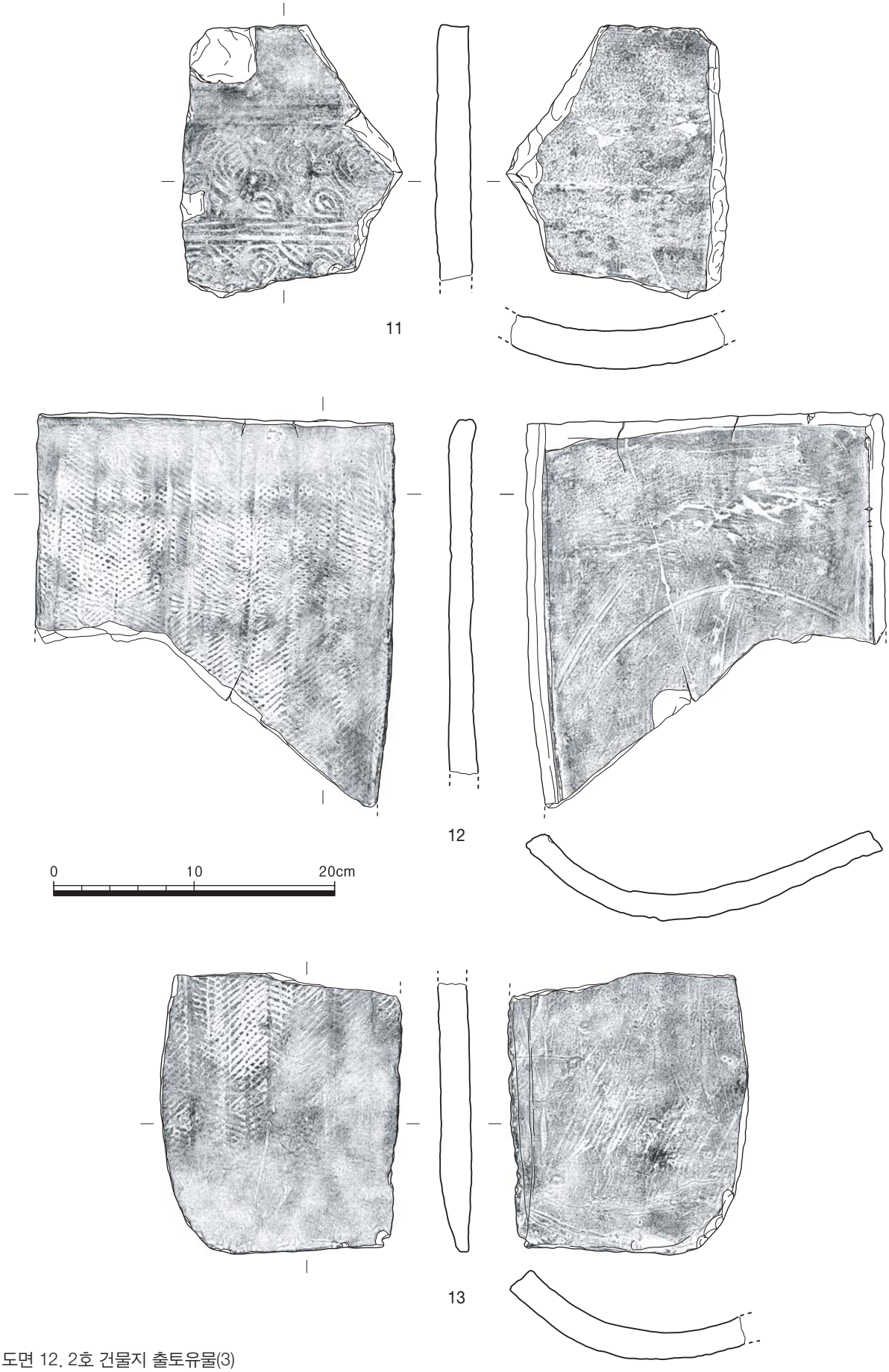
토제 구슬이며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로 성형되어 있다. 소성상태는 다소 양호한 편이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조를 띠고 있다. 단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기면은 성형시 다면(多面)이 형성되어 있고 두군데에 손톱으로 누른 흔적이 확인된다.

直徑 2.7㎝, 厚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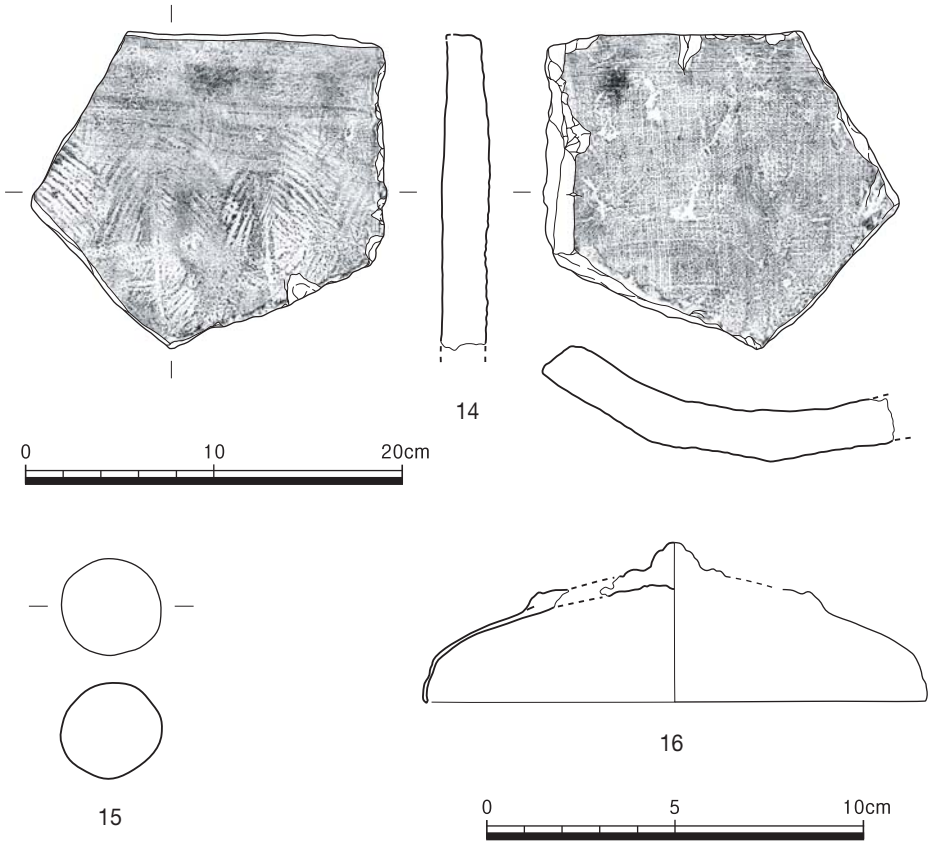
16. **靑銅製 蓋**(도면: 13-16, 도판: 16-16)

청동제 뚜껑(蓋)으로 현재 반파되어 결실된 상태이다. 잔존상태로 볼 때 청동제 합(盒)의 뚜껑으로 추정된다. 특히 손잡이를 비롯한 상부의 대부분의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상태를 알 수가 없으나 보주형의 손잡이가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現高 2.7㎝, 口徑 12.8㎝, 厚 0.1~0.2



도면 12. 2호 건물지 출토유물(3)



도면 13. 2호 건물지 출토유물(4)

3) 3號 建物址

가) 遺構(도면: 14, 도판: 17~18)

3호 건물지는 2호 건물지의 남쪽에 바로 잇대어 위치하고 있다. 건물의 장축방향은 N80°E로 동서장축의 남향건물로 추정되며 잔존하는 기단부의 규모는 대략 5.0m 이다. 기단은 현무암제 할석으로 축조하였으나 대부분 결실되어 있다. 건물지 남서쪽에는 적심석으로 추정되는 원형 적석시설 2기가 확인된다. 적심은 직경 85㎝ 내외로 자잘한 자갈돌을 원형상으로 적석하여 조성하였다. 또한 적심간의 간격은 140㎝로 1호 건물지에 비해 매우 좁은 편에 해당한다. 현재 이 유구는 809-2번지로 연결되고 있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이 곳에 3호 건물지와 관련된 적심시설이 조성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반면에 건물지 적심시설의 서쪽으로는 할석을 이용한 적석이 일부 확인되고 있는데 동쪽부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적석시설이 확인되고 있다. 즉 중앙부의 적심시설을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부석시설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耽羅巡歷圖』의 「旌義講射」와 「旌義養老」를 참고하면 동헌의 남쪽 중앙부에 출입문이 있고 그 양 옆으로 각각 회랑식건물지가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적심시설이 위치한 부분은 문지에 해당하며 그 양단으로 조성된 부석시설은 회랑식 건물지의 상면(床面)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부언하자면 3호 건물지는 동헌 남쪽의 회랑식건물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호 건물지의 기단부와 너무 근접하게 위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시기 건물지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2호 건물지가 폐기된 이후에 축조된 건물지로 추정된다. 다만 기단부의 장축방향이 2호



도면 14. 3호 건물지 평단면도

건물지와 평행하게 축조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시기 동헌 앞의 회랑건물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동시기 건물로 추정할 경우 2호 건물지의 지붕이 3호 건물지 상부에 드리운 형태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건물지 내부가 상당부분 교란되어 정확한 규모와 형태를 파악할 수가 없다. 건물지의 내부에는 소토와 목탄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점토층이 전반적으로 퇴적되어 있으며 일부 소토와 목탄이 다량 혼입된 황색점토층(성토층)이 확인된다. 이 건물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대체로 16~17세기대에 해당하는 백자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2호 건물지와 내부성토층이 유사하며 출토유물의 소속시기 역시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 동시기 존재 건물지로 추정된다.

나) 出土遺物

17. **粉靑沙器 甁**(도면: 15-17, 도판: 19-17)

분청 병의 동체부편으로 외면에 백토를 귀얄로 칠하였다. 유약은 광택이 좋은 분청유를 내외면에 시유하였고 표면에는 잔빙렬이 확인된다.

現長 6.7㎝, 厚 0.6~0.9㎝

18. **粉靑沙器 底部**(도면: 15-18, 도판: 19-18)

분청사기 저부편이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분청유로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다. 유상태가 좋지 못하며 표면에는 잔빙렬이 있다. 굽은 깎음새가 단정하지 못한 편이며 접지면이 좁고 고르지 못하다. 그릇 안바닥면에 포개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1.8㎝, 底徑 4.6㎝, 厚 0.4㎝

19. **白磁 大楪**(도면: 15-19, 도판: 19-19)

백자 대접으로 저부가 소실되었다. 구연은 직립하며 기벽은 사선을 그리는 형태이다. 유약은 광택이 좋은 백자유를 시유하였으며 용융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표면은 매끈하고 빙렬은 확인되지 않는다.

現長 7.5㎝, 口徑 24.6㎝, 厚 0.5㎝

20. **白磁 大楪**(도면: 15-20, 도판: 19-20)

백자 대접으로 안바닥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유약은 투명하고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용융상태가 매우 좋으며 표면이 매끈하고 잔빙렬이 있다. 굽은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고 굽 접지면의 폭은 좁고 고르다. 굽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 3.6㎝, 底徑 5.2㎝, 厚 0.5㎝

21. **白磁 楪匙**(도면: 15-21, 도판: 19-21)

백자 소형 접시로 구연끝이 외반하여 벌어지며 몸체 중앙이 한번 꺾여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로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다. 용융상태가 양호하며 표면에 잔빙렬이 있다. 굽의 깎음새가 다소 거친 편으로 접지면의 폭이 좁다. 번조받침 흔적은 알 수 없다.

現高 3.9㎝, 口徑 10.8㎝, 底徑 4.7㎝, 厚 0.3㎝

22. **白磁 楪匙**(도면: 15-22, 도판: 19-22)

백자 접시로 구연부는 외반하며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 한번 꺾여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유약은 광

택이 있는 백자유를 시유하였으며 굽에는 시유가 잘되지 않았다. 외면에 유가 잘 녹지 않아 일부 유약이 뭉쳐있고 표면에는 빙렬이 있다. 굽의 깎음새는 살짝 거친 편이다. 그릇의 안바닥에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0㎝, 口徑 15.6㎝, 底徑 5.9㎝, 厚 0.6㎝

23. 白磁 楪匙(도면: 15-23, 도판: 20-23)

백자 접시로 구연이 살짝 외반하며 기벽은 사선을 그리며 저부로 이어진다. 그릇 안쪽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 안바닥에 '正' 자를 조탁하였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 되었다. 용융상태가 양호하고 그릇 내면에만 잔빙렬이 있다. 굽은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고르다. 번조받침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現高 4.3㎝, 口徑 15.8㎝, 底徑 5.7㎝, 厚 0.4㎝

24. 白磁 楪匙(도면: 15-24, 도판: 20-24)

백자 접시로 구연부가 살짝 외반하며 동체부는 사선을 그리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그릇의 안쪽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 시유하였으며 용융상태가 양호하고 표면에는 잔빙렬이 있다. 굽은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그릇의 안바닥과 굽 접지면 각각 6곳에 가는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 3.9㎝, 底徑 6.4㎝, 厚 0.5㎝

25. 白磁 楪匙(도면: 15-25, 도판: 20-25)

백자 접시로 구연은 살짝 외반하고 기벽은 사선을 그리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그릇 안쪽에는 바닥이 넓고 편평한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좋은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용융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굽은 깎음새가 단정하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일정하다. 굽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6㎝, 口徑 17.2㎝, 底徑 5.7㎝, 厚 0.4㎝

26. 白磁 楪匙(도면: 15-26, 도판: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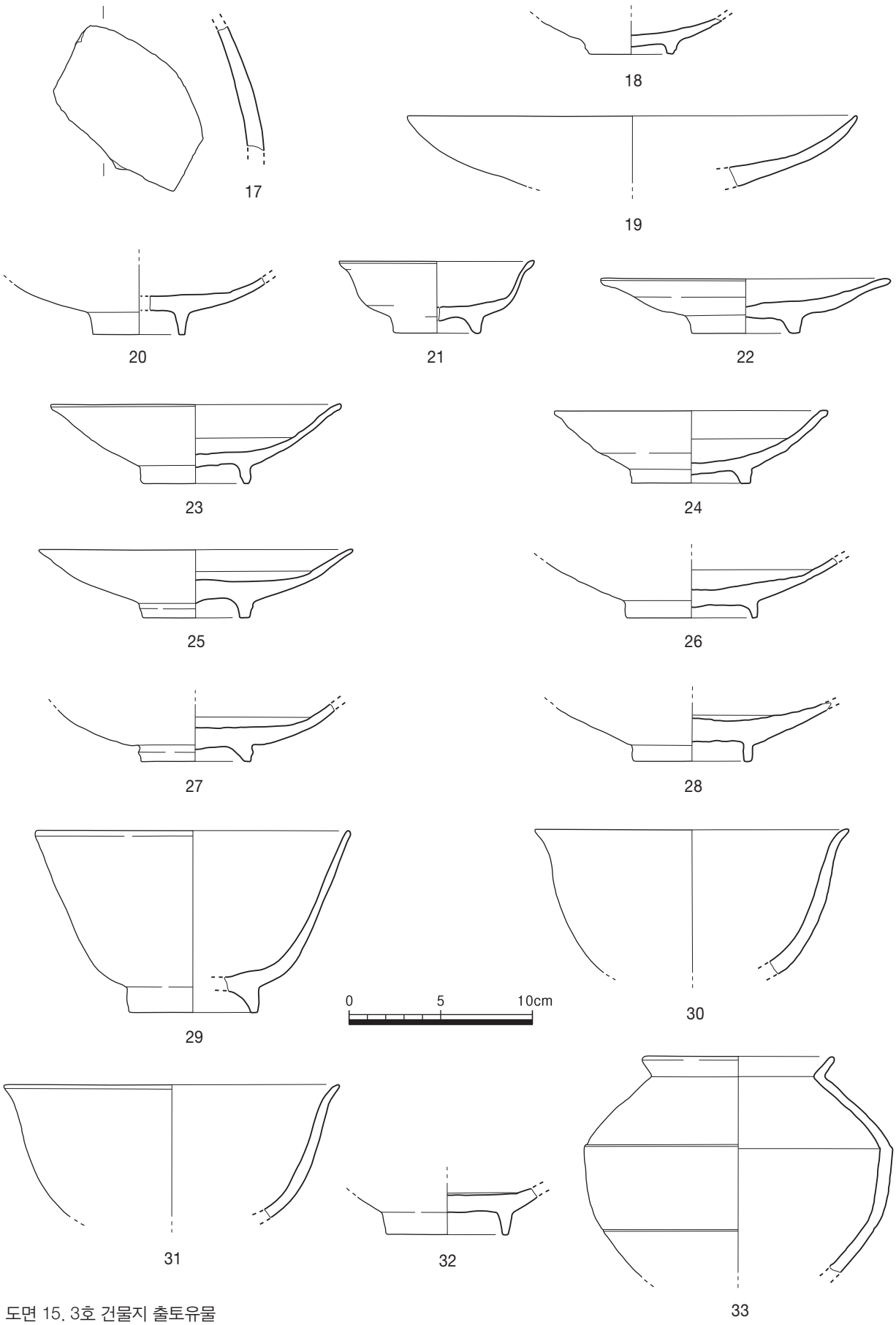
백자 접시의 저부로 안바닥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은은한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그릇의 외면 하단에는 용융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색이 일부 변조되었다. 그릇의 안바닥에는 불순물이 떨어져 묻어 있다. 굽은 깎음새가 단정한 편이며 굽 접지면의 폭은 좁고 일정하지 않다. 유를 닦아낸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2㎝, 底徑 7.1㎝, 厚 0.4㎝

27. 白磁 楪匙(도면: 15-27, 도판: 20-27)

백자 접시로 구연이 소실되었다. 그릇의 안바닥에는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시유하였는데 굽 안쪽과 굽 주변에는 유가 잘 묻지 않았다. 표면에는 빙렬이 없으며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굽은 오목굽에 가깝고 깎음새가 다소 거친 편이다. 그릇의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 굵은 알갱이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1㎝, 底徑 6.0㎝, 厚 0.6㎝



도면 15. 3호 건물지 출토유물

28. 白磁 楪匙(도면: 15-28, 도판: 21-28)

백자 접시로 저경보다 큰 내저원각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는데 용융상태가 좋은 편이다. 굽은 깎음새가 단정하며 굽 접지면의 폭은 일정하지 않은 편이다. 굽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4.3㎝, 底徑 6.4㎝, 厚 0.6㎝

29. 白磁 鉢(도면: 15-29, 도판: 21-29)

백자 발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연에서부터 거의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하단에서 꺾여 굽으로 이어지는 기형이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로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다. 용융상태가 좋고 표면에 빙렬이 없다. 굽의 깎음새는 다소 거친 편이다. 그릇 안바닥에 가는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 9.9㎝, 厚 0.4㎝

30. 白磁 鉢(도면: 15-30, 도판: 21-30)

백자 발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외반하며 동체부가 볼록한 형태이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시유하였는데 외면 하단은 용융상태가 좋지 않다. 표면에는 빙렬이 있다.

現長 8.2㎝, 厚 0.5㎝

31. 白磁 鉢(도면: 15-31, 도판: 21-31)

백자 발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외반하여 벌어졌으며 동체부분이 볼록한 형태이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시유하였다. 외면에 일부 유약이 잘 녹지 않아 뭉친 부분이 있으나 용융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다. 표면에는 빙렬이 없다.

現長 8.0㎝, 厚 0.5㎝

32. 白磁 底部(도면: 15-32, 도판: 21-32)

백자 저부로 저경보다 큰 내저원각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좋은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용융상태가 양호하며 표면이 매끈하고 빙렬은 없다. 소성중에 불순물이 기내면에 탄착되어 있다. 굽은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한 편이다. 굽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2.7㎝, 底徑 6.4㎝, 厚 0.9㎝

33. 陶器 瓶(도면: 15-33, 도판: 21-33)

질그릇의 단지로 저부가 결실된 상태이다. 최대경은 동체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하게 내경하는 기형이다. 동체부에는 2조의 횡침선이 확인된다. 구연부는 '〈' 字상으로 외반하고 있다. 유약은 적갈색유가 시유되어 있다.

現長 12.2㎝, 厚 0.5㎝

4) 4號 建物址

가) 遺構(도면: 16, 도판: 22)

4호 건물지는 2호 건물지의 동쪽에 잇대어 위치하고 있다. 현재 서쪽 기단부 일부만이 잔존할 뿐 대부분 결실된 상태이다. 잔존상태로 볼 때 건물의 장축방향은 N30°W이며 동향 건물로 판단된다. 5호 건물지

에 의해 기단부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은 현무암제 할석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잔존규모는 대략 10.0m 이다. 건물지의 장축방향이 2호 건물지와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동시기 건물로 추정되지만 양 건물의 기단부가 너무 근접하고 있어 시기를 달리하는 건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물지 내부의 퇴적층은 전반적으로 소토와 목탄이 일부 혼입된 암갈색점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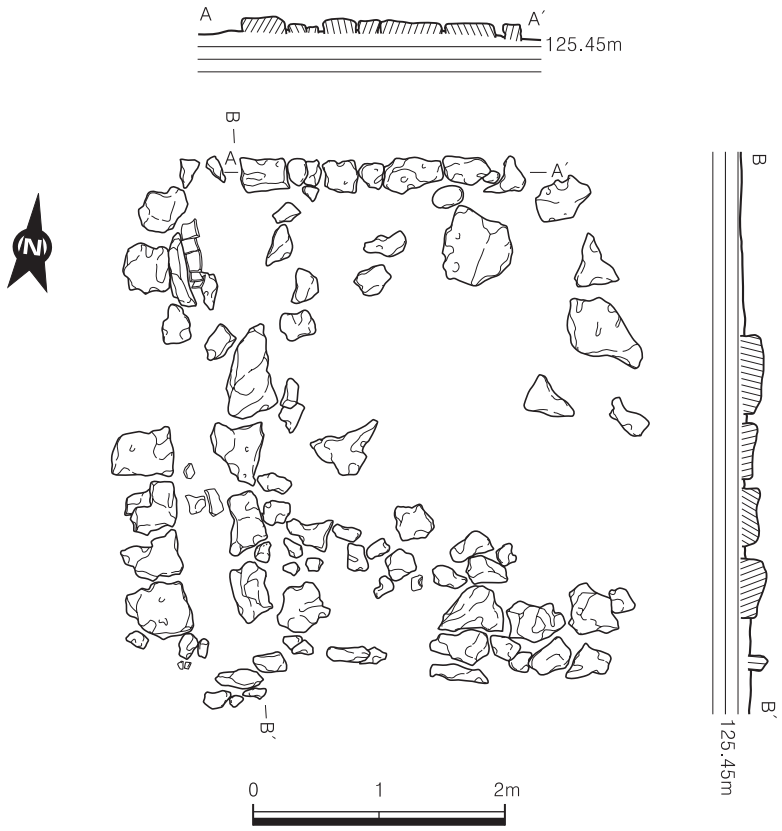


도면 16. 4호 건물지 평단면도

5) 5號 建物址

가) 遺構(도면: 17, 도판: 23~24)

5호 건물지는 2호와 4호 건물지를 각각 파괴하고 후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상태로 볼 때 장축방향은 N86°W로 동서장축의 남향 건물로 추정된다. 타 건물지에 비해 기단으로 사용된 석재가 매우 작고 일정하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초가건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잔존하는 기단부의 규모는 대략 동-서 3.10m 정도이다. 건물지 내부의 적심시설이나 초석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내부시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건물지 내부의 토층은 대체로 소토와 목탄이 소량 혼입된 암갈색점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도면 17. 5호 건물지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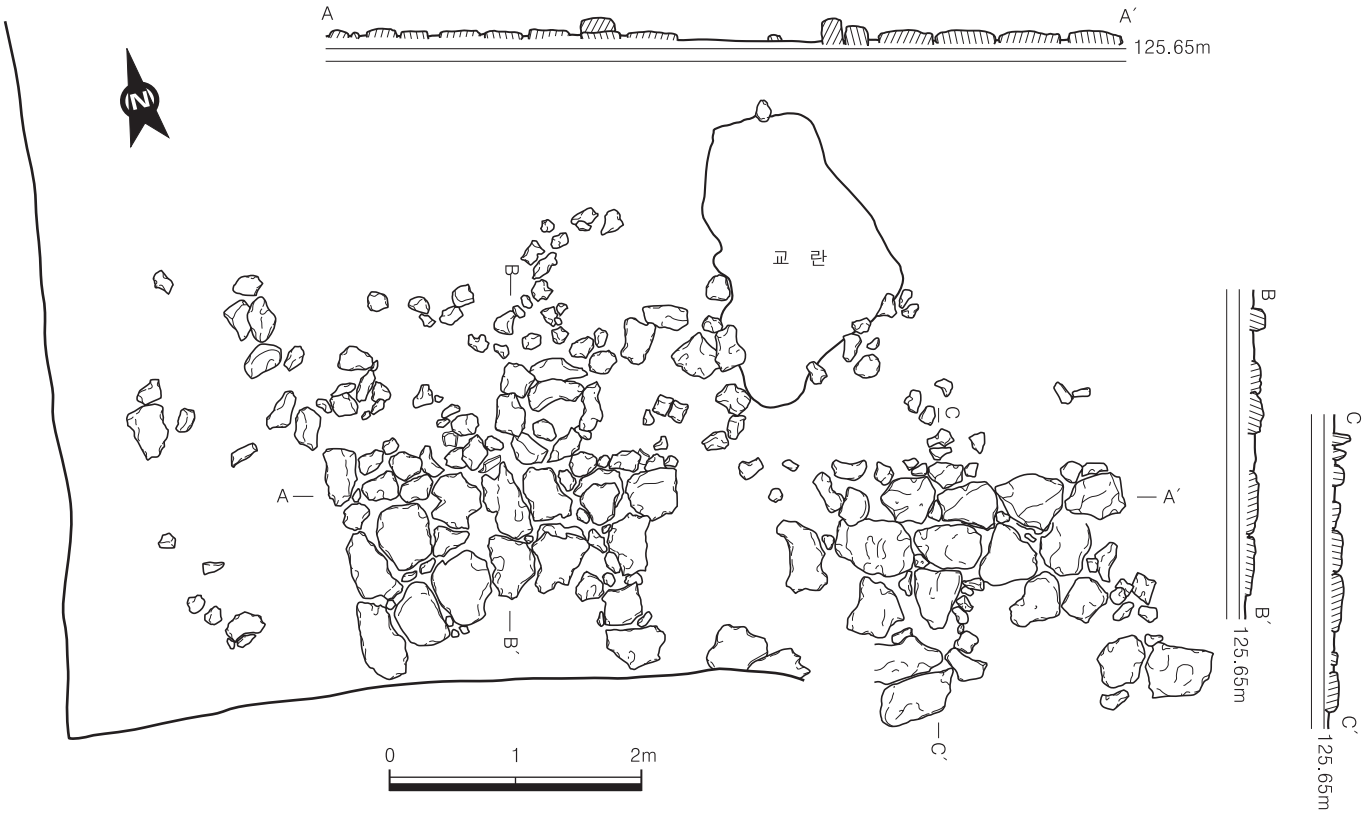
2. 敷石施設

가) 遺構(도면: 18, 도판: 25)

부석시설은 1호 건물지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잔존상태로 볼 때 대체로 N72°W이며 남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810번지로 유구가 연결되고 있어 전체적인 형태와 규모는 알 수가 없다. 잔존규모를 살펴보면 동-서 4.90m, 남-북 1.45m 이다. 부석시설은 현무암제의 판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전반적으로 부석하여 이용하였는데 1993년도 조사된 정의현 객사지에서 이와 유사한 시설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앙부를 중심으로 양단에 각각 부석시설이 배치되는 건물지가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조사된 부석시설 역시 3호 건물지의 남서쪽과 남동쪽에서 군데군데 확인되는 부석시설과 유사한 성격의 시설물로 판단된다. 현재 잔존상태로 볼 때 2호~5호 건물지의 장축방향과는 달리하는 점을 볼 때 동시기 건물배치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1호 건물지와 장축방향이 평행한 점으로 미루어 동시기 시설물로 추정된다.

한편 1702년 제작된『耽羅巡歷圖』의「旌義講射」,「旌義養老」,「旌義操點」 등을 참고하면 동헌터의 북서쪽으로는 건물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있어 시기를 달리하는 일련의 건물지가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부석시설은 1993년도 객사지 발굴조사 당시에도 유사한 구조의 부석시설이 양쪽에 병렬적으로 배치된 건물지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의 건물군을 17세기 이전의 건물구조로 이해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석시설은 현무암제 할석과 판석

을 이용하여 측면과 측면을 맞추어 축조하였으며 수평상의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부석시설로 구분하고 차후 주변 810번지 일대에 대한 확장 발굴조사를 통해 그 형태와 성격이 명확해질 경우 다시 건물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도면 18. 부석시설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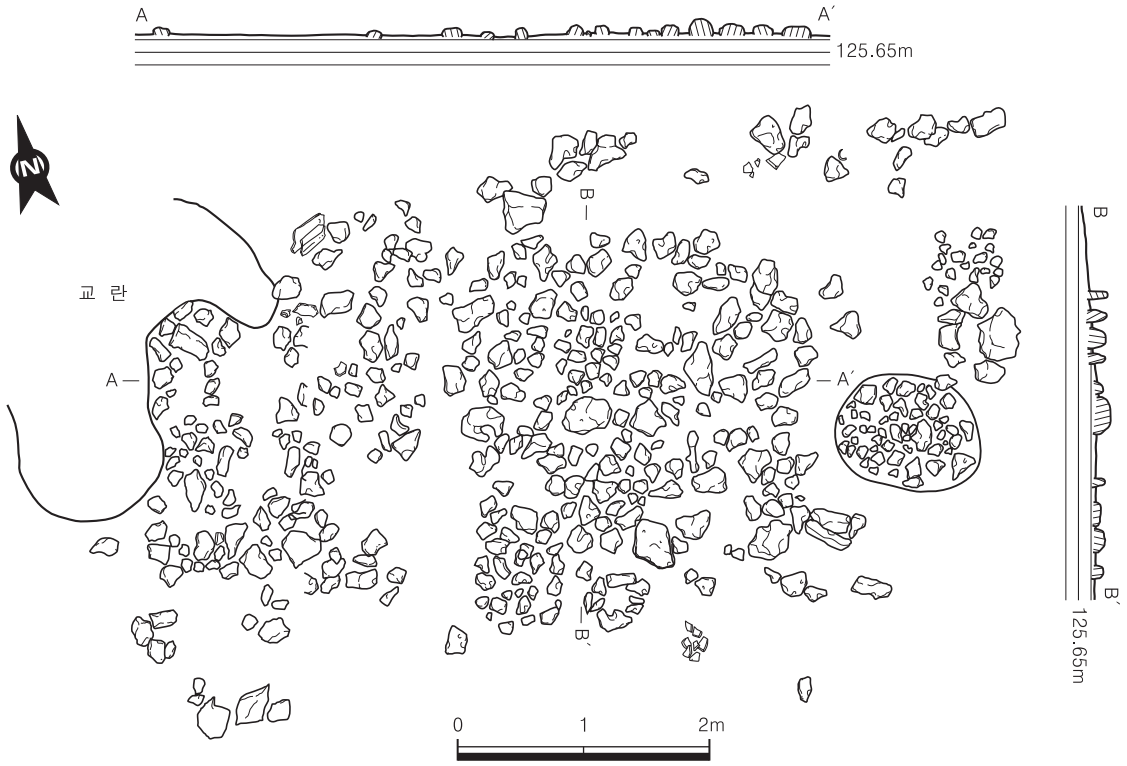
3. 積石施設

가) 遺構(도면: 19, 도판: 26~27)

적석시설은 1호 건물지의 북서쪽에 잇대어 위치하고 있다. 현재 노출상태를 보면 1호 건물지의 서쪽부분을 파괴하고 후축된 상태이다. 잔존상태를 보면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이 N73°W 이다. 적석은 크고 작은 자연석과 함께 자잘한 자갈돌을 혼재하여 적석하였고 특별한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다. 적석시설의 잔존상태를 볼 때 남북장축의 장방형 건물지로 추정되나 기단 및 적심시설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일부 남북방향의 기단으로 추정되는 판석 혹은 할석제 석재가 일부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기단부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후대 교란으로 인해 결실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현재 노출된 건물지의 하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탐색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한 결과 남북으로 연결되는 기단석이 일부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적석시설은 건물지의 내부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의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소토와 목탄이 소량 혼입된 암갈색점토층 상부로 소토와 목탄이 다량 혼입된 황색점토층과 자갈층이 연속적으로 판축되어 성토된 토층이 전반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전술한

1호 건물지와 유사한 방법으로 성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동시기 건물지일 가능성이 높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확인된 기단부의 방향이 동쪽을 향해 맞추어진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성격이 다른 유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현재 노출된 기단부의 방향이 2호 건물지와 동일한 형태로 축조되었다면 오히려 동일시기의 건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는 차후 하부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어야 명확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노출된 적석시설은 건물지의 내부 시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적석시설은 상당부분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와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현재 잔존규모를 보면 동-서 3.30m, 남-북 5.25m 이다. 적석시설의 동쪽과 남쪽으로는 대부분 건물이 배치되거나 이와 관련된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지만 북쪽과 서쪽으로는 아무런 시설물이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 후대 교란으로 인해 파괴된 상태이다. 또한『耽羅巡歷圖』에 따르면 동헌의 북서쪽으로는 건물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이를 반증해 준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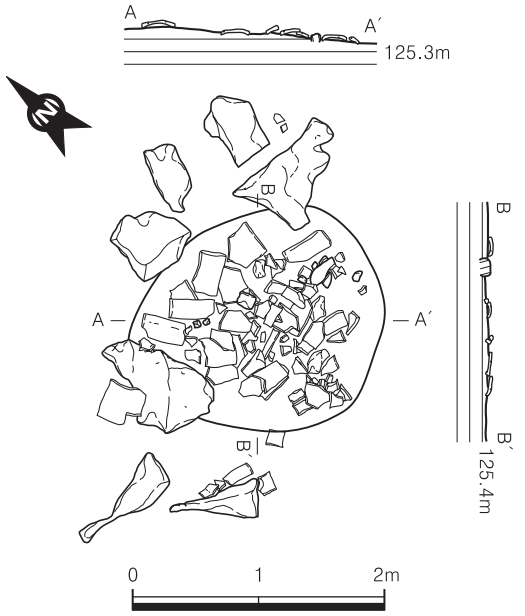
도면 19. 적석시설 평단면도

4. 瓦積施設

1) 1號 瓦積施設

가) 遺構(도면: 20, 도판: 28~29)

5호 건물지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잇대어 2호 와적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와적시설은 평기와를 대략 직경 1.80m 범위 내에 원형상으로 와적한 상태이다. 와적된 상태가 정형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축조상태를 볼 때 2호 와적시설과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2기의 와적시설이 동일 목적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호와 2호 와적시설은 연결선상의 축이 대략 N27°W를 이루고 있으며 양 와적시설 간의 간격은 4.60m 이다. 즉 2기의 와적시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일한 방법으로 축조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헌건물의 동쪽 문지와 관련된 시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도면 20. 1호 와적시설 평단면도

나) 出土遺物

34. 銘文瓦(도면: 21-34, 도판: 30-34)

적갈색 경질의 명문 수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抄道山造' 銘이 종방향으로 음각된 도박판으로 7회 타날 하였다. 양각 우서이고 문양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미구부분은 결실되었다. 측면의 절단면 좌측은 1/3 안쪽으로 잔존하고 있으며 우측은 완전하게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과 횡방향 연철흔,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단부 내면조정은 깎은후 손누름한 것으로 보인다.

現長 36.2㎝, 幅 16.8㎝, 厚 1.4~3.0㎝

35. 銘文瓦(도면: 21-35, 도판: 3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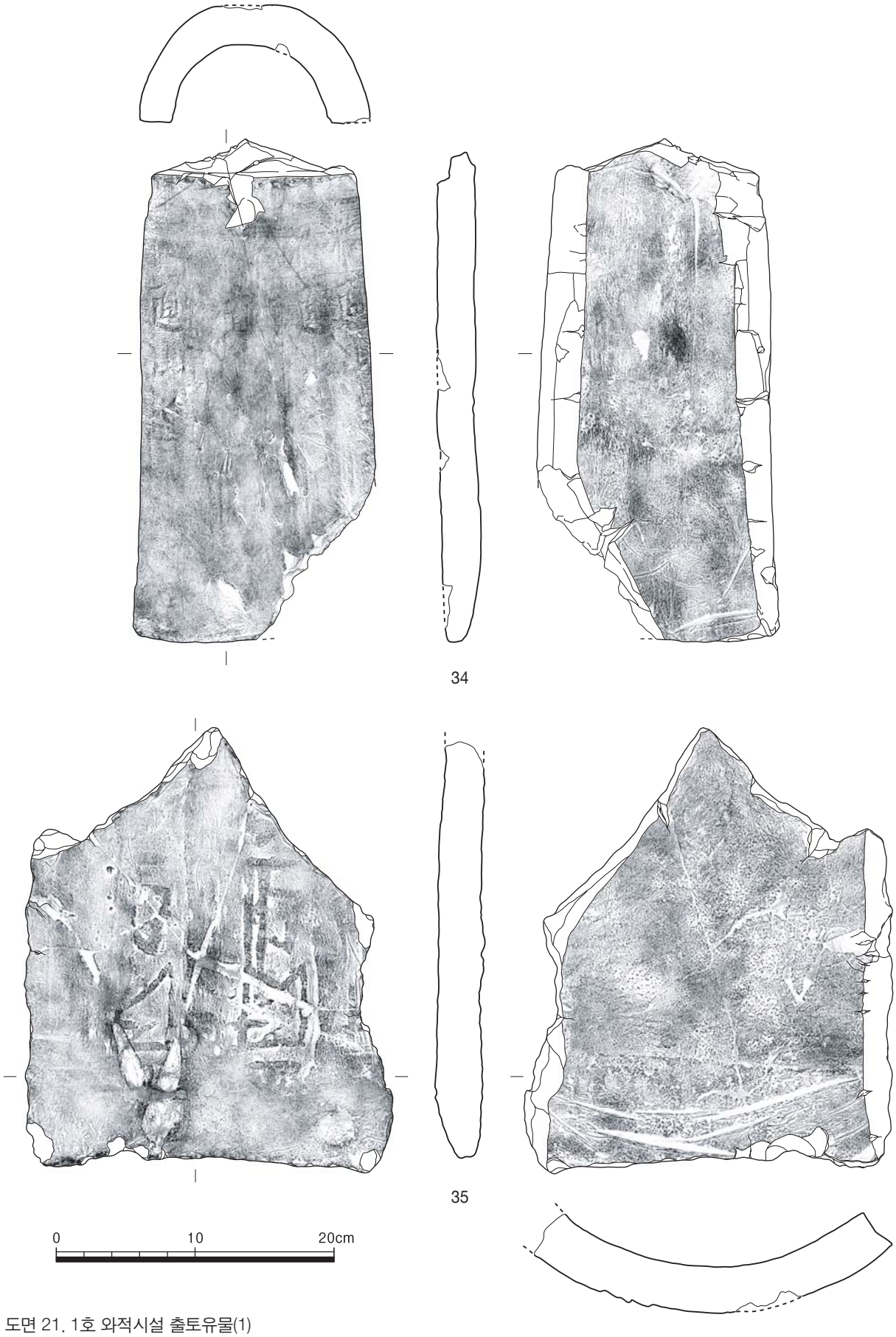
회갈색 연질의 명문 암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종방향으로 명문이 음각된 도박판을 타날하였다. 양각이며 우·좌서 구별은 안된다. 도박의 폭은 10㎝ 정도로 추정된다. 타날된 명문을 뚜렷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외면에는 빗질흔,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단부 내부조정은 깎은후 손누름 한 것으로 보인다. 절단면은 안쪽으로 1/2가량 남아 있다.

現長 31.5㎝, 幅 24.7㎝, 厚 2.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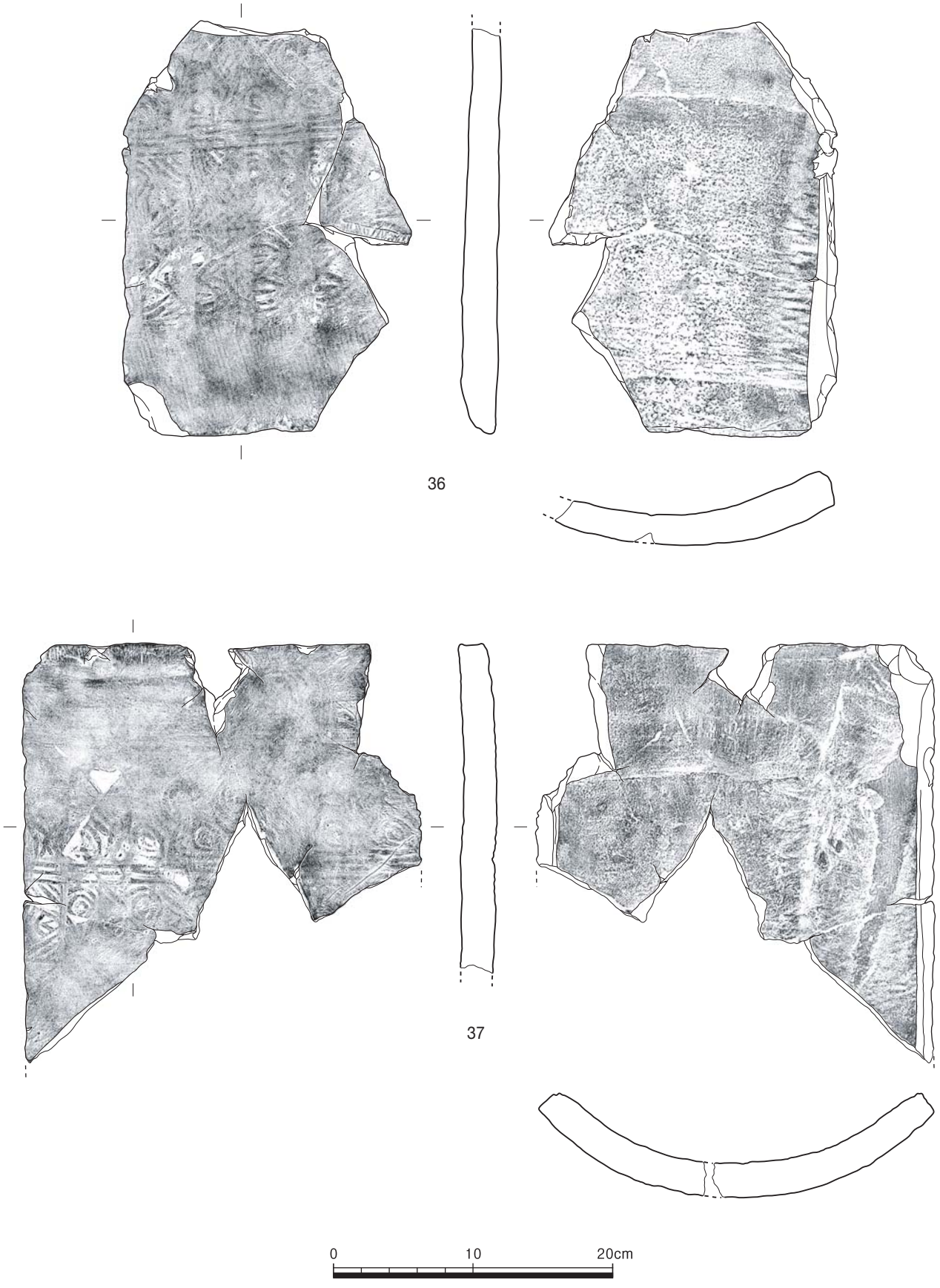
36. 암키와(도면: 22-36, 도판: 30-36)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복합문으로 횡집선을 횡대로 구분하여 원문안에 '×'字 형태의 선을 구획한 후 'ノ' 삐침이 상·하·좌·우로 구획되었다. 그 위로 동심원문 형태의 문양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포흔, 연철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단부 내부조정은 깎은후 손누름 한 것으로 보인다.

現長 29.5㎝, 幅 20.5㎝, 厚 1.6~2.4㎝



도면 21. 1호 와적시설 출토유물(1)



도면 22. 1호 와적시설 출토유물(2)

37. **암키와**(도면: 22-37, 도판: 31-37)

갈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복합문으로 횡집선을 횡대로 구분하여 원문안에 '×'字 형태의 선을 구획한 후 'ノ' 삐침이 상·하·좌·우로 구획되었다. 그 위로 동심원문 형태의 문양이 타날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1/10가량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 연철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단부 내부조정은 깎은후 손누름 한 것으로 보인다.

現長 29.8㎝, 幅 28.4㎝, 厚 2.2㎝

38. **암키와**(도면: 23-38, 도판: 31-38)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은 의도적인 타날에 의해서 많이 없어져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 윤철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27.9㎝, 幅 24.4㎝, 厚 1.7~2.2㎝

39. **암키와**(도면: 23-39, 도판: 31-39)

갈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은 의도적인 타날에 의해서 많이 없어져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측면의 절단면은 1/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 포밀림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32.0㎝, 幅 23.3㎝, 厚 1.4~2.2㎝

40. **암키와**(도면: 24-40, 도판: 31-40)

갈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복합문으로 횡집선으로 횡대를 구획한 후 상·하에 동심원문을 구획한 것으로 보인다. 측면의 절단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면에는 포흔과 연철흔이 남아 있고 외면에는 타날흔과 예새흔이 확인된다. 단부 내부조정은 깎은후 손누름 한 것으로 보인다.

現長 34.0㎝, 幅 24.5㎝, 厚 1.7~2.2㎝

41. **암키와**(도면: 24-41, 도판: 3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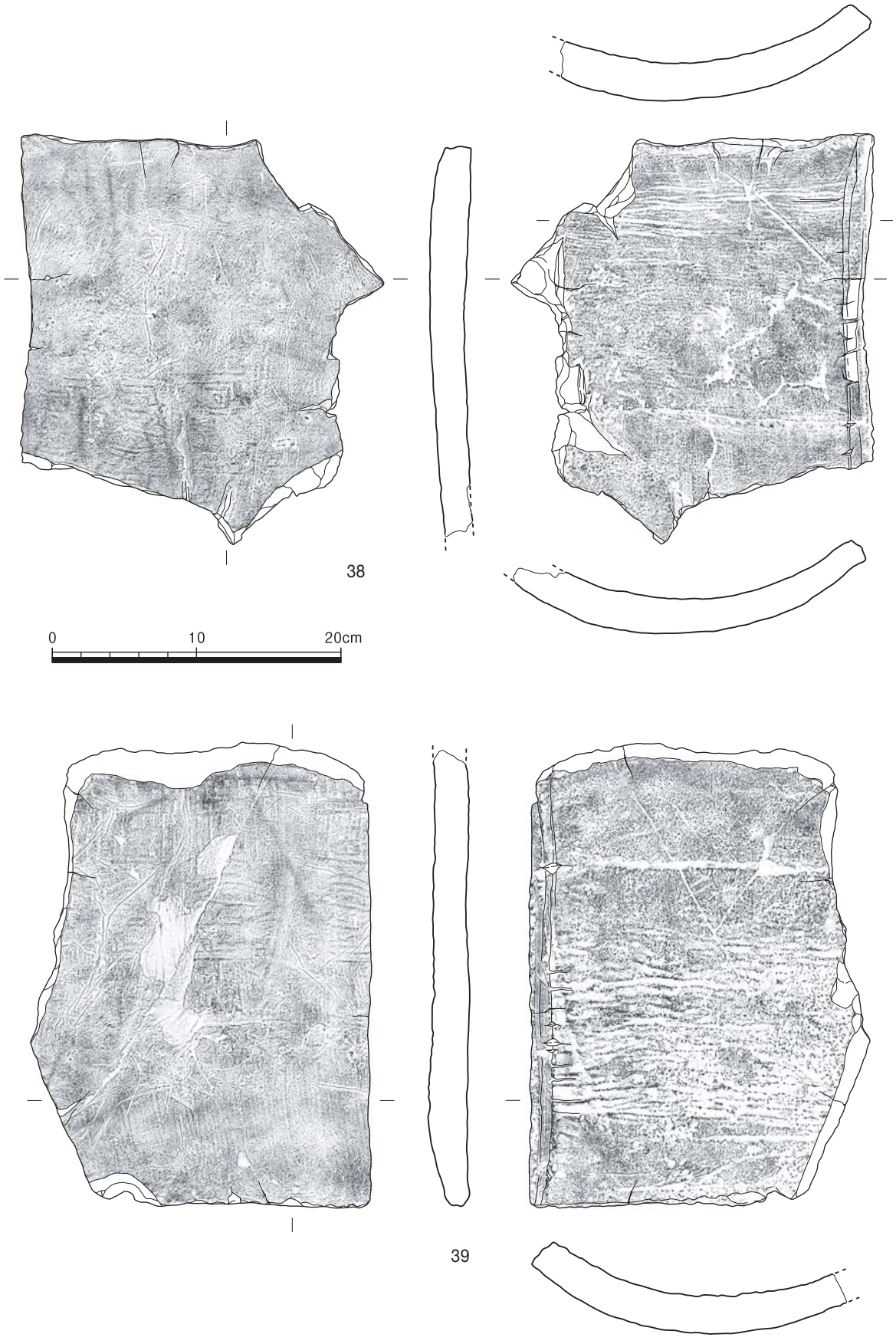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복합문으로 횡집선을 횡대로 구분하여 원문안에 '×'字 형태의 선을 구획한 후 'ノ' 삐침이 상·하·좌·우로 구획되었다. 그 위로 동심원문 형태의 문양이 타날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 포밀림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과 예새흔이 확인된다.

現長 20.0㎝, 幅 27.1㎝, 厚 1.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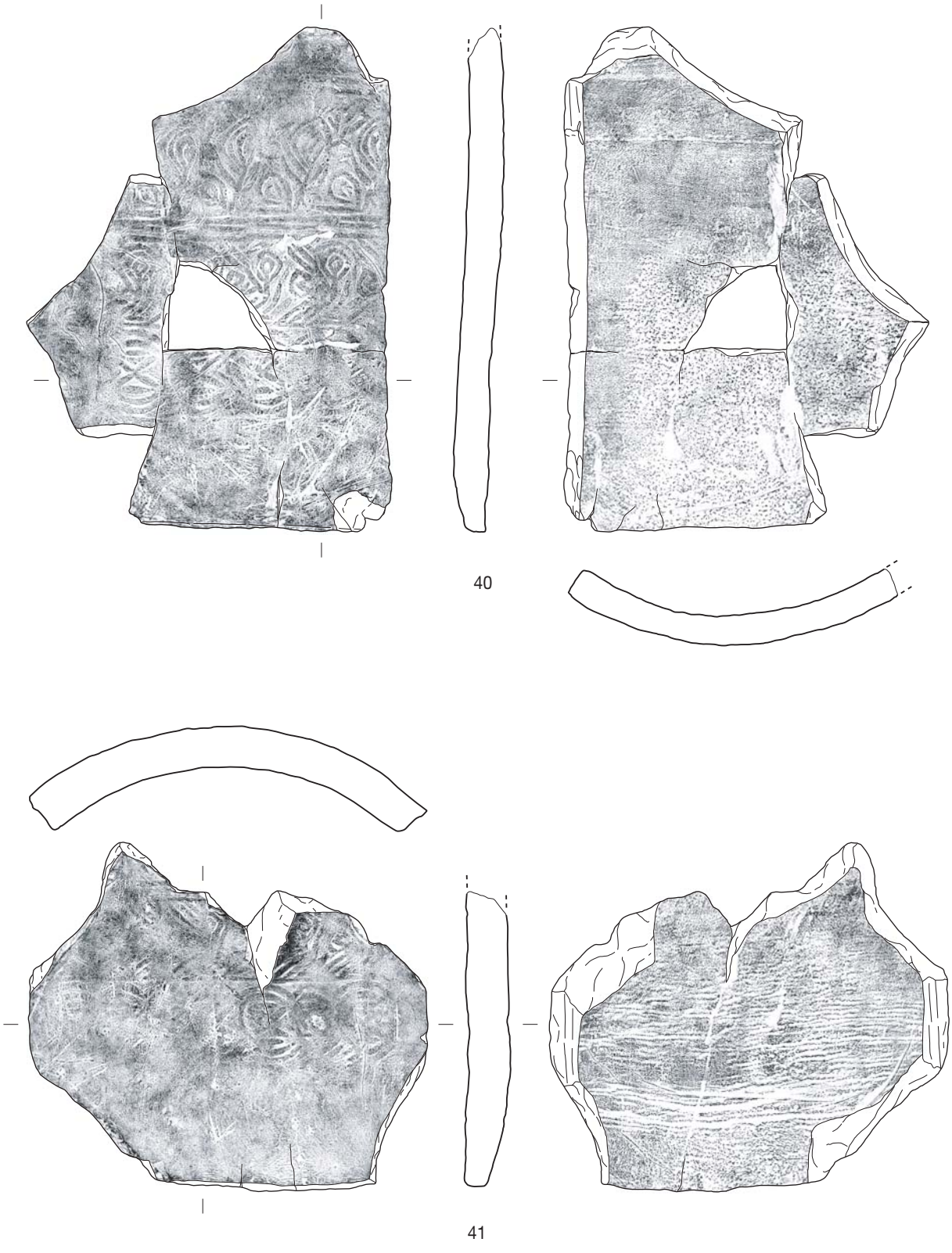
42. **암키와**(도면: 25-42, 도판: 31-42)

갈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은 전형적인 창해파문이지만 의도적인 타날에 의해 문양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 윤철흔, 포밀림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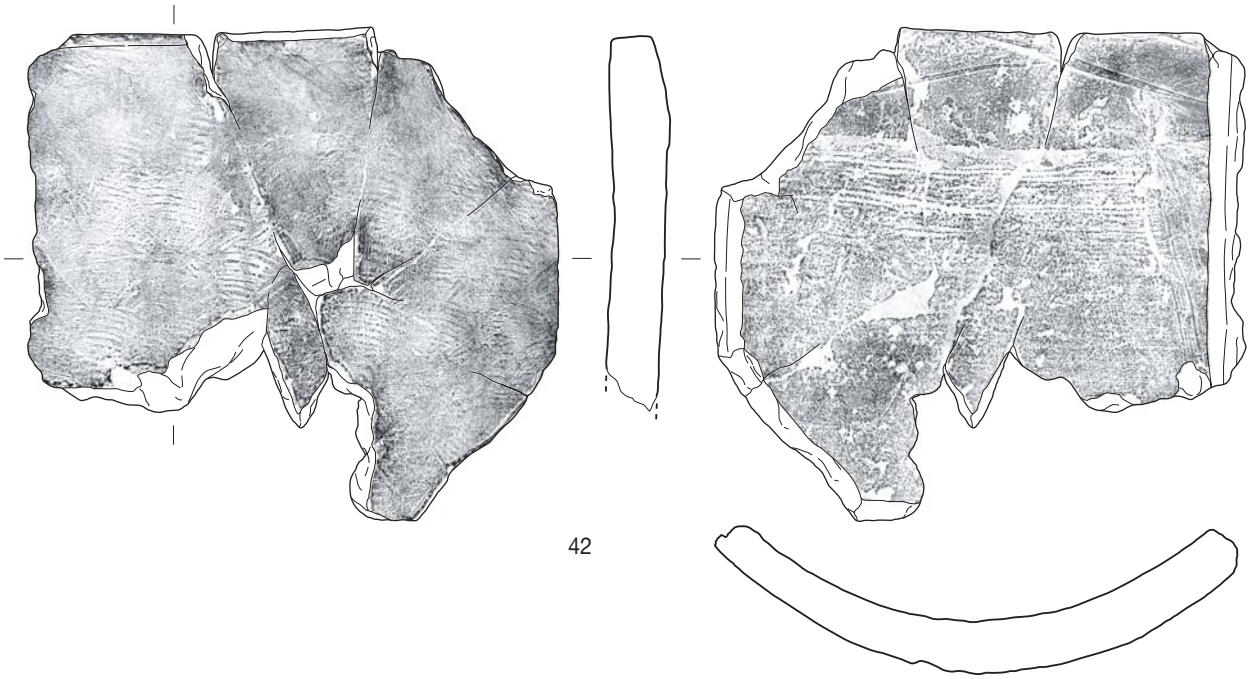
現長 20.9㎝, 幅 27.9㎝, 厚 2.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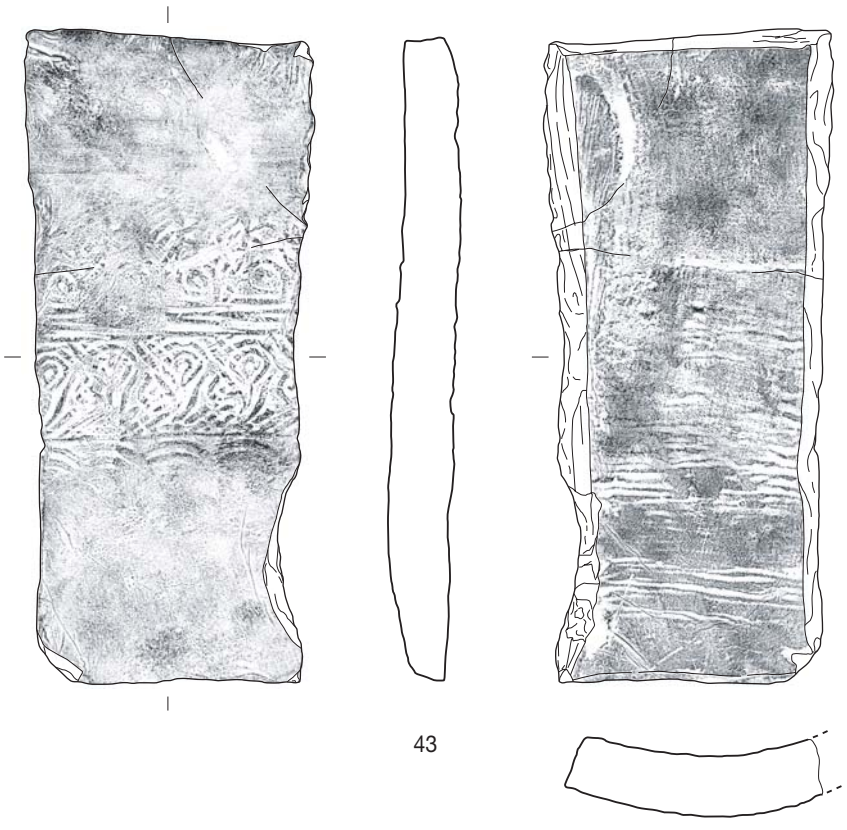


도면 23. 1호 와적시설 출토유물(3)



도면 24. 1호 와적시설 출토유물(4)







도면 25. 1호 와적시설 출토유물(5)

43. **암키와**(도면: 25-43, 도판: 3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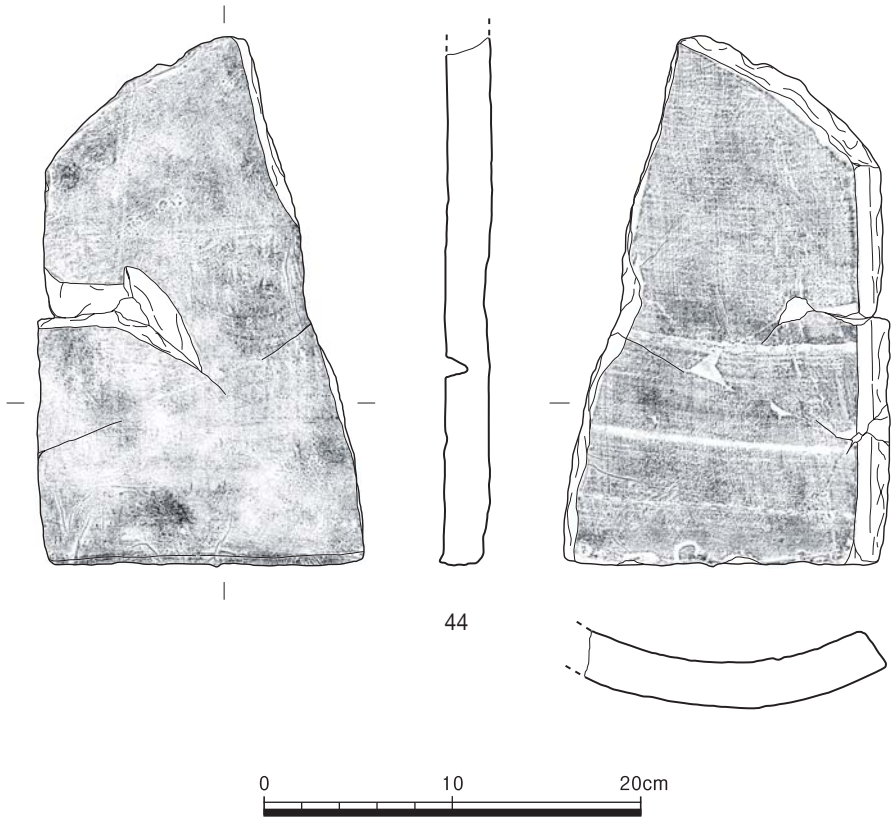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복합문으로 횡집선을 횡대로 구분하여 원문안에 '×'字 형태의 선을 구획한 후 'ノ' 삐침이 상·하·좌·우로 구획되었다. 그 위로 동심원문 형태의 문양과 초화문 형태의 문양이 타날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1/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 포밀림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단부 내부조정은 깎은후 손누름 한 것으로 보인다.

現長 34.4㎝, 幅 14.0㎝, 厚 2.0~2.7㎝

44. **암키와**(도면: 26-44, 도판: 32-44)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은 동심원문을 중심으로 상·하의 정격자문이 결합하는 형태이나 물손질되어 뚜렷하게 남아 있지 않다. 측면의 절단면은 1/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윤철흔, 점토접합흔이 관찰되며 물손질이 가로방향으로 되어 있으며 외면에는 물손질흔과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26.1㎝, 幅 16.0㎝, 厚 1.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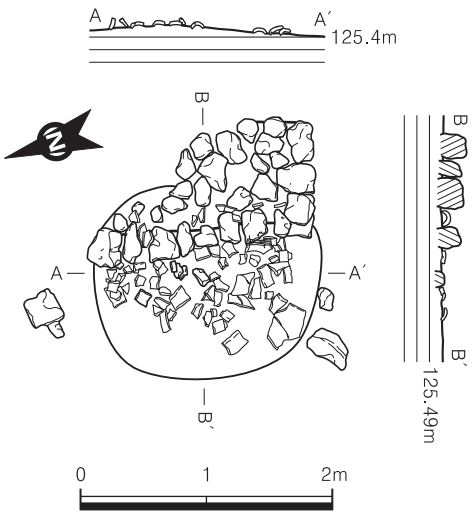


도면 26. 1호 와적시설 출토유물(6)

2) 2號 瓦積施設

가) 遺構(도면: 27, 도판: 33)

5호 건물지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1호 와적시설이 동일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2호 와적시설은 1호 와적시설과 마찬가지로 평기와편을 대략 직경 1.84m 범위내의 원형상으로 와적한 상태이다. 와적된 상태를 보면 정형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1호 와적시설과 함께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상태가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동일목적을 위한 시설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동헌으로 들어서는 협문의 문지 초석을 얹었던 와적의 적심시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2호 건물지의 장축방향과 평행하지 않고 다소 둔각을 형성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시기를 달리하는 시설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면 27. 2호 와적시설 평단면도

나) 出土遺物

45. 粉青沙器 楪匙(도면: 29-45, 도판: 34-45)

분청사기 접시이다. 구연부는 살짝 외반한 형태이다. 기벽은 사선을 이루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기면에는 문양이 없으며 별다른 장식은 없으나 그릇 내면은 백토귀얄로 칠해져 있다. 유약은 광택이 약한 분청유로 굽 안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으며 용융상태가 좋지 못한 편이다. 굽은 깎음새가 단정하지 못한 편이다. 그릇의 안바닥과 굽의 접지면에 가는 모래비짐을 받쳐 포개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3㎝, 口徑 13.2㎝, 底徑 5.0㎝, 厚 0.5㎝

46. 銘文瓦(도면: 28-46, 도판: 34-46)

적갈색 경질의 명문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주문양대는 선문(사선)위에 명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명문은 4×13.5㎝ 크기의 방곽문 안에 '癸丑開局' 銘이 시문되어 있다. 전체 타날 수는 7회이다. 하단에는 사격자문이 작게 타날되었다. 측면의 절단면 좌측은 4/5안쪽으로 남아 있으며 우측은 1/2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과 연철흔이 남아 있고 외면에는 빗질흔, 손누름흔이 확인된다. 단부 내부조정은 깎은후 손누름 한 것으로 보인다.

現長 29.9㎝, 幅 30.5㎝, 厚 1.0~2.6㎝

47. 銘文瓦(도면: 29-47, 도판: 34-47)

회색 경질의 명문 수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抄道山造' 銘이 종방향으로 쓰여져 있으며 양각 우서로 6회 타날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2/3가량 안쪽으로 남아있다. 외면에는 빗질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내면의 포흔은 과도한 물손질에 의하여 마모된 것으로 추정된다.

現長 33.5㎝, 幅 16.4㎝, 厚 2.1~2.6㎝

48. **銘文瓦**(도면: 29-48, 도판: 34-48)

회색 경질의 명문 수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抄道山造' 銘이 종방향으로 음각된 도박판을 5회 타날하였다. 측면의 절단면은 1/4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후면에는 포흔이 남아 있고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現長 35.9㎝, 幅 15.8㎝, 厚 2.1~2.6㎝

49. **銘文瓦**(도면: 30-49, 도판: 3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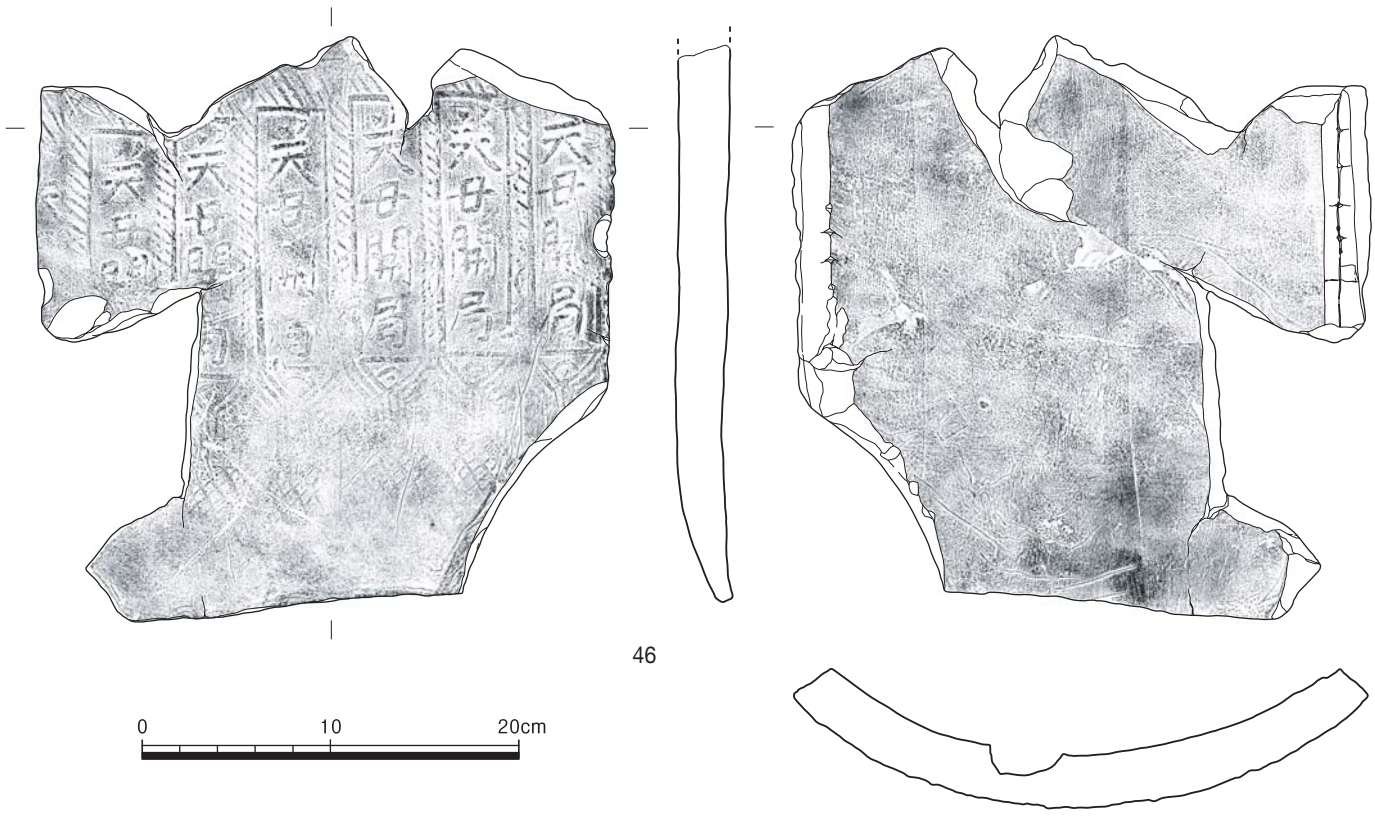
적갈색경질의 명문 수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명문은 '○帶○・・' 銘이 쓰여진 도박을 5회 타날하였다. 양각이며 좌・우서 구별은 안된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 포흔이 남아 있고 외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단부 내부조정은 깎은후 손누름 한 것으로 보인다.

現長 35.8㎝, 幅 18.9㎝, 厚 1.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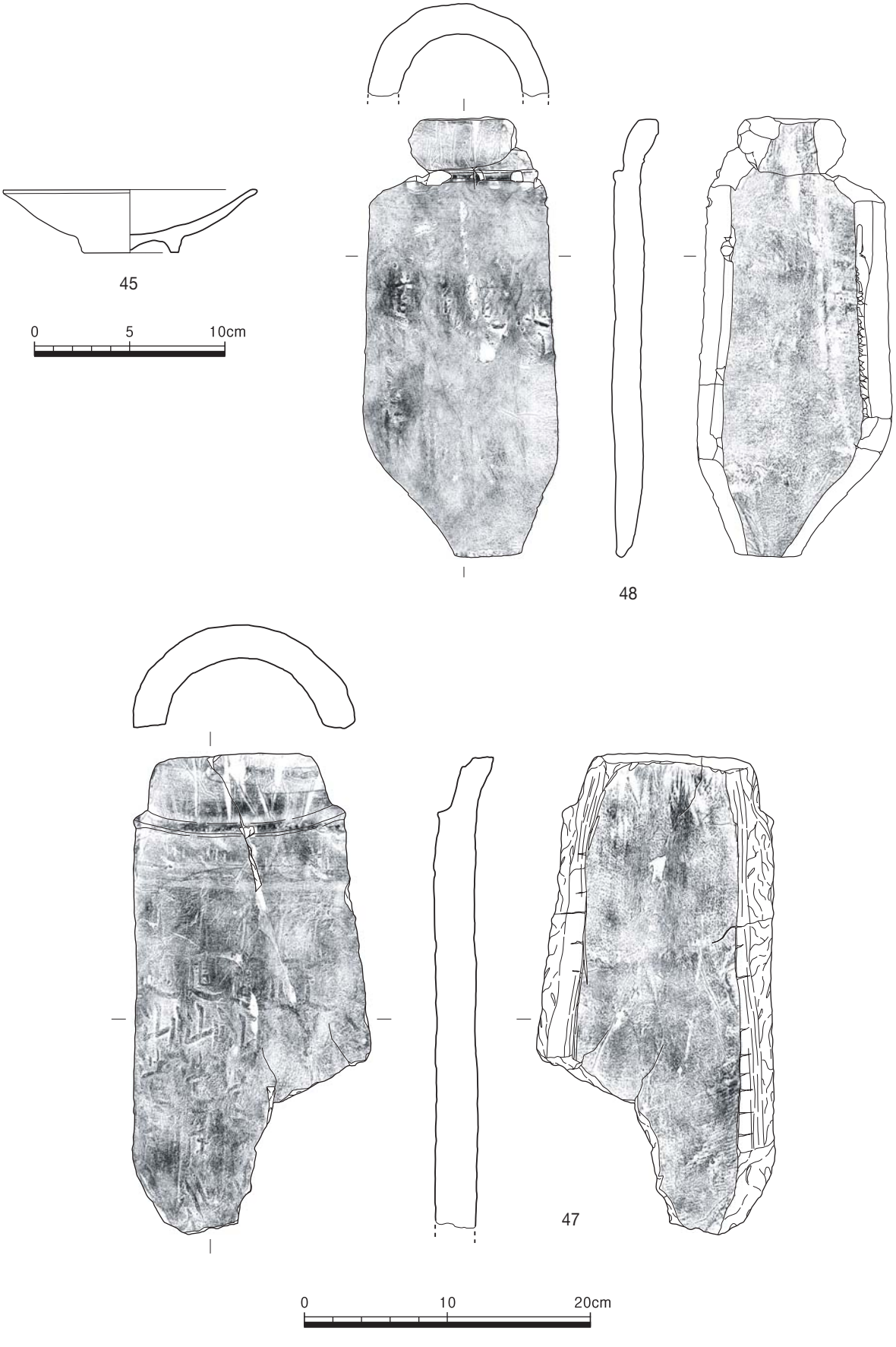
50. **銘文瓦**(도면: 30-50, 도판: 35-50)

흑갈색 경질의 명문 수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하였다. 명문은 '○帶○・・' 銘이 종방향으로 음각된 도박판을 6회 타날 하였다. 양각이며 좌・우서 구별은 안된다. 미구 부분에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측면의 절단면은 3/4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 있고 빗질흔이 확인된다. 외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단부 내부조정은 손누름 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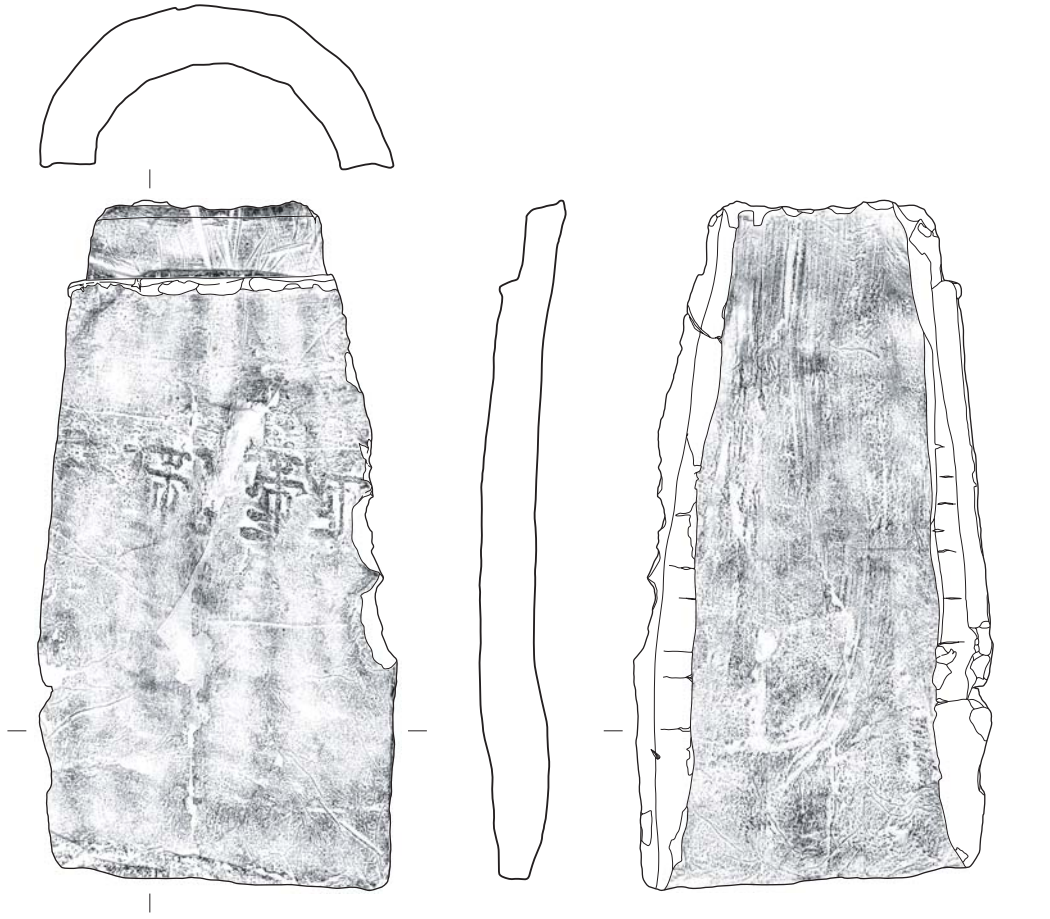
現長 35.8㎝, 幅 18.7㎝, 厚 1.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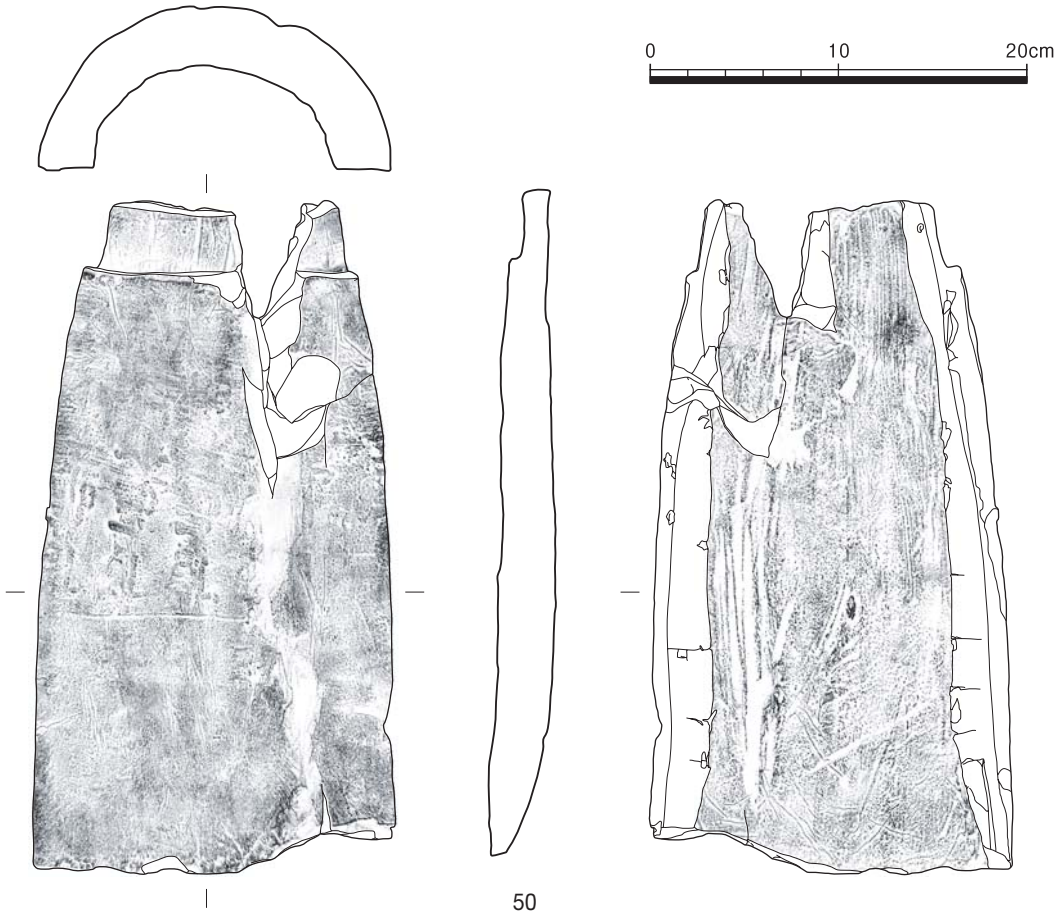


도면 28. 2호 와적시설 출토유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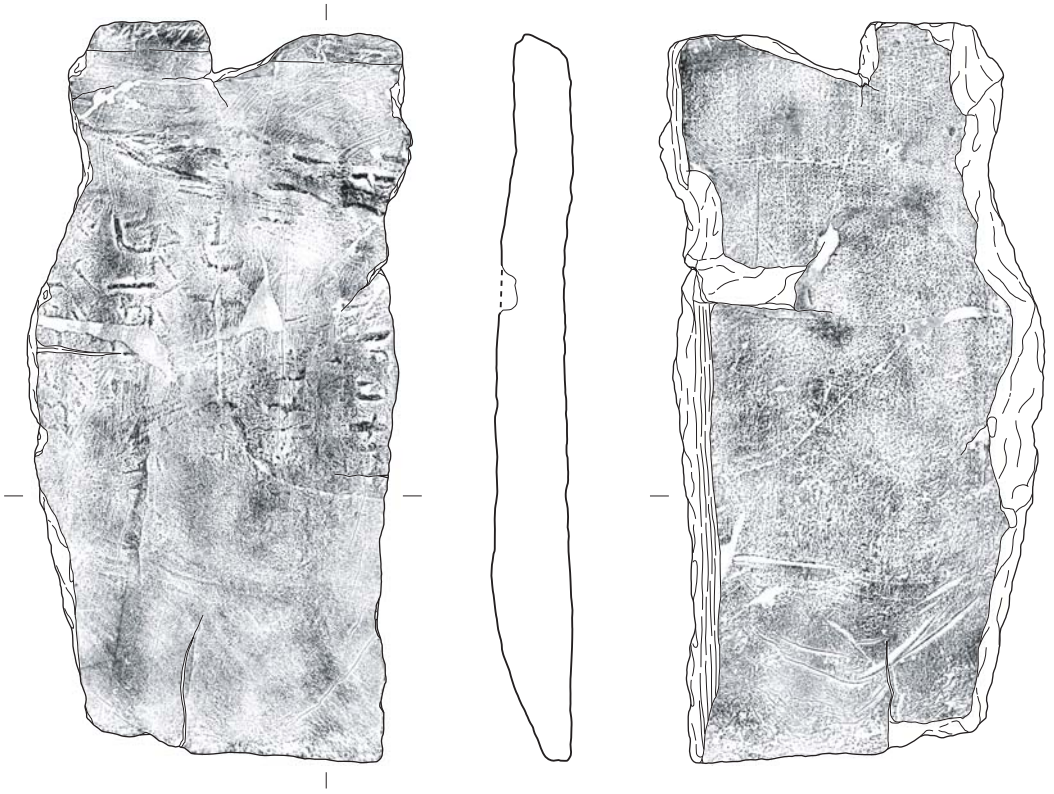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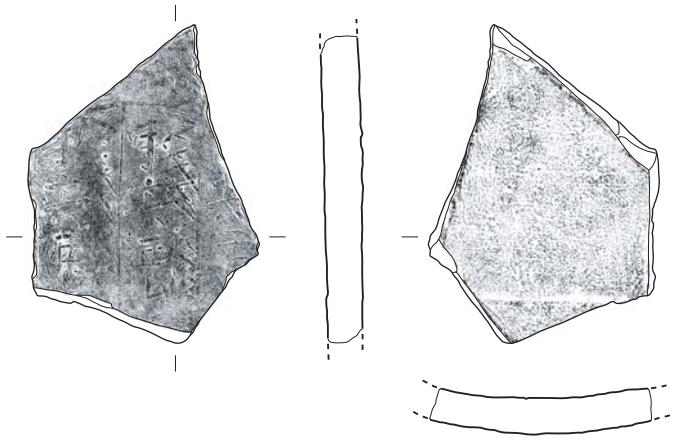
도면 29. 2호 와적시설 출토유물(2)





도면 30. 2호 와적시설 출토유물(3)







도면 31. 2호 와적시설 출토유물(4)

51. 銘文瓦(도면: 31-51, 도판: 35-51)

회색 경질의 명문 암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명문은 횡방향으로 쓰여져 있으며 양각 우서이고 전체 판독은 어렵지만 '癸巳' 銘이 확인된다. 와 기면의 문양은 확인되지 않는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외면에는 물손질흔, 빗질흔이 확인되며 내면에는 포흔이 확인된다.

現長 38.8㎝, 幅 19.5㎝, 厚 1.4~3.5㎝

52. 銘文瓦(도면: 31-52, 도판: 35-52)

회갈색 경질의 명문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甲寅西山' 銘을 새긴 도박판을 타날하였으며 양각 우서이고 명문 우측에 선문(중호문)이 종방향으로 한줄 결합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1/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과 연철흔이 남아 있다.

現長 16.9㎝, 幅 11.8㎝, 厚 1.8~2.0㎝

5. 近代 建物址

1) 1號 建物址

가) 遺構(도면: 32, 도판: 36~37)

1호 건물지는 현 일관헌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면 형태는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로 볼 때 장축방향은 N72°W이며 남향으로 축조되었다. 현재 건물지가 축조된 위치는 조선시대 건물지가 주로 배치된 일관헌 정면부와 대비해 볼 때 대략 0.7m 가량 레벨이 높은 편이다. 내부 토층은 대체로 흑갈색부식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반면에 그 하부로는 황갈색점토와 적갈색 소토가 혼입된 성토층이 퇴적된 점으로 미루어 조선시대 후기층으로 판단된다. 건물의 북쪽은 후축된 것으로 판단되는 2호 건물지에 의해 파괴된 상태이다. 기단석은 대체로 현무암제 판석과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서 양단의 기단은 비교적 정연하게 조성된 반면 남쪽의 기단부는 크고 작은 자연석을 2~3단 가량 그대로 쌓아올려 축조하였다. 건물지 내부의 적심석이나 초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단의 규모를 보면 동-서 5.76m, 남-북 3.20m 이다. 잔존상태와 내부 퇴적토를 볼 때 일제강점기 이후의 건물로 추정된다.

나) 出土遺物

53. 白磁 鉢(도면: 33-53, 도판: 38-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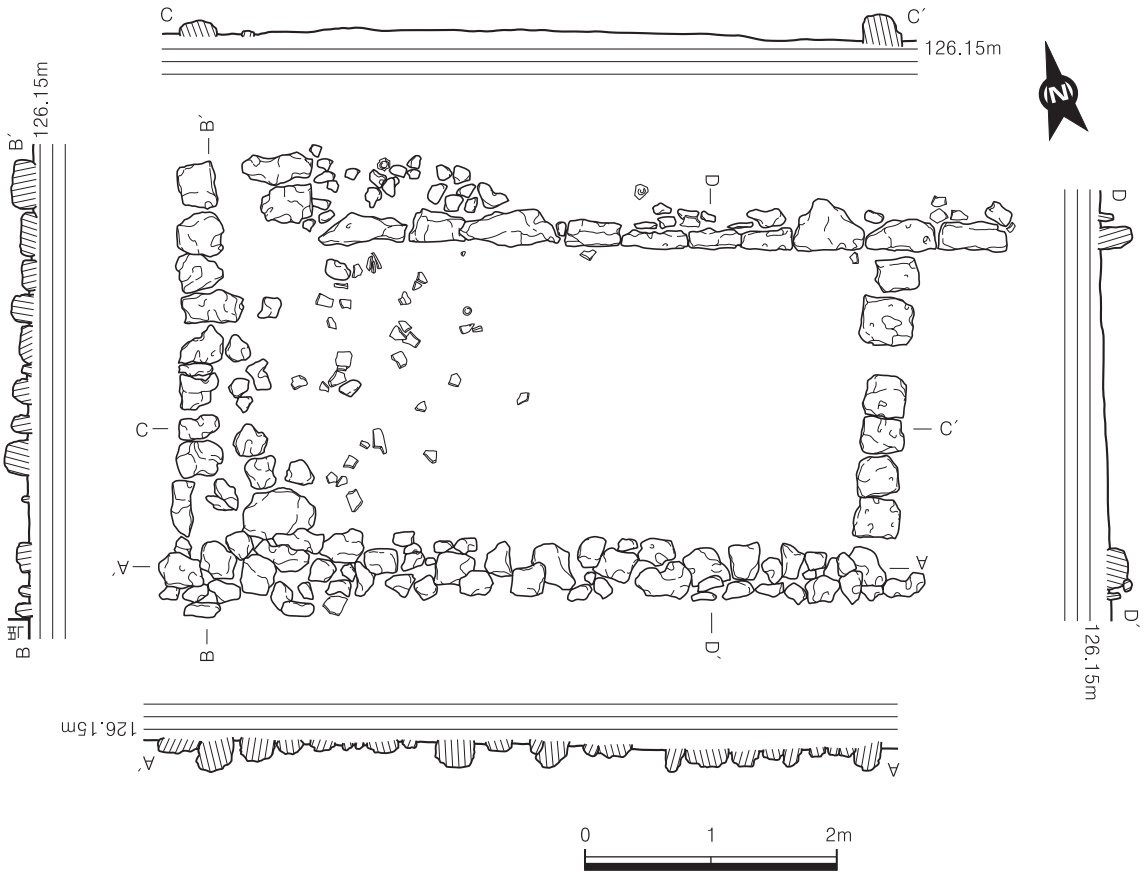
백자 접시의 저부편이다. 유약은 광택이 약한 백자유로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다. 굽은 죽절굽에 가까우며 깎음새가 매우 거친 편이다. 그릇 안바닥에 가는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 2.9㎝, 底徑 5.1㎝, 厚 0.5㎝

54. 白磁 底部(도면: 33-54, 도판: 38-54)

백자 저부로 동체는 완전히 소실되었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굽은 오목굽으로 깎음새가 거칠다. 그릇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포개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4㎝, 底徑 7.5㎝, 厚 1.0㎝



도면 32. 1호 건물지 평단면도

55. 銘文瓦(도면: 33-55, 도판: 38-55)

회색 경질의 명문 암키와이며 사립이 다량 포함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창해파문과 명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甲寅西山' 銘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었으며 명문 우측에 사격자문이 한 줄 종방향으로 시문되어 있다. 양각이며 우서이다. 명문 상단에는 여러겹의 창해파문이 결합되어 있다. 측면의 절단면은 1/5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 예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現長 24.0㎝, 幅 18.3㎝, 厚 1.9㎝

56. 암키와(도면: 33-56, 도판: 3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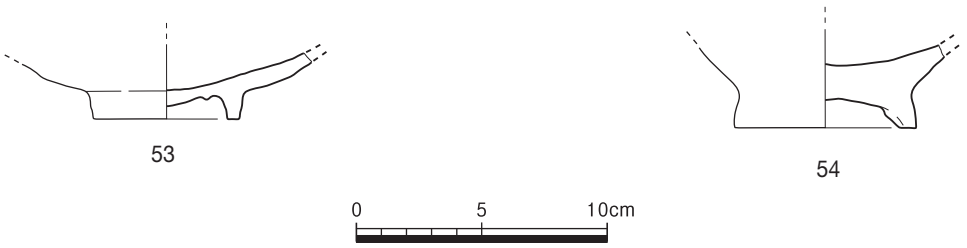
갈색 연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창해파문이 엇갈리게 타날되었고 그 하단으로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1/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과 윤철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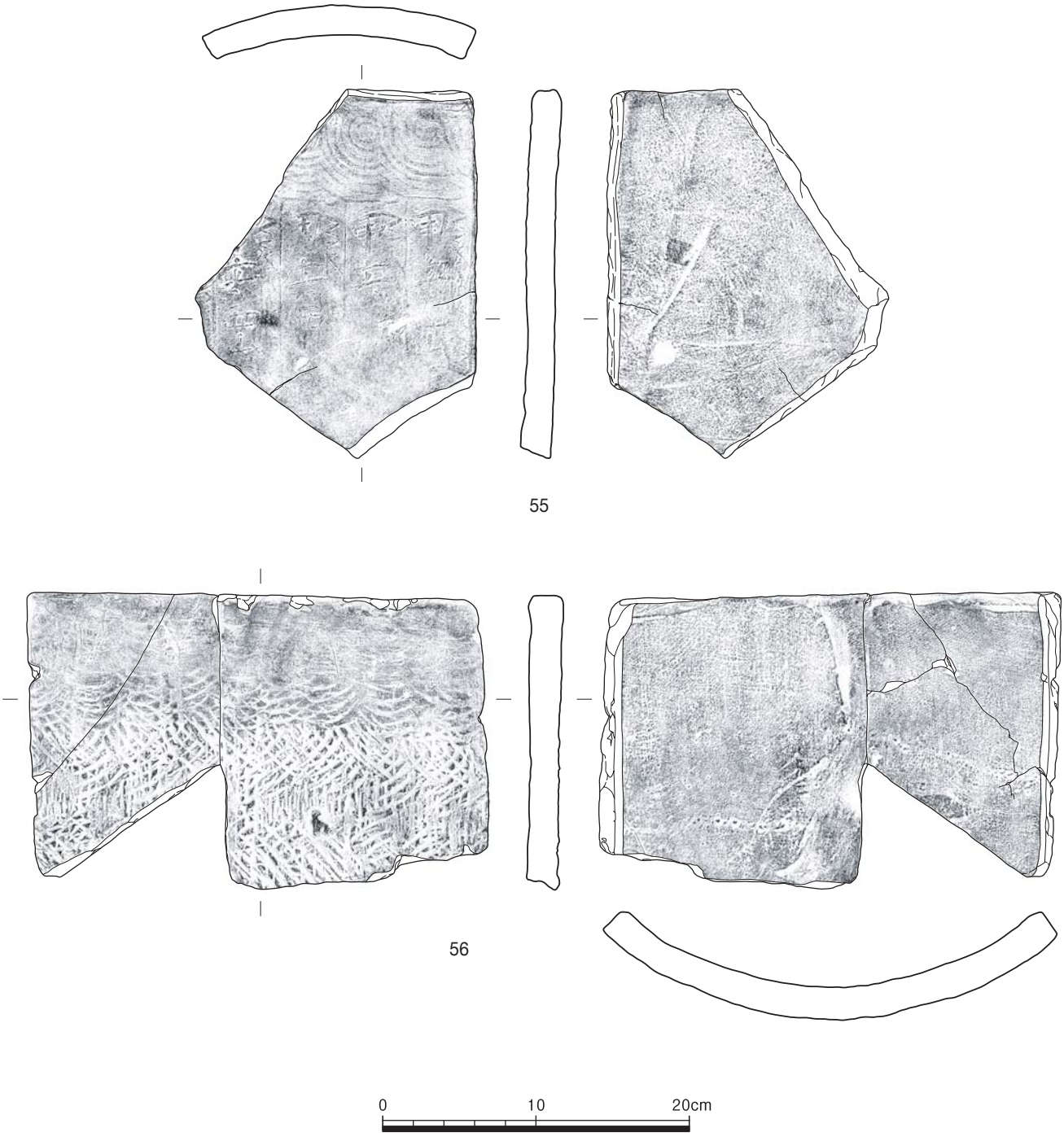
現長 19.3㎝, 幅 30.7㎝, 厚 2.1~2.5㎝

2) 2號 建物址

가) 遺構(도면: 34, 도판: 39~40-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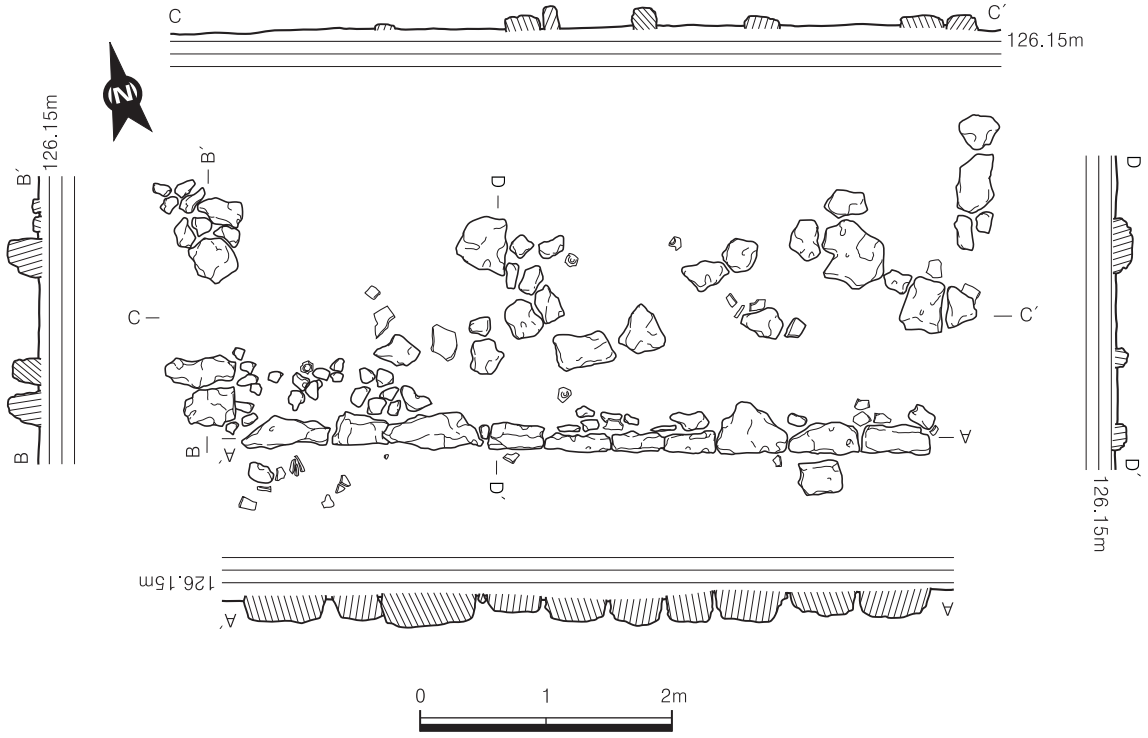
2호 건물지는 선축된 것으로 판단되는 1호 건물지의 북쪽 기단부를 파괴하고 축조되어 있다. 현재 북쪽 부분은 보호수로 인해 확장조사가 불가능하여 건물의 정확한 형태와 규모는 알 수가 없다. 잔존상태로 볼 때 동서장축의 건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N70°W 이다. 기단부는 남쪽 기단을 제외하고 대부분 결실된





도면 33. 1호 건물지 출토유물

상태이다. 잔존하는 기단부는 현무암제 판석과 할석으로 축조하였다. 잔존하는 기단부의 규모는 동-서 6.62m, 남-북 2.72m 이다. 건물지 내부에는 초석과 적심시설이 확인되는데 정면 2칸 구조의 건물로 추정된다. 각각의 적심 혹은 초석간 간격은 대략 216~296㎝에 해당한다. 건물지 내부토는 흑갈색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일제강점기 이후의 건물로 추정된다.



도면 34. 2호 건물지 평단면도

나) 出土遺物

57. 白磁 鉢(도면: 35-57, 도판: 40-⑤-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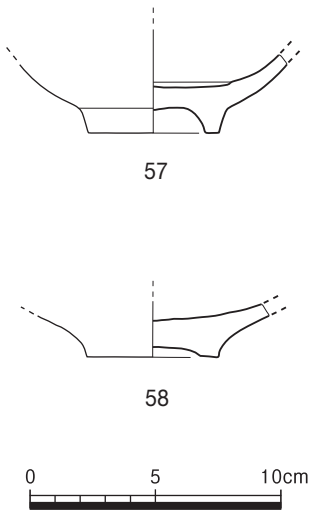
백자 발의 저부편로 저경보다 조금 큰 내저원각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좋은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표면이 매끈하고 빙렬은 없으나 굽부분의 시유가 잘 되지 않고 유약이 뭉친 부분이 있다. 굽은 오목굽의 형태로 깎음새가 매우 단정한 편이다. 굽 접지면에 내화토 비짐을 받쳐 번조한 후 번조받침을 떼어 낸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6㎝, 底徑 5.2㎝, 厚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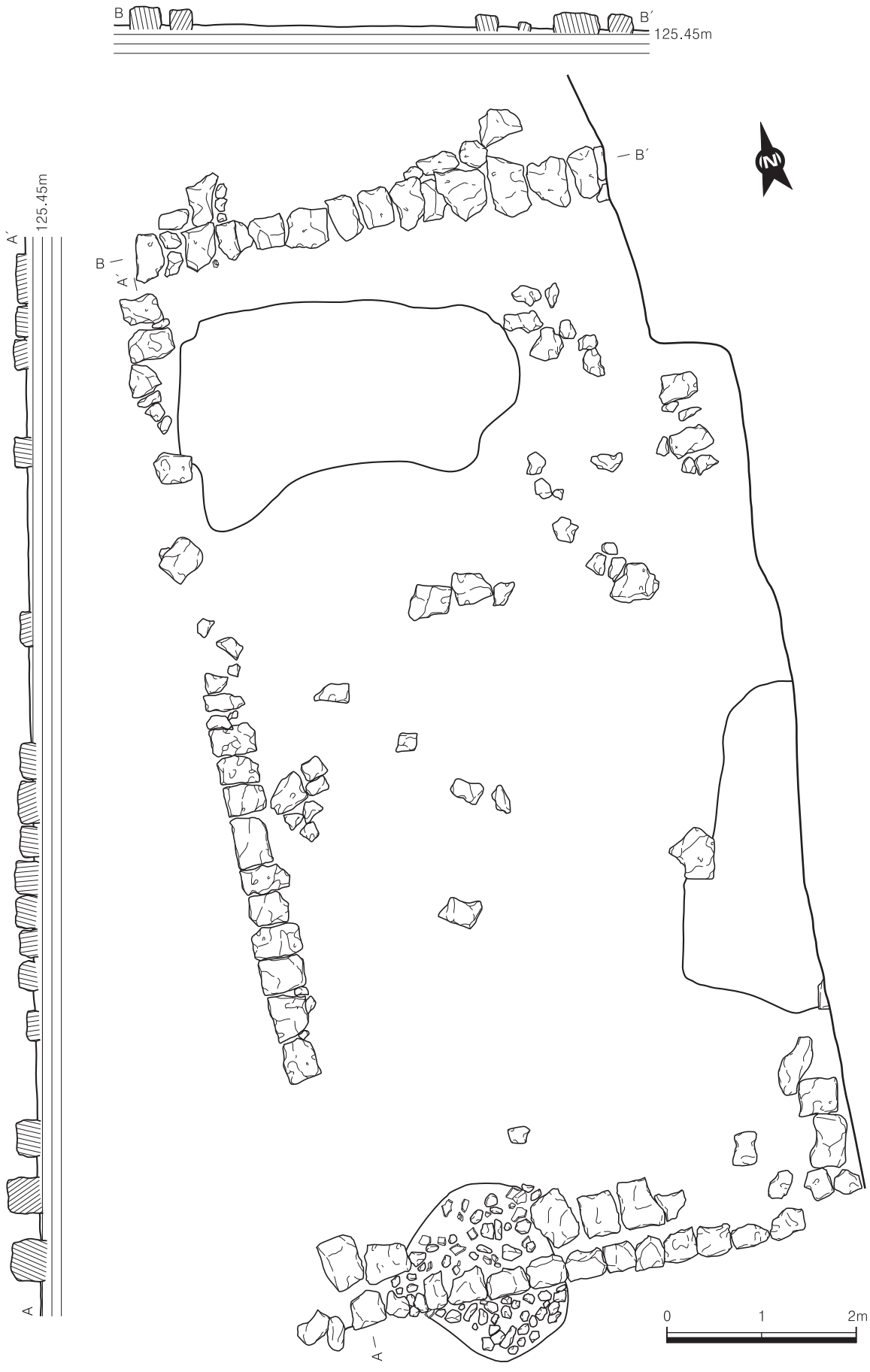
58. 白磁 底部(도면: 35-58, 도판: 40-⑤-58)

백자 저부편으로 저경보다 큰 내저원각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없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굽은 안쪽을 깊게 깎지 않은 낮은 굽이며 깎음새가 다소 거친 편이다. 그릇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2.3㎝, 底徑 5.2㎝, 厚 0.7㎝



도면 35. 2호 건물지 출토유물



도면 36. 3호 건물지 평단면도

3) 3號 建物址

가) 遺構(도면: 36, 도판: 41~42)

3호 건물지는 2호 건물지의 북쪽에 위치하며 정의읍성의 북벽과 잇대어 자리하고 있다. 건물지의 장축방향은 N5°W이며 동향 건물로 추정된다. 현재 남쪽과 북쪽의 기단이 대부분 결실되어 있어 건물의 정확한 형태와 규모는 알 수가 없다. 기단은 현무암제 판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잔존규모를 보면 남쪽 기단 5.74m, 서쪽 기단 11.73m, 북쪽기단 5.70m 이다. 잔존상태로 볼 때 정면 4칸, 측면 2칸 구조의 건물로 추정된다. 각각의 적심 혹은 초석간 간격은 대략 220~260㎝ 정도이다. 건물지 내부토는 흑갈색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최근까지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 건물지로 추정된다.

6. 地表收拾

59. 粉青沙器 盞(도면: 37-59, 도판: 43-59)

분청사기 발의 구연부편이다. 구연부가 90도 꺾여 외반하였다. 장식은 백토귀얄로 칠한 후 음각으로 꽃장식을 하였다.

現長 6.1㎝, 厚 0.7㎝

60. 粉青沙器 梅甁(도면: 37-60, 도판: 43-60)

분청사기 매병의 저부편이다. 장식은 외면 하단에 상감기법으로 장식하였다. 굽은 깎음새가 단정하며 접지면이 넓고 고르다.

現長 2.9㎝, 口徑 10.0㎝, 厚 1.3㎝

61. 靑磁 甁(도면: 37-61, 도판: 43-61)

청자 병의 목부분이다. 정선된 태토에 투명한 청자유를 외면에만 시유하였다. 색은 짙은 청색을 띠고 광택이 매우 좋으며 표면에는 빙렬이 있다.

現長 4.3㎝, 幅 6.8㎝, 厚 1.4㎝

62. 粉青沙器 甁(도면: 37-62, 도판: 43-62)

분청사기 병의 목 부분만 남아 있다. 유약은 광택이 좋은 분청유를 내외면에 모두 시유하였으며 표면에는 빙렬이 크게 확인된다.

現長 7.1㎝, 厚 0.6~0.9㎝

63. 粉青沙器 甁(도면: 37-63, 도판: 43-63)

분청사기 병의 동체부편이다. 유약은 광택이 좋은 분청유를 외면에만 시유하였으며 장식은 음각으로 시문하였다. 표면에는 잔빙렬이 있다.

現長 6.6㎝, 厚 0.6~0.9㎝

64. **粉靑沙器 甁**(**도면**: 37-64, **도판**: 43-64)

분청사기 병의 동체부편이다. 백토를 귀얄로 칠하고 음각으로 장식하였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분청유를 외면에만 시유하였으며 용융상태가 양호하고 표면에는 잔빙렬이 있다.

現長 9.2㎝, 厚 0.6~0.7㎝

65. **粉靑沙器 大楪**(**도면**: 37-65, **도판**: 43-65)

덤벙분청의 대접이다. 구연은 외반하며 기벽은 사선을 이루다가 몸체 하단에서 한단 꺾여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덤벙장식으로 내면과 외면의 동체부까지 옅은 회색을 띠는 분청유를 시유하였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분청유로 일부를 제외하고 시유하였는데 표면에는 빙렬이 있다. 굽은 대마디굽에 가까우며 깎음새가 거친 편이다. 그릇의 안바닥 5곳에서 가는 모래비짐을 받쳐 구은 흔적이 확인된다.

現高 6.4㎝, 口徑 15.2㎝, 底徑 5.2㎝, 厚 0.4㎝

66. **粉靑沙器 大楪**(**도면**: 37-66, **도판**: 43-66)

분청사기 대접 저부편이다. 유약은 광택이 매우 좋은 분청유를 전면 시유하였으며 표면에는 잔빙렬이 있다. 굽은 높은 굽으로 직립하며 깎음새가 단정한 편이다. 굽 접지면은 유약을 닦아내었고 그을음이 남아 있다. 그릇 안바닥에 가는 모래비짐을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4.2㎝, 底徑 5.6㎝, 厚 0.5㎝

67. **粉靑沙器 楪匙**(**도면**: 37-67, **도판**: 44-67)

귀얄분청의 소형접시이다. 구연부가 살짝 외반되며 바닥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형태이다. 내면과 외면의 동체부까지 백토귀얄로 칠해져 있고 그릇 내면의 바닥, 동체부, 구연부에 여러 줄의 원문이 장식되어 있다.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여 구연부 외면 일부 유약이 뭉쳐있다. 굽 저경은 매우 작으며 접지면은 좁고 깎음새는 단정하지 못한 편이다. 번조받침 흔적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現高 3.8㎝, 口徑 12.8㎝, 底徑 3.2㎝, 厚 0.5㎝

68. **粉靑沙器 口緣部**(**도면**: 37-68, **도판**: 44-68)

분청사기의 대접이다. 그릇의 안쪽에는 승렴문이 표현되었고 그 위로 여러줄의 원문이 둘러져 있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분청유를 시유하였으며 표면에 불순물이 탄착되어 있다.

現長 5.3㎝, 厚 0.3㎝

69. **粉靑沙器 口緣部**(**도면**: 37-69, **도판**: 44-69)

분청사기 접시이다. 외면 상단에는 여러줄의 원문을 둘렀으며 그 아래 승렴문이 시문되었다. 내면에는 인화기법으로 4조의 연화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그 하단부에는 국화문이 장식되었다.

現長 5.0㎝, 厚 0.4㎝

70. **粉靑沙器 口緣部**(**도면**: 37-70, **도판**: 44-70)

분청사기 접시이다. 구연은 살짝 외반하였다. 덤벙장식이 되었는데 내면과 외면의 동체부 상단까지 유백색 유약을 시유하였다. 유약은 광택이 좋은 분청유를 시유하였으며 용융상태가 양호하고 표면에는 잔빙렬이 있다.

現長 2.8㎝, 口徑 16.2㎝, 厚 0.4㎝

71. **粉靑沙器 底部(도면: 37-71, 도판: 44-71)**

분청사기 접시이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분청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용융상태가 깨끗한 편이고 표면에는 잔빙렬이 있다. 굽의 깎음새는 거친편이며 굽이 낮고 외경한다.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 가는 모래비짐을 받쳐 포개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2.0㎝, 底徑 4.8㎝, 厚 0.5㎝

72. **粉靑沙器 底部(도면: 37-72, 도판: 44-72)**

분청사기 접시이다. 유약은 광택이 좋은 분청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외면에는 갈색을 띠고 내면은 유백색을 띤다. 용융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표면에는 잔빙렬이 있다. 굽은 깎음새가 단정하지 못한 편이다. 그릇의 안바닥과 접지면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포개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1.8㎝, 底徑 5.0㎝, 厚 0.5㎝

73. **粉靑沙器 底部(도면: 37-73, 도판: 44-73)**

분청사기 접시이다. 그릇의 안쪽 바닥에 국화문이 시문되었으며 그 위로 '內贍' 銘 인장이 돌아가며 찍혀있다. 굽은 죽절굽에 가까우며 깎음새가 단정한 편이다. 굽은 시유되지 않았다.

現高 1.6㎝, 底徑 7.0㎝, 厚 0.7㎝

74. **粉靑沙器 底部(도면: 37-74, 도판: 45-74)**

분청사기 매병의 저부편이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분청유를 내외면에 모두 시유하였으며 시유가 잘 녹지 않아 일부 유약이 뭉쳐있다. 굽 접지면은 넓은 편이다.

現高 3.8㎝, 底徑 10.0㎝, 厚 1.6㎝

75. **白磁 大楪(도면: 37-75, 도판: 45-75)**

백자 대접으로 구연은 직립하며 기벽은 사선으로 내려오다가 굽에 이르러 살짝 꺾이는 형태이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로 굽 안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다. 용융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표면에 빙렬은 확인되지 않는다. 굽의 깎음새는 비교적 단정한 편으로 대나무굽의 형태를 띤다. 그릇의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 가는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하였고 굽 접지면은 깎아내었다.

現長 9.4㎝, 厚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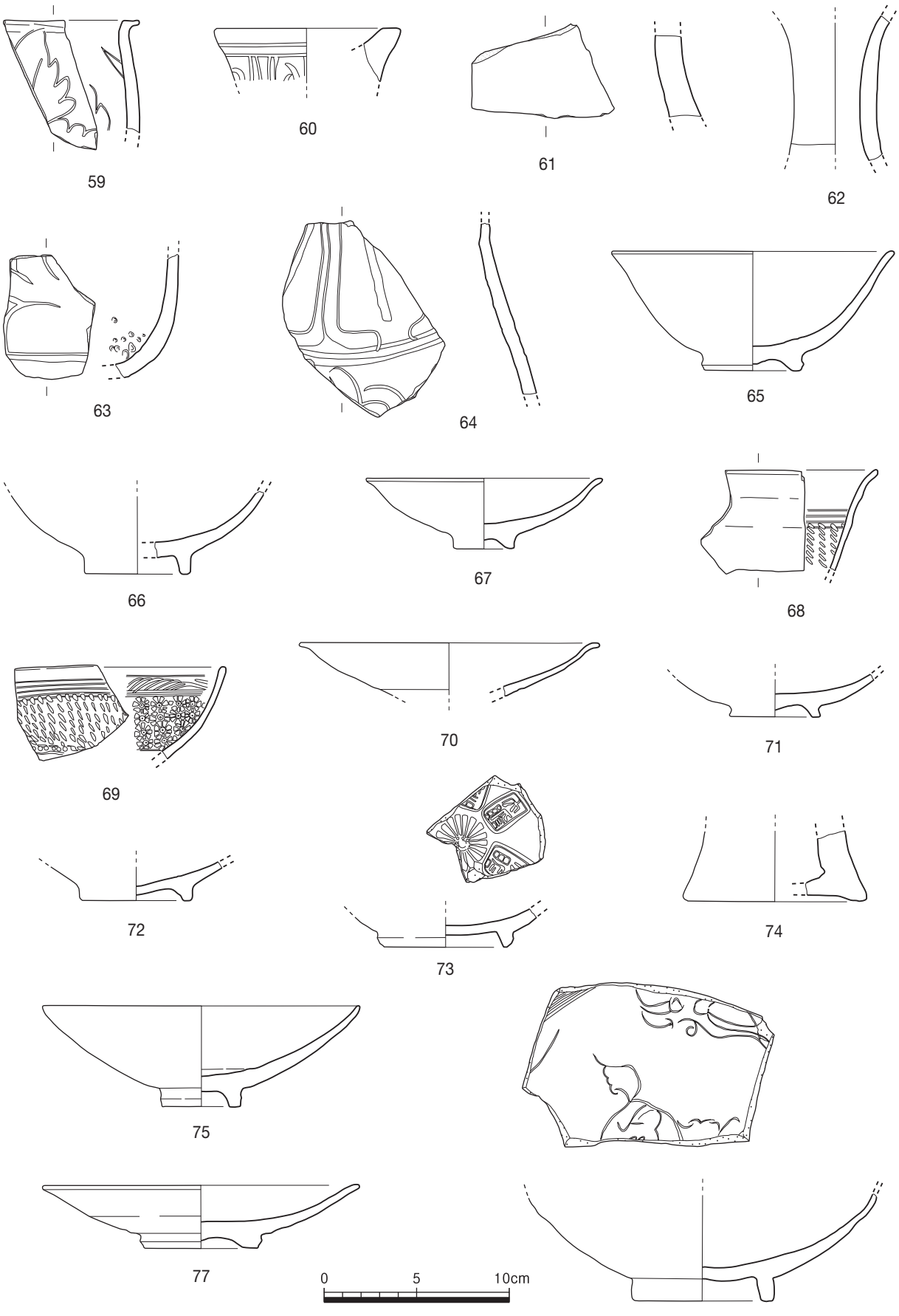
76. **白磁 大楪(도면: 37-76, 도판: 45-76)**

백자 대접의 저부편이다. 장식은 그릇의 안쪽에 당초문이 음각 장식되었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로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다. 용융상태가 좋지 못한편으로 유약이 뭉치거나 표면이 거칠다. 굽은 깎음새가 거친 편이며 그릇의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5.8㎝, 底徑 7.5㎝, 厚 0.7㎝

77. **白磁 楪匙(도면: 37-77, 도판: 45-77)**

백자 접시로 구연이 외반되고 기벽은 사선이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굽 안바닥에 '正' 자를 조탁



도면 37. 지표 수습유물(1)

하였다. 유약은 광택이 약한 백자유를 시유하였으며 굽과 동체하단은 시유가 되지 않았다. 용융상태가 좋지 못해 일부 유가 뭉쳐있다. 굽은 깎음새가 단정하지 못한 편이며 대마디굽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릇의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 굵은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 3.4㎝, 口徑 17.0㎝, 底徑 6.2㎝, 厚 0.5㎝

78. 白磁 楪匙(도면: 38-78, 도판: 45-78)

백자 접시로 구연이 외반하고 기벽은 살짝 볼록한 사선을 이루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로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다. 용융상태가 양호하며 표면에는 잔빙렬이 있다. 굽은 깎음새가 살짝 거친 편이며 굽 접지면이 좁고 둥글다. 그릇 안바닥에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 3.9㎝, 口徑 15.1㎝, 底徑 5.4㎝, 厚 0.5㎝

79. 白磁 楪匙(도면: 38-79, 도판: 46-79)

백자 접시로 저경보다 큰 내저원각이 있다. 구연은 외반하며 기벽은 사선으로 내려오다가 동체부에서 살짝 꺾여 굽으로 이어진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로 굽 안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다. 용융상태가 양호하며 표면에는 잔빙렬이 있다. 굽은 깎음새가 거친 편이며 굽 접지면의 폭이 일정하지 않다. 번조받침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現高 4.0㎝, 底徑 5.2㎝, 厚 0.6㎝

80. 白磁 楪匙(도면: 38-80, 도판: 46-80)

백자 화형 접시로 구연이 살짝 벌어지고 사선을 그리다 부드럽게 꺾여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입술부분에 'V' 자로 홈을 깎아 내고 홈 밑에 굵은 'S' 형 음각 시문하여 전체적으로 꽃잎 모양을 표현하였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용융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표면에는 빙렬이 확인되지 않는다. 굽은 깎음새가 매우 단정한데 안바닥이 편평하며 좁고 낮은 굽이다. 굽에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4.6㎝, 口徑 14.6㎝, 底徑 6.2㎝, 厚 0.3㎝

81. 白磁 楪匙(도면: 38-81, 도판: 46-81)

백자 접시로 저경보다 큰 내저원각이 있다. 구연은 외반하여 벌어지고 동체 상단에서 살짝 단을 이루고 사선을 그리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굽 안바닥에 '王大' 銘를 조탁하였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용융상태가 좋고 표면에는 잔빙렬이 있다. 굽은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고 굽 접지면은 유약을 닦아 내었다. 번조받침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現高 4.0㎝, 厚 0.6㎝

82. 白磁 楪匙(도면: 38-82, 도판: 46-82)

백자 접시로 구연은 외반하고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하단부에서 부드럽게 꺾여 저부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안바닥에는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은은한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고 용융상태가 양호하다. 굽은 오목굽으로 깎음새가 단정하며 굽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낸 후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 5.0㎝, 厚 0.5㎝

83. 白磁 楪匙(도면: 38-83, 도판: 46-83)

백자 접시로 그릇 안바닥에 넓고 편평한 원각이 있다. 구연은 외반하고 기벽은 동체 상단에서 단을 이루고 사선을 그리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유약은 광택이 좋은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용융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빙렬은 거의 없다. 굽은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고 접지면의 폭이 좁고 고른 편이다. 굽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 3.9㎝, 厚 0.5㎝

84. 白磁 楪匙(도면: 38-84, 도판: 46-84)

백자 접시 구연부이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시유하였으며 용융상태가 좋지 않아 일부 유약이 뭉쳐있다.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잔빙렬이 있다.

現長 6.1㎝, 厚 0.5㎝

85. 白磁 楪匙(도면: 38-85, 도판: 47-85)

백자 소형접시이다. 구연은 외반하고 기벽은 사선을 그리며 굽으로 이어진다. 유약은 광택이 좋은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용융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표면에는 잔빙렬이 있다. 굽은 크기가 작고 깎음새가 단정한 편이다. 그릇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 가는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 2.5㎝, 口徑 13.2㎝, 厚 0.5㎝

86. 白磁 楪匙(도면: 38-86, 도판: 47-86)

백자 소형 접시편이다. 구연은 몸체에서 직각으로 꺾였으며 구연 끝은 다시 살짝 위로 향한다. 기벽이 매우 낮고 바닥이 넓고 편평한 형태이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용융상태가 양호하고 표면에 빙렬이 없다. 굽은 크기가 작고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번조받침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現高 5.1㎝, 厚 0.4㎝

87. 白磁 楪匙(도면: 38-87, 도판: 47-87)

백자 소형 접시편이다. 구연은 몸체에서 직각으로 꺾였으며 구연 끝은 다시 살짝 위로 향한다. 기벽이 매우 낮고 바닥이 넓고 편평한 형태이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시유하였으며 용융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표면에는 빙렬이 없다.

現長 5.5㎝, 厚 0.3㎝

88. 白磁 楪匙(도면: 38-88, 도판: 47-88)

백자 접시 저부편으로 안바닥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으며 '正' 자가 조탁되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는데 용융상태가 양호하다. 굽은 깎음새가 단정한 편이고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었다. 그릇의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 굵은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 2.5㎝, 底徑 5.6㎝ 厚 0.9㎝

89. 白磁 楪匙(도면: 38-89, 도판: 47-89)

백자 접시 저부편으로 그릇 안바닥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 안바닥에는 '正' 자를 조탁하였다. 유

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굽은 깎음새가 단정한 편이며 굽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낸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 2.6㎝, 底徑 5.9㎝, 厚 0.6㎝

90. 白磁 楪匙(도면: 38-90, 도판: 47-90)

백자 접시 저부편으로 안바닥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은은한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굽은 안바닥을 얕게 깎은 낮은 굽이며 접지면의 유를 살짝 닦아내었다. 그릇 안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0㎝, 底徑 4.7㎝, 厚 0.4㎝

91. 白磁 盞(도면: 38-91, 도판: 47-91)

백자 화형 잔편이다. 구연은 직립하며 기벽은 사선을 그리다 하단부에서 꺾여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입술부분에 'V' 자로 홈을 깎아내고 홈 밑에 굵은 'S' 형 음각선을 내어 전체적으로 꽃잎 모양을 표현하였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는데 용융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표면에 빙렬은 확인되지 않는다.

現長 4.2㎝, 厚 0.3㎝

92. 白磁 盞(도면: 38-92, 도판: 47-92)

백자 잔의 저부편으로 굽 안바닥에 '正' 자를 조탁하였다. 유약은 광택이 좋은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는데 용융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표면이 매끄럽고 빙렬이 없다. 굽은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고 굽 접지면은 폭이 좁고 둥글다.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4.4㎝, 底徑 4.8㎝, 厚 0.4㎝

93. 白磁 盞(도면: 38-93, 도판: 47-93)

백자 잔의 저부편이다. 유약은 광택이 좋은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는데 용융상태가 매우 단정하며 표면에는 잔빙렬이 있다. 굽은 오목굽으로 깎음새가 단정한 편이다. 굽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1㎝, 底徑 4.0㎝, 厚 0.3㎝

94. 白磁 盞(도면: 38-94, 도판: 4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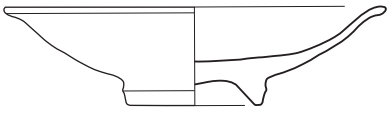
백자 잔의 저부편이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용융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표면에는 잔빙렬이 있다. 굽은 깎음새가 거친편이며 굽 접지면이 단정하지 못하다. 굽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現高 2.6㎝, 底徑 3.8㎝, 厚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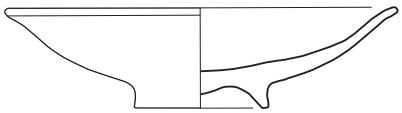
95. 白磁 盞(도면: 38-95, 도판: 48-95)

백자 잔의 저부편이다. 유약은 광택이 은은한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용융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굽은 안바닥을 깎아내지 않은 평굽의 형태이다. 굽 접지면에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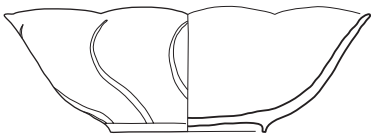
現高 2.8㎝, 底徑 3.9㎝, 厚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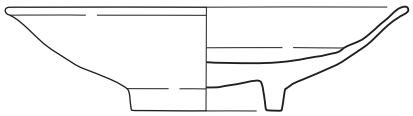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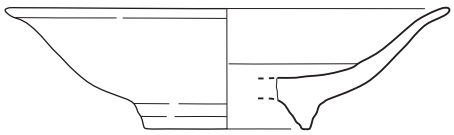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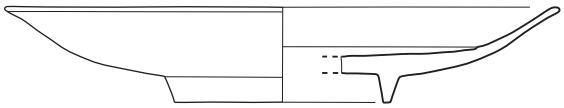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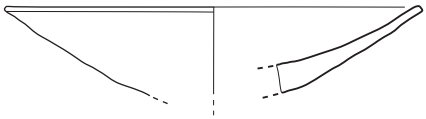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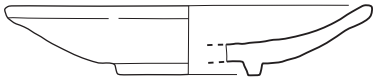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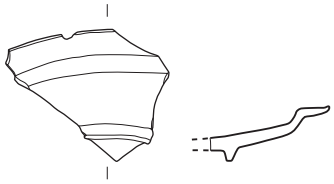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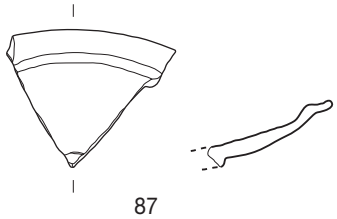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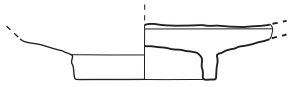
85



86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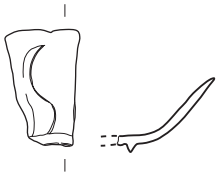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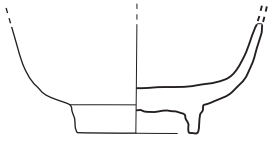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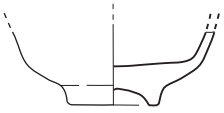
90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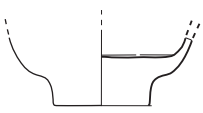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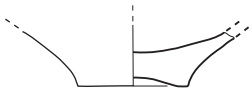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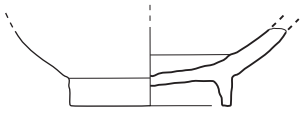
94



95



96



97



98



도면 38. 지표 수습유물(2)

96. 白磁 盞(도면: 38-96, 도판: 48-96)

백자 잔의 저부편이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굽은 안바닥을 거의 깎아내지 않은 평굽에 가깝다. 그릇의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포개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2.3㎝, 底徑 4.3㎝, 厚 0.5㎝

97. 白磁 鉢(도면: 38-97, 도판: 48-97)

백자 발의 저부편으로 안바닥에 저경 크기의 원각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좋은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용융상태가 양호하고 표면에는 빙렬이 없다. 굽은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고 굽 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았다. 굽 접지면은 폭이 좁고 고르며 유약을 닦아낸 후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3㎝, 底徑 6.3㎝, 厚 0.5㎝

98. 白磁 鉢(도면: 38-98, 도판: 48-98)

백자 발의 저부편으로 안바닥에 굽경보다 큰 원각이 희미하게 있다. 굽 안바닥에 '衣' 자와 유사한 글자가 墨書되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로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으며 표면에는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굽은 깎음새가 거친편이며 그릇의 안바닥 8곳에 가는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 3.3㎝, 底徑 5.9㎝, 厚 0.6㎝

99. 白磁 鉢(도면: 39-99, 도판:48-99)

백자 접시의 저부로 그릇 안바닥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그릇의 안바닥에 '士' 자를 조탁하였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로 굽 안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다. 표면에 빙렬은 거의 없으며 유약이 잘 녹지 않아 일부 뭉친 곳이 있다. 굽은 죽절굽에 가깝다. 그릇의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1㎝, 底徑 5.5㎝, 厚 0.7㎝

100. 白磁 鉢(도면: 39-100, 도판: 48-100)

백자 발의 저부편이다. 안바닥에는 저경보다 조금 큰 원각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는데 용융상태가 좋은 편이며 표면에는 잔빙렬이 있다. 굽은 깎음새가 단정하고 접지면의 폭이 좁고 고르다. 굽 접지면에는 가는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4.6㎝, 底徑 6.0㎝, 厚 0.5㎝

101. 白磁 鉢(도면: 39-101, 도판: 49-101)

백자 잔의 저부편으로 안바닥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으며 굽 안바닥에 '正' 자를 조탁하였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는데 용융상태가 양호하며 표면에는 잔빙렬이 있다. 굽은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며 굽 접지면은 폭이 좁고 둥글게 깎여 있으며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 5.0㎝, 底徑 5.1㎝, 厚 0.3㎝

102. 白磁 鉢(도면: 39-102, 도판: 49-102)

백자 발의 저부편으로 안바닥에 저경 크기의 원각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는데 용융상태가 양호하고 표면에는 잔빙렬이 있다. 굽은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한 편이다. 그릇의 안바

닥과 굽접지면에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7㎝, 底徑 6.0㎝, 厚 0.6㎝

103. **白磁 鉢**(도면: 39-103, 도판: 49-103)

백자 접시의 저부편이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는데 용융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빙렬이 확인된다. 굽은 깎음새가 단정한 편이다. 그릇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 가는 모래비짐을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0㎝, 底徑 6.3㎝, 厚 0.5㎝

104. **白磁 口緣部**(도면: 39-104, 도판: 49-104)

백자 발의 구연부편으로 구연은 외반되며 유약은 광택이 좋은 백자유를 시유하였다. 용융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기면에 빙렬은 확인되지 않는다.

現長 7.2㎝, 厚 0.4㎝

105. **白磁 口緣部**(도면: 39-105, 도판: 49-105)

백자 발의 구연부편이다. 구연부 끝이 외반한 형태이다. 유약은 광택이 은은한 백자유를 시유하였으며 표면에는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기면에 빙렬은 확인되지 않는다.

現長 6.1㎝, 厚 0.4㎝

106. **白磁 口緣部**(도면: 39-106, 도판: 50-106)

백자 발의 구연부편이다. 구연 끝이 외반하여 벌이진 형태이다. 유약은 광택이 좋은 백자유를 시유하였으며 용융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기면에 빙렬은 확인되지 않는다.

現長 5.1㎝, 厚 0.3㎝

107. **白磁 口緣部**(도면: 39-107, 도판: 50-107)

백자 접시의 구연부편이다.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시유하였으며 표면에는 잔빙렬이 확인된다.

現長 6.3㎝, 厚 0.3㎝

108. **白磁 底部**(도면: 39-108, 도판: 50-108)

백자 접시의 저부편이다. 굽 안바닥에 '王' 자가 작게 조탁되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굽 외면에 유약이 잘 녹지 않아 뭉쳐 있다. 굽은 깎음새가 매우 단정한데 굽 접지면의 유약을 살짝 닦아내어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現長 2.3㎝, 厚 0.8㎝

109. **白磁 底部**(도면: 39-109, 도판: 50-109)

분청사기 접시이다. 그릇 안바닥에 원문을 돌렸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로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다. 외면은 용융상태가 좋지 않아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굽의 깎음새는 다소 거친편이다. 그릇의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 가는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 3.5㎝, 底徑 6.6㎝, 厚 0.8㎝

110. 白磁 底部(도면: 39-110, 도판: 50-110)

백자 대접으로 그릇 안바닥에 넓고 편평한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굽안 바닥에 '左秀' 자를 긁어서 새겨 넣었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용융상태가 양호하고 표면에는 잔빙렬이 있다. 굽은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굽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0㎝, 底徑 7.1㎝, 厚 0.4㎝

111. 白磁 底部(도면: 39-111, 도판: 51-111)

백자 접시이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유약이 잘 녹아 표면이 매끄럽다. 굽은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접지면은 폭이 좁고 둥글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 1.9㎝, 底徑 5.2㎝, 厚 0.8㎝

112. 白磁 底部(도면: 39-112, 도판: 51-112)

백자 접시의 저부편으로 굽 안바닥에 '正' 자를 조탁하였다. 유약은 광택이 좋은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용융 상태가 양호하고 표면에는 빙렬이 없다. 굽은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굽 접지면은 폭이 좁고 일정하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現高 2.4㎝, 底徑 5.5㎝, 厚 0.9㎝

113. 白磁 底部(도면: 39-113, 도판: 51-113)

백자 발의 저부편으로 안바닥에 저경 크기의 원각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약한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는데 외면에 유가 잘 녹지 않아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다. 굽은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며 굽 접지면은 폭이 좁고 고른 편이다.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2.9㎝, 底徑 5.8㎝, 厚 0.4㎝

114. 白磁 底部(도면: 39-114, 도판: 51-114)

백자 접시의 저부편이다. 굽 안바닥에 '正' 자를 조탁하였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는데 용융상태가 양호하고 표면에는 빙렬이 없다. 굽은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고 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 내었으며 굽 접지면은 폭이 좁고 고르며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2.7㎝, 底徑 6.1㎝, 厚 0.6㎝

115. 白磁 底部(도면: 39-115, 도판: 5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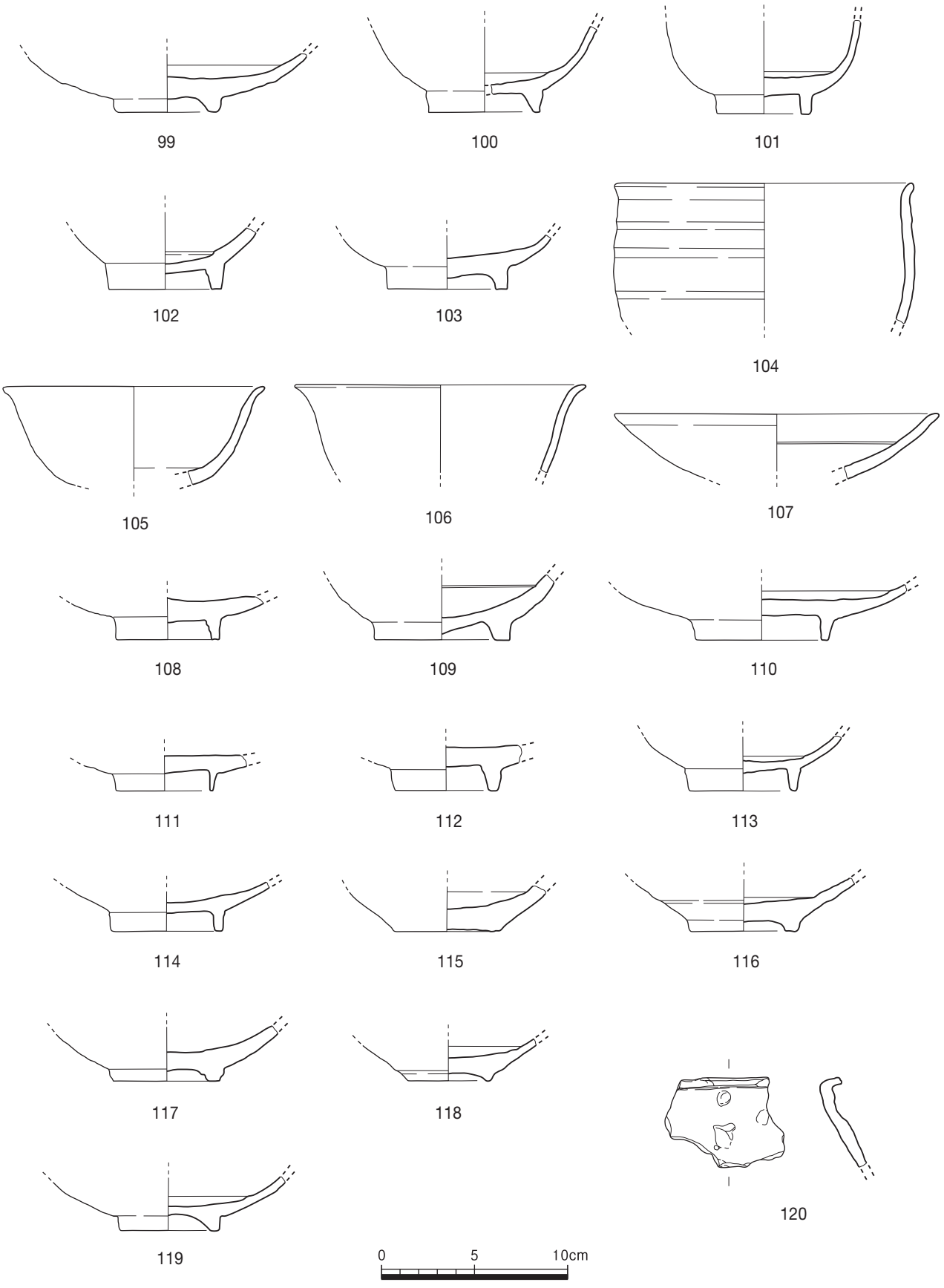
백자 접시의 저부편이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표면에 빙렬이 있다. 굽은 안바닥을 깎지 않은 평굽으로 그릇의 안바닥과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운 흔적이 있다.

現高 2.4㎝, 底徑 5.9㎝, 厚 0.7㎝

116. 白磁 底部(도면: 39-116, 도판: 52-116)

백자 접시의 저부편으로 안바닥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표면에 빙렬은 확인되지 않는다. 굽은 낮은 굽으로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았다. 그릇 안바닥과 접지면에 굵은 알갱이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2.6㎝, 底徑 5.7㎝, 厚 0.6㎝



도면 39. 지표 수습유물(3)

117. **白磁 底部**(**도면**: 39-117, **도판**: 52-117)

백자 접시의 저부편으로 그릇 안바닥에 저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는데 단정하지 못하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표면에는 빙렬이 있다. 굽은 낮은 굽으로 죽절굽에 가깝다. 그릇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 굵은 알갱이로 받쳐 포개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2㎝, 底徑 6.4㎝, 厚 0.8㎝

118. **白磁 底部**(**도면**: 39-118, **도판**: 52-118)

백자 접시의 저부편으로 안바닥에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으며 '上'·'正' 자를 따로 새겨 넣었다. 유약은 광택이 좋은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용융상태가 좋은 편이며 일부에는 빙렬이 확인된다. 굽은 낮은 오목굽으로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그릇의 안바닥과 굽 접지면 각각 5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2.2㎝, 底徑 4.5㎝, 厚 0.4㎝

119. **白磁 底部**(**도면**: 39-119, **도판**: 52-119)

백자 접시의 저부편으로 저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용융상태가 양호하다. 굽은 오목굽으로 깎음새가 다소 거친 편이다. 그릇의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2.9㎝, 底徑 5.4㎝, 厚 0.4㎝

120. **陶器 甕**(**도면**: 39-120, **도판**: 52-120)

질그릇의 항아리 구연부편이다. 구연단은 수직상으로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잔존상태로 볼 때 최대경은 동체부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약은 녹유를 시유하였다.

現長 5.4㎝, 厚 0.5㎝

121. **銘文瓦**(**도면**: 40-121, **도판**: 53-121)

회청색 경질의 명문 수키와이며 현무암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명문은 '抄道山造' 銘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었다. 양각이며 우서이다. 미구 부분에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측면의 절단면은 1/5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흔과 포흔, 외면에는 물손질흔과 빗질흔이 확인된다. 단부 내부조정은 손누름한 것으로 보인다.

現長 36.6㎝, 幅 11.9㎝, 厚 2.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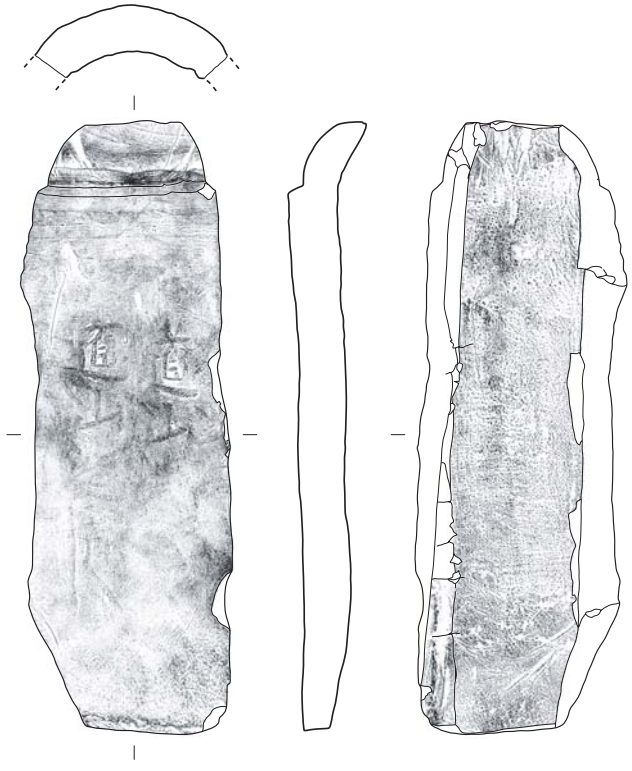
122. **銘文瓦**(**도면**: 40-122, **도판**: 53-122)

회청색 경질의 명문 수키와이며 현무암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道山○' 銘이 새겨진 도박판을 타날하였다. 양각이며 우서이다. 측면의 절단면은 1/5이상 안쪽으로 남아있다. 내면에는 점토 접합흔, 연철흔,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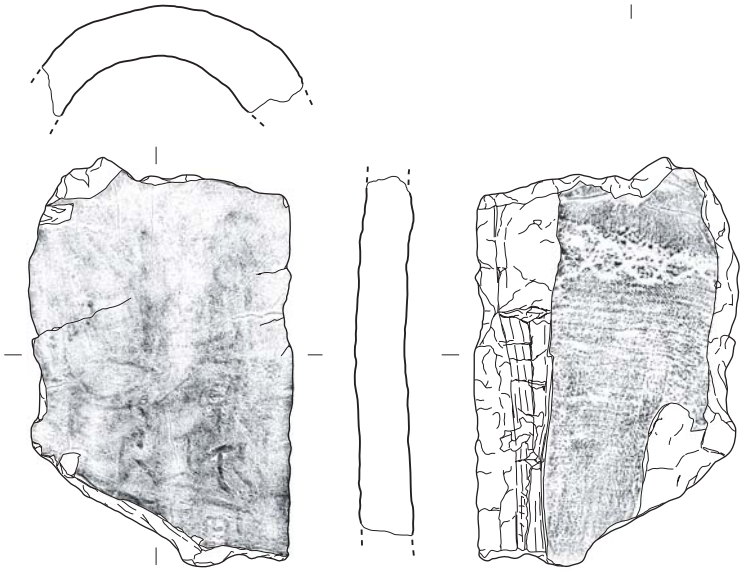
現長 20.5㎝, 幅 13.9㎝, 厚 3.1~3.5㎝

123. **銘文瓦**(**도면**: 40-123, **도판**: 53-123)

적갈색 경질의 명문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명문은 '○道山○' 銘이 종방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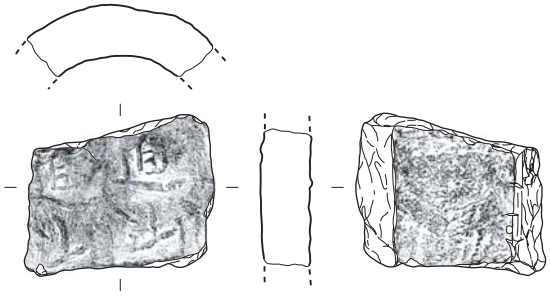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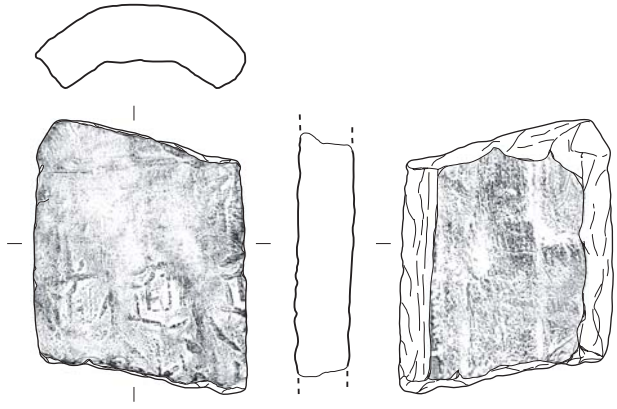




122



124



123

도면 40. 지표 수습유물(4)

타날되었다. 양각이며 우서이다. 미구는 결실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1/5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 물손질흔, 빗질흔, 합철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現長 12.3㎝, 幅 11.2㎝, 厚 2.5~2.7㎝

124. **銘文瓦**(도면: 40-124, 도판: 53-124)

적갈색 경질의 명문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道山○' 銘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었다. 양각이며 우서이다. 미구는 결실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1/5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現長 7.9㎝, 幅 10.0㎝, 厚 2.5㎝

125. **銘文瓦**(도면: 41-125, 도판: 54-125)

회청색 경질의 명문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명문기와로 '玉・・' 銘이 확인된다. 양각이며 우서이다. 미구는 결실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1/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 손누름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문손질흔과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23.1㎝, 幅 11.9㎝, 厚 1.5~2.9㎝

126. **銘文瓦**(도면: 41-126, 도판: 54-126)

회청색 경질의 명문 수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道山○' 銘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었다. 양각이며 우서이다. 미구는 결실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내면에는 점토 접합흔과 물손질흔,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16.1㎝, 幅 11.6㎝, 厚 2.5㎝

127. **銘文瓦**(도면: 41-127, 도판: 54-127)

회청색 경질의 명문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명문이 종방향으로 쓰였으며 '汗' 銘으로 판단된다. 양각이며 우서이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과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단부 내부조정은 깎은후 손누름 한 것으로 보인다.

現長 15.8㎝, 幅 11.3㎝, 厚 1.5~2.7㎝

128. **銘文瓦**(도면: 41-128, 도판: 54-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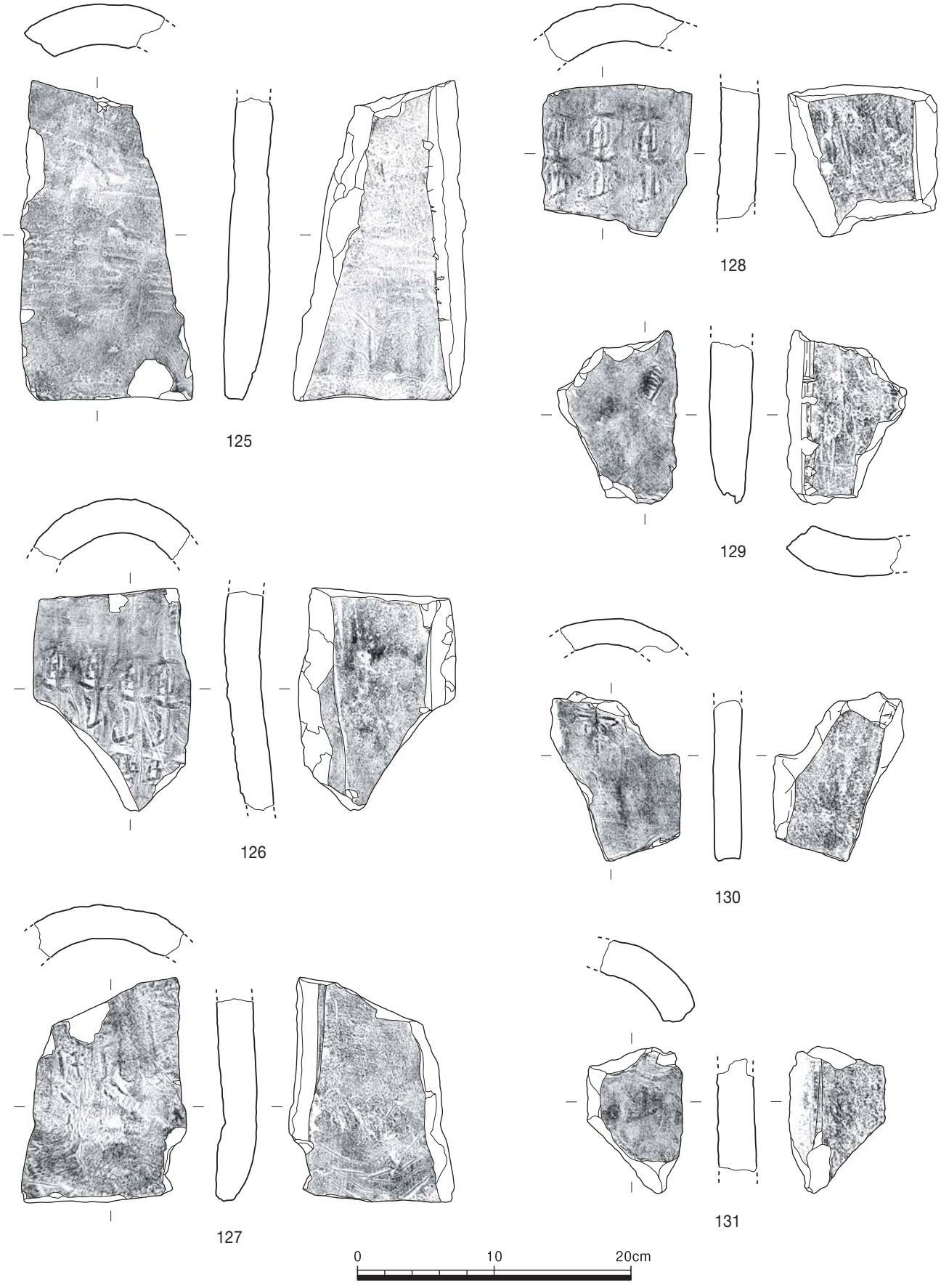
회청색 경질의 명문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道山○' 銘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었다. 양각이며 우서이다. 미구는 결실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1/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과도한 물손질로 인하여 포흔이 사라졌으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10.9㎝, 幅 10.9㎝, 厚 2.8~3.0㎝

129. **銘文瓦**(도면: 41-129, 도판: 54-129)

회색 경질의 명문 수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전체 명문은 판독하기 어려우나 부분적으로 '道' 銘이 확인된다. 미구는 결실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1/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과 손누름흔이 확인된다.

現長 11.4㎝, 幅 8.7㎝, 厚 1.9~2.7㎝



도면 41. 지표 수습유물(5)

130. **銘文瓦**(도면: 41-130, 도판: 54-130)

회색 경질의 명문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帶' 銘으로 추정되는 명문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었다. 양각이며 좌·우 구별은 안된다. 내면에는 과도한 물손질로 인해 포흔이 사라졌으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12.0㎝, 幅 8.5㎝, 厚 2.1㎝

131. **銘文瓦**(도면: 41-131, 도판: 54-131)

회청색 경질의 명문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명문은 종방향으로 타날 되었으며 '○○山○' 銘이 확인된다. 미구는 결실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1/10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으며 단면에서 점토 접합흔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포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10.2㎝, 幅 7.6㎝, 厚 2.8㎝

132. **銘文瓦**(도면: 42-132, 도판: 55-132)

회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道山○' 銘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었다. 양각이며 우서이다. 미구는 결실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1/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과도한 물손질로 인하여 포흔이 사라졌으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8.3㎝, 幅 8.3㎝, 厚 2.1㎝

133. **銘文瓦**(도면: 42-133, 도판: 55-133)

회색 경질의 명문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玉○·· ' 銘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었으며 도박판의 폭은 7㎝로 추정된다. 양각이며 우서이다. 측면의 절단면은 1/10이상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빗질흔, 연철흔,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23.2㎝, 幅 16.9㎝, 厚 2.3~2.9㎝

134. **銘文瓦**(도면: 42-134, 도판: 55-134)

적갈색 경질의 명문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甲寔西山' 銘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었다. 양각이며 우서이다. 측면의 절단면은 1/5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 예새흔, 물손질흔이 희미하게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과 빗질흔이 확인된다.

現長 14.1㎝, 幅 13.4㎝, 厚 2.5~2.8㎝

135. **銘文瓦**(도면: 42-135, 도판: 55-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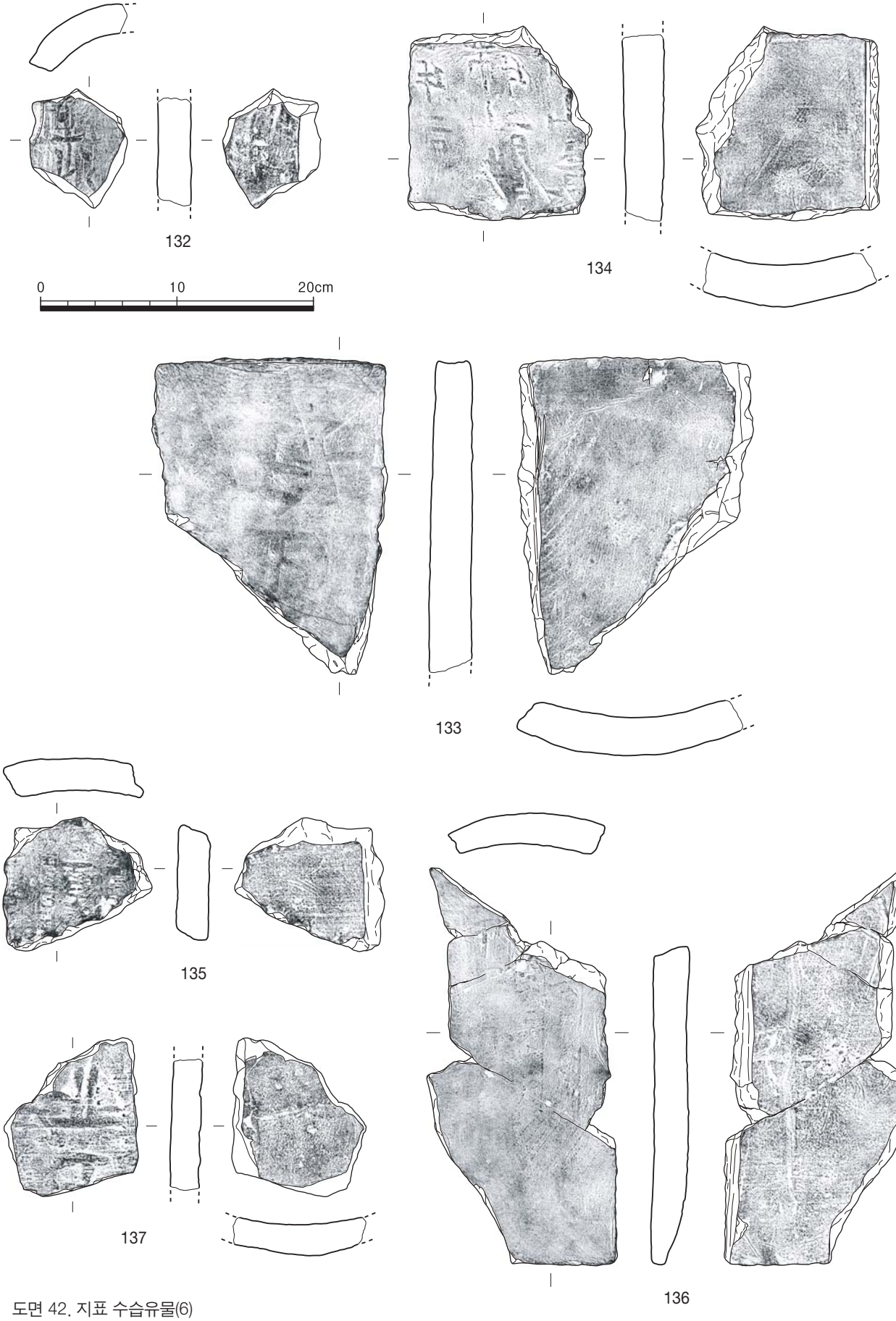
갈색 연질의 명문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명문이 타날되었는데 '申' 銘으로 추정되며 양각이며 우서이다. 내면에는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9.0㎝, 幅 10.9㎝, 厚 2.3㎝

136. **銘文瓦**(도면: 42-136, 도판: 55-136)

적갈색 경질의 명문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甲寔○○' 銘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었으며 양각 우서이다. 측면의 절단면은 2/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 손누름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물손질흔과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24.0㎝, 幅 13.4㎝, 厚 1.3~2.5㎝



도면 42. 지표 수습유물(6)

137. **銘文瓦**(**도면**: 42-137, **도판**: 55-137)

회색 경질의 명문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명문은 종방향으로 '山下' 銘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고 외면에는 뚜렷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現長 10.1㎝, 幅 9.7㎝, 厚 2.1㎝

138. **銘文瓦**(**도면**: 43-138, **도판**: 56-138)

갈색 경질의 명문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명문은 종방향으로 폭이 4㎝인 도박판을 이용하여 타날하였다. '帶' 銘으로 추정되는 명문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었다. 우측에는 사격자문을 1줄로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 있고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9.6㎝, 幅 13.1㎝, 厚 2.2㎝

139. **수키와**(**도면**: 43-139, **도판**: 56-139)

회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측면의 절단면은 2/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現長 11.1㎝, 幅 8.3㎝, 厚 1.6~2.0㎝

140. **수키와**(**도면**: 43-140, **도판**: 56-140)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복합문으로 종선+횡선+사선문이 결합되어 문양을 형성하고 있다. 미구 부분에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측면의 절단면은 1/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단부 내부조정은 깎은후 손누름한 것으로 보인다.

現長 32.5㎝, 幅 17.1㎝, 厚 1.6~2.4㎝

141. **수키와**(**도면**: 43-141, **도판**: 56-141)

회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은 정확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미구는 결실된 상태이다. 내면에는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뚜렷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現長 7.5㎝, 幅 10.8㎝, 厚 1.9~2.6㎝

142. **수키와**(**도면**: 43-142, **도판**: 56-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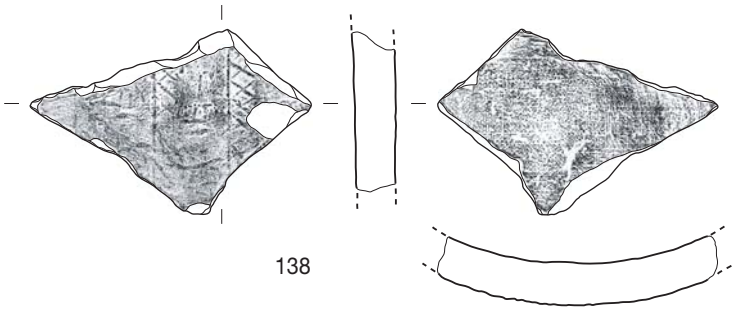
회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내면에는 포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고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미구는 결실된 상태이다.

現長 8.0㎝, 幅 8.0㎝, 厚 2.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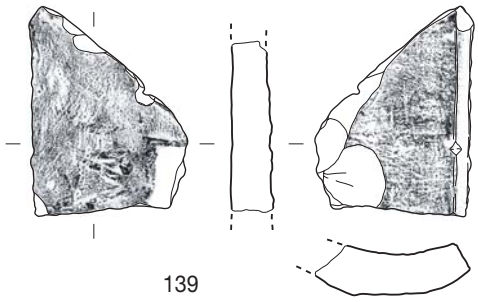
143. **수키와**(**도면**: 44-143, **도판**: 56-143)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복합문으로 종선+횡선+사선문이 결합되어 문양을 형성하고 있다. 미구는 결실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 있고 외면에는 뚜렷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現長 9.3㎝, 幅 5.6㎝, 厚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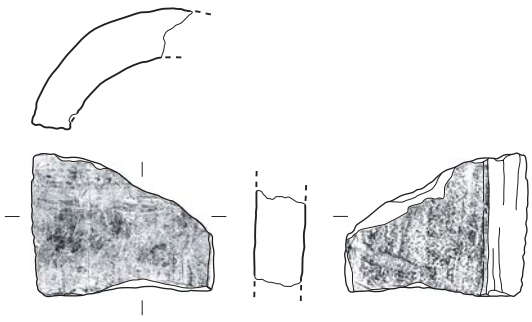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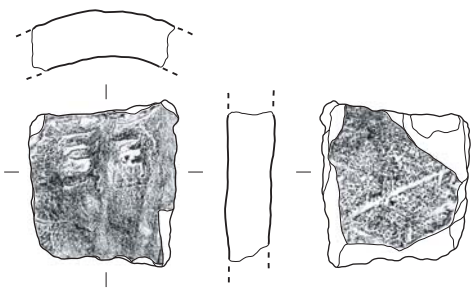
139



140



141



142

도면 43. 지표 수습유물(7)

144. **수키와**(**도면**: 44-144, **도판**: 57-144)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배면에는 문양이 남아있지 않다. 측면의 절단면은 1/2이상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 있고 외면에는 뚜렷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단부 내부조정은 깎은후 손누름 한 것으로 보인다.

現長 15.9㎝, 幅 11.4㎝, 厚 1.4~2.8㎝

145. **수키와**(**도면**: 44-145, **도판**: 57-145)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주문양은 어골문으로 전체 타날수는 6회이다. 미구 부분에는 물손질흔과 타날흔이 확인된다. 측면의 절단 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단부 내부조정은 깎은후 손누름 한 것으로 보인다.

現長 34.4㎝, 幅 13.5㎝, 厚 1.9~2.5㎝

146. **수키와**(**도면**: 44-146, **도판**: 57-146)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종선과 어골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어골문의 양가지 방향이 종선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를 향한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뚜렷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現長 10.6㎝, 幅 10.8㎝, 厚 2.2㎝

147. **수키와**(**도면**: 44-147, **도판**: 57-147)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복합문의 형태로 사격자문+창해파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미구 부분에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빗질흔,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現長 12.4㎝, 幅 11.6㎝, 厚 2.0~2.5㎝

148. **수키와**(**도면**: 45-148, **도판**: 57-148)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비교적 정선된 태토로 제작하였다. 문양은 횡선+사선+단사선이 결합된 형태이다. 미구 부분에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내면에는 포흔, 빗질흔, 물손질흔이 확인되고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20.5㎝, 幅 10.3㎝, 厚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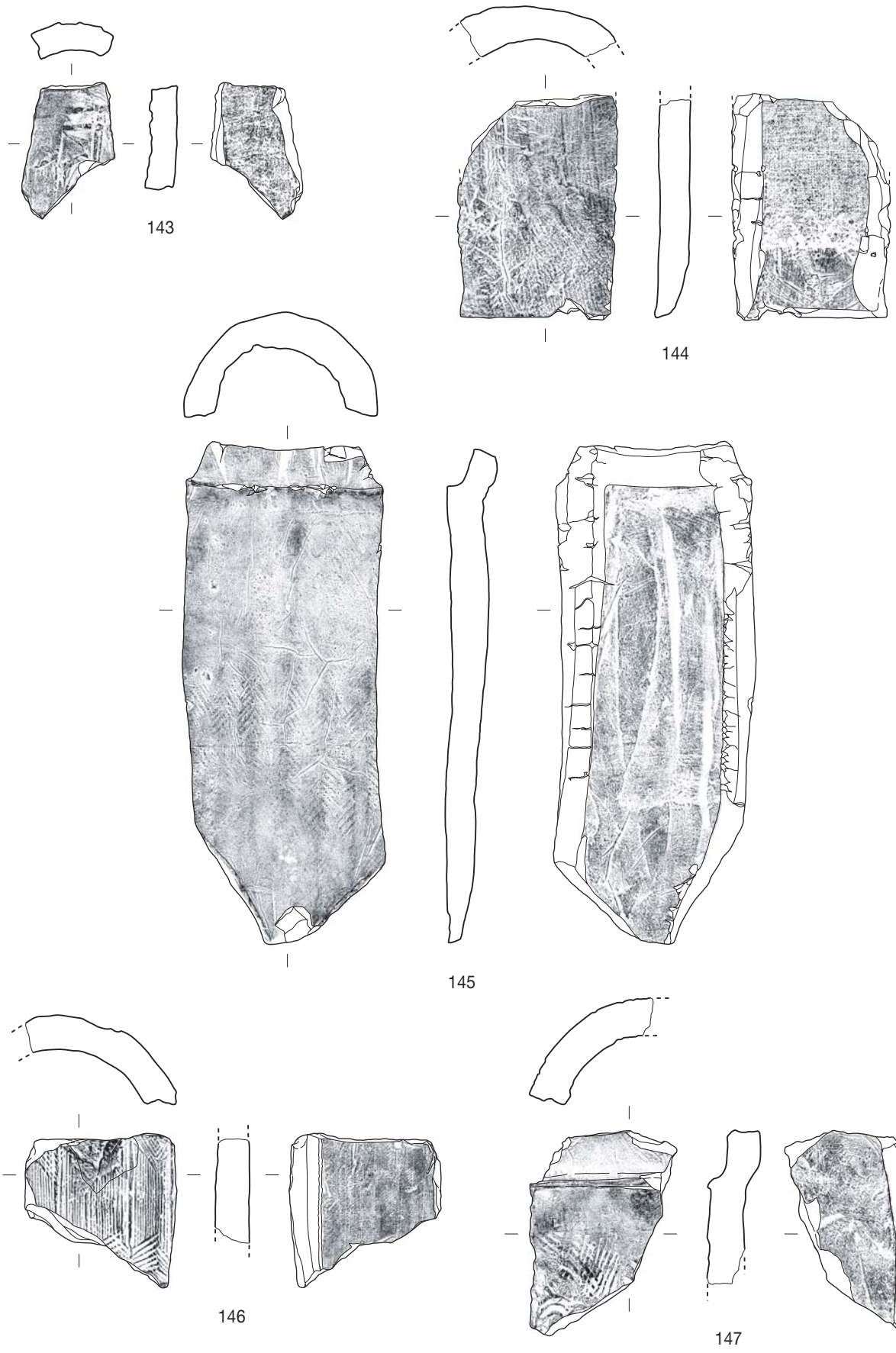
149. **수키와**(**도면**: 45-149, **도판**: 58-149)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전면에 곡선의 선문이 있으며 중앙부에는 이중으로 돌린 방곽안에 '×' 字 형태의 문양이 표현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1/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물손질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16.4㎝, 幅 13.0㎝, 厚 1.9~2.1㎝

150. **수키와**(**도면**: 45-150, **도판**: 58-150)

회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사립질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은 동심원문이 일부 남아 있다. 측면의 절단면



도면 44. 지표 수습유물(8)

은 1/2가량 안쪽으로 확인된다. 내면에서는 접합흔과 포흔이 관찰되며 외면에는 물손질흔과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24.5㎝, 幅 9.3㎝, 厚 1.3~1.8㎝

151. **수키와**(**도면**: 45-151, **도판**: 58-151)

회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은 복합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상위에는 종집선문이 중위에는 창해파문이 각각 구성되어 있다. 반면 하위에는 사격자문으로 구성된 형태이다. 내면에는 물손질흔,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13.8㎝, 幅 12.8㎝, 厚 2.1~2.6㎝

152. **수키와**(**도면**: 45-152, **도판**: 58-152)

회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은 복합문으로 종집선문과 횡집선문, 사집선문이 결합한 형태이다. 도박의 폭은 3㎝로 추정된다. 측면의 절단면은 1/10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뚜렷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외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단부 내부조정은 깎은후 손누름 한 것으로 보인다.

現長 14.1㎝, 幅 12.3㎝, 厚 1.0~2.1㎝

153. **수키와**(**도면**: 45-153, **도판**: 58-153)

회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하였다. 문양은 횡선 1줄을 중앙에 두고 0.5㎝ 간격의 종선을 세밀하게 가로로 배치한 형태이다. 미구 부분에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측면의 절단면은 1/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빗질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16.9㎝, 幅 10.8㎝, 厚 2.2~3.0㎝

154. **수키와**(**도면**: 46-154, **도판**: 58-154)

회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주문양대는 어골문이다. 측면의 절단면은 4/5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물손질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14.1㎝, 幅 9.2㎝, 厚 3.1㎝

155. **수키와**(**도면**: 46-155, **도판**: 58-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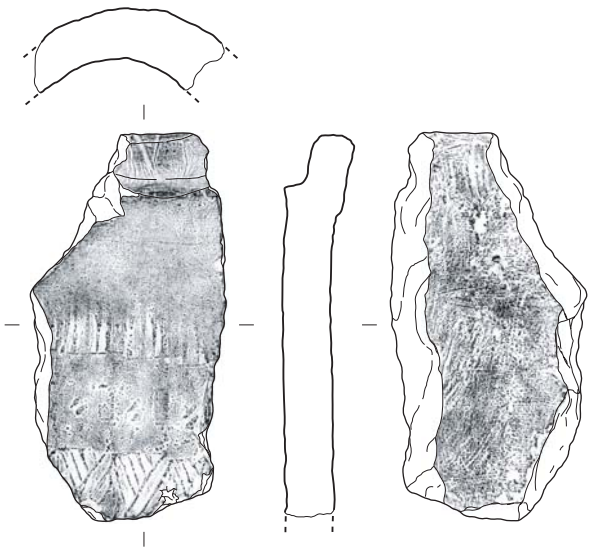
갈색 경질의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은 동심원문이 연속적으로 교차하는 형태이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연철흔,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뚜렷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現長 9.5㎝, 幅 11.9㎝, 厚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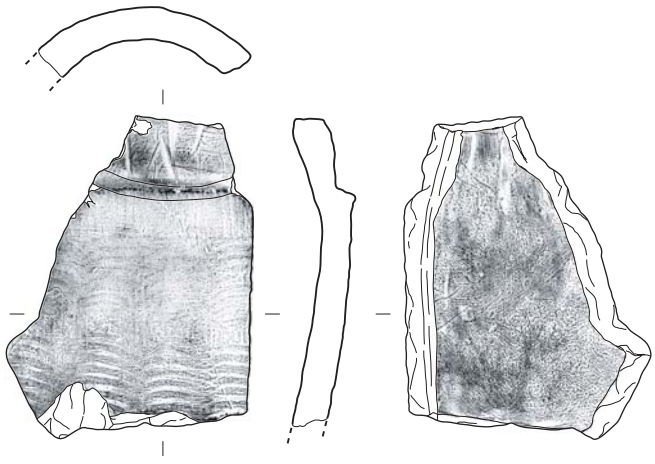
156. **수키와**(**도면**: 46-156, **도판**: 58-156)

갈색 연질의 수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 되었다. 배면에는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예새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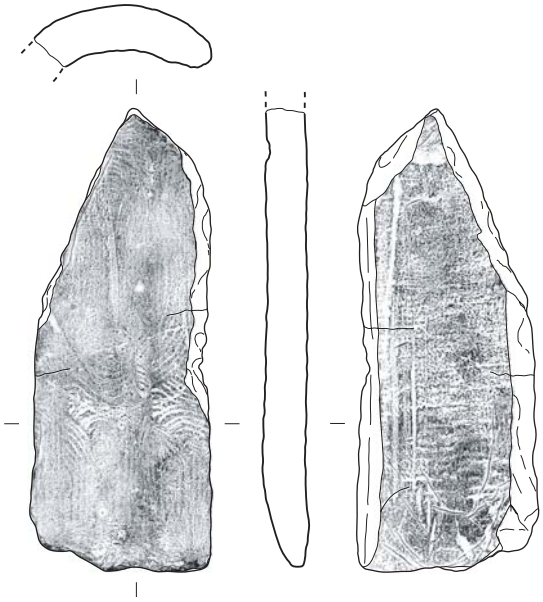
現長 14.8㎝, 幅 15.5㎝, 厚 1.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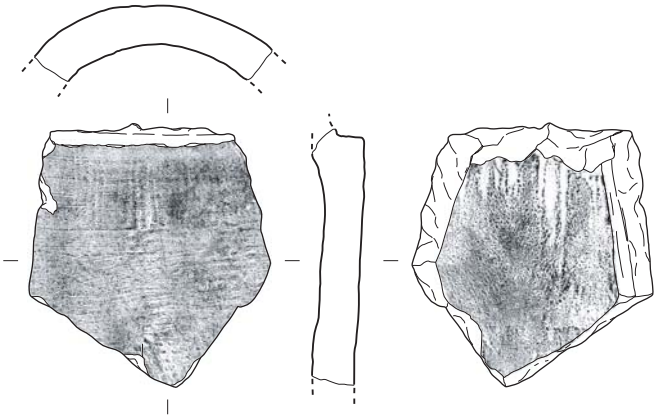
148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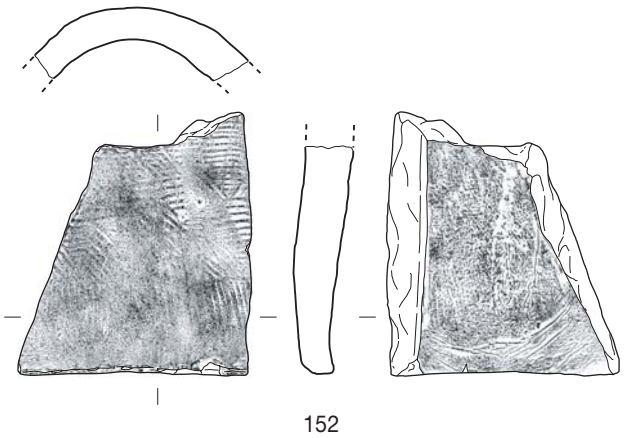


150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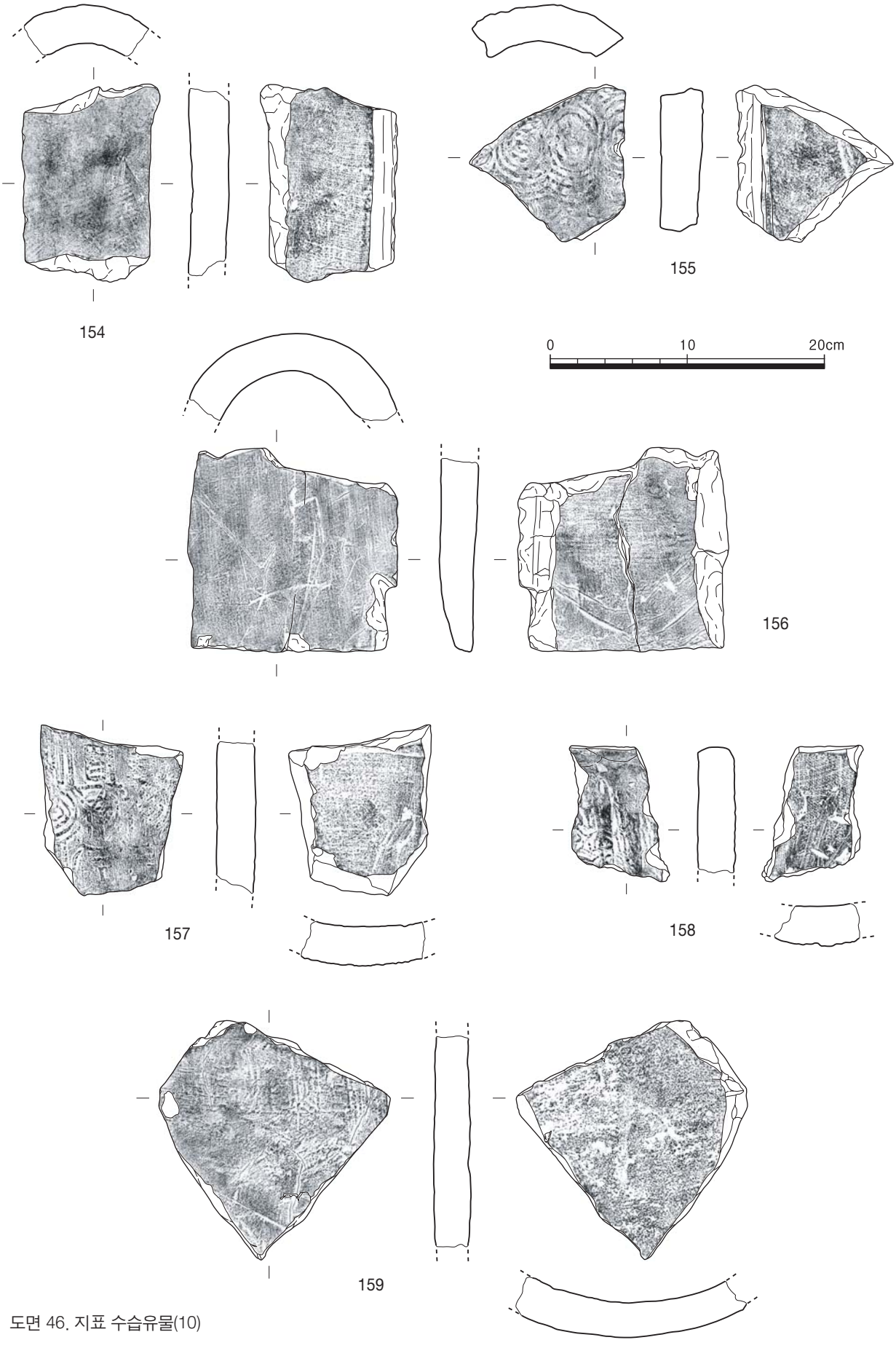


152



153

도면 45. 지표 수습유물(9)



도면 46. 지표 수습유물(10)

157. **암키와**(도면: 46-157, 도판: 59-157)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선문(원문), 종선, 횡선문의 결합한 문양이다. 내면에는 포흔과 예세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11.9㎝, 幅 10.2㎝, 厚 3.8㎝

158. **암키와**(도면: 46-158, 도판: 59-158)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다소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내면에는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9.1㎝, 幅 6.5㎝, 厚 2.6㎝

159. **암키와**(도면: 46-159, 도판: 59-159)

갈색 연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의도적인 타날에 의해서 문양이 지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내면에는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17.1㎝, 幅 16.7㎝, 厚 2.4~2.6㎝

160. **암키와**(도면: 47-160, 도판: 59-160)

갈색 연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복합문으로 창해파문+원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원문은 1겹의 동심원 안에 점이 결합되고 그 주변으로 꽃잎이 돌아가며 배열되었다. 창해파문은 중심줄기 없이 양가지가 살짝 곡선을 이룬다. 측면의 절단면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내면에는 빗질흔과 손누름흔이 확인된다. 또한 과도한 물손질에 의해 포흔이 보이지 않는다.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19.5㎝, 幅 18.5㎝, 厚 2.2~2.8㎝

161. **암키와**(도면: 47-161, 도판: 59-161)

회갈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중호문이 엇갈리게 배치되어 있는 형태이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15.3㎝, 幅 14.4㎝, 厚 1.9~2.5㎝

162. **암키와**(도면: 47-162, 도판: 60-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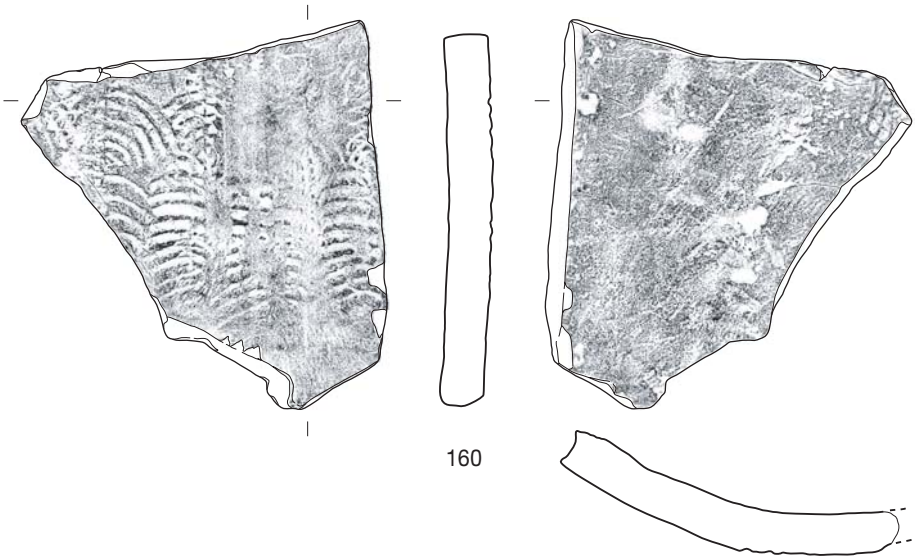
갈색 연질의 암키와이며 거친 태토로 제작되었다. 원문과 종선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측면의 절단면은 1/10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은 물손질 되었으며 연철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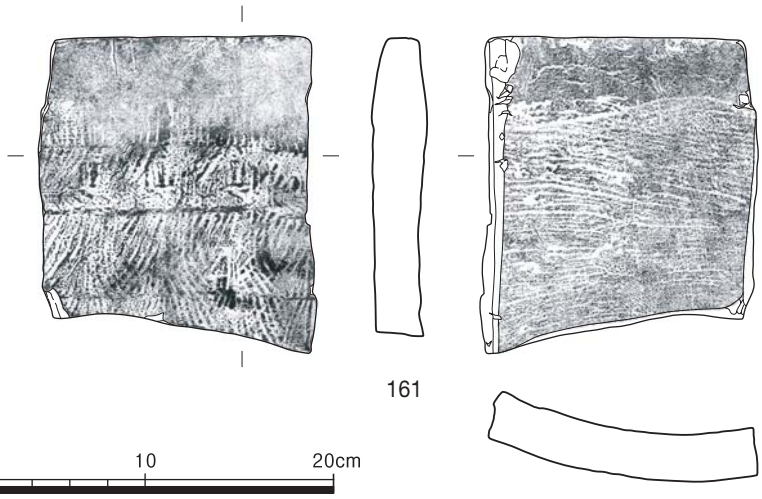
現長 24.4㎝, 幅 13.1㎝, 厚 1.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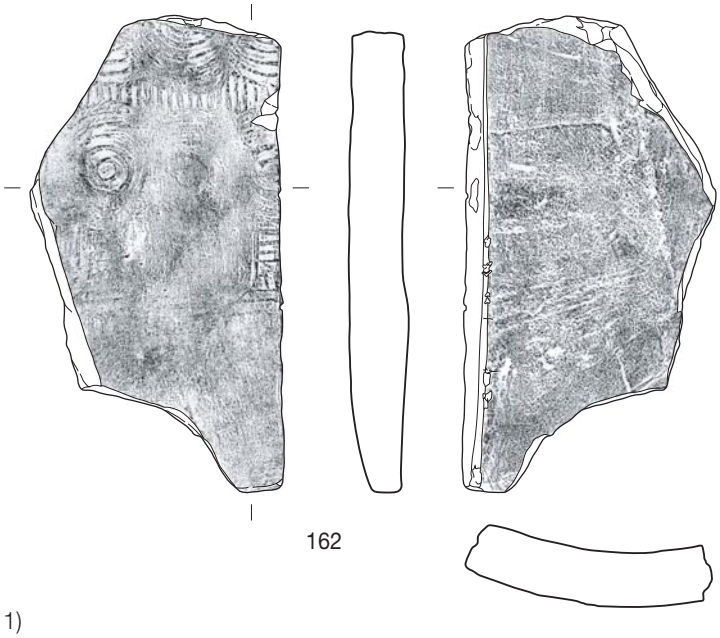
163. **암키와**(도면: 47-163, 도판: 60-163)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현무암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전체문양은 어골문으로 서로 겹쳐지게 타날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1/10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빗질흔, 물손질흔,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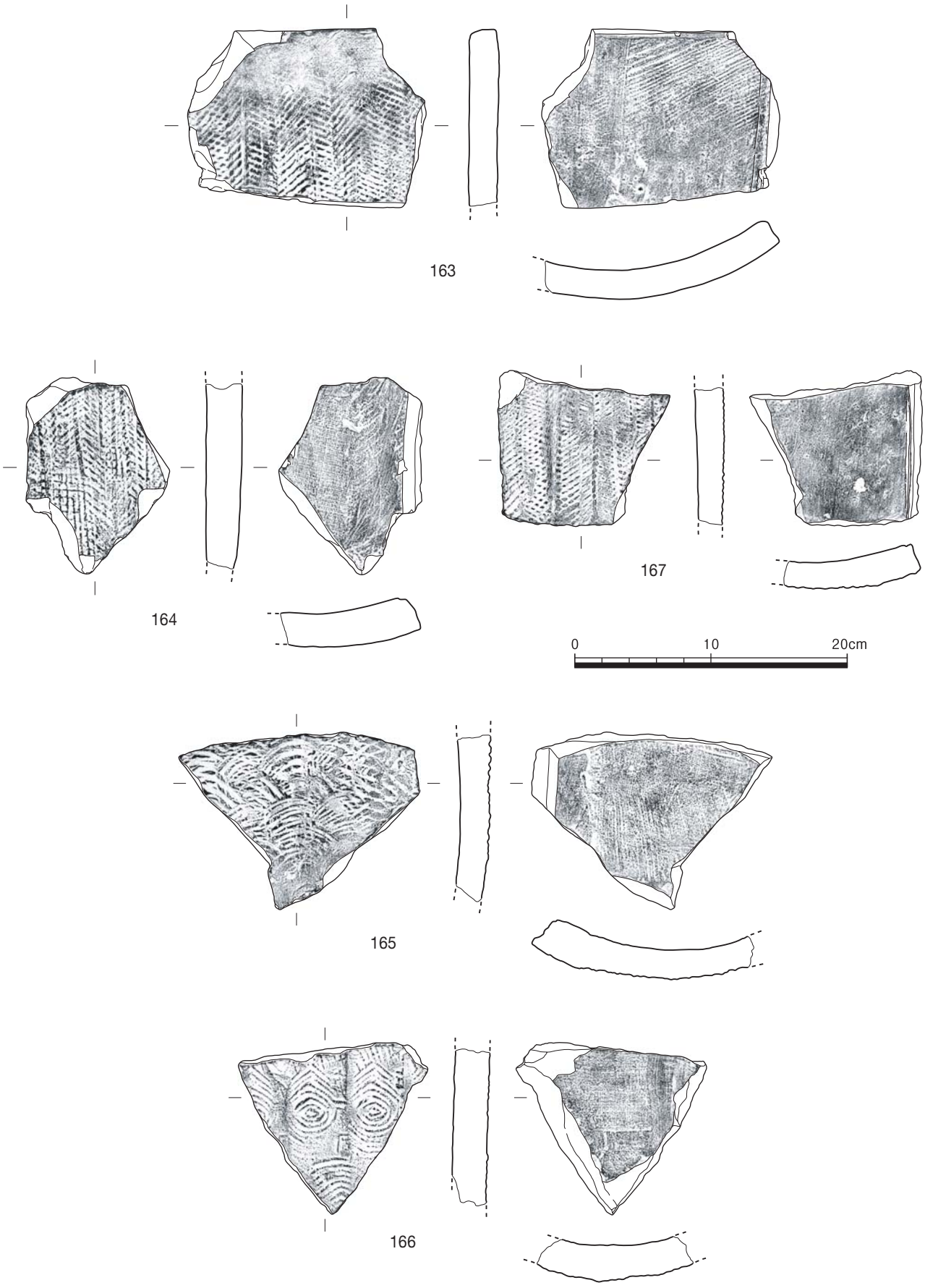
現長 12.9㎝, 幅 17.6㎝, 厚 2.1㎝







도면 47. 지표 수습유물(11)



도면 48. 지표 수습유물(12)

164. **암키와**(**도면**: 48-164, **도판**: 60-164)

회색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1개의 중심 줄기를 갖고 있는 어골문에 격자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뚜렷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現長 14.1㎝, 幅 10.5㎝, 厚 2.5㎝

165. **암키와**(**도면**: 48-165, **도판**: 60-165)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전체 문양은 창해파문이다. 측면의 절단면은 1/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점토접합흔, 포흔, 빗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12.5㎝, 幅 17.1㎝, 厚 2.4~2.6㎝

166. **암키와**(**도면**: 48-166, **도판**: 60-166)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은 동심원형태이나 동심원 위로 갈수록 삼각형의 각을 이루고 동심원 밑으로는 동일한 원이 퍼지는 형태이다. 내면에는 포흔, 손누름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12.3㎝, 幅 13.8㎝, 厚 2.2~2.7㎝

167. **암키와**(**도면**: 48-167, **도판**: 61-167)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주문양은 어골문으로 한 개의 중심줄기를 갖고 있으며 서로 중복되게 타날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1/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뚜렷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現長 10.6㎝, 幅 12.6㎝, 厚 2.0㎝

168. **암키와**(**도면**: 49-168, **도판**: 61-168)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은 창해파문이 교차하면서 이루어진 형태이며 원형은 아래로 향하고 있다. 측면의 절단면은 1/4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14.1㎝, 幅 19.4㎝, 厚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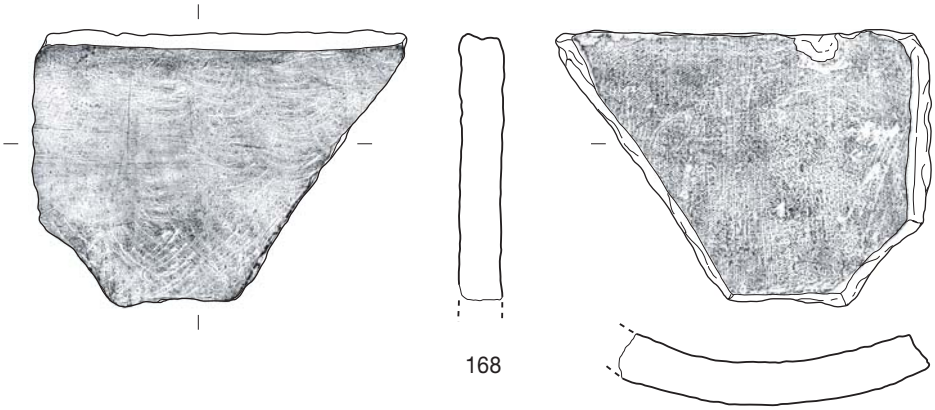
169. **암키와**(**도면**: 49-169, **도판**: 61-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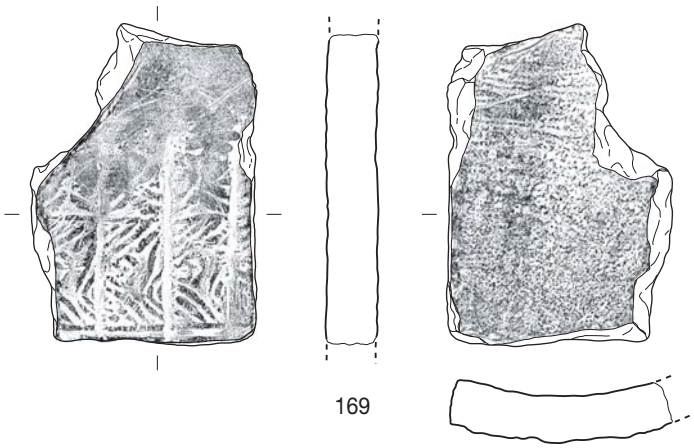
회갈색 연질의 암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하였다. 문양은 장방형의 틀 안에 사선을 교차시켜 '×'字의 문양이 형성된 형태이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밀림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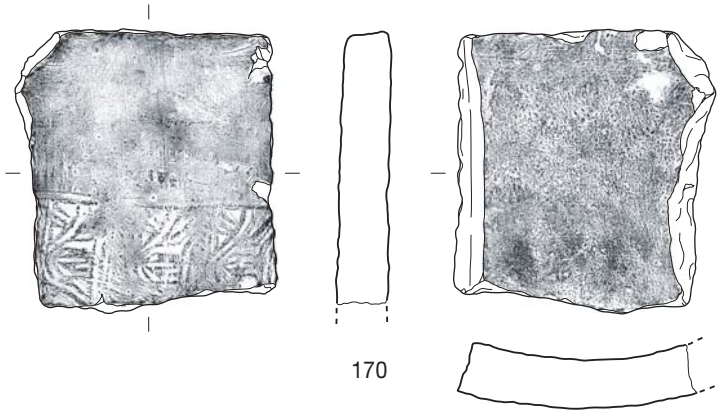
現長 16.7㎝, 幅 11.8㎝, 厚 2.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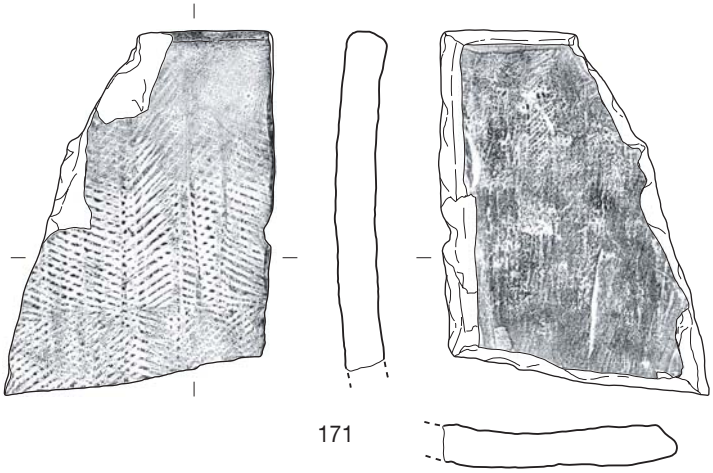
170. **암키와**(**도면**: 49-170, **도판**: 61-170)

적갈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은 2겹으로 된 물결문과 종선과 횡선이 결합된 형태이다. 배면에는 빗질흔이 남아 있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









도면 49. 지표 수습유물(13)



는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빗질흔이 확인된다.

現長 14.7㎝, 幅 13.8㎝, 厚 2.7㎝

171. **암키와**(도면: 49-171, 도판: 61-171)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주문양대는 어골문으로 한 개의 중심 줄기를 갖고 있다. 가지의 방향이 중간에서 대칭하며 서로 중복되게 타날하였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외면 모두에서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現長 18.0㎝, 幅 13.3㎝, 厚 1.8~2.0㎝

172. **암키와**(도면: 50-172, 도판: 62-172)

갈색 연질의 암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복합문의 형태로 사격자문이 창해파문 위로 연결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측면의 절단면은 1/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이 과도한 물손질로 인하여 사라져 확인되지 않으며 외면에도 뚜렷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現長 12.9㎝, 幅 17.1㎝, 厚 1.9~2.2㎝

173. **암키와**(도면: 50-173, 도판: 62-173)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대는 어골문으로 한 개의 중심 줄기를 갖고 있으며 가지의 방향이 상하로 대칭된다. 내면에는 물손질흔,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물손질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15.7㎝, 幅 20.8㎝, 厚 1.1~1.6㎝

174. **암키와**(도면: 50-174, 도판: 62-174)

명갈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은 복합문으로 횡선 3줄을 구획하고 그 밑으로는 동심원형태의 문양으로 이루어 졌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과 외면에는 모두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現長 13.2㎝, 幅 16.9㎝, 厚 2.0~2.3㎝

175. **암키와**(도면: 50-175, 도판: 62-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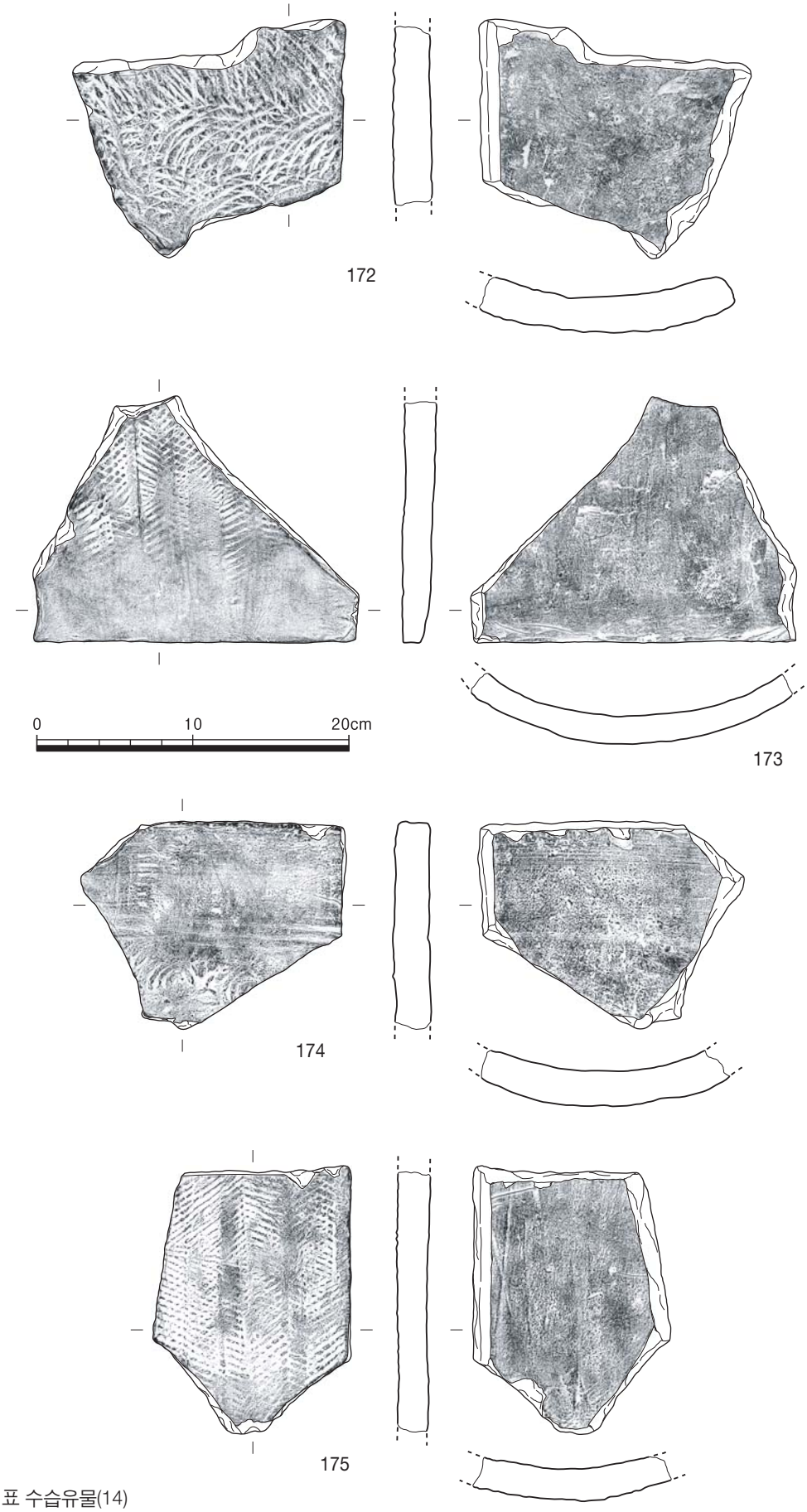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주문양대는 어골문으로 한 개의 중심줄기를 갖고 있으며 양가지의 방향이 중간에서 상하로 대칭하는 형태이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과 빗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뚜렷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現長 16.9㎝, 幅 12.7㎝, 厚 1.8~2.0㎝

176. **암키와**(도면: 51-176, 도판: 62-176)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주문양대는 어골문으로 한 개의 중심 줄기를 갖고 있으며 중복되게 타날되었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뚜렷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現長 15.4㎝, 幅 13.7㎝, 厚 1.9~2.0㎝



도면 50. 지표 수습유물(14)

177. **암키와**(도면: 51-177, 도판: 62-177)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현무암사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배면에는 사선문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측면의 절단면은 1/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과 연철흔이 확인되며 외면에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現長 14.2㎝, 幅 21.0㎝, 厚 1.1~1.7㎝

178. **암키와**(도면: 51-178, 도판: 63-178)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하였다. 문양은 복합문으로 곡선화된 어골문과 종선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내면에는 포흔과 연철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뚜렷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現長 17.2㎝, 幅 14.5㎝, 厚 2.2~2.5㎝

179. **암키와**(도면: 51-179, 도판: 63-179)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주문양대는 어골문으로 1개 중심 줄기를 갖고 있는데 좌측에는 아래로 향하는 가지와 그 아래 차륜문이 있고 우측에는 양가지가 서로 대칭하는 어골문이 있다. 선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흔과 예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뚜렷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現長 9.7㎝, 幅 14.4㎝, 厚 2.0㎝

180. **암키와**(도면: 52-180, 도판: 63-180)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주문양대는 곡선화된 어골문이다. 측면의 절단면은 1/2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 빗질흔,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13.8㎝, 幅 15.6㎝, 厚 2.0~2.3㎝

181. **암키와**(도면: 52-181, 도판: 63-181)

갈색 연질의 암키와이다. 6겹의 동심원문과 종선문이 결합한 형태이다. 내면에는 뚜렷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외면에는 타날흔이 확인된다.

現長 17.3㎝, 幅 10.3㎝, 厚 1.6~2.0㎝

182. **암키와**(도면: 52-182, 도판: 63-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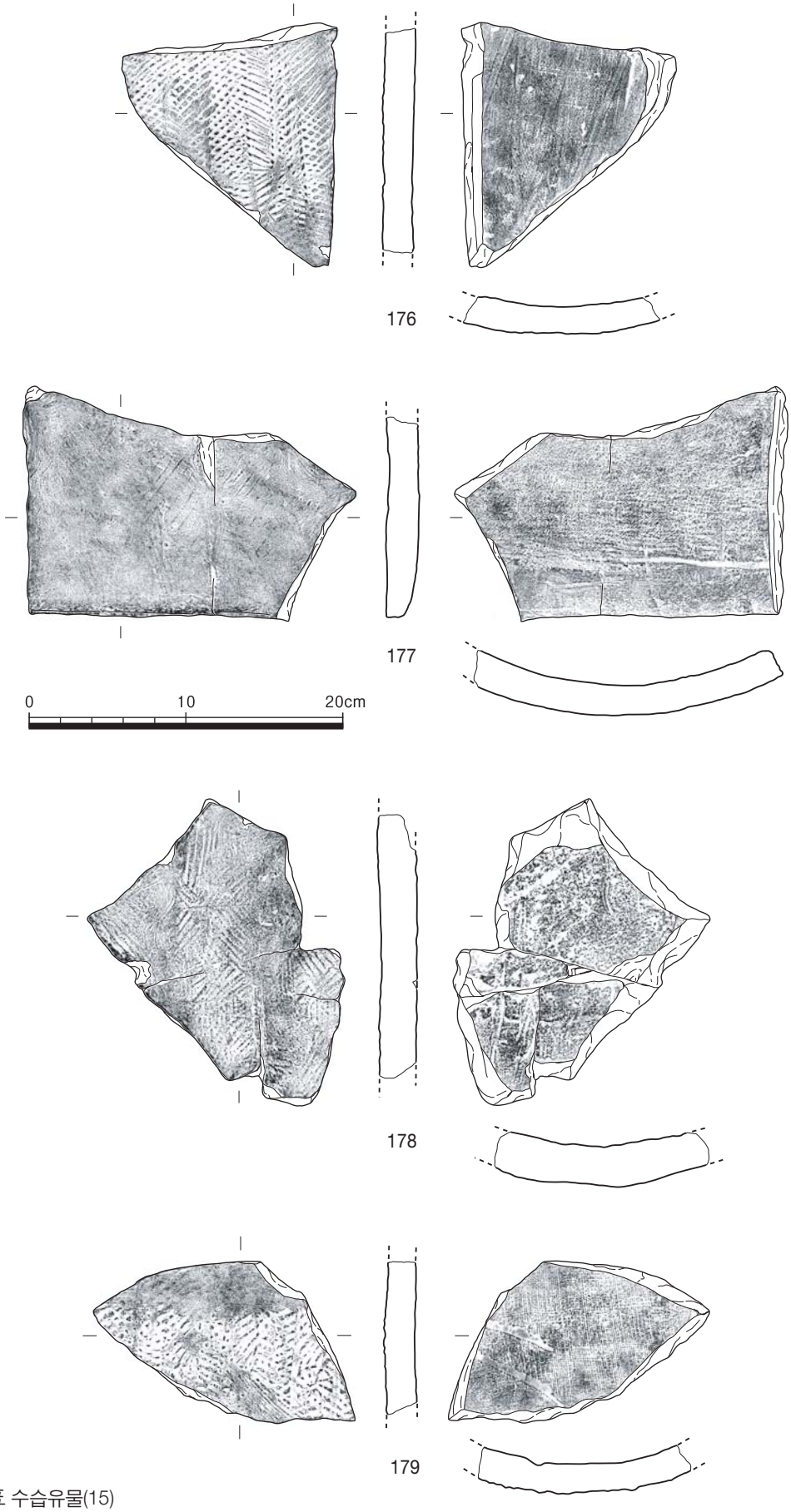
회색 경질의 암키와이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은 동심원과 동심원 사이를 횡집선문으로 연결하였으며 그 위로 종집선문을 연결시켜 놓은 형태이다. 측면의 절단면은 1/3가량 안쪽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는 포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뚜렷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現長 14.3㎝, 幅 8.1㎝, 厚 1.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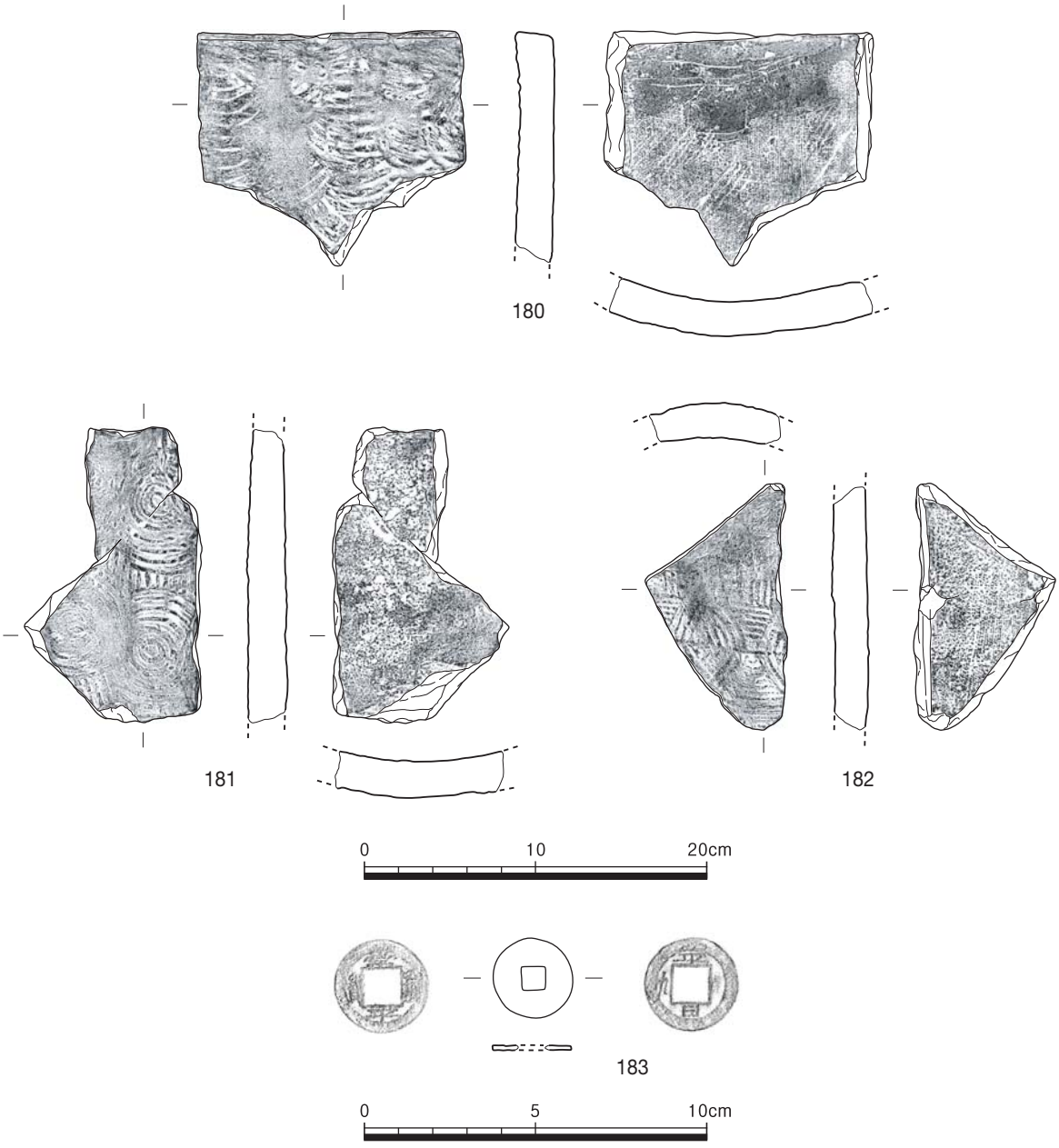
183. **銅錢**(도면: 52-183, 도판: 63-183)

청동제 동전으로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동전의 내부에는 방형곽이 형성되어 있으며 전면 측연부에는 '평오이(平五二, 平二)○' 銘이 시문되어 있다. '평오이○' 銘 동전은 '당오전(當五錢)' 의 하나에 해당하며 1883년(고종 20) 2월에 주조되어 1894년 7월까지 유통되었던 화폐이다.

幅 2.2㎝, 方郭直徑 0.8㎝, 厚 0.2㎝



도면 51. 지표 수습유물(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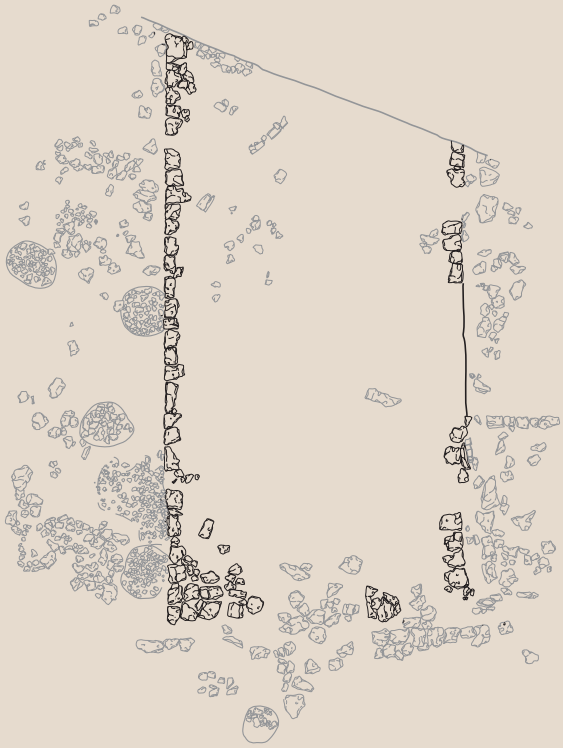
도면 52. 지표 수습유물(16)



V. 고 찰







V. 考 察

1. 遺構檢討

가. 朝鮮時代 建物址

城邑民俗마을내의 旌義縣 官衙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朝鮮時代 建物址 5棟, 敷石施設 1基, 積石施設 1基, 瓦積施設(기와무지) 2基와 함께 近代建物址 3棟이 확인되었다. 먼저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건물지의 構造와 規模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10)과 같다.

表10) 朝鮮時代 建物址 現況(殘 : 잔존길이)

順	號	長軸(向)	基壇 規模(m)		間(正×側)	積心 距離(㎝)	推定 時期
			正面	側面			
1	1號	N20°E(南)	缺失	缺失	4間×2間(殘)	260~270	15~16C
2	2號	N03°W(東)	10.4(殘)	5.3	4~5間×2間		16~17C
3	3號	N80°E(南)	5.0(殘)	缺失		140	16~17C
4	4號	N30°W(東)	10.0(殘)	缺失			
5	5號	N86°W(南)	缺失	3.1(殘)			17~19C

금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5棟의 建物址 중에서 2호 건물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괴되거나 缺失된 상태여서 정확한 規模와 性格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2호 건물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同時期 官衙建物의 特徵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表10)을 참고하면 5동의 建物址는 각각 東向 2棟, 南向 3棟에 해당한다. 특히 基壇石列의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2호와 4호 건물지는 모두 東向으로 築造되었다.

2호 건물지는 기단석렬이 대부분 殘存하고 있으나 積心石과 礎石이 결실되어 정확한 間構造를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잔존하는 기단석렬을 참고하면 同建物址가 동향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내부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이 대체로 16~17C代 白磁類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42]을 고려하면 2호 건물지의 中心時期를 가늠할 수 있다.

한편 2호 건물지는 규모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건물지에 해당하는데 『耽羅巡歷圖』의 「旌義講射」와 「旌義養老」를 참고하면 東軒址[43]로 추정된다[44]. 또한 1765년~1766년 사이에 편찬된 『增補耽羅誌』의 문

42) 2호 건물지 내부는 일제강점기 이후 교란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된 상태이다. 따라서 제토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은 지표수습 유물로 분류하였다.

43) 東軒은 조선시대 地方 官署에서 政務를 보던 중심 건물이다. 반면 西軒은 地方官의 生活 處所인 內衙에 해당한다. 동헌은 門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內三門 안쪽에 위치한다. 동헌에 附屬된 건물로는 首領의 개인 비서와 자제가 머무는 册房外에 수령의 가족이 머무는 內衙가 따로 배치되었다(안길정, 2000, 『관아이야기』, 60쪽, (주)사계절출판사).

44) 肅宗 28年(1702) 제작된 李衡祥 牧使의 『耽羅巡歷圖』 중에서 「旌義講射」와 「旌義養老」에 따르면 정의현 東軒[衙]의 坐向은 東向으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2호 건물지의 坐向과 함께 側面 2間 구조인 점까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출토유물의 조합 역시 제작연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耽羅巡歷圖』에 표현된 동헌과 동일한 건물지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李衡祥, 1702, 『耽羅巡歷圖』).

헌기록을 참고할 때 본 건물은 旌義邑城의 客舍 북서쪽에 위치하는 동헌터에 해당하며 建物의 명칭은 「衙」로 기록되어 있다[45].

반면 1호 건물지는 잔존상태로 볼 때 2호 건물지가 동북쪽 모서리 부분을 파괴하고 後築되어있는 점을 보면 先行하는 건물지로 추정된다. 또한 『耽羅巡歷圖』를 참고하면 동헌의 북서쪽으로는 건물이 표현되지 않고 있어 이를 反證해 준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2호 건물지의 基壇部 長軸方向과도 각도를 달리하는 점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46]. 하지만 잔존하는 적심석의 축조상태를 보면 일부 축조방법에서 相異한 점이 看取되고 있어 시기를 달리하는 건물지가 重複築造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호 건물지는 『耽羅巡歷圖』를 참고하면 동헌의 남쪽에 동서장축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호 건물지의 기단부와 너무 근접하게 위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同時期 건물지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2호 건물지가 廢棄된 이후에 축조된 건물지로 추정된다. 다만 기단부의 장축방향이 2호 건물지와 平行하게 축조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耽羅巡歷圖』에 표현된 東軒 남쪽의 回廊建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1호 건물지의 서쪽으로 기단석이 일부 확인되는데 3호 건물지와 直交하고 있다. 따라서 中心 建物址인 2호 건물지를 감싸면서 서쪽~남쪽으로 연결되는 'L' 자형의 回廊(行廊) 建物址가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耽羅巡歷圖』와 대비해 살펴보면 서쪽에는 회랑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된 점을 볼 때 2호 건물지와 시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호와 5호 건물지는 대부분 파괴되거나 결실되어 정확한 性格을 알 수 없다. 또한 4호 건물지는 2호 건물지와 막바로 잇대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시기를 달리하는 건물로 추정된다. 반면 5호 건물지는 2호와 4호 건물지를 파괴하고 축조된 점으로 미루어 늦은시기의 건물지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건물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1호 건물지는 정면 4間, 측면 2間의 구조이고 2호 건물지는 정면 4~5間[47], 측면 2間[48]인 건물로 추정된다[49]. 李衡祥의 『南宦博物』에 따르면 濟州牧官衙에 배치된 東軒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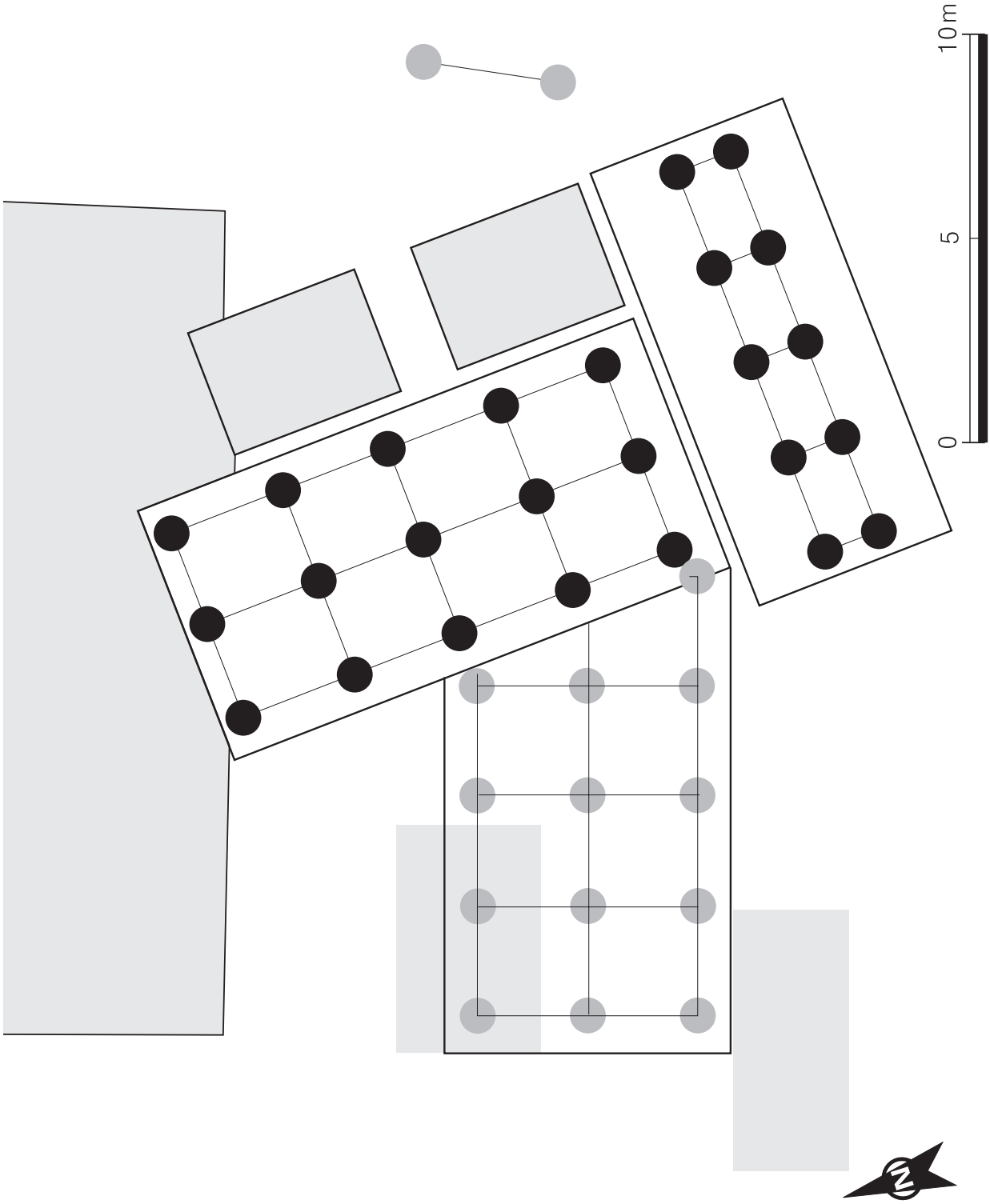
45) 尹著東, 1766, 『增補耽羅誌』(日本 天理大 所藏).

46) 後述하겠지만 1호 건물지는 後築된 2호 건물지에 의해 대부분 파괴된 상태이다. 따라서 출토유물의 조합을 통해 先後關係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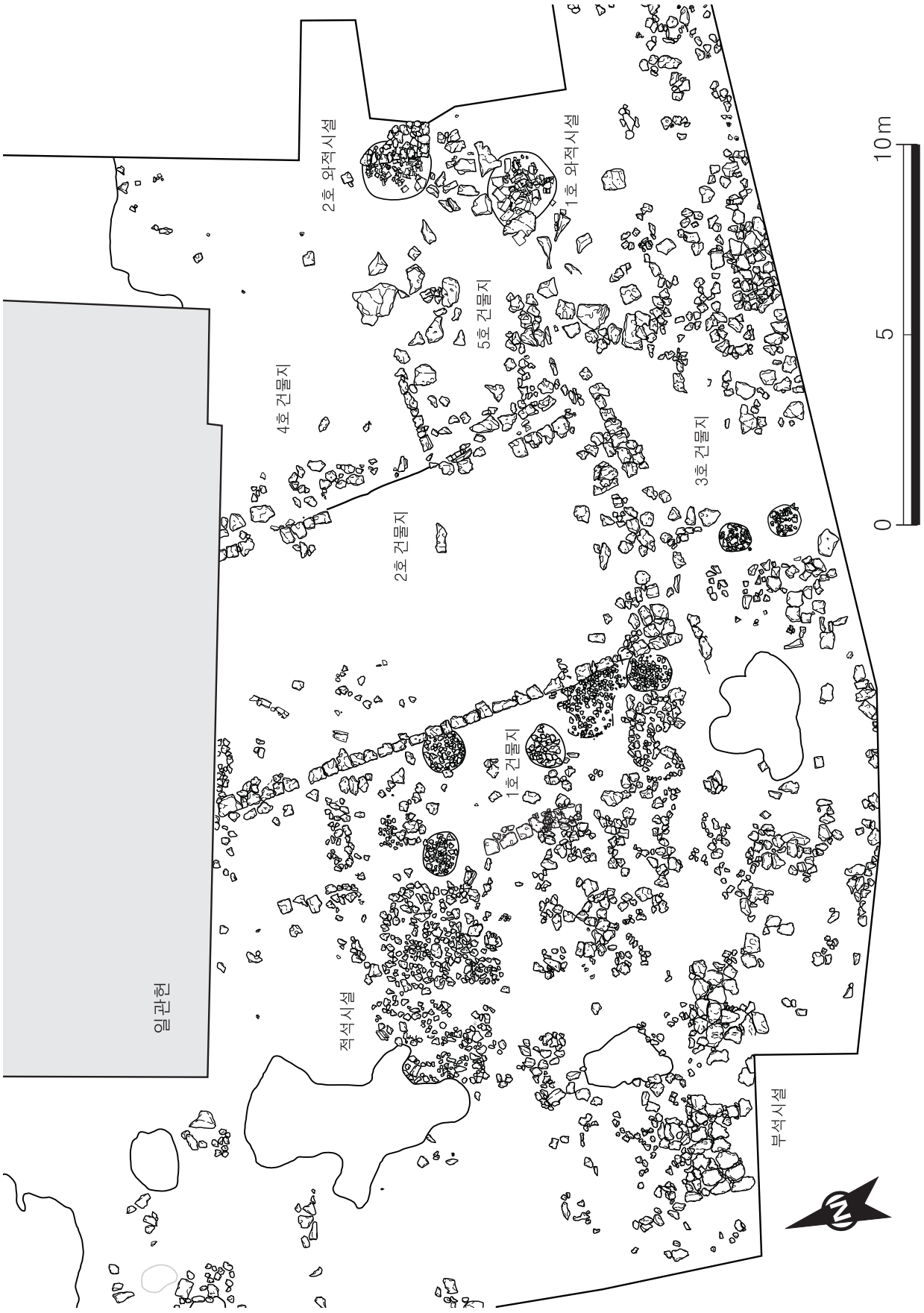
47) 정면 積心石 혹은 礎石間 距離(柱柱間 距離)는 대체로 240~320㎝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적심간 거리는 제주지역의 歷史時代 建物址(法華寺址, 水精寺址, 元堂寺址, 旌義縣 客舍址, 濟州牧官衙址 등)에 대한 조사에서 흔히 확인되는 규모이다. 반면 수정사지와 법화사지의 建物群이 대체로 柱柱間 距離가 넓은편(대략 300~400㎝)에 해당한다. 정의현 객사지의 경우 적심간 거리는 280~340㎝로 築造되어 있으며 이에 비해 內衙址는 150~190㎝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또한 官衙地域 건물지의 주주간 거리는 260~270㎝에 해당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旌義縣廳內 건물지는 객사지 다음으로 官衙址의 규모가 비교적 크게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濟州大學校博物館, 1992, 『法華寺址』.
濟州大學校博物館, 1993, 『濟州牧官衙址』.
濟州大學校博物館, 1995, 前揭書.
濟州大學校博物館, 1996, 『尊者庵址』.
濟州大學校博物館, 1997, 『法華寺址』.
濟州大學校博物館, 1998, 『濟州牧官衙址』.
濟州大學校博物館, 2000, 『水精寺址』.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b, 前揭書.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元堂寺址』.

48) 2호 건물지의 측면은 積心施設과 礎石 등이 결실된 상태이나 양쪽 기단석이 모두 잔존하고 있어 추정이 가능하다. 즉 兩基壇間 거리가 5.3m에 해당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間 구조로 여겨지며 적심간 거리는 대략 250~260㎝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耽羅巡歷圖』를 보면 官衙의 中心建物인 東軒의 側面은 2間으로 표현되어 있어 주목된다. 반면 정면의 경우에는 잔존길이가 10.4m이며 1호 건물지의 積心石間 거리(260㎝)를 適用하면 대략 4間 이상의 구조로 파악된다.

49) 2호 건물지의 경우 건물지 동쪽부분이 현재 日觀軒의 下部로 연결되고 있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차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건물지의 명확한 규모와 성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53. 旌義縣 官衙址 配置圖(추정 모식도)



도면 54. 旌義縣 官衙址 配置圖

延曦閣의 규모는 14間 構造이다[50]. 또한 楊州牧 官衙址의 경우는 牧官衙임에도 불구하고 東軒址는 정면 9間, 측면 3間으로 축조되었다[51]. 따라서 정의현 관아의 동헌은 14間 이하의 건물지에 해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高敞邑城의 예를 살펴보면 문헌자료와 발굴조사 결과 동헌의 규모는 附屬間까지 합해 10間 구조의 건물임이 알려져 있다[52]. 또한 조선시대 각 지역의 현청에 부속된 관아건물의 규모를 살펴보면 表11)과 같다.

표11)를 참고하면 京畿道 喬洞縣과 陽城縣, 忠淸道 稷山縣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2間 이하에 해당하고 있다. 심지어 8間 이하의 동헌은 자료가 확보된 29개 縣중에서 무려 18개 현에 이르고 있다[53]. 또한 조선시대 29개 현의 관아 건물에 대한 평균적인 규모를 살펴보면 동헌은 8.5間, 內衙는 18間, 衙舍[54]는 40.8間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정의현 관아에 위치한 동헌의 규모도 이와 大同小異할 것으로 판단된다[55].

周知하는 바와 같이 정의읍성은 세종 5년(1423)에 晉舍里인 현 城邑里로 옮겨 쌓았다. 정의읍성이 移設 直後 官衙施設에 대한 기록은 現存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종 2년(1507) 정월 제주도 유배시절에 洪裕孫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는 「文 - 旌義官舍重新記」에 정의현 官舍의 重建 必要性과 位置 등 重修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56]. 이를 참고하면 관아는 官의 東西客舍와 中大廳 및 左右附舍, 中外大門과 南長廊, 衙의 寢室 및 附舍, 東軒·西軒의 大廳, 左右夾室과 南行廊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57].

表11) 地方 縣官衙의 規模(단위 : 間)

地域	官衙名	官衙建築			
		東軒	外東軒	內衙	衙舍
京畿道	喬洞縣	16		32	
	金浦縣	11		25	36
	漣川縣	10		20	
	積城縣	11		17	
	龍仁縣	5		17	
	陽智縣	12		29	
	砥平縣	8	14		20
	通津縣				30
	陽城縣	14			12
	陰竹縣	7		12	
忠淸道	永春縣	6			
	稷山縣	14		30	
	木川縣	5		14	
	鎭川縣	6	11	16	
	全義縣	8		15	
	懷德縣	8			
	鎭岑縣	8		14	
	尼山縣				38
	扶餘縣	8		3	
	石城縣	4		17	
	燕岐縣				42
	靑陽縣	5		16	
	庇仁縣	3	4	24	
	保寧縣	4		15	
	新昌縣	5	4		
	禮山縣	4		11	
	平澤縣				42
全羅道	和順縣	10			
	求禮縣			20	
江原道	狼川縣	6			
	橫城縣				23
	洪川縣				42
	楊口縣				31
	麟蹄縣				35
	伊川縣				102
	金城縣				42
	金化縣	18		13	
	蔚珍縣				36
黃海道	新溪縣	12			
平安道	永柔縣	12		28	
	殷山縣				82
咸鏡道	洪元縣	8		8	

(李炯圭, 1993, 22~24쪽에서 인용)

50) 李衡祥, 1704, 南宦博物.
목관아지 발굴조사 결과 연의각은 정면 5칸, 측면 3~4칸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잔존하는 적심간 거리를 300㎝로 추산하면 10칸이상 규모로 파악된다(濟州大學校博物館, 1998, 前揭書, 83쪽).

51) 畿甸文化財硏究院, 2003, 『楊州 官衙址-2次 發掘調査 報告書』, 150~151쪽.
한편 京畿道 坡州牧의 경우에도 동헌의 규모는 10間(李炯圭. 1993, 「朝鮮時代 東軒建築의 構成形式에 관한 硏究」, 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2쪽)이며 忠淸道 公州牧은 11間으로 축조되어 있어 참고된다(林挺會, 1859, 「公廨」, 『公山誌』; 金起德·李在憲, 2003, 「朝鮮後期 忠淸道 地方 邑治의 空間構造에 관한 硏究」, 『建築歷史硏究』第 12卷 1號 通卷 33號, 51쪽).

조선시대 官衙配置 양상을 살펴보면 대체로 읍성안의 중앙부에 客舍가 배치되고 그 뒤쪽으로 縣廳(東軒)과 內衙가 조성되는 기본적인 배치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헌은 城의 출입문에서 가장 북서쪽에 배치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객사와 함께 관청내에서 가장 규모가 월등한 건물을 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출입문에서 동헌에 이르는 길은 점차적으로 경사져 올라가면서 단을 형성하여 동헌이 축조된 대상지는 가장 높은 레벨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58]. 旌義邑城內의 관아배치도 조선시대 타 지역의 관아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인 배치양상에서 軌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객사터로 추정되는 건물지[59]가 읍치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헌인 近民軒[60]으로 판단되는 건물지와 내아지 등이 정의읍성의 가장 북서쪽에 배치되어 있다[61]. 또한 성안의 전체적인 해발높이를 살펴보면 출입문인 南門址 주변(해발 120m 내외)과 동헌 및 내아지가 축조된 서북벽의 조사대상지 주변(해발 125m 내외)과는 대략 5m 정도 高低差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출입문인 남문지에서 서북벽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경사져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관아의 立地와 정의현의 관아배치 양상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동헌의 名稱과 관련된 文獻記錄을 살펴보면 다음의 表12)와 같다.

---

52) 『高敞邑誌』에 따르면 '高敞邑城의 동헌은 6間이고 夾房 1間, 新房 1間, 通引房 1間, 吸唱 사이에 1間이 같이 붙여 있다. 반면 內衙는 6間인데 전에 內衙 8間은 무너져서 파괴된 後에 부득이 改建하였다. 이전에는 刑吏廳을 수리하여 사용하였다. 行廊은 3間, 內大門은 1間'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編者未詳, 1899, 『湖南邑誌 제7册 高敞縣邑誌』, 「事例」, 奎12181).
金善基外, 2000, 『高敞邑城 官衙建物址 發掘調査 報告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46~148쪽.

53) 李炯圭. 1993, 前揭書, 22~24쪽.

54) 衙舍는 東軒, 內衙, 官衙門과 기타 附屬建物로 구성되어 있다(奇培幹, 2002, 「조선후기 나주읍성 공간의 복원에 관한 기초적 연구 -관아 건축물을 중심으로-」, 全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6쪽).

55) 정의현 관아지와 내아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결과 추정 東軒址(2호 건물지)는 4間이고 內衙址는 3間(1호 · 2호 · 4호 건물지)과 5間(3호 건물지), 9間(5호 건물지)으로 각각 築造되어 있다. 따라서 東軒址와 內衙址(西軒址)의 건물을 합하면 최소 7間~최대 13間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06b, 前揭書).

56) 조선시대 객사의 건립과 중수는 태종대를 거치며 세종대에 본격화 된다. 또한 성종대에 이르러 퇴락한 객사를 중수하는 기록이 대폭 증가하여 연산 · 중종대까지 이어지게 된다(余尙珍, 2005, 「朝鮮時代 客舍의 營建과 性格 變化」,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87~89쪽).

57) 洪裕孫의 기록에 따르면 旌義縣 官舍의 重修 당시 건물은 대부분 약간의 사이를 두고 축조되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建物址와 建物址間의 간격이 매우 좁았음을 알 수 있다(洪裕孫, 1810, 『篠叢遺稿』上「文-旌義官舍重新記」). 당시의 건물은 기와건물이 없이 모두 草家에 해당하는 점〈禮曹, 『學校謄錄』(奎 12877), 1660년 정월 24일에 李禴의 狀啓〉을 보면『耽羅巡歷圖』에 표현된 내용과는 많은 差異를 보이고 있다.

58) 안길정, 2000, 前揭書, 45~51쪽.

59) 당시 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면 4~5間, 측면 3間에 해당하는 1호 건물지를 客舍址로 규정하고 있다.
濟州大學校博物館, 1995, 前揭書, 46~57쪽 ; 122쪽.

60) 조선시대 관아 건물 중에서 客舍는 고을의 옛 이름을 따서 堂號를 붙인 데 비해 東軒은 시정 지침을 가려 뽑아 지었다. 따라서 객사와 달리 동헌의 이름은 각 지방마다 제각각 다르게 붙여진 게 아니라 淸寧軒, 近民軒 등이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며 忠君愛民의 뜻이 담겨 있다. 이를테면 청녕헌(淸寧軒, 하늘의 뜻은 맑음으로 얻고 땅의 인심은 평안으로 얻는다), 근민헌(近民軒, 백성을 사랑하여 가까이 대한다), 사무헌(使無軒, 임금의 은혜를 입었으나 재주가 없어 그 뜻을 다 채우기 어렵다)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외에도 고창 평근당(平近堂), 남원 근민헌(近民軒), 부여 초연당(超然堂), 양주 매학당(梅鶴堂), 청풍 금병헌(錦屛憲), 성읍 일관헌(日觀軒) 등이 있다. 특히 忠淸道 淸州牧에 공해(公廨)로서 近民軒은 牧使의 정당(正堂)으로 10칸이었다. 또 慶尙道 현풍현(玄風縣)에 공해로서 근민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全羅道 남원도호부(南原都護府)에도 근민헌이라는 東軒이 위치하고 있었다.
안길정, 2000, 前揭書, 69~72쪽.

61)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b, 前揭書.

表12) 文獻資料로 살펴 본 旌義邑城內 東軒 名稱의 變遷

文獻 / 東軒名	『耽羅志』 (1652년)	『耽羅巡歷圖』 (1702년)	『增補耽羅誌』 (1765년~1766년)	『旌義縣誌』 (1780년~1789년)	『耽羅誌草本』 (1842년)	『旌義邑古誌』 (1899년)
衙	●	●				
近民軒			●			
縣衙				●		●
日觀軒					●	

表12)를 참고하면 정의현 관아의 동헌은 衙, 近民軒, 縣衙, 日觀軒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또한 『耽羅巡歷圖』가 제작된 1702년까지는 東軒의 名稱이 「衙」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765~1766년간에 편찬된 『增補耽羅誌』에 기록된 '衙는 客官의 북쪽에 있으며 近民軒이라 하는데 곧 東軒이다' 라는 내용을 참고하면 『耽羅巡歷圖』「旌義講射」에 표현된 '衙' 는 近民軒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62]. 따라서 금번 발굴조사된 2호 건물지가 板石과 割石造의 기단석렬이 정연하게 남아있고 坐向이 東向을 이루고 있는 점, 출토유물이 대체로 16~17세기대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耽羅巡歷圖』에 표현된 '衙' 에 해당하며 곧 관아의 동헌인 「近民軒」으로 추정된다. 반면 정의현 관아지내에 축조된 동헌 건물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의 表13)과 같다.

表13) 文獻資料로 살펴 본 東軒 지붕형태의 變遷

文獻 / 區分	『中宗實錄』 中宗 20年(1525) 9月 甲申(28日)	『中宗實錄』 中宗 20年(1525) 9月 甲申(28日)	『學校謄錄』 顯宗 1年(1660) 1月 24日	『耽羅巡歷圖』 「旌義講射」, 「旌義養老」
年度	1423~1497	1498~1525	1660	1702
種類	瓦家	草家	草家	瓦家
內容	다시 기와로 집을 덮어 궂은비와 화재의 변을 대비하지 않는데 … 중략 … 두 고을(정의와 대정)의 國庫와 公廨를 모두 기와로 덮게 되어 … 중략 … 장구하고 안녕할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새[茅]로 지붕[茨]을 이었다가 이미 화재의 변을 겪었는데도 오히려 전일의 일을 징계하지 않았다. …하략 …	정의와 대정은 비록 섬 속의 쇠잔한 고을이라 하지만 향교 및 객사는 殿牌를 봉안하는 곳이며 또 기와를 사용하지 않고 해마다 새[草]로 덮어서 村舍와 다름이 없다. … 하략 ….	정의읍성 내의 건물 배치 상황 중에 衙[東軒] 시설이 기와 건물로 나타나고 있다.

表13)을 참고하면 정의현 읍치 이설 후 축조된 동헌은 瓦家에 해당하며 1차 重修(1498년)때 건물이 草家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반면 1525년 火災로 인해 동헌이 소실된 후 瓦家로 중수해줄 것을 상소하고 있으나 결과에 대한 기록은 현존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525~1660년까지의 동헌 건물의 지붕형태는 알 수가 없다.

한편 『學校謄錄』을 참고하면 1660년경 客舍가 草家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당시 동헌 역시 草家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耽羅巡歷圖』(「旌義講射」·「旌義養老」)의 그림을 참조하면 1702년에는 동헌의 지붕형태가 瓦家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660~1702년 사이에 또 한 차례의 중수가 이루어졌으며 草家에서 瓦家로 轉換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63].

62) 尹著東, 1766, 前揭書.

나. 朝鮮時代 敷石 및 積石施設

敷石施設은 1호 건물지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무암제 판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정의현 객사지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유구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 유구는 1호 건물지와 장축방향이 平行하게 배치된 반면 2호~5호 건물지와는 장축방향을 달리하여 축조되어 있다. 따라서 1호 건물지와 연관성이 있는 시설로 여겨진다. 반면 객사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보고자는 同遺構와 유사한 구조의 부석시설을 양쪽에 竝列的으로 배치된 建物址群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주목할만한 점은 동유구와 유사한 시설을 17세기 이전의 건물지군으로 구분하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64]. 즉 『耽羅巡歷圖』를 참고하면 東軒의 북쪽과 북서쪽으로는 건물지와 기타 부속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보면 제작연대와 시기를 달리하는 건물지로 추정된다.

한편 적석시설은 1호 건물지의 북쪽부분을 파괴하고 後築된 상태이다. 잔존상태로 볼 때 여타 유구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정형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후대 건물지의 내부시설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內部 盛土層이 1호 건물지의 내부와 유사한 방법으로 성토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호 건물지와 同一時期의 유구이거나 혹은 적석시설이 후축되면서 1호 건물지 내부까지 성토층이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2호 건물지가 축조된 단계의 건물배치는 『耽羅巡歷圖』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헌 북서쪽으로는 건물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시기 유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65]. 따라서 兩 유구의 상관관계는 차후 下部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명확해 질 것으로 여겨진다.

다. 朝鮮時代 瓦積施設

瓦積施設은 5호 건물지의 동편으로 2基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와적시설은 직경 180㎝ 내외의 圓形狀으로 축조되었으며 자연석과 함께 瓦積되어 있다. 兩 瓦積施設間의 거리는 대략 4.6m이다. 2기의 와적시설은 築造方法이 일치하고 서로 竝列的으로 배치된 점으로 미루어 동일한 성격의 유구로 판단된다. 즉 외부에서 관아로 들어오는 출입시설인 夾門에 해당하는 門址에 礎石을 얹었던 와적의 적심시설일 가능성

---

63) 洪裕孫의 「旌義官舍重新記」를 참고하여 1423년 정의현 관아가 設置된지 75년 以後인 1498년에 정의현이 重修되기 시작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략 70~80년 정도의 건물 重修週期를 계산할 수 있다(洪裕孫, 1810, 前揭書). 따라서 1506년 旌義官舍가 중수 완료된 이후 대략 16세기 후반(1570~1590년경)에 또 한 차례의 중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525년경 화재로 인해 재차 중수된 점을 고려하면 중수시기는 1590~1600년경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濟州 牧使 金欽祖의 上疏〈『中宗實錄』 중종 20년(1525) 9월 甲申條〉와 제주 목사 李禴의 狀啓〈『學校謄錄』현종 1년(1660) 1월 24일〉에 따르면 1660년경까지 國家的 支配秩序를 상징하는 건축물인 정의현 객사가 草家였다. 때문에 동헌도 당연히 초가였으며 즉 2차 중수 以後인 17세기 중반까지는 東軒이 草家였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반면 『中宗實錄』 중종 20년(1525) 9월 甲申(28일) 條에 의하면 '새(茅)로 지붕을 이었다가 이미 火災의 變을 겪었는데도 오히려 前日의 일을 징계하지 않아 다시 기와로 집을 덮어 궂은비와 화재의 변을 대비하지 않는데(且茅茨爲蓋 已經失火之變 而猶不懲前 更不爲陶瓦蓋屋 以備陰雨火災之變)' 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1506년 重修된 官舍는 草家였으며 1525년경에 화재로 인해 燒失된 後 다시 再次 중수하였음을 類推해 볼 수 있다. 즉 1498년 以前의 官衙 건물은 기와건물이었으며 중수 때는 새로 지붕을 이었음(茅茨)을 傍證해 주는 記事라고 할 수 있다. 後述하겠지만 금번 발굴조사에서 收拾된 기와편의 대다수는 15세기 前後에 해당하는 점을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기사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한편 『耽羅巡歷圖』「旌義講射」에 '衙' 로 표현된 동헌인 기와건물은 결국 1660~1702년 사이에 重修되었음을 반증한다. 『耽羅巡歷圖』에 나타나는 東軒址는 本考에서 2호 건물지로 추정하고 있는데 同建物址 조사과정에서 수습된 유물조합을 살펴보면 대체로 16~17세기대의 백자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64) 濟州大學校博物館, 1995, 前揭書.

65) 만일 2호 건물지와 同時期의 유구라면 상부에 架構配置가 이루어진 건물지가 아닌 舊地表面에만 축조된 유구로 판단된다. 즉 건물지 政廳인 동헌에 조성된 부석시설과 유사한 성격의 유구로 이해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耽羅巡歷圖』의 자료에 대한 검토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관아는 東軒과 西軒으로 구성되는데 『耽羅巡歷圖』에 따르면 동헌의 서쪽으로는 전혀 건물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동헌지로 추정되는 2호 건물지의 북서쪽으로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 조성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내아지로 추정되는 回廊形式의 行廊 建物址가 3棟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높다. 조사결과 양 와적시설을 가로지르는 連結軸은 1호 건물지를 제외하고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문지는 1호 건물지의 정면과 直交하고 있어 同一時期 建物配置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동헌지(近民軒)로 추정되는 2호 건물지와는 鈍角을 형성하는 점으로 미루어 시기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문지의 장축선상은 1970년대 복원된 日觀軒의 정면과도 直交하고 있으며 동헌의 마당으로 연결되는 점을 볼 때 18~19세기대 존재했던 동헌지인 일관헌과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66].

本考에서는 와적시설의 구체적인 築造年代를 파악하기 위해 와적내부에서 출토된 「癸丑開局」銘 기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2호 와적시설 내부에서는 「癸丑開局」銘 기와편이 1점 출토되었다. 이와 같은 명문와는 尊者庵址에서 역시 1점이 출토된 바 있다[67]. 따라서 존자암지 출토 명문와에 대한 검토 역시 竝行되어야 할 것이다.

周知하다시피 尊者庵址의 「癸丑開局」銘瓦는 5호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68]. 보고서를 참고하면 5호 건물지는 1차 시기 건물지로서 高麗末~朝鮮初(14~15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의현 관아지에서 출토된 「癸丑開局」銘 기와에 나타난 癸丑年은 정의현성의 이설 후인 世宗 15年(1433)과 成宗 24年(1493) 중 하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世宗實錄』에 따르면 '(旌義縣 邑治를)세종 4년(1422) 12월 23일에 晉舍里(현 성읍리)로 옮겨서 세종 5년(1423) 정월 9일에 정의읍성을 쌓기 시작하여 정월 13일에 끝냈다' [69] 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세종 4년(1422) 12월 이전까지는 현 城山邑 古城里가 旌義縣 邑治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의읍성을 이설한 후인 1423년경부터 정의현 客舍와 東軒 및 여러 官廳을 축조하기 시작하여 완성한 것이 세종 15년(1433)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瓦積施設에서 출토된 「癸丑開局」銘瓦는 계축년인 세종 15년(1433)에 官衙를 설치(局)[70]하고 그 업무를 시작하였다' 는 뜻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中宗 2년(1507) 정월에 작성한 홍유손의 기록을 참고하면 '旌義縣의 세력이 있는 집안(大族)이 고치기 어려운 병(惡疾)이 많으므로 나올 자리에 빠지니 존자암은 허물어지고 없어진(廢墟) 까닭이다[71]'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정의현의 大族들이 존자암을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尊者庵址의 5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癸丑開局」銘瓦도 정의현의 대족들이 施主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66) 문헌자료를 검토해 보면 1766년까지는 동헌이 近民軒으로 불리우다가 1842년경에는 日觀軒으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일관헌이 축조된 시기는 1766~1842년의 어느 시점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일관헌과 門址의 築造時期가 동일하다면 앞서 논의한 연대에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癸丑開局」銘瓦의 癸丑은 계축년을 의미하며 그 年代를 살펴보면 英祖 9年(1733), 正祖 17年(1793), 哲宗 4年(1853)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와적시설의 축조연대는 日觀軒 축조시 조성되었다고 가정하면 정조 17년인 1793년으로 重修年代를 特定할 수 있다. 하지만 '開局' 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정의현 관아의 初築時期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반면 동반 출토된 「甲寅西山」銘瓦의 干支名을 살펴보면 정조 18년인 1794년에 해당하는데 日觀軒 重修時期와 맞물리고 있어 참고된다.

67) 정의현 관아지 출토 명문와는 암키와인 반면 尊者庵址 출토 명문와는 수키와에 해당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濟州大學校博物館, 1996, 前揭書).

68) 朝鮮時代 寺刹인 尊者庵址에서도 동일한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는데 所屬遺構(碑閣址)와 同伴遺物의 검토를 통해 조선중기(16~17세기)의 末期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주목된다(濟州大學校博物館, 1993, 『尊者庵址』, 64쪽). 하지만 後考에서는 동일한 명문기와가 5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바 同建物址는 14~15세기로 수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濟州大學校博物館, 1996, 前揭書, 72~73쪽). 한편 당시 보고서 작성자의 의견수렴 결과 同 銘文瓦는 5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癸丑' 銘瓦는 정의현의 관청 開局과 연관시켜 보면 결국 15세기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69) 『世宗實錄』, 世宗 4年 12月 乙巳條.

70) 「局」은 玉篇의 내용을 참고하면 官廳 또는 官衙를 의미한다. 따라서「開局」은 관아가 설치되어 그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와적시설의 築造時期는 크게 두가지로 추정해서 살펴보았다. 첫째는 旌義縣 邑治 移設 후 관아를 설치한 세종 15년(1433)과 두 번째는 日觀軒이 축조된 시기(정조 18년, 1794)에 해당한다. 즉「癸丑開局」銘瓦가 출토된 존자암지의 축조연대와 의미를 고려할 때 前者인 세종 15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와적시설에서 동반 출토된 명문와(癸巳, 甲寅西山)[72]의 紀年을 고려하면 이 보다 후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술한 表13)을 참고하면『耽羅巡歷圖』에 표현된 瓦家의 건물지와 연관된 와적시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73]. 다만 본고에서 2호 건물지와 둔각을 형성하고 있어 차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라. 近代 建物址

近代 建物址는 모두 3棟이 확인되었다. 現 日觀軒의 북동쪽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으며 1호와 2호 건물지는 南向이고 3호건물지는 東向을 이루고 있다. 정의현 관아가 位置하는 지형은 대체로 北高南底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현 일관헌이 배치된 곳에서 높은 레벨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근대건물지는 모두 한단 높게 올라온 지형에 위치하고 있으며 城의 北壁에 근접하여 자리하고 있다. 잔존하는 기단석과 초석은 현무암제 판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조선후기 건물지의 석재를 재활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근대건물지는 대체로 일제강점기 이후에 해당하는 건물지로 추정된다.

(김경주)

2. 遺物檢討

금번 정의현 관아지에 대한 조사결과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유구의 교란층과 지표층에서 수습되었다.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陶磁器 84점, 陶器 2점, 瓦 94점, 기타유물 3점 등 총 183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은 누적된 後築 建物址와 일제강점기의 교란으로 인해 대부분 위치이동이 이루어져 유구와 출토유물의 전반적인 조합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하지만 수습된 도자기류와 와류는 器種 및 文樣 등을 분류하여 시기별 조합을 시도하였다. 또한 기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정의현 객사지와 내아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금번 조사된 정의현 관아지의 性格과 時期 등을 간략하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

71) 洪裕孫, 1810, 前揭書, 上「文-尊者庵改構侑因文 - 在濟州」.
‥上略‥ 今夫尊者之爲庵也 肇於三姓初起之時 而久傳於三邑鼎立之後 裨補之所也 俗稱之舊也 旌縣大族 惡疾多缺 由庵之旣廢矣 風雨時乖 年穀或歉 因庵之不修矣 自其閭右之豪 公門之官 以至于耒鋤之夫 井臼之婦 與其杖巷之耆耄 樵牧之童兒 莫不相感告語 而欲其重修 雖擧禁法而示之止之 其心逾奮而未之能遏也 雖然 徒有其心而出財粟爲檀越者 十而一二 百而七八而止 計其土木工費之可支 而猶豫商略者 凡幾年矣乎 況夫邦賜其贈 俾種其稻 以爲齋粢 而於首夏之月 卜得吉日 爲差三邑遨頭中一員 齋沐行祀於是庵 謂之國聖齋 今其廢也 纔六七年矣 ‥下略‥ 正德單閼孟春人日識.

72) 동반 출토된 명문와는 읍치 이설 이후 가장 이른 연대를 산출하면「甲寅西山」(1434년)과「癸巳」(1473년)명와의 연대가 각각 도출된다. 즉「癸丑開局」명와 보다 이후에 해당한다. 따라서 2호 와적시설의 축조시기는 1473년 이후에 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癸丑開局」명와의 제작시기와 동반 출토 기와의 제작시기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癸巳」명 기와의 연대는 대략 40년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와적시설의 축조시 이전에 사용되었던 기와를 재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73)『耽羅巡歷圖』에 표현된 瓦家의 東軒은 1660~1702년 사이에 중수되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를 참고하면 癸巳年의 연대는 도출되지 않고 있으며 癸丑年은 현종 14년(1673), 甲寅年은 현종 15년(1674)에 해당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1525~1660년 사이에 중수된 건물의 지붕형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 陶磁器

陶磁器는 크게 靑磁와 粉靑沙器, 白磁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백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器種別로 살펴보면 大楪, 鉢, 楪匙, 盞 등 대체로 日常容器가 主流를 이루며 甁도 소량 확인된다. 분청사기는 象嵌분청과 세련된 印花技法이 장식된 例는 거의 없고 문양구성이 약한 印花文이나 귀얄 및 덤벙문이 주로 확인된다. 반면 백자는 대부분 질이 떨어지는 조질백자이나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왕실 전용가마(專用窯)인 官窯에서 제작된 上品의 백자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금번 발굴조사에서는 많은 양의 동체부와 구연부편이 출토되었지만 器型 복원이 가능한 도자기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表14)와 같다.

表14) 種類別 出土樣相

종 류		건물지							지표수습	합 계
		조선시대				근대				
		1호	2 · 4호	3호	계	1호	2호	계		
고려시대	청 자								1	1
조선시대	분청사기		1	2	3				16	19
	백 자	1		14	15	2	2	4	45	64
	도 기			1	1				1	2
합 계		1	1	17	19	2	2	4	63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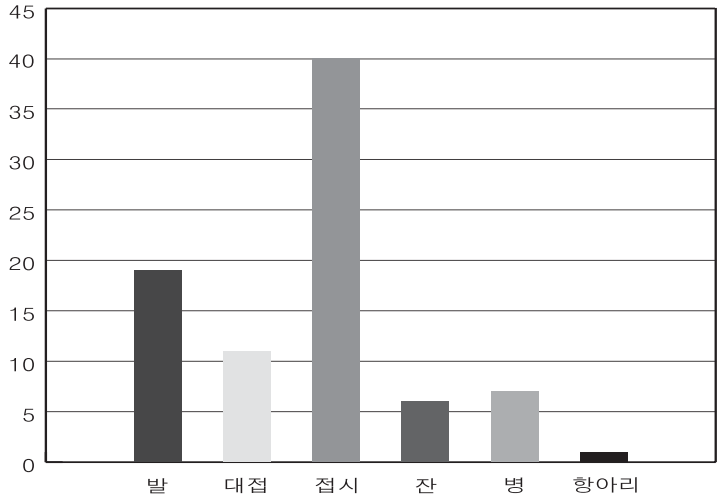
表14)에서 보면 지표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물이 수습되고 있으며 근대에 조성된 2棟의 건물지에서도 조선시대에 생산된 백자가 출토되고 있다.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청자편 1점을 제외하고는 분청사기와 백자류가 대다수이다. 특히 분청은 19점으로 22%의 점유율을 보이는 반면 백자류는 64점(73%)으로 主流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출토양상은 기형 복원이 불가능한 구연부와 동체부편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된다. 유구에서 출토된 도자기는 조선시대 3호 건물지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지만 출토유물의 수량에 있어 유구간의 편차가 심한 편이다. 이것은 정의현 관아가 운영되기 시작한 후 부속시설이 계속해서 축조되면서 이전시기에 조성된 유구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정의현 관아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대체로 후대 교란층에서 수습되고 있어 유구간 조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란층과 제토과정에서 수습된 도자기류를 중심으로 種類와 器種別로 분류하여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수습된 도자기의 器種을 살펴보면 발 · 대접 · 접시 · 잔 등이 대부분이며 지표에서 수습된 청자편과 분청사기의 경우에는 梅甁이나 壺의 동체부편도 확인된다. 다음의 表15)를 참고하면 발 · 대접 · 접시 · 잔은 飯床用器에 해당하는데 전체 출토유물 수량에서 약 90% 정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甁이나 항아리 등의 運搬이나 貯藏容器는 陶器로 대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백자의 접시와 잔의 경우에는 잔받침으로 사용되었던 '전접시' 와 몸체에 'S' 자 모양의 꽃잎이 장식된 '花形 盞' 이 포함되어 있다.

表15) 陶磁器의 器鍾別 出土樣相

기종		조선시대			근대		지표	계
		1호	2 · 4호	3호	1호	2호		
鉢	분청사기		1				2	19(22.6%)
	백 자			3	1	1	11	
大楪	분청사기						2	11(13.1%)
	백 자			5	1		3	
楪匙	분청사기	1		1		1	6	40(47.6%)
	백 자			6			25	
盞	분청사기							6(7.1%)
	백 자						6	
甁	청 자						1	7(8.3%)
	분청사기			1			5	
	백 자							
壺	분청사기						1	1(1.2%)
	백 자							
계		1	1	16	2	2	62	84(100%)



삽도 12. 陶磁器의 器種別 分類

한편 정의현 관아지에서 출토된 도자기의 경우 분청사기를 제외하면 거의 문양이 없는 것들이다. 분청사기는 象嵌 · 印花 · 剝地 · 彫花 · 귀얄 · 덤벙(粉粧) 등 모든 장식기법의 例가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귀얄과 덤벙기법으로 장식된 예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象嵌 粉靑沙器는 백상감으로 연잎무늬가 장식된 梅甁의 저부편 1점이 수습되었다. 인화기법의 문양장식은 대체로 문양이 조밀하지 않고 윤곽 역시 뚜렷치 못한 편이다. 또한 덤벙기법으로 장식된 유물 중에는 회백색의 粉靑釉가 두껍게 施釉되어 백자와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예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유물은 전라도 지방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생산되었는데 특히 전남 고흥 운대리의 가마터에서 많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74]. 분청과 백자류에 시문된 문양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16~17)과 같다.

74) 광주국립박물관, 1991, 『고흥운대리』, 77~31쪽.
강경숙, 1991, 『분청사기』, 96~99쪽, 대원사.

表16) 粉青沙器의 文樣 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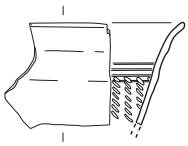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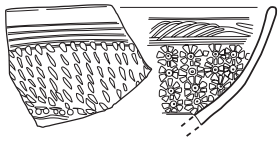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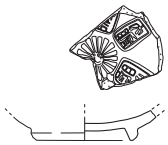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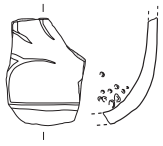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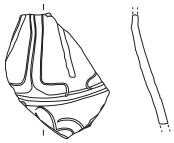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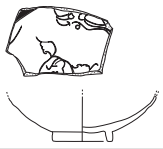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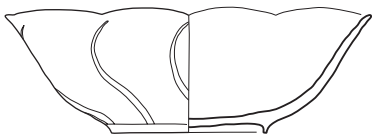
대접			
	승렴문(음각)		
접시			
	승렴문+국화문(음각)	인화문	
병			
	연꽃(상감)	박지모란(음각)	조화모란(음각)
항아리			
	조화엽문(음각)		

表17) 白磁의 文樣 分類

대접	
	음각장식
접시	
	화형문(음각)
잔	
	화형문(음각)

백자는 花形 楪匙를 제외하면 대부분 문양이 없는 무문양에 해당한다. 화형접시는 官窯白磁이며 동체부 외면 곳곳에 굵은 陰刻線으로 꽃잎이 장식되었다. 문양은 없지만 그릇 내외면에 銘文이 있는 例도 있다. 명문은 「內贍」銘이 있는 분청사기 접시편 1점을 제외하면 모두 백자에서 확인되고 있다. 백자의 명문은 그릇의 生産과 消費過程에서 기록된 것으로 구분된다. 前者는 陰刻銘인데 관요 생산품인 백자 발의 굽 바닥에 적힌 「庚子+左」銘을 들 수 있다. 後者는 붓으로 쓴 墨書銘과 뾰족한 도구로 쪼은 鉦刻銘이 있다. 묵서명은 「衣(?)」銘의 명문이 시문된 例가 1점 수습되었으며 정각명은 비교적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正」銘은 9점에 달하지만 나머지 「上+正」·「土」·「王+大」銘 백자는 각각 1점씩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토유물은 고려시대 청자 매병 동체부편 1점만 확인될 뿐 대부분 조선시대 도자기류가 수습되고 있다. 출토 및 수습된 도자기류를 살펴보면 크게 분청사기류와 백자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분청은 대체로 15~16세기대 제작된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15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상감분청과 15세기 중반에 해당하는 세련된 印花技法이 장식된 例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15세기대 후반 이후에 유행했던 분청사기류가 다수 수습되었는데 文樣構成이 간략화된 印花文이나 귀얄 및 덤벙

表18) 陶磁器의 製作과 特徵

도면 번호	유물	유색	태토	문양 및 명문		출토지	비고
				외면	내면		
61	청자 병	담록색	회색			지표	
65	분청사기 대접	옅은회색	회백색	덤벙	승렴문	〃	
68	분청사기 대접	회청색	회색			〃	
5	분청사기 대접	회청색	회색	귀얄	귀얄	2호 · 4호 조선시대 건물지	
66	분청사기 대접	유백색	회색	적갈색	덤벙	귀얄	지표
109	분청사기 대접	회색	회갈색		덤벙	〃	
59	분청사기 발	연회색	암회색	조화 엽문	조화 엽문	〃	
67	분청사기 접시	회백색	회색	귀얄		〃	
45	분청사기 접시	회청색	회색	귀얄		2호 와적시설	
69	분청사기 접시	연회색	암회색	승렴문	국화문	지표	
70	분청사기 접시	유백색	회색	덤벙	국화문	〃	
71	분청사기 접시	회청색	회색		귀얄	〃	
72	분청사기 접시	회갈색	회백색		덤벙	〃	
18	분청사기 접시	회녹색	회색	덤벙	귀얄	3호 조선시대 건물지	
73	분청사기 접시	회청색	회색		인화內贍	지표	지표
60	분청사기 매병	회청색	회갈색	상감연꽃		〃	
74	분청사기 매병	회청색	회백색			〃	
62	분청사기 병	회청색	회색	귀얄	귀얄	〃	
63	분청사기 병	회녹색	회색	박지모란		〃	
64	분청사기 병	회녹색	회백색	조화모란		〃	
17	분청사기 병	회녹색	회백색	귀얄		3호 조선시대 건물지	
75	백자 대접	회백색	회백색			지표	
76	백자 대접	회백색	회색		음각장식	〃	
110	백자 대접	백색	백색	庚子+左		〃	관요
29	백자 발	백색	회백색			3호 조선시대 건물지	
104	백자 발	회백색	회백색			지표	
105	백자 발	백색	백색			〃	
106	백자 발	회백색	회백색			〃	
30	백자 발	유백색	백색			3호 조선시대 건물지	
31	백자 발	회백색	회백색			〃	
98	백자 발	백색	백색	正		지표	
100	백자 발	회백색	회백색			〃	
113	백자 발	회백색	회백색			〃	관요
97	백자 발	백색	백색			〃	관요
102	백자 발	회적색	회적색			〃	
57	백자 발	회백색	회백색			2호 근대 건물지	
80	백자 화형접시	백색	백색	화형무늬		지표	관요
77	백자 접시	유백색	회백색	正		〃	
78	백자 접시	유백색	회백색			〃	
79	백자 접시	유백색	회백색			〃	
22	백자 접시	유백색	회백색			3호 조선시대 건물지	
23	백자 접시	회백색	회백색	正		〃	

도면 번호	유물	유색	태토	문양 및 명문		출토지	비고
				외면	내면		
24	백자 접시	회청색	회백색			3호 조선시대 건물지	
25	백자 접시	회백색	회백색			〃	관요
81	백자 접시	회백색	회백색	正+大		지표	관요
82	백자 접시	유백색	회백색			〃	
83	백자 접시	백색	백색			〃	관요
84	백자 접시	유백색	회갈색			〃	
85	백자 접시	유백색	회갈색			〃	
86	백자 전접시	백색	백색			〃	관요
87	백자 전접시	백색	회백색			〃	관요
107	백자 접시	백색	백색			〃	
19	백자 접시	백색	백색			3호 조선시대 건물지	관요
88	백자 접시	회백색	회백색		正	지표	
108	백자 접시	회백색	백색	正		〃	
89	백자 접시	회백색	회백색	正		〃	
99	백자 접시	백색	백색		衣(?)	〃	
111	백자 접시	회백색	회백색			〃	관요
112	백자 접시	백색	백색	正		〃	
114	백자 접시	백색	백색	正		〃	관요
115	백자 접시	회갈색	회갈색			〃	
116	백자 접시	회백색	회색			〃	
117	백자 접시	회백색	회백색			〃	
118	백자 접시	백색	백색		正+上	〃	
119	백자 접시	회청색	회백색			〃	
90	백자 접시	백색	백색			〃	
54	백자 접시	회청색	회백색			1호 근대 건물지	
58	백자 접시	유백색	회갈색			2호 근대 건물지	
53	백자 접시	회갈색	회갈색			1호 근대 건물지	
1	백자 접시	회백색	회갈색			1호 조선시대 건물지	
103	백자 접시	회백색	회백색			지표	
32	백자 접시	회백색	회백색			3호 조선시대 건물지	
20	백자 접시	백색	백색			〃	관요
26	백자 접시	백색	백색			〃	관요
27	백자 접시	백색	백색			〃	
28	백자 접시	백색	백색			〃	
21	백자 잔	유백색	회색			〃	
91	백자 잔	백색	백색	화형		지표	관요
101	백자 잔	백색	백색	正		〃	관요
92	백자 잔	백색	백색	正		〃	관요
93	백자 잔	회백색	회백색			〃	
94	백자 잔	백색	백색			〃	
95	백자 잔	백색	백색			〃	
96	백자 잔	회백색	회백색			〃	

문이 확인된다[75]. 즉 분청사기류는 15세기대 후반 이후의 도자기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분청사기류 중에서는 「內贍」銘이 시문된 접시편도 확인된다. 「내섬」명 접시는 기내면 바닥 중앙부에 꽃무늬를 두고 주변에 여러 개의 「내섬」명을 방사선형으로 押印하였다. 또한 문양 위에는 엷게 白土를 입힌 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잘 닦아내지 않았다. 이와같은 제작기법은 대체로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경에 주로 많이 사용된다[76].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정의현 관아지 출토 분청사기류는 대체로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기에 위치하는 도자기류가 대부분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정의현 관아지에서 출토된 분청사기류는 정의현 읍치 이설 후의 유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백자류를 살펴보면 15~19세기대 全期間에 걸쳐 제작된 도자기류가 수습되었다. 하지만 15세기와 19세기대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백자류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반해 조질의 백자가 다수 수습되었다. 이러한 백자는 죽절굽에 태토받침을 받치거나 오목굽과 평저에 굵은 모래를 받쳐 제작되었는데 대체로 16~17세기에 제작되는 백자의 제작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6~17세기대 경기도 광주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담청백색 혹은 설백색을 보이는 도립삼각형 굽의 상품 백자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동시기에는 광주지역에서 백자가 일부 유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전접시의 파편 2점이 수습되었는데 그 형태가 굽이 낮고 넓으며 기벽 측면이 바닥과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전접시는 대체로 16세기 후반~17세기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77]. 또한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명문백자가 출토되었는데 저부 바닥에 「庚子+左」銘이 시문된 관요백자 접시편이 수습되었다. 백자의 저부 바닥에 시문된 「庚子+左」명은 顯宗 1年(1660)에 해당한다. 이와 유사한 陶磁器片은 경기도 광주 유사리에서 「辛丑+左」銘, 「癸卯-右」銘과 함께 「庚(子)+左」銘이 출토된 바 있다[78]. 그 밖의 명문백자는 묵서명 1점과 정각명 12점도 확인된다. 묵서명은 굽이 시유되지 않은 죽절굽 백자에 해당하는데 15~16세기대까지 많이 출토된다. 반면 정각명은 16~17세기대까지 주로 제작되다가 이후부터 점차 소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79].

전술한 바와 같이 금번 발굴조사 결과 정의현 관아지에서 출토된 도자기류는 15~17세기대 제작된 유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15세기대 초반~중반과 18~19세기에 해당하는 도자기는 극히 적은 개체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금번 조사대상지에 위치한 官衙建築의 중심시기는 대략 15세기 후반~17세기대에 해당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80]. 특히 16~17세기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분청사기와 백자류가 다수를 차지하는 점은 금번 발굴조사 대상지의 축조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수습된 백자류는 연질백자와 경질백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경질백자의 다수는 관요백자에 해당한다. 관요백자 중에서 연대추정이 가능한 「庚子+左」銘이 확인(顯宗 1年, 1660)되어 정의현 관아지의 구체적인 編年과 관요백자의 需給關係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현승룡)

---

75) 정양모, 1991, 『한국의 도자기』, 330~341쪽.
76) 강경숙, 1989, 『한국도자사』, 285~289쪽.
77) 강경숙, 1989, 前揭書, 364~403쪽.
78) 윤용이, 2001, 「조선시대 분원의 성립과 변천연구」, 『한국도자사연구』, 405~406쪽.
79) 박연서, 2009, 『朝鮮時代 墨書・鉦刻銘 白磁 硏究』,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1~58쪽.
8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세기 초반~중반에 해당하는 유구에 대한 조사는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本考에서 同時期의 도자기류가 확인되지 않는 점은 當然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물지에 대한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자기류와 기와류(瓦)에 대한 검토에서도 同一한 樣相을 파악할 수 있다.

나. 瓦

瓦類는 총 94점이 출토되었는데 막새가 1점도 확인되지 않았고 수키와 39점, 암키와 55점 등 모두 평기와에 해당된다. 또한 銘文瓦는 27점이 수습되었다. 반면 문양기와를 살펴보면 크게 魚骨紋系, 同心圓紋系, 滄海波紋系 등으로 구분된다. 本考에서는 주로 銘文瓦에 대한 分析과 文樣別 分類[81]를 통해 기와의 제작연대와 사용시기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명문와 출토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表19)와 같다.

表19) 銘文瓦의 分類

分類 / 順番	銘文內容	個數		計
		수키와	암키와	
1	「○帶○」	3	1	4
2	「於道山造」	12	0	12
3	「玉○○」	1	1	2
4	「汗」	1	0	1
5	「甲寘西山」	0	4	4
6	「癸巳」	0	1	1
7	「癸丑開局」	0	1	1
8	「山下」	0	1	1
9	「申」	0	1	1
計		17	10	27

銘文瓦는 총 27점(수키와 17점, 암키와 10점)이 수습되었다. 表19)를 참고하면 명문와는 수키와 17점 중 「於道山造」銘 기와가 12점(70.6%)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帶○」銘이 3점, 「玉○○」과 「汗」銘이 각각 1점씩 확인되었다. 반면 암키와는 10점 중 「甲寘西山[82]」銘 기와가 4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帶○」·「癸巳」·「癸丑開局」·「山下」·「申」·「玉○」銘이 각각 1점씩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명문와의 분류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역시 「어도산조」명 기와가 12점(4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어도산조」명이 높은 분포율에도 불구하고 수키와에 限定되어 확인되며 대조적으로 암키와에서는 단 1점도 보이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83]. 반면 「○帶○」·「玉○」銘瓦는 암·수키와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어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명문와 중에서 「갑인서산」명와는 정의현 내아지[84]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어도산조」명와는 정의현 객사지[85]와 西歸鎭址[86]에서 출토된 例가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정의현 관아지에서 수습된 명문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表20)과 같다.

---

81) 銘文瓦 및 기와의 文樣變遷에 대한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다.
徐五善, 1985, 「韓國 平瓦紋樣의 時代的 變遷에 對한 硏究」, 忠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崔晶惠, 1996, 「高麗時代 평기와의 編年硏究-文樣形態를 中心으로-」, 慶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淸水信行, 1998, 「開泰寺址 출토 銘文瓦에 대한 一考察」, 『百濟硏究』28.
金炳熙, 2001, 「安城 奉業寺址 出土 高麗前期 銘文기와 硏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尹龍熙, 2001, 「南漢江流域 出土 高麗前期 평기와 考察-驪州 元香寺址 출토기와의 分析을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 碩士學位論文.
高在瑢, 2003, 「高麗~朝鮮時代 평기와의 變遷過程 硏究」, 崇實大學校 碩士學位論文.
崔英姬, 2003, 「江原地域 高麗時代 평기와에 관한 硏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李東駿, 2004, 「南陽州 瓦窯址 出土 朝鮮時代 평기와 硏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崔英姬, 2004, 「高麗時代 평기와의 屬性에 관한 檢討-江原地方 出土 遺物을 對象으로-」, 『江原考古學報』第3號.
金京範, 2005, 「춘천 봉의산성 평기와에 관한 연구-건물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江原考古學報』第6號.

82) 西山은 현재 朝天邑 咸德里 동쪽에 있는 犀牛峰을 이르는 옛 이름이다. 왜냐하면 1678~1700년경에 제작한 「耽羅圖」에는 '西山望' 으로 표기되었고 1702년에 제작한 『耽羅巡歷圖』중 「漢拏狀囑」에도 '서산망' 이라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타 옛 地圖에서도 '西山' 과 '西山烽' 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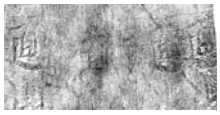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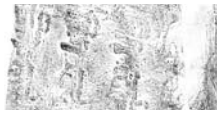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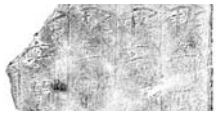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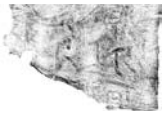
83) 최근 조사가 완료된 서귀진지에서 「어도산조」명 기와가 6점 출토되었는데 역시 모두 수키와에 한정되고 있어 참고된다. 서귀진지는 1589년 이설 후 축조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해당하는 기와임을 알 수가 있다(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도지정기념물 제55호 서귀진지 유적 문화유적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84)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b, 前揭書, 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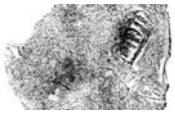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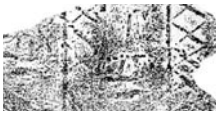
85) 濟州大學校博物館, 1995, 前揭書, 73~79쪽.

86)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前揭書, 65쪽.

表20) 銘文瓦의 種類別 特徵

圖面	出土位置	銘文 瓦	內容	拓本
34	1호 와적시설	「於道山造」	於道山에서 만들었다	
46	2호 와적시설	「癸丑開局」	癸丑年에 官衙를 설치(局)하여 그 업무를 시작하였다	
47	2호 와적시설	「於道山造」	於道山에서 만들었다	
48	2호 와적시설	「於道山造」	於道山에서 만들었다	
49	2호 와적시설	「帶」로 추정	帶	
50	2호 와적시설	「帶」로 추정	帶	
51	2호 와적시설	「癸巳」·「玉」	癸巳年[87], 아름다운 돌(玉)	
52	2호 와적시설	「甲寅西山」	甲寅年에 西山	
55	근대건물지	「甲寅西山」	甲寅年에 西山	
121	지표수습	「於道山造」	於道山에서 만들었다	
122	지표수습	「□道山造」(於道山造로 추정)	道山에서 만들었다	
123	지표수습	「(於)道山」	道山	
124	지표수습	「□道山□」(於道山造로 추정)	道山에서 만들었다	

87) 癸巳年은 成宗 4年(1473), 中宗 28年(1533), 宣祖 26年(1593), 孝宗 4年(1653), 肅宗 39年(1713), 英祖 49년(1773), 純祖 33년(1833) 중 하나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世宗 5年(1423)에 정의현 관아지를 현 성읍리로 옮긴 후부터 19세기까지 해당하기 때문이다.

圖面	出土位置	銘文 瓦	內容	拓本
125	지표수습	「玉」	아름다운 돌(玉)	
126	지표수습	「□道山□」(於道山造로 추정)	道山	
127	지표수습	「汗」으로 추정	땀(汗)	
128	지표수습	「□道山□」(於道山造로 추정)	道山	
129	지표수습	「□□道□」(於道山造로 추정)	道	
130	지표수습	「帶」로 추정	帶	
131	지표수습	「□□山□」(於道山造로 추정)	山	
132	지표수습	「□道山□」(於道山造로 추정)	도산	
133	지표수습	「玉」	아름다운 돌(玉)	
134	지표수습	「甲寅西山」	甲寅年에 西山	
135	지표수습	「申」으로 추정	申	
136	지표수습	「甲寅」	甲寅年	
137	지표수습	「山下」로 추정	山下	
138	지표수습	「帶」로 추정	帶	

本考에서는 명문와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扵道山造[88]」銘과 「癸丑開局[89]」銘瓦를 검토하고 同瓦의 山地와 年代를 살펴보고자 한다[90].

먼저 「어도산조」명와를 살펴보면 기와가 於道山에서 만들어졌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增補耽羅誌』 「濟州 - 面村 增」에는 '新右面에 小面으로는 貴日面・嚴莊面・涯月面이 있다. 3개의 소면 가운데 애월면에는 涯月・高內・下加樂・上加樂・納邑・於音非・夫面・於道內山・毛瑟浦・郭支를 합하면 10개 마을[91]' 이 있다. 이에 따르면 영조 41년(1785) 8월부터 영조 42년(1766) 6월 사이에 於道內山 ᄆᆞ을로 나타나고 있다. '扵' 자는 '於' 의 俗字에 해당한다. 따라서 扵道山은 於道內山에서 '內' 자가 탈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770년대 편찬된 『濟州三邑都摠地圖』를 참고하면 현재 어음2리 근처로부터 봉성리까지에 '머들곶・머흘곶(磊藪)' 이 표시되어 있다. 곧 봉성리에 가까운 곳에 '머들곶・머흘곶' 이라는 곶자왈이 있었다. 곶자왈지대는 제주도에서 땔감의 주요공급지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곶자왈 지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땔감이 서식하고 있다. 가마 번조시 가장 좋은 연료로는 화력이 센 소나무이고 다음이 잣나무 그 다음은 가시나무・잡목 순으로 알려져 있다[92].

또한 어도오름 주변의 토양도를 살펴보면 동귀-구엄-용흥토양군에 해당하는 비교적 양질의 점토층이 퇴적된 지역에 해당한다[93]. 즉 어도오름 일대는 비화산회토 지역으로 瓦窯址의 立地條件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94]. 따라서 제주 지역에서 와요지의 입지로는 기와생산에 필요한 물, 땔감, 점토 등의 공급이 원활한 지역[95]에 위치할 수 밖에 없다.

周知하다시피 와요지가 입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는데 어도오름 근처에 있는 '지세난못' 이 必要充分 條件을 충족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세난못' 지경이 구전에 따르면 '한때 기와를 굽던 터' 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96]. 특히 '지세난못' 은 '기와 굽던 터' 에서 물이 고여서 '연못' 을 이루었다고 마을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더욱이 '지세' 는 제주어로 '기와(瓦)' 를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어도산조」는 영조 41~42년(1765~1766) 사이에 나타나는 '於道內山' ᄆᆞ을의 '지세난못' 에서 만들었다는 명문으로 추정된다.

---

88) 정의현 관아지에서 출토된 「於道山造」銘瓦는 당시 관아건물에 올렸던 기와의 제작지를 陽刻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同瓦의 産地에 대한 검토를 통해 同時期 瓦窯址의 위치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89) 앞서 살펴보았듯이 「開丑開局」銘瓦는 관아건물의 개시연대를 기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90) 본고의 銘文瓦에 대한 判讀과 解釋은 同硏究院의 강창룡선생님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於道山造」・「癸丑開局」銘瓦의 山地와 編年에 대한 검토 역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에 감사드린다.

91) 『增補耽羅誌』, 「濟州 - 面村(增)」新右面 小面 貴日面 嚴莊面 涯月面,
涯月面 涯月 高內 下加樂 上加樂 納邑 於音非 夫面 於道內山 毛瑟浦 郭支 合十里.

92) 李京孝, 2010, 「朝鮮後期 濟州道 甕器硏究 -허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31쪽.

93) 동귀 - 구엄 - 용흥토양군은 土器의 原料가 되는 양질의 粘土層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어 선사시대에도 대규모 유적이 형성되는 條件으로 알려져 있다(農村振興廳 農業技術硏究所, 1976, 前揭書; 李淸圭, 1995, 『濟州島 考古學 硏究』, 200~201쪽). 이러한 양질의 미사질양토는 제주도의 서북부와 서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동북부와 동남부지역에서는 분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당시 기와 가마와 함께 甕器 등의 그릇을 제작했던 가마터는 주로 서북부~서남부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94) 이경효, 2000, 「제주전통가마」, 『제주전통도예』, 가시아히, 57~58쪽,
李京孝, 2010, 前揭書, 32~35쪽.

95) 유용수, 2005, 「경기지역의 조선시대 기와가마 연구 - 평택 칠원동 기와가마를 중심으로 -」,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9쪽.
제주지역의 경우 양질의 점토가 대체로 서북부~서남부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은 前述한 곳이 대상일 것이다. 따라서 동남부지역에 위치한 정의현 관아의 경우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원활한 공급은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96) 於道里(現 鳳城里) 마을 村老들에 따르면 '지세난못' 지경에 기와 가마터가 있었다고 전한다. 하지만 답사 결과 瓦窯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癸丑開局」銘瓦는 尊者庵址에서 1점이 출토된 바 있다. 현재까지 동일한 명문와는 존자암지와 정의현 관아지외에는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 지역의 기와를 비교 검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1996년에 발간한 『尊者庵址』보고서를 참고하면 5호 건물지에서 「天丑開啓」銘瓦가 출토되었다[97]. 하지만 재판독 결과 정의현 관아지에서 출토된 「癸丑開局」과 동일한 명문와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양 기와는 동일시기에 제작된 기와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정의현 관아지에서 출토된 명문와는 암키와인 반면 尊者庵址 출토 명문와는 수키와에 해당하며 각각 1점씩만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양 유적간의 연관성을 示唆해주고 있다. 즉 官廳으로서 정의현 관아와 宗教儀禮의 장소로서의 존자암지는 상호 보완적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존자암지 5호 건물지는 1차 시기 건물지로서 高麗末~朝鮮初(14~15世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면 정의현 관아지에서 수습된 「癸丑開局」銘瓦에 나타난 계축년은 곧 ① 世宗 15年(1433)과 ③ 成宗 24年(1493) 중 하나로 추정된다[98].

한편 『世宗實錄』에 따르면 '세종 4년(1422) 12월 23일에 성읍리로 옮겨서 세종 5년(1423) 정월 9일에 정의읍성을 쌓기 시작하여 정월 13일에 끝냈다' [99] 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정의읍성을 이설한 후인 1423년경부터 객사와 동헌 및 여러 관청을 축조하기 시작하여 완성한 것이 세종 15년(1433)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癸丑開局」銘瓦는 계축년인 세종 15년(1433)에 관아를 설치(局)[100]하고 그 업무를 시작하였다' 는 뜻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홍유손(중종 2년, 1507 정월)의 기록을 참고하면 '정의현의 세력이 있는 집안(大族)이 고치기 어려운 병(惡疾)이 많으므로 나올 자리에 빠지니 존자암은 허물어지고 없어진(廢墟) 까닭이다[101]' 라는 기록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정의현의 大族들이 존자암을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존자암지의 5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癸丑開局」銘 기와도 정의현의 대족들이 施主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객사지와 내아지에서 출토된 명문와를 살펴보면 다음의 表21)과 같다.

表21) 旌義縣 客舍 및 內衙址 出土 銘文瓦

順	遺蹟名	種類	銘文	銘文方向	文樣
1	客舍址	암키와	「甲寅西山[102]」	縱	格子+波狀
2		암키와	「庚衣式尾周」	縱	圓+格子+波狀
3		암키와	「甲子申二月」	縱	
4		암키와	「○糟○」	縱	魚骨
5		암키와	「酉」	縱	線
6		수키와	「○道山造」	縱	
7		수키와	「金○」	縱	
8	內衙址	암키와	「甲子申二月」	縱	
9		암키와	「甲寅西山」	縱	複合

97) 제주대학교박물관, 1996, 前揭書, 72~73쪽.
98) 정의현 邑治의 移設은 世宗 4年(1422)에 해당하므로 癸丑年은 결국 1423~1500년의 어느 시점으로 추정할 수 있다.
99) 『世宗實錄』, 世宗 4年 12月 乙巳條.
100) 局은 관청 또는 관아(官衙)를 의미한다. 따라서 開局은 관아가 설치되어 그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1) 洪裕孫, 1810, 前揭書.
102) 「갑인서산」명와는 정의현 객사와 내아지에 대한 보고서에서 「甲○六西山」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재판독 결과 「갑인서산」명으로 파악되어 本考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論議하고자 한다.

정의현 객사지와 내아지에서 출토된 銘文瓦 중에서 문양이 결합된 예는 9점 중에서 5점에 해당한다. 명문은 모두가 양각이며 우서이다. 관아지에서 출토된 명문과 동일한 내용은 객사지에서 「어도산조」명 수키와 1점만 확인된다. 반면 「甲子申二月」銘瓦는 객사지와 내아지에서 각각 확인되고 있으나 관아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銘文瓦 중에서 「어도산조」명와는 13점(관아지 12점, 객사지 1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수키와에 施文되어 있다. 반면에 「갑인서산」명와는 6점(관아지 2점, 객사지 1점, 내아지 1점)이 모두 암키와에 限定되고 있어 기와에 銘文을 시문할 당시 암 · 수키와의 구분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명문와 중에서 문양과 결합하는 기와는 4점이 확인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表2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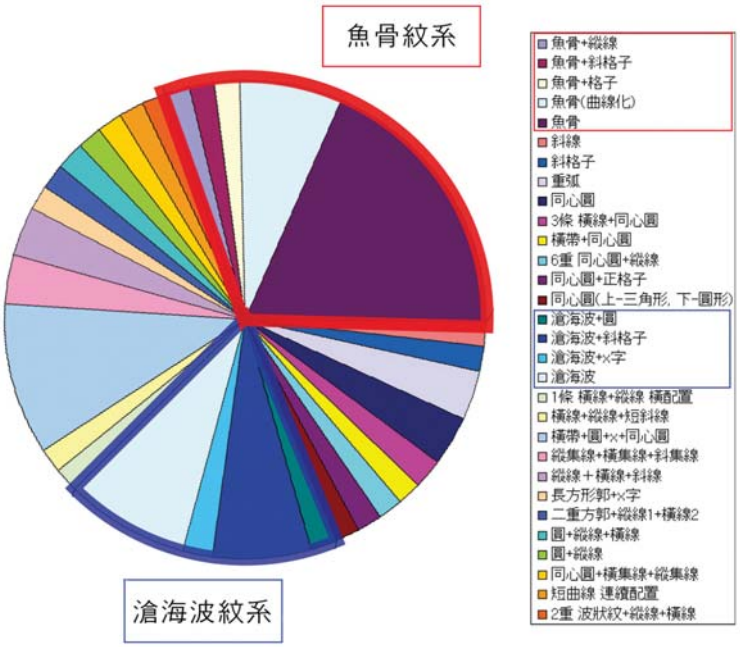
表22) 紋樣結合 銘文瓦

圖面	種類	色調	硬度	銘文	文樣
94	암키와	적갈색	硬質	癸丑開局	魚骨+斜格子
95	암키와	회갈색	硬質	甲寅西山	線(重弧)-명문右側
105	암키와	회　색	硬質	甲寅西山	滄海波+斜格子-명문右側
113	암키와	갈　색	硬質	○帶○	斜格子-명문右側 1條

명문기와 중에 문양과 결합된 기와는 모두 암키와이며 4점 중에서 2점이 「갑인서산」명와이다. 문양별로 구분하면 魚骨紋係 1점, 滄海波紋係 1점, 重弧紋係 1점, 斜格子紋係 1점이 각각 확인된다.

다음으로는 문양기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금번 발굴조사에서 수습된 기와(94점)의 경도를 살펴보면 硬質瓦 83점(88.3%), 軟質瓦 11점(11.7%)으로 경질이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태토는 사립이 混入된 粗質瓦는 62점이고 정선된 良質瓦는 32점으로 약 2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타날횟수는 대체적으로 6~7회 타날이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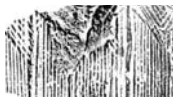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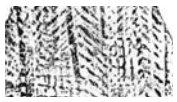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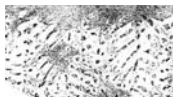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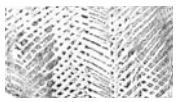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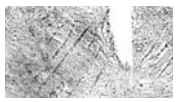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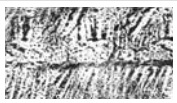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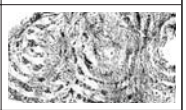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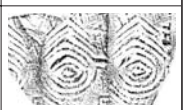
한편 문양을 살펴보면 무문양(8점)과 문양의 정형성이 없고 불분명한 기와(27점)를 제외하면 59점에 불과하다[103]. 문양와의 종류별 문양분류와 분포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表23) · 24)와 같다.



삽도 13. 紋樣瓦의 分類

103) 정의현 객사지(26점)와 내아지(22점)의 경우에도 수록된 기와편이 적어 상호 비교 검토가 어렵다.

表23) 紋樣瓦의 分類

區分 / 分類	細部 紋樣	拓本
魚骨紋系	魚骨＋縱線	
	魚骨＋斜格子	
	魚骨＋格子	
	魚骨(曲線化)	
	魚骨	
斜線紋系	斜線	
斜格子紋系	斜格子	
重弧紋系	重弧	
同心圓紋系	同心圓	
	3條 橫線＋同心圓	
	橫帶＋同心圓	
	6重 同心圓＋縱線	
	同心圓＋正格子	
	同心圓(上-三角形, 下-圓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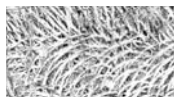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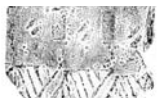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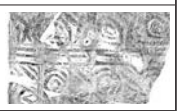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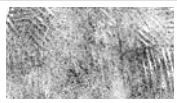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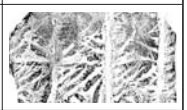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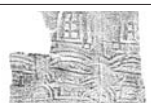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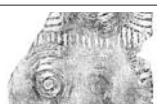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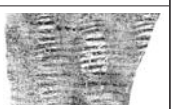
區分 / 分類	細部 紋樣	拓本
滄海波紋系	滄海波＋圓	
	滄海波＋斜格子	
	滄海波＋X字	
	滄海波	
複合紋系	1條 橫線＋縱線 橫配置	
	橫線＋縱線＋短斜線	
	橫帶＋圓＋X字＋同心圓	
	縱集線＋橫集線＋斜集線	
	縱線＋橫線＋斜線	
	長方形郭＋X字	
	二重方郭＋1條 縱線＋2條 橫線	
	圓＋縱線＋橫線	
	圓＋縱線	
	同心圓＋橫集線＋縱集線	
	短曲線 連續配置	
	2重 波狀紋＋縱線＋橫線	

表24) 紋樣瓦의 分布圖

區分 / 分類	細部 紋樣	個體數	計(%)
魚骨紋系	魚骨+縱線	1	18(19.1%)
	魚骨+斜格子	1	
	魚骨+格子	1	
	魚骨(曲線化)	4	
	魚骨	11	
斜線紋系	斜線	1	1(1.0%)
斜格子紋系	斜格子	1	1(1.0%)
重弧紋系	重弧	2	2(2.1%)
同心圓紋系	同心圓	2	7(7.4%)
	3條 橫線+同心圓	1	
	橫帶+同心圓	1	
	6重 同心圓+縱線	1	
	同心圓+正格子	1	
	同心圓(上-三角形, 下-圓形)	1	
滄海波紋系	滄海波+圓	1	11(11.7%)
	滄海波+斜格子	4	
	滄海波+X字	1	
	滄海波	5	
複合紋系	1條 橫線+縱線 橫配置	1	19(20.2%)
	橫線+縱線+短斜線	1	
	橫帶+圓+X字+同心圓	6	
	縱集線+橫集線+斜集線	2	
	縱線+橫線+斜線	2	
	長方形郭+X字	1	
	二重方郭+1條 縱線+2條 橫線	1	
	圓+縱線+橫線	1	
	圓+縱線	1	
	同心圓+橫集線+縱集線	1	
	短曲線 連續配置	1	
	2重 波狀紋+縱線+橫線	1	
無紋系	無紋樣	8	8(8.5%)
不分明	紋樣分類 不可	27	27(28.7%)
계			94(100%)

상기한 表24)를 참고하면 魚骨紋系 18점(19.1%), 同心圓紋系 7점(7.4%), 斜線紋系 1점(1.0%), 斜格子紋系 1점(1.0%), 重弧紋系 2점(2.1%), 滄海波紋系 11점(11.7%), 無紋 8점(8.5%) 등이 확인된다. 즉 어골문과 창해파문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어골문 중에서는 曲線化된 型式의 기와가 4점(4.1%)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 어골문과 함께 곡선화 과정으로 變移되는 양상이 看取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골문에서 창해파문으로 변화되는 형식으로 인식되고 있다[104]. 즉 平瓦중에 어골문계는 고려시대에 집중되지만 조선초기인 14~15세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창해파문계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양으로서 15세기 이후 주로 출현하고 있다.

換言하면 어골문계의 점유율이 높고 곡선화 과정이 확인되며 창해파문계의 점유율 역시 높은 점으로 볼 때 대략 15세기 이후에 해당하고 있음을 미루어 추정할 수 있다[105].

周知하다시피 앞서 文獻資料에 대한 검토 결과 1423년 정의현 邑治 이설 직후 기와건물이 축조되고 1498~1506년 사이에 초가건물로 1차 重修되었음을 살펴보았다[106]. 즉 1423년 이후~1498년까지는 기와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記事이다. 따라서 本考에서 살펴본 단일문양와의 主流가 어골문인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읍치 이설 후 축조된 건물에 얹었던 기와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04) 徐五善, 1985, 前揭書, 44~45쪽.
崔晶惠, 1996, 前揭書, 53쪽.
高在瑢, 2003, 前揭書, 38~39쪽.

105) 滄海波紋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양으로 認識되고 있는데 대략 15세기경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崔晶惠, 1996, 前揭書, 53쪽 ; 高在瑢, 2003, 前揭書, 39~43쪽).

106) 洪裕孫, 1810, 前揭書.
『中宗實錄』중종 20년(1525) 9월 甲申條.

반면 정형성이 확인되는 복합문계 기와는 19점이 수습되었다. 상기한 表24)를 참고하여 복합문 기와를 살펴보면 어골문의 변화과정으로 인식되는 同心圓紋(弧狀)系 기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복합문계 기와 역시 어골문계의 변화양상과 軌를 같이하고 있다.

한편 平瓦의 제작과 관련된 기와의 두께를 살펴보면 太線紋(線條紋)系는 대략 1.5㎝ 정도의 두께를 유지하다가 이후 魚骨紋系 단계는 0.5㎝ 가량 두터워진 2.0㎝ 내외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滄海波紋系는 다시 0.5㎝ 정도 더 넓어진 2.5㎝ 이상의 매우 두터운 기와로 성형되고 있다. 또한 격자문과 어골문계는 1/2과 1/3분할이 병행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창해파문계 단계에는 1/3분할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상·하단 분할면이 불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107].

前述한 바와 같이 정의현 관아지에서 출토된 기와는 어골문계에서 창해파문계로 轉換되는 단계에 해당한다[108]. 즉 어골문의 末期的 樣相인 곡선화 현상과 함께 창해파문이 일부 수습된 점을 고려한다면 대략 15C를 前後한 단계 이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문헌자료와의 검토를 통해 어골문계는 1423년 정의현 읍치 이설 이후 1次 重修 이전인 1423~1498년경에 해당하는 瓦家에 얹혔던 기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09]. 반면 1525~1659년과 1661~1701년 사이에 중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瓦家에는 창해파문계 기와가 사용되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김경주·김동한)

3. 旌義縣 官衙의 變遷

洪裕孫의 「旌義官舍重新記」에 의하면 1423년경 정의현 읍치를 城邑里로 移設 후 客舍와 東軒 등을 축조한 이래 1498~1506년 사이에 1차 重修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1525년에 화재로 인해 관아가 소실되었다. 따라서 1525년 이후 2차 중수가 진행되었다. 반면 화재에 대한 기록에서 草家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기와건물로 축조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차 중수건물은 초가였음을 알 수 있다[110]. 반대로 중수 이전에 축조된 관아는 瓦家임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1660년 제작된 「學校謄錄」에는 당시 관아의 건물이 초가로 기록되었는데 1702년 제작된 『耽羅巡歷圖』에는 다시 와가로 표현되고 있다. 즉 1660~1702년 사이에 초가에서 와가로 재차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111]. 따라서 1525~1660년의 건물 지붕형태는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앞서 건물지의 구조와 출토유물의 조합을 통해 2호 건물지를 17세기대 東軒址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2호 건물지의 명확한 규모와 배치는 물론이고 소속관계가 분명한 유물조차 수습하는데 실패하였다. 즉 현재의 자료를 갖고 동시기 건물구조와 성격을 규명하기에는 難題가 따른다. 아무튼 금번 발굴조사에서 건물의 구조를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2호 건물지가 유일하다. 따라서 同建物址의 특징을 바탕으로 추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周知의 事實이다.

우선 2호 건물지를 『耽羅巡歷圖』에 표현된 동헌지로 규정하는 것은 첫째 동건물지가 邑城의 서북쪽

107) 高在瑢, 2003, 前揭書, 36쪽.
108) 崔晶惠, 1996, 前揭書, 30쪽.
高在瑢, 2003, 前揭書, 42쪽.
109) 정의현 객사지 출토 어골문계 복합문의 사용연대를 14세기 이후로 추정하고 있어 참고된다(高在瑢, 2003, 前揭書, 42쪽).
110) 洪裕孫, 1810, 前揭書.
111) 李禧, 1660, 前揭書.

「衙」시설에 위치하는 점, 둘째 건물지의 坐向이 東向이라는 점, 세째 건물지의 규모를 살펴보면 측면이 2칸 구조로 축조된 점, 넷째 동건물지가 축조된 층위가 15~17세기대에 해당하며 조사과정에서 수습된 기와편과 도자기편 역시 大同小異한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5세기 후반까지는 기와건물이 존재했지만 15세기 후반~16세기 중반(1498~1525년경)까지는 기와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즉 2호 건물지 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1호 건물지와 함께 그 하부에서 확인되는 이전 건물지를 참고하면 결과적으로 2호 건물지는 16세기 후반(1525년 이후) 이후의 건물지에 속한다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동건물지는 1525~1660년대 중수된 瓦家이거나 1660~1702년경 중수되어 『耽羅巡歷圖』에 표현된 건물지에 해당한다. 특히 금번 발굴조사에서 수습된 도자기의 중심연대를 살펴보면 대체로 16~17세기대에 해당하는 점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112]. 따라서 2호 건물지의 축조연대에 대한 논의는 결국 두 時期를 상정할 수 있다.

한편 2호 와적시설은 출토된 명문와에 대한 검토 결과 15세기 후반(1473년)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113]. 즉 1498~1506년에 중수된 건물지는 초가인 점을 고려하면 1525년 이후에 해당한다. 따라서 1호 건물지의 경우 16세기 중반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와적시설 역시 이와 병행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후축된 2호 건물지는 17세기 중반 이후에 축조되었으며 『탐라순력도』에 표현된 동헌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정의현 관아지는 瓦家 → 草家 → 瓦家의 반복되는 중수로 인해 선축된 건물지가 파괴되거나 결실되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이후 객사와 동헌에 대한 파괴행위로 인해 18C 이후의 건물지군에 대한 규명은 어렵다. 하지만 「정의관사중신기」와 『탐라순력도』 등 문헌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아지의 변천양상을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잔존하는 유구의 규모와 성격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출토유물 역시 그 시기를 특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차후 주변 지역에 대한 확대조사를 통해 동헌지와 내아지 등 부속건물의 배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경주)

112) 금번 발굴조사에서 18세기대 이후의 퇴적층은 대부분 교란된 상태이다. 따라서 18세기 이전에 축조된 건물지에 해당하며 특히 16세기 중반~17세기 후반으로 특정할 수 있다. 또한 출토유물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16~17세기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대다수이고 18세기대 이후의 유물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도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하지만 기와의 경우 15~16세기대에 해당하는 유물의 점유율이 높은 점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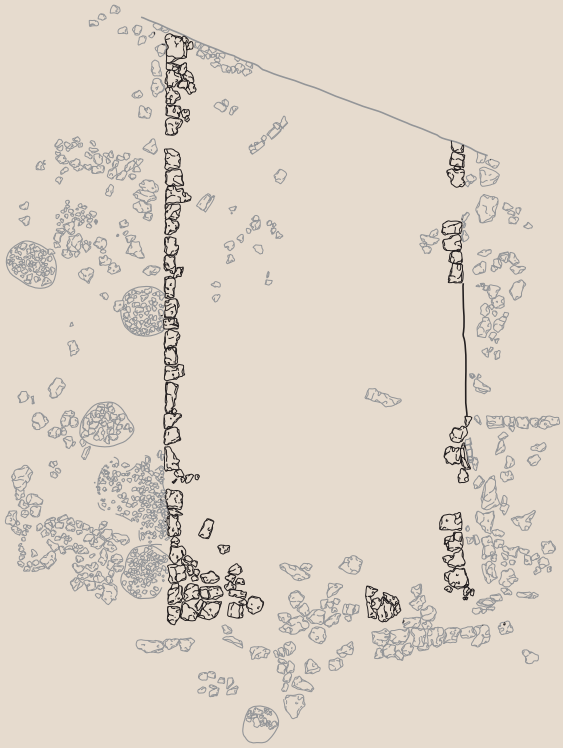
113) 2호 와적시설에서 동반 출토된 「癸丑開局」·「甲寅西山」·「癸巳」銘瓦에 대한 검토 결과 아무리 빨라도 1473~1504년경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533~1564년, 1593~1624년, 1653~1684년 중수시에 축조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1653~1684년의 경우 『耽羅巡歷圖』에 표현된 동헌과 일치하는데 와적시설이 2호 건물지와 둔각을 이루는 점을 고려하면 제외된다. 따라서 두 시기가 상정될 수 있다.



VI. 맺음말







VI. 맺음말

旌義縣 官衙址는 1423년 古城里에서 晉舍里(現 城邑里)로 邑治를 移設하여 정의현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즉 정의현의 조선시대 관청인 객사와 동헌 등 부속건물을 갖춘 행정조직으로 이루어졌다. 금번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읍치의 관아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가 이루어진 셈이다. 특히『耽羅巡歷圖』에 표현된 동헌인「近民軒」으로 추정되는 건물지에 대한 해석을 유추해내는 계기가 되었다.

정의현 관아의 동헌은 瓦家 → 草家 → 瓦家의 반복되는 重修와 改補修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아지의 변천양상은「旌義官舍重新記」,「學校謄錄」,『耽羅巡歷圖』등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1525~1660년경 중수된 건물지의 지붕구조를 文獻資料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문헌과 考古學的 자료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前述한 시기의 자료가 존재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더불어 銘文瓦에 대한 考察에서 특정할 만한 단계의 시기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출토된 유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 15~17C대 官衙施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의현 관아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문헌자료의 零星함을 고고학적 방법론과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여백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의현 관아지는 약 470년 가량 山南 東部地域의 행정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곳이다. 그러한 연유에는 주변의 地形地勢와 성읍리 일대를 휘돌아 흐르는 川尾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5백년 정의현 읍치에 대한 연구가 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면 명쾌하지는 못해도 역사적 사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濟州牧과 旌義縣 그리고 大靜縣은 조선시대 제주지역 정치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시설임에는 강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적복원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考證이 없는 복원은 또다른 過誤를 量産할 우려가 있다. 다음 순서는 대정현의 관아시설과 부속건물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될 것이다.